

건축사

Korean Architects

KIRA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동현창호 사옥

웅상문화체육센터

인회헌(仁會軒)

아름다운 교회

파주 열병합발전소 건축물 외관디자인 계획안

용산 국제업무지구 PF사업

467

http://www.kira.or.kr

200803

대한건축사협회발행. 2008년 03월호 통권 467호

Contents


19


26


35

건축사
Korean Architects

차례 2008 03 467호

칼럼	심의 유감(審議 遺憾)	백민석	10
시론	건축사! 무엇으로 사는가?	조충기	12
건축만평		유원재	15
회원작품	동현창호 사옥	신춘규	16
	웅상문화체육센터	심재호 · 김명홍	22
	인회헌(仁會軒)	박준영	30
	아름다운 교회	임대홍	38
작품노트	파주 열병합발전소 건축물 외관디자인 계획안	오혁근 · 백민석	42
계획작품	용산 국제업무지구 PF사업		48
현상설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청사		56
연재	설계품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完)	전한종	63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축담론(1)	홍순연	67
연구	일제강점기 근대도시의 도시공간구조와 변화특성에 대하여(上)	김득수	71
건축마당	협회소식		83
	건축계소식		89
	신간안내		90
지상강좌	알기쉬운 건축사진 촬영법	임정의	91
	통계		95
	해외잡지동향		96
	백민석_책을 말하다		104

발 행 인	한명수
편 집 위 원	조원용(편집국장), 민규암 · 김형수 · 임영석 · 유대근
취재 · 편집	최락청 팀장
발 행 처	대한건축사협회
주 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03 - 55 건축사회관
우 편 번 호	137-877
전 화	대표 (02)581-5711~4
팩 시 밀 리	(02)586-8823
인 터 넷	http: //www.kira.or.kr
인 쇄	(주)현대문화사 Tel : (02)2278-4482
광 고 문 의	홍보편찬팀

■월간 "건축사"는 한국간행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39


46


52

Korean Architects

Vol. **467**
March 2008

Column
Uncomfortable feeling on the design review — Baek,Min-seok — 10

Focus
Architects! What do they live with? — Cho, Chung-kee — 12

Cartoon — Yoo, Won-jai — 15

Works
Dong Hyun Window System Office Building — Shin, Chun-gyu — 16
Ungsang Culture & Sports Center — Shim, Jae-ho · Kim, Myung-hong — 22
Inhoeheon — Park, Jun-young — 30
Beautiful Church — Lim, Dae-heung — 38

Design Note
Paju Cogeneration Plant Exterior Design — Oh, Hyeok-geun · Baek,Min-seok — 42

Process Work
Yongsan International Business District — 48

Competition
Gwangju District Court Mokpo Branch Court — 56

Serial
Innovative Paradigm for Quality Improvement of Architectural Design(5) — Jun, Han-jong — 63
Discussion on Multifuntional administrative city(1) — Hong, Sun-yeon — 67

Study
Urban Spatial Structure of Modern City and the Changing Characteristics under the Japanese Rule — Kim, Deuk-soo — 71

Architects' Plaza
Kira News — 83
Archi-Net — 89
New Books — 90

Lecture
Easy Camera Technique for Architecture — Lim, Chung-eui — 91
Statistics — 95
Overseas Journal — 96
Book Review — 104

Publisher — Han, Myung-soo
Assistant Editor — Cho, Won-yong & Min, Gyu-am & Kim, Hyung-soo & Im, Yeong-seok & Yu, Dae-keun
Editor — Choi, Rak-chung
Publishing Office —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 1603-55, Seocho 1-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 137-877
Tel — (02)581-5711~4
Fax — (02)586-8823



백민석 / 정회원, ㈜건축사사무소 시그에이
by Baek,Min-seok, KIRA

약력
-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동대학 대학원 건축학과 및 건축공학 박사 수료
-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국립한경대학교 건축학부 겸임교수

심의 유감(審議 遺憾)

Uncomfortable feeling on the design review

대지소유주가 해당 대지에 건축을 하고자 한다면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의 해당 지침을 포함, 관계법과 규정을 고려, 건축주의 의견 조율과정이 완료되면 도서작성 후 해당 관청의 건축허가를 득하여 공사를 시작하면 된다. 이러한 절차에서 허가조건들 대부분이 공문서상에 공식적으로 이미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건축주로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심의' 과정이 필요한 대지의 경우는 얘기가 좀 다르다. 아니, 많이 다르다.

대부분의 건축사들은 한번쯤은 건축허가 이전에 심의를 받아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필자의 경우도 얼마 전 서울 시내와 저 멀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심의를 경험했는데, 심의 전 마음고생이 이만저만 심한 것이 아니었다. 대형 공동주택단지처럼 프로젝트의 규모가 큰 것도 아니고 10층 규모에도 미치지 못하는 근린생활시설인데도 그 과정은 무척 험난해 보였다. '어느 지역 심의는 기본이 3번이다', '해당 지역 심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건축사조차도 심의를 한 번에 통과하기 어렵다', '심의를 단번에 통과하려면 모 건축사사무소를 통해야 한다' 등의 심의와 관련한 수많은 루머가 떠돌고 있는 현실 속에서 도저히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다. 동일한 프로젝트로 심의에 도전(?)하는 것이 한두 번 횟수를 거듭하면 건축주와의 약속(계약)에 문제가 생긴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심의를 포함, 인허가 일정을 고려하여 건립관련 예산을 비롯한 관계 일정을 수립한다. 인허가 과정이야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건축사 입장에서 어느 정도 일정 조절이 가능하지만 심의의 경우 결코 예단할 수 없다. 건축주를 대행하여 대관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사 입장에서 명쾌하게 일정을 건축주에게 알려줄 수 없는 것, 이것이 심의절차의 함정인 것이다. 심의가 매일, 매주 있는 것도 아니고 지역에 따라서는 다음 심의일정이 한 달 혹은 그 이상의 시일이 지난 후 개최되는 것이 일쑤고 심지어는 심의신청 건이 하나 밖에 없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개최가 어려워 다른 심의신청 건이 접수될 때까지 마냥 대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듯 예측불허의 결과와 일정 속에서 건축주와 허가관청 가운데 끼인 건축사들만 엄청난 고생을 하는 것이다.

심의제도에 대해 무조건 탓하는 것은 아니다. 법이나 규정에 의해 제한되어 있는 기준을 심의과정을 통해 해당기준의 완화 적용이라는 보다 넓은 맥락에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임을 부인할 수 없다. 또 건축사는 심의과정을 거치면서 해당 건축물의 공공성 확보나 합리적인 디자인의 확보 등 설계자로서의 의지를 건축주에게 제안하면서 건축주를 설득할 수도 있다.

이렇듯 순기능과 역기능이 공존하는 심의제도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까?

지난 해 11월 대한건축사협회 주최,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주관으로 건축심의제도 개선 토론회가 개최된 바 있다.
이 때 다루어진 내용의 대부분은 공동주택 심의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최근 주류를 이루는 대형 공동주택 프로젝트도 중요하지만
소형건축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규모와 상관없이 건축주에게는 재산에 관한 문제이며,
이러한 건축물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우리의 생활환경이 조성됨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제적인 이윤의 극대화를 원하는 대부분의 건축주와 공공성을 강조하는 허가관청의 상반되는 입장을 모두 수용해야 하는 건축사는 건축주, 허가관청 모두를 상대로 설득의 과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양자 간의 입장차를 줄여가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근거' 이다. 그 근거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문서화 되어있는 법과 규정이며 관계 기관에 의한 문서화된 질의회신 또한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으나 질의회신의 대부분이 허가권자의 판단이 단서로 붙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그 효력이 반감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근거에 의한 건축주의 설득은 비교적 쉽게 이루어지지만 그 근거가 문서화 되어있지 않은, 즉 허가관청의 임의 판단(건축주 입장에서 임의 판단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내용을 말한다)에 근거하는 내용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건축주를 대행하는 건축사입장에서는 심의내용과 결과가 건축주를 설득할 수 있는 범위 혹은 내용이 필요하다. 추상적인 문구 혹은 별 다른 설명 없이 막연하게 '재심의' 혹은 '부동의', '부결' 등의 용어만이 심의결과로 제시된다면 난감할 수밖에 없다. 어느 정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제시를 해주어야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디자인의 속성 상 모든 사항을 문구로 표현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디자인의 질적 수준의 미달로 인한 결과는 표현하기 더욱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재산권을 논하는 건축주는 민원인이며 이러한 입장을 십분 고려한다면 구체적인 심의 결과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명확하게 정리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심의과정 공개를 전향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 어찌되었던 간에 건축주에게 심의 의도전달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심의 결과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해야 한다. 건축사들은 해당 지역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을 통해 설계안을 작성한다. 결국 심의내용은 이와 같은 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심의결과도 예측가능하다. 해당 가이드라인이나 지침과 그 의도와 관계없는 지적 역시 건축주(민원인)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렵다. 심의위원들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다. 전문가로서 비전문가를 효율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지난 해 11월 대한건축사협회 주최,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주관으로 건축심의제도 개선 토론회가 개최된 바 있다. 이 때 다루어진 내용의 대부분은 공동주택 심의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최근 주류를 이루는 대형 공동주택 프로젝트도 중요하지만 소형건축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규모와 상관없이 건축주에게는 재산에 관한 문제이며, 이러한 건축물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우리의 생활환경이 조성됨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조충기 / 정회원, 건축사사무소 간향
by Cho, Chung-kee, KIRA

약력
-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홍익대학교 대학원 건축설계
- 충북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2005)
-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건축사! 무엇으로 사는가?

Architects! What do they live with?

건축사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의 일상으로 주변을 둘러보자
" 변호사님! 이러한 일은 어떻게 되며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 회계사님! 우리 회사 매출은 얼마인데 세금은 얼마가 될까요?"
" 의사선생님! 머리도 아프고 가슴도 답답한데 무슨 병인가요? 약은 무엇을 먹으면 되지요?"
" 변리사님, 이 발명품은 특허가 되는지 알려주시고 특허 출원방법을 정리해주세요?"

상기의 물음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건축사는 충분히 알아야한다.
그럼, 계속 이어 가보자
" 건축사님! 대지 지번이 몇번인데요. 건평과 연면적은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한 술 더 떠서
" 그 가(假) 도면이란거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안될까요?"
" … ?"
이쯤 되면 건축사의 권위는 물론이고 그저 시키면 다해준다는 사람으로 밖에 보이진 않을 터!
건축사의 위치는 어디에도 없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기나긴 학력과 경력을 가진 자에게 건축사의 자격취득 기회를 주어 합격한 자에게 건축사자격을 부여하여 건축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참으로 알 수 없는 게… 우리의 사회는 변호사 없이도 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회계사 없이도 세무업무를 이행 할 수 있으나, 건축은 건축사의 날인 없이 허가접수조차 할 수 없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물으면 주저 없이 지식을 알려주고 그나마 도면마저 넘기려하는 모양새가 영 불편하다 못해 바보 같음은 나만의 시각인가?

알다시피 건축사자격 획득이 그렇게 만만히 취급되어도 되는지 우리 한번 반성이라도 해보자꾸나! 먼저, 건축사자격증을 얻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되돌아보자.(물론 지금까지의 통상적인 것으로 나열해본다.)

건축사가 되기위해서는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하고 본시험에 합격하여야한다. 그러면 건축사 예비시험의 자격기준은 무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기나긴 학력과 경력을 가진 자에게 건축사의 자격취득 기회를 주어
합격한 자에게 건축사자격을 부여하여 건축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내가 아니면 다른 누구의 건축사의 것이고
다른 누구의 건축사가 아니면 그 일은 내 것이 되거늘….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건축사 날인 없는 허가는 없다'는 그러한 특권마저 쥐어 주었으면
우리는 국가자격에 대한 모독은 말아야 않겠는가?
특권이라면 특권일진데 왜 그리 목말라하며
오로지 서비스에 서비스를 자청하는지 답답하기 그지없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존경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존경하겠는가?

엇인가?

1.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졸업예정자
2. 전문대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2년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
3. 고등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 하고 4년의 실무 경력 있는 자
4.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자

그러므로 건축사는 현재의 법으로 위 자격을 가진 사람이 5년의 기간 내 지속적인 실무경력을 가지고 예비시험에도 5년 기간내 합격하여야 한다.

즉, 건축사는 위 조건을 만족하는 자로서 5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이다 .

그러면 건축사 자격증을 획득하는 일반적인 연령은 어떻게 될까?

머나먼 기억일지는 몰라도 한번 더 되돌려보자.

통상적으로 초등학교는 8세, 중학교는 14세, 고등학교는 17세, 대학교는 20세에 입학한다.

따라서 초등학교는 1학년(8세), 2학년(9세), 3학년(10세), 4학년(11세), 5학년(12세), 6학년(13세) 그리고 중학교 1학년(14세), 2학년(15세), 3학년(16세), 고등학교도 1학년(17세), 2학년(18세), 3학년(19세)에, 대학교 1학년(20세), 2학년(21세), 3학년(22세), 4학년(23세– 군대입대자는 26). 여기에 더해 사회경력 1년(27세), 2년(28세), 3년(29세), 4년(30세), 5년(31세)… 대체로 어렵지만 첫 시험에 합격하면 32세이다. 통상적으로 3수 정도는 할 수밖에 없는 복합적인 문제로 보통 35세 전후에 합격된다. 대학졸업 후 10년이다!

자찬이지만, 누구나 될 수 없는 이 어려운 과정을 이겨낸 전문직이 바로 '건축사' 아닌가? 사정이 이러하니 다른 단체가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현재 건축사 사회의 청년이 40대가 아니던가? 이 어려운 과정을 거친 건축사가 서비스정신이 얼마나 투철했으면… 대 국민 봉사정신이 얼마나 투철했으면 당연히 받아야 할 건축사의 지식비용을 그냥 낭비하는지 그 속 한번 베어 찬찬히 살펴나 봤으면 … 내가 아니면 다른 누구의 건축사의 것이고 다른 누구의 건축사가 아니면 그 일은 내 것이 되거늘….

언젠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존경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존경하겠는가?"하고 말이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기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건축사 날인 없는 허가는 없다' 는 그러한 특권마저 쥐어 주었으면 우리는 국가자격에 대한 모독은 말아야 않겠는가? 내가 마다하면 건축사가 아닌자가 '허가' 라도 낸다던가?

특권이라면 특권일진데 왜 그리 목말라하며 오로지 서비스에 서비스를 자청하는지 답답하기 그지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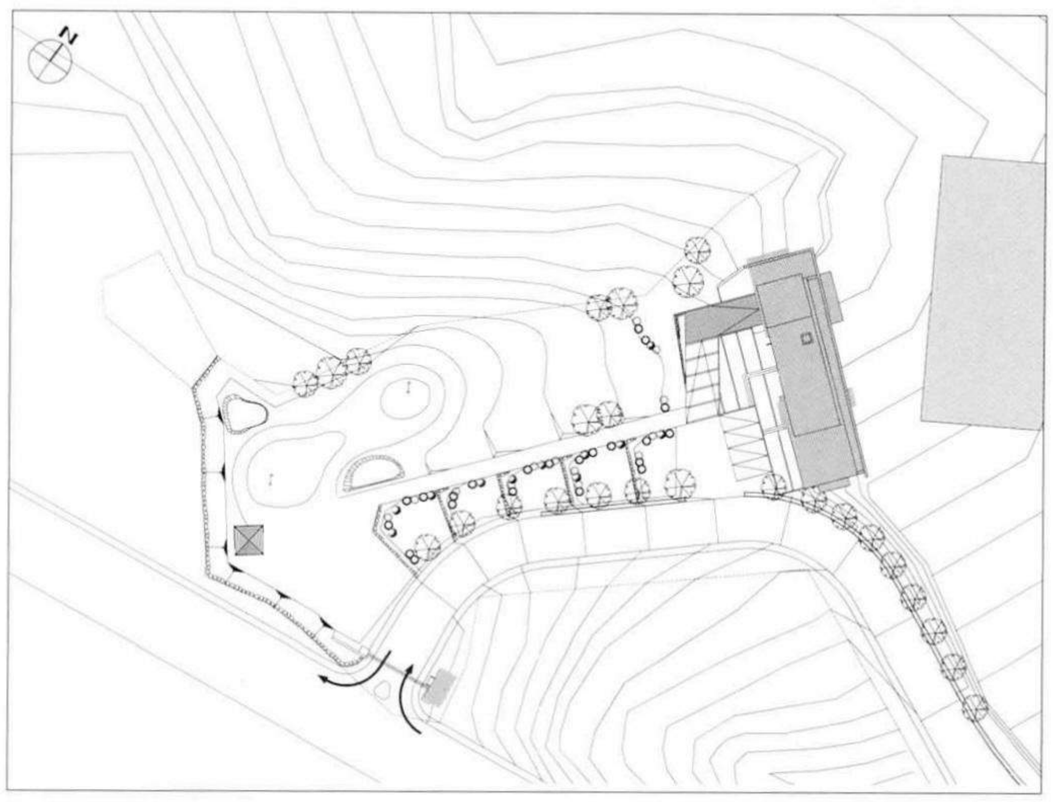


신춘규 / 정회원,
(주)건축사사무소 시그에이+태광 건축사사무소
by Shin, Chun-gyu , KIRA

약력
-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미 오하이오주립대 건축, 도시계획 석사
- 대한건축사협회 국제위원장

동현창호 사옥
Dong Hyun Window System Office Building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고은리 855-6
지역지구	관리지역
주요용도	사무동(공장)
대지면적	9,311.00㎡
건축면적	270.01㎡
연 면 적	645.22㎡
규 모	지상 3층
구 조	철근 콘크리트
내부마감	THK120 온돌위 온돌마루, 에폭시 코팅
외부마감	노출콘크리트, 적삼목 사이딩, 칼라강판, 알루미늄 시스템 창호 W, 22mm복층 단열 유리
구조설계	오성구조(대표 김신기)
전기설계	다우티이씨(대표 원상욱)
인테리어	(주)팀이십일건설 인테리어 사업부
시 공 자	(주)팀이십일건설(대표 이승용)
건 축 주	(주)동현창호
설계담당	김유홍(02-3453-0541)









Location	855-2, Goeun-ri, Iljuk-myeon, Anseong-si, Gyeonggi-do, Korea
Site area	9,311.00㎡
Bldg area	270.01㎡
Gross floor area	645.22㎡
Structure	R, C
Bldg. Scale	3F

1 2
3 4
2

1, 2, 3, 4_ 모형 2_ 전경

중부고속도로에 면해있는 완만한 산을 개발하여 조성한 약 8,000여 평의 부지에 계획된 소규모의 공장단지의 진입로 부분에 사옥의 부지로 계획되어 있었다.

공장 내부 진입로를 따라 길게 좌측으로 조성되어 있는 부지는 주 접근 도로와 중부 고속도로 방향으로 길게 경사지며 내려가고 있고 양 옆으로 인접부지에는 개발되기 어려운 숲으로 조성되어 있어 공장으로 진입하는 초입을 자연과 계획하기에 적절한 상태라고 생각했다.

후면으로 제1공장과 제2공장이 넓은 터를 차지하고 있어 사옥과는 단면적인 처리가 불가피했다. 이런 주어진 조건을 고려하여 초기에 크게 두 가지 생각으로 접근했다. 하나는 레벨을 이용한 단면의 구성을 우선하고 기능을 풀어나가는 방법으로 이 방법은 지형과 잘 어울리도록 계획할 수 있는 반면에 진입부분에서 건축주가 요구하는 상징적인 형태로의 접근이 약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레벨에 맞는 기능을 단면적으로 배치하고 고속도로에서 상징적인 형태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일자형의 직설적인 접근 방법이었다. 건축주와 의논 끝에 후자를 선택했다.

건축주가 요구한 프로그램은 전시장과 두 개의 사무실과 각 사무실이 공유할 수 있는 회의실, 식당과 휴게 공간, 그리고 사장실과 접견실, 개인 휴게 공간 등으로 크게 제시되었다. 이는 곧 층으로 구분되어 계획되어지도록 정리가 되었고, 대지상의 단면을 이용하여 전면에서는 전시장으로 직접 방문객들을 유입하고 후면의 공장동에서는 직원들이 2층의 사무실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계획이 되었다. 특히, 3층의 사장실은 직접 동선이 연계될 수 있다 하더라도 개인 휴게 공간은 쉽게 노출이 안 되도록 계획에서의 배려를 요구했다.

따라서, 평면은 공장과의 분리를 의미하는 'ㄱ' 자의 형태의 벽을 후면에 배치하고 그 전면에 프로그램을 장방형으로 배치한 후 벽을 오픈하거나 프로그램을 비우는 방식으로 각기 다른 기능들을 연계하고 나눌 수 있도록 계획했다. 'ㄱ' 자의 벽과 프로그램 사이를 계단으로 3층까지 연계되도록 배치하고, 2층 입구에 쌈지마당의 테라스를 두어 2층에서 두 개의 사무실이 구획되며 연계함과 동시에 3층에서도 사장집무실과 다른 실과의 공간구획을 하는 공간요소로 존재한다.

사옥으로의 주 진입은 건물의 전면 테라스 외곽을 따라 올라가며 'ㄱ' 자의 단부로 돌아 진입하는 데, 이는 진입 시 사옥과 고속도로와의 관계를 재인식하고, 입구에 연못과 작은 화단을 두어 진입의 시간을 지연하려는 의도로 계획되었다. 또한 전시실을 통해 접근이 가능한 전면 테라스는 많은 옥외 이벤트를 위해 계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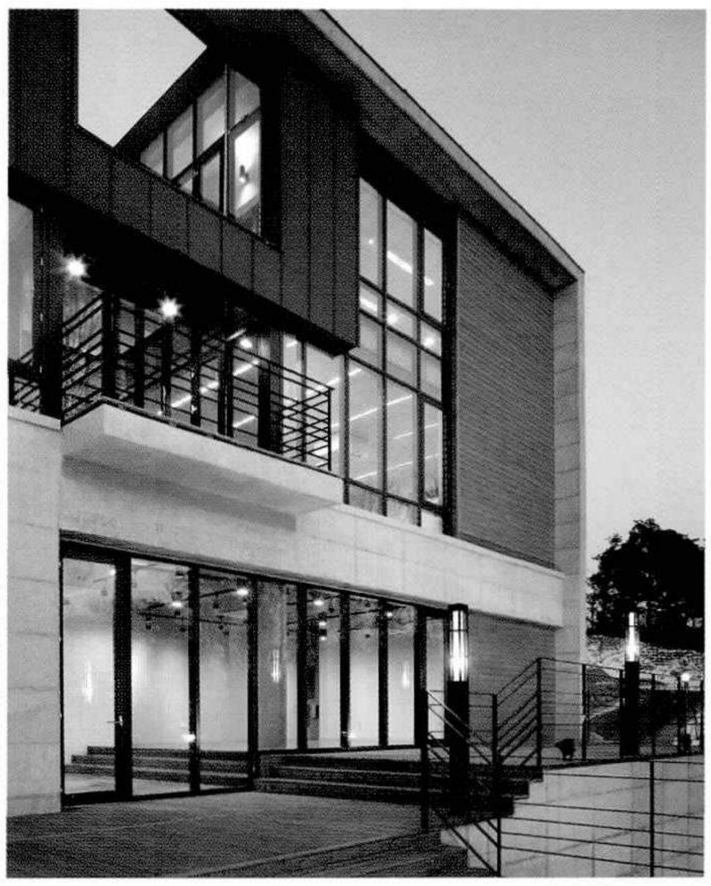
일자로 계획된 사옥은 내부에서 주변 환경을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창을 갖고 있고 충분한 채광과 환기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되었다.

고속도로와 그 너머 원경을 향해 열려있는 사옥은 움푹 파여진 테라스나 발코니,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창으로 주어진 경치를 감상할 수 있게 해주며, 공사기간 중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경험할 수 있었던 계절마다의 다양한 석양은 완성된 건물을 통해 살아 움직이고 공간의 생동감을 더해줌에 건축사로서 희열을 느끼고 이내 건축주에 대한 부러움과 시기가 가슴속에 자리잡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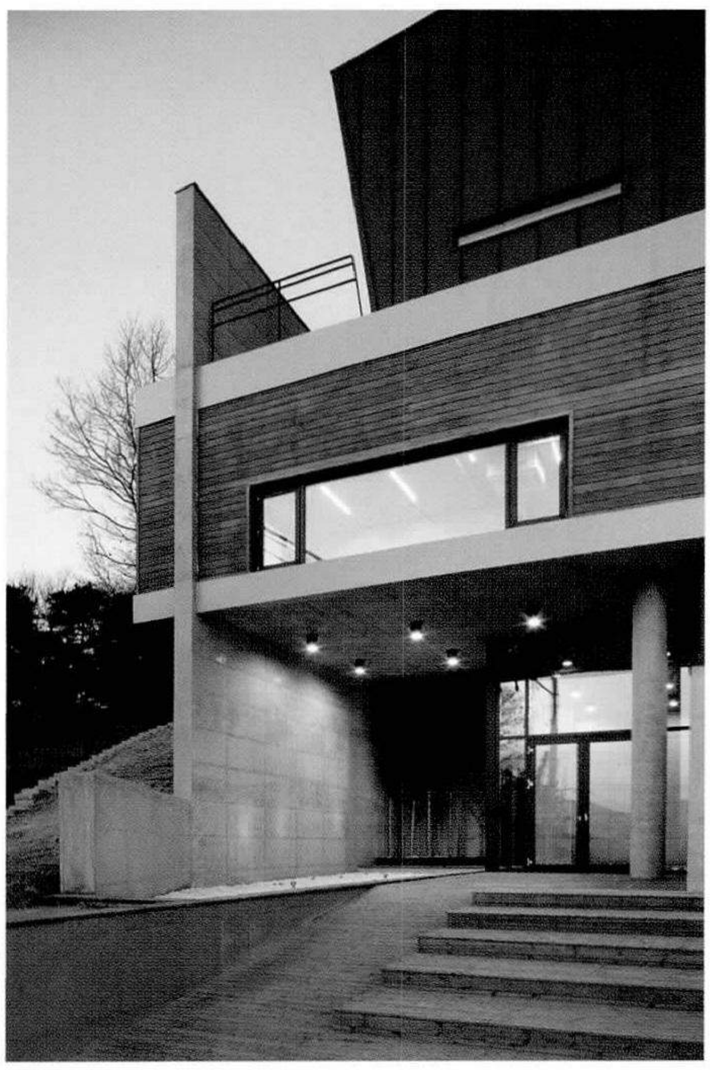
사진 | 박영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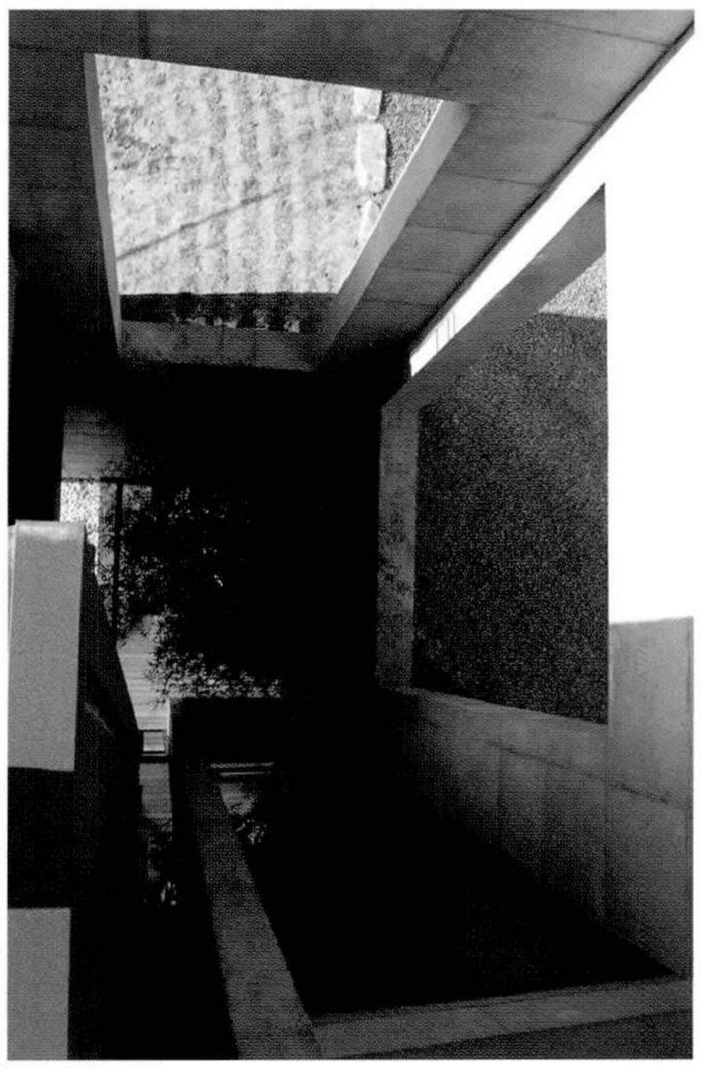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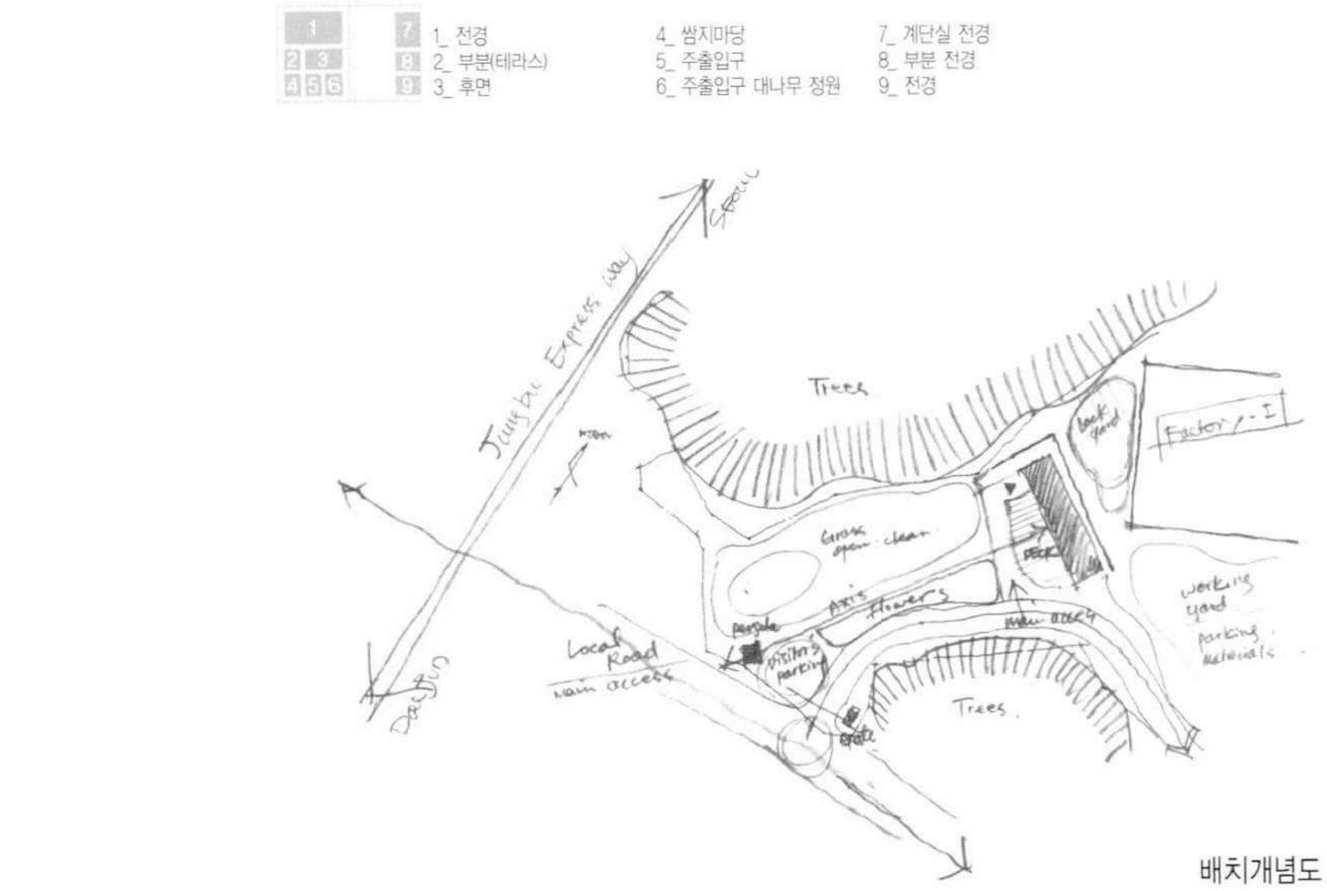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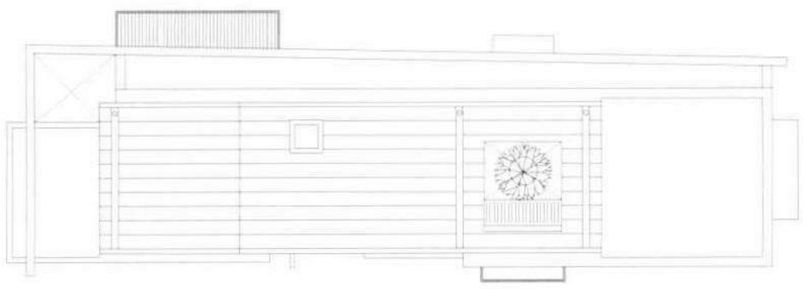






1_ 전경
2_ 부분(테라스)
3_ 후면
4_ 쌈지마당
5_ 주출입구
6_ 주출입구 대나무 정원
7_ 계단실 전경
8_ 부분 전경
9_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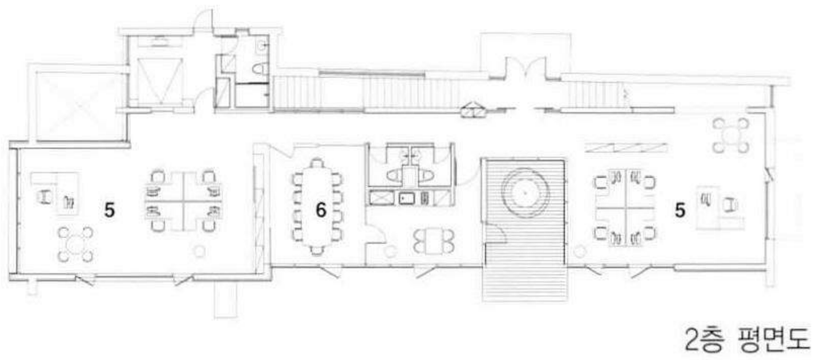
배치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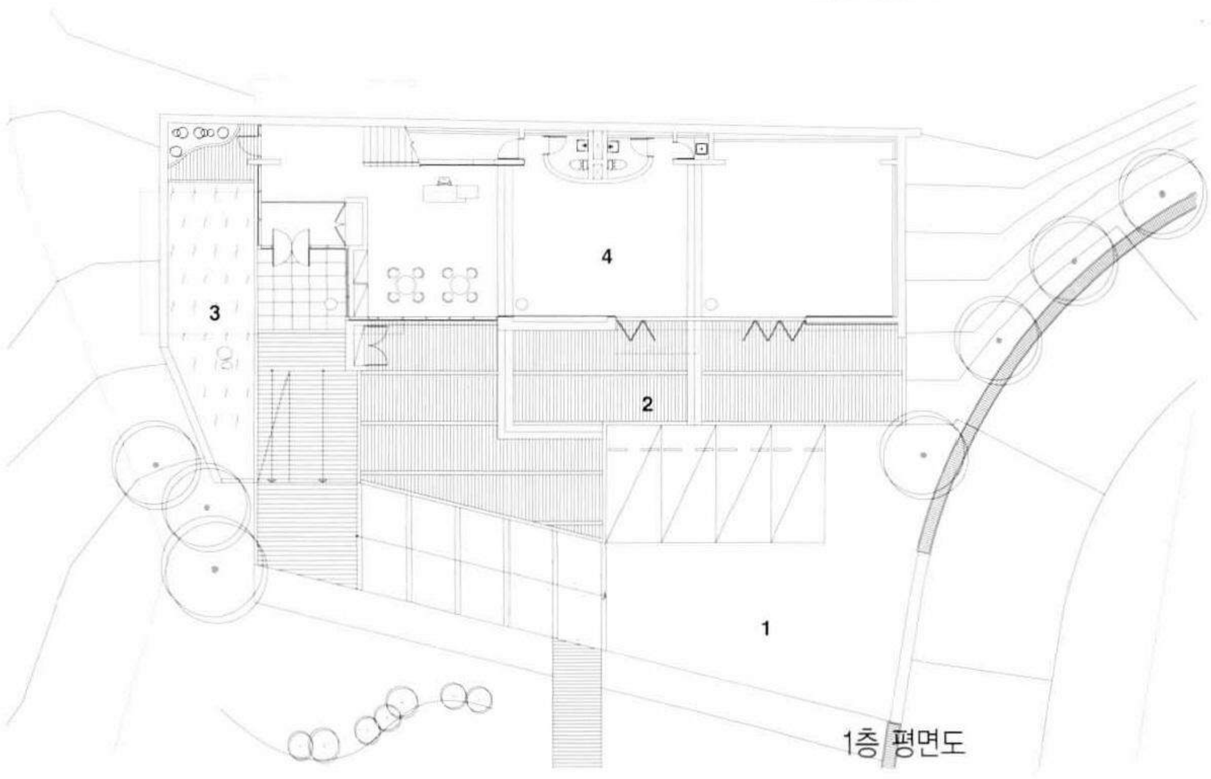
01_ 진입마당(주차장)
02_ 테라스
03_ 연못
04_ 전시실
05_ 사무실
06_ 회의실
07_ 사장실
08_ 라운지
09_ 휴게실

지붕층 평면도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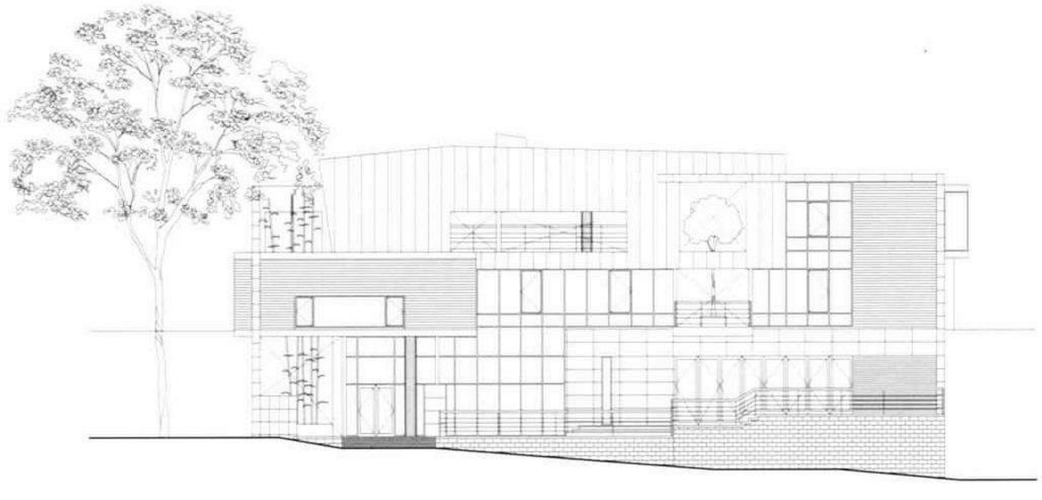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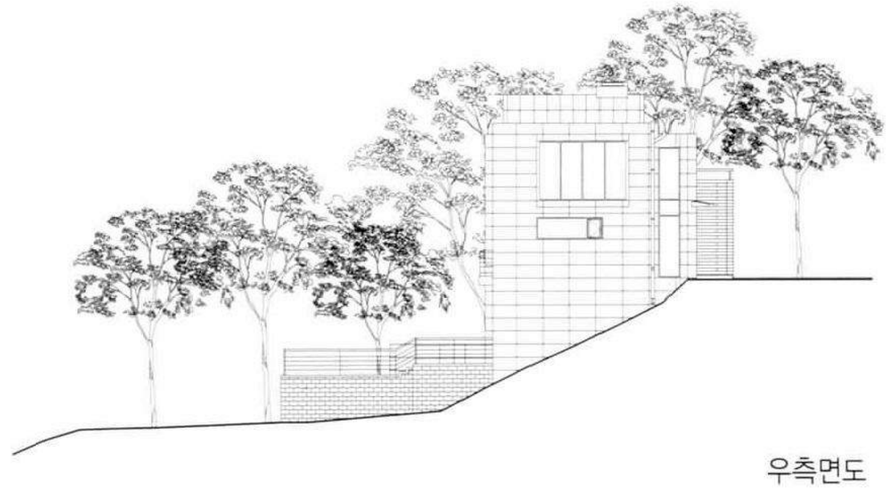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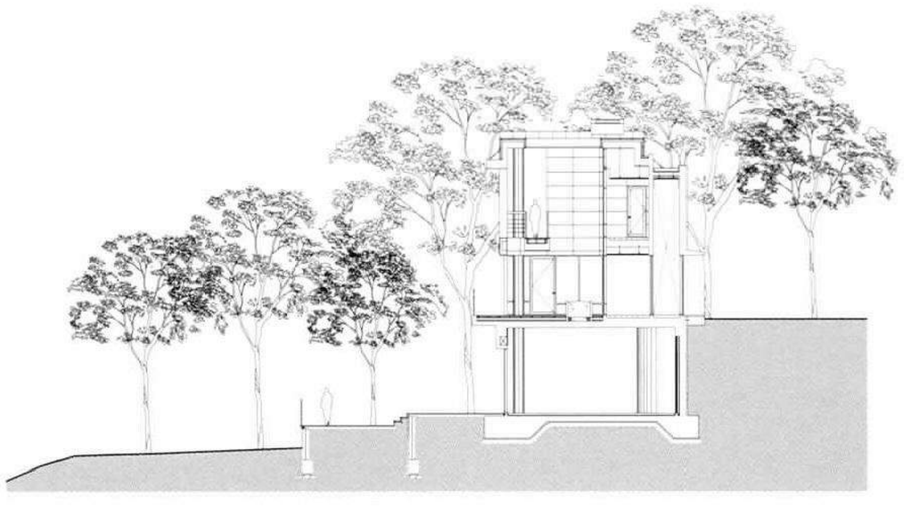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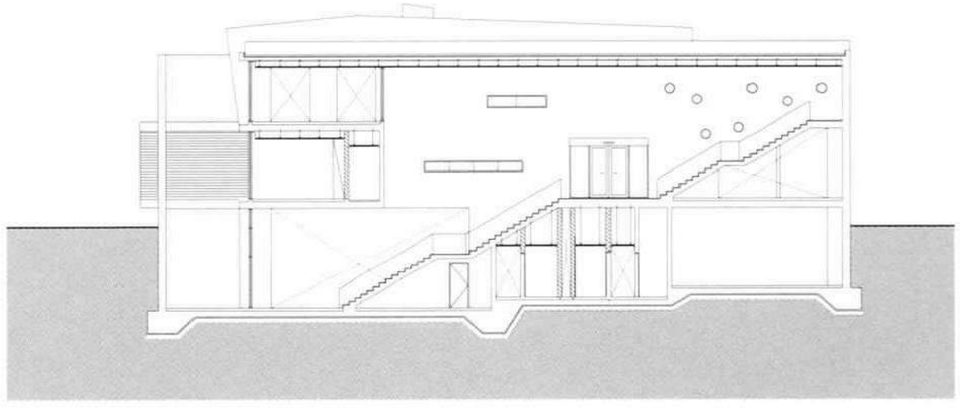
정면도



우측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1_ 1층 전시실
2_ 2층 전시실-1
3_ 2층 사무실-2
4_ 3층 사무실
5_ 3층 사장실
6_ 3층 개인 휴게실
7_ 3층 라운지

웅상문화체육센터
Ungsang Culture & Sports Center



심재호 / 정회원,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범건축
by Shim, Jae-ho, KI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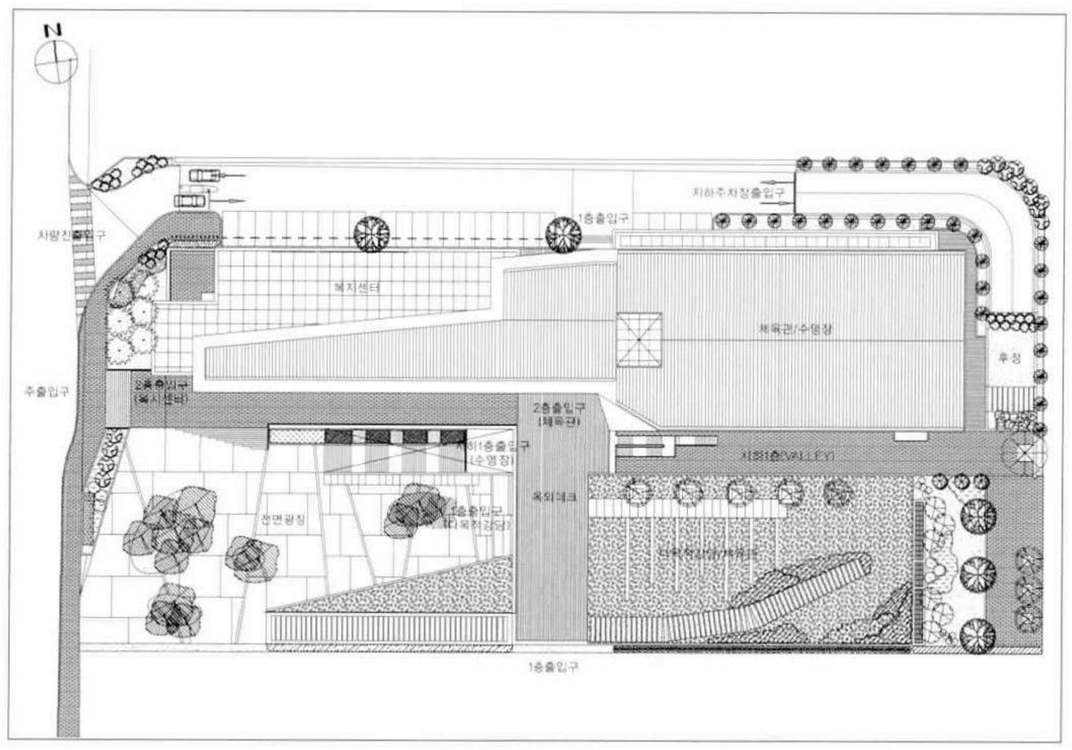
약력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 (주)현대건설, (주)동부건설
- 주요작품 : 경기도 파주 영어마을, 송도신도시컨벤션센터, 행정중심복합도시 정부청사 1단계건립 국제 설계경기 당선 등 다수



김명홍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범건축
by Kim, Myung-hong

약력
- 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 동대학 대학원 건축공학과
- 주요작품 : 항공우주연구원, 두산인프라코어 R&D 센터, 행정중심복합도시 정부청사 1단계건립 국제 설계경기 당선 등 다수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상남도 양산시 주진동 72-6
지역지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주요용도	운동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대지면적	10,000.00㎡
건축면적	4,595.84㎡
연 면 적	14,318.07㎡
건 폐 율	45.96%
용 적 률	79.01%
규 모	지하 2층, 지상 4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외부마감	노출콘크리트, LOW-E 복층유리, 고밀도목재패널, 알루미늄 Anodized Sheet, Polycarbonate Panel, IPE
구조설계	주식회사 창민우구조컨설탄트
설비설계	(주)성아엔지니어링
전기설계	한양전설(주)
시 공 자	(주)태영건설
설계담당	윤영로, 박현규, 이상용, 안종훈, 신수미



Location	72-6, Jujin-dong, Yangsan-si, Gyeongsangnam-do, Korea
Site area	10,000.00㎡
Bldg area	4,595.84㎡
Gross floor area	14,318.07㎡
Bldg. coverage ratio	45.96%
Gross floor ratio	79.01%
Structure	RC+SRC
Bldg. Scale	B2, 4F

1_ 주출입구 2_ 야경 전경

부산과 울산을 잇는 7번국도변, 천성산을 배경으로 자연속에 조금은 큰 스케일인 듯한 건물을 발견할 수 있다. 지금은 천성산과 대운산을 잇는 자연의 흐름속에 위치하지만 아쉽게도 머지않아 도시의 새로운 질서속에 이 건물이 서 있게 될 것이다.

대지는 140mX70m의 도시적 블록형태이지만, 설계당시는 경계가 모호한 12m의 고저차를 갖는 자연지형의 경사지였다. 주변은 3면으로 도로가 계획되어 있고, 전면의 인접대지는 지방사무소가 들어설 예정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지역은 양산의 새로운 도심으로 탈바꿈할 것이다.

자연의 훼손은 건축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처음 만난 자연의 흔적을 어떻게든 표현해야 했다. 경사지를 이용하면 광장과 옥상의 경계를 없애고 그위에 다시 자연을 돌려 놓을 수 있다. 경제성도 얻고 외부공간을 확장하는 효과도 있다. 시민들은 이 경사광장을 이용하면서 자연스럽게 각 프로그램에 도달하며 다양한 스케일의 공간적 체험도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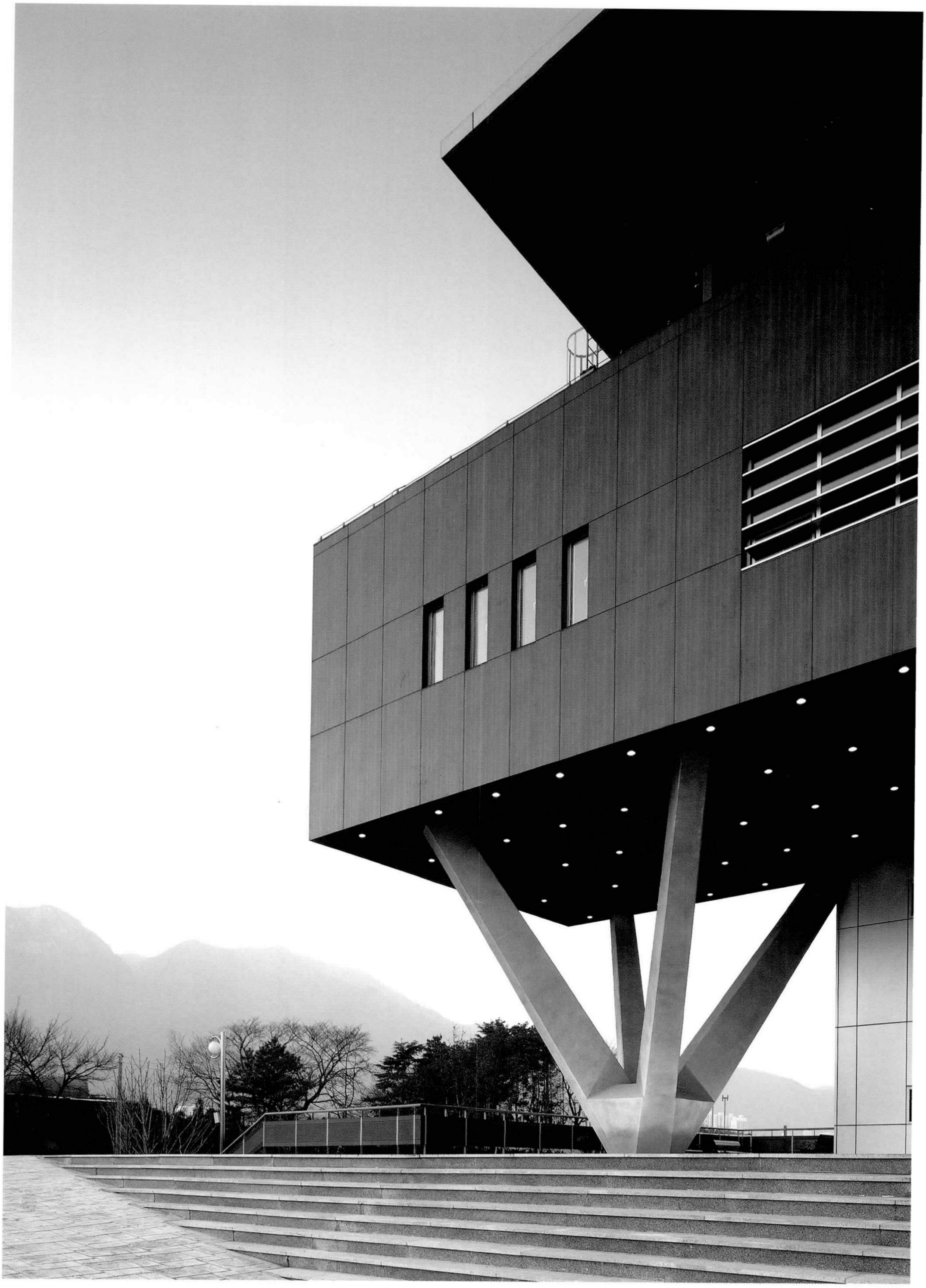
이건물은 체육문화복합시설로서 체육관, 수영장, 피트니스, 공연장, 전시실, 사무실 등 상당히 큰 볼륨의 프로그램 매스를 갖는다. 이러한 큰 매스를 경사지를 따라 적절한 사잇공간들을 두면서 배치하여 외부공간들은 길이 되고, 마당이 되고, 광장이 되어서 또하나의 마을을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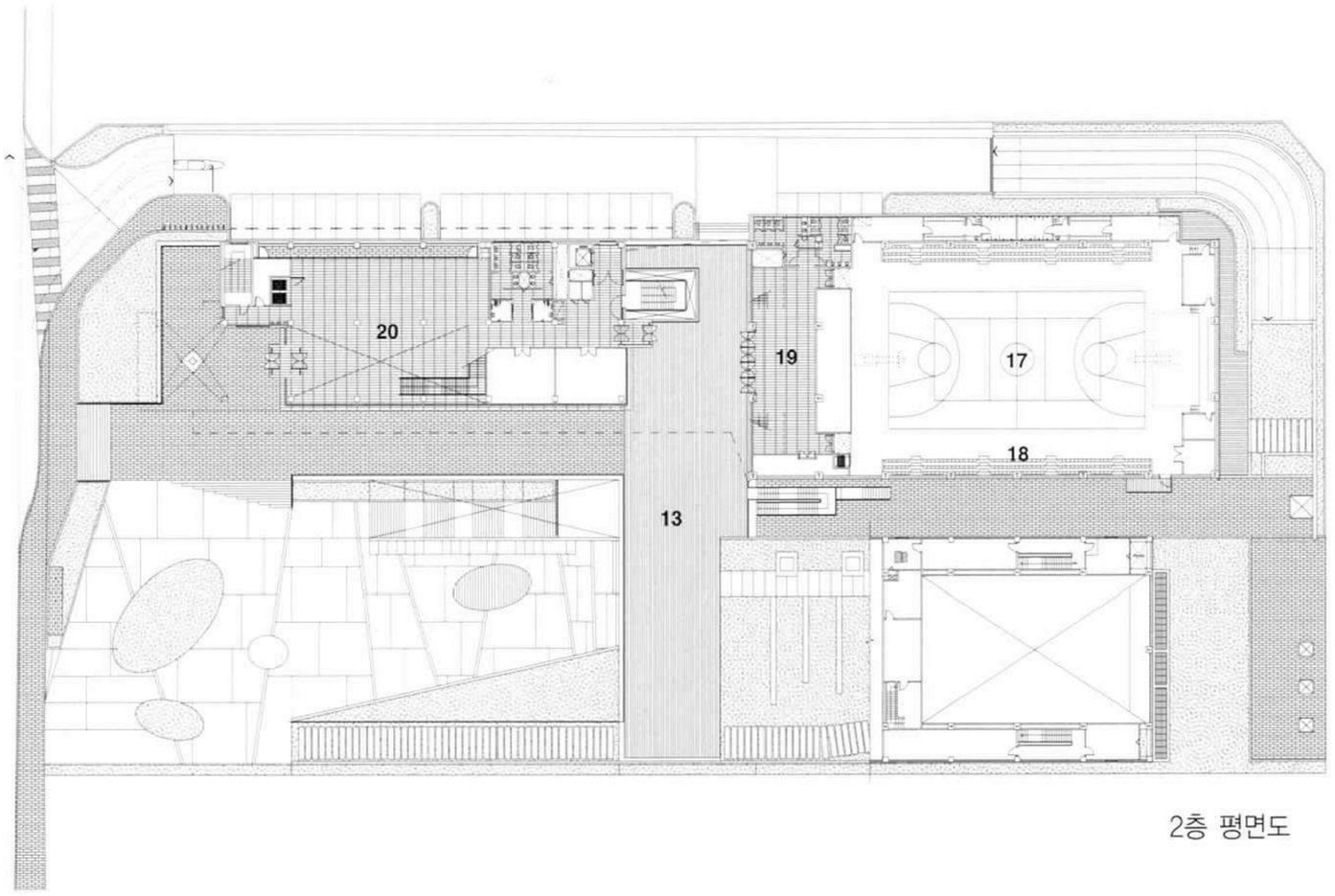
건물의 매스는 지면에서 부상시키고 전면도로측으로 방향성을 갖도록 하여 도시와의 긴장된 관계를 만들고, 전면광장, 옥상정원과 대비되는 활력있는 모습이다.

건축은 미완의 이데올로기라고 한다. 항상 생각했던 것과 결과는 다르다. 이젠 현실과 결과에 초연하고 싶다. 설계는 하였지만 감리는 못했다. 조만간 남녀노소 주민들이 어우러진 따뜻한 그림을 보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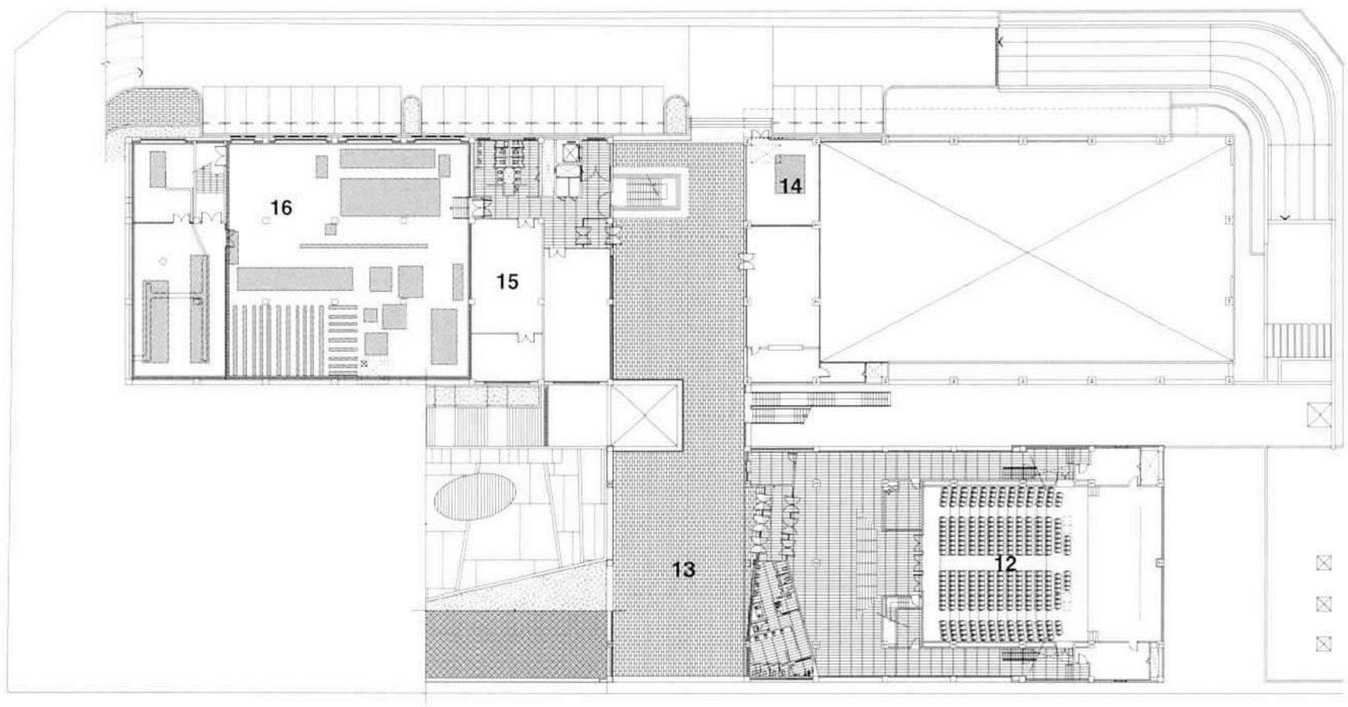


사진 | 이기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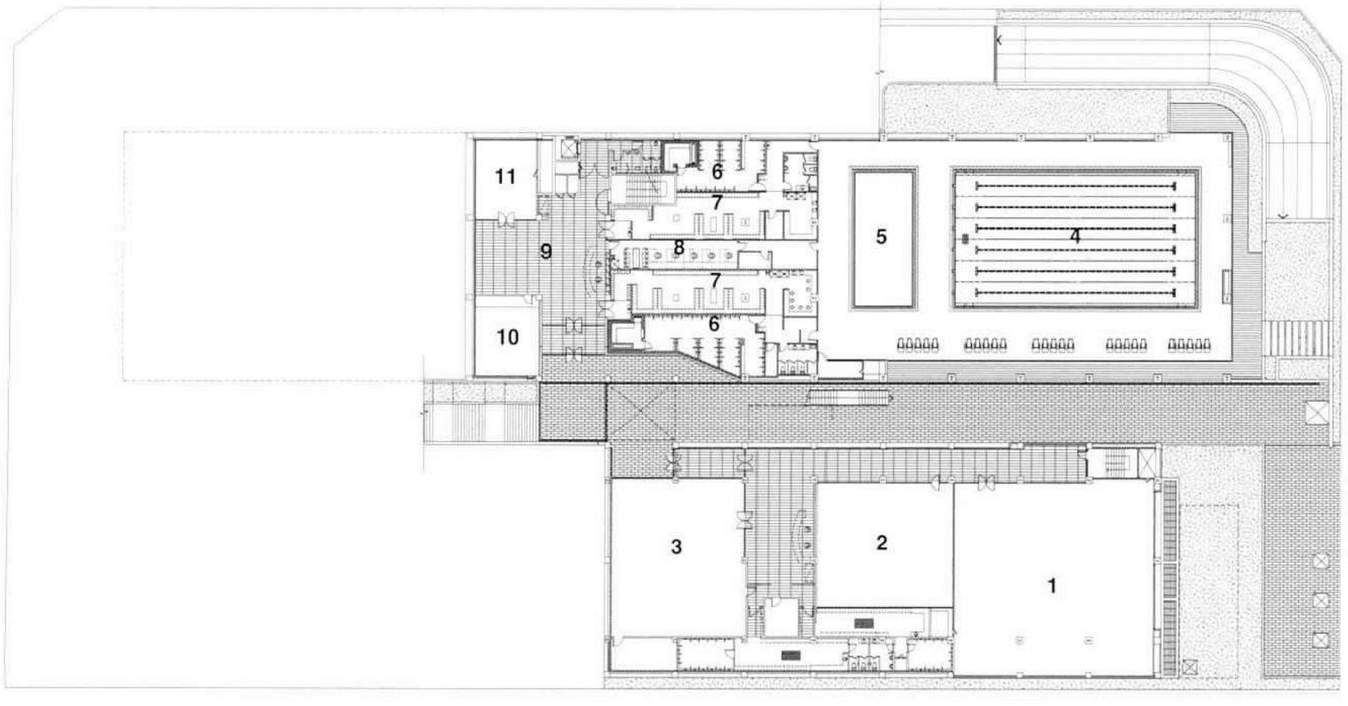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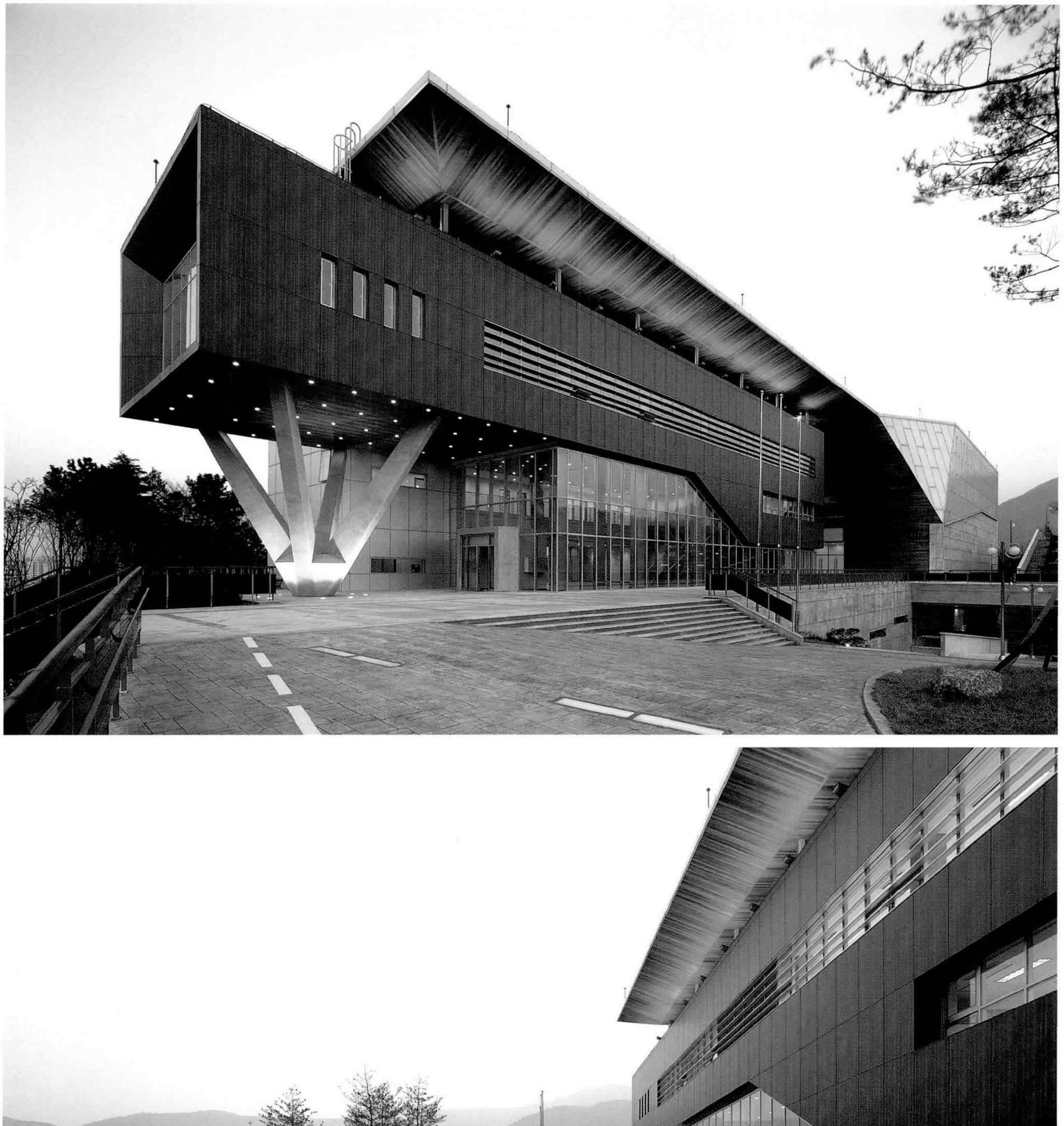
01_ 체력단련실
02_ 골프연습장
03_ 에어로빅룸
04_ 수영장
05_ 유아풀
06_ 샤워실, 사우나
07_ 탈의실
08_ 사무실, 의무실
09_ 대기홀
10_ 탁아놀이방
11_ 스포츠용품점
12_ 다목적강당
13_ 옥외데크
14_ 공조실
15_ 방재센터
16_ 기계실
17_ 체육관
18_ 관람석
19_ 로비
20_ 홀 및 전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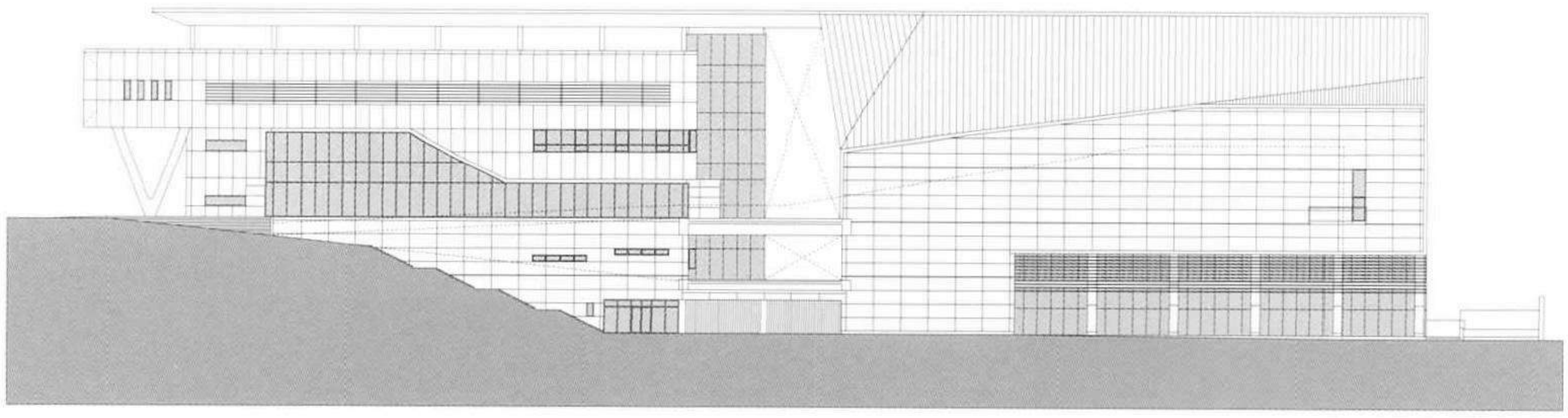
1_ 복지센터

0 5 10 2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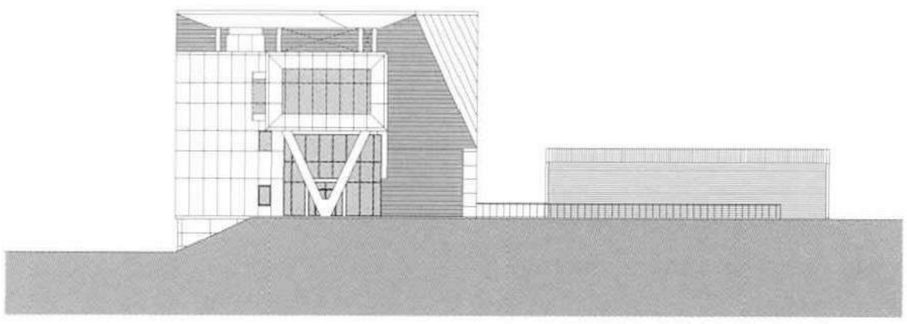
1_ 남서측 전경
2_ 밸리 I
3_ 중앙데크







남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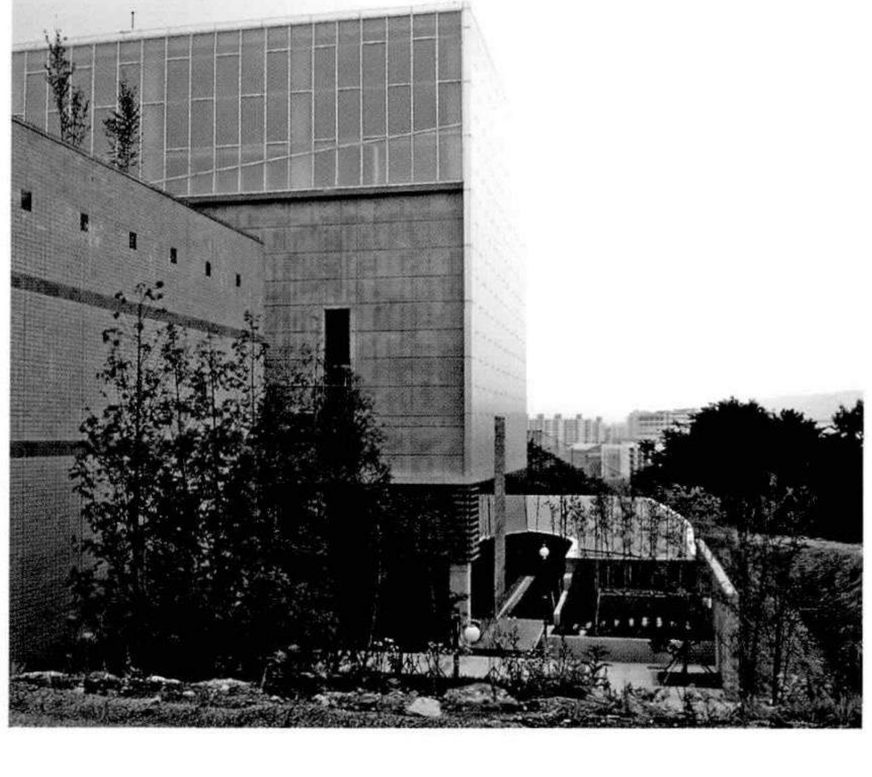
서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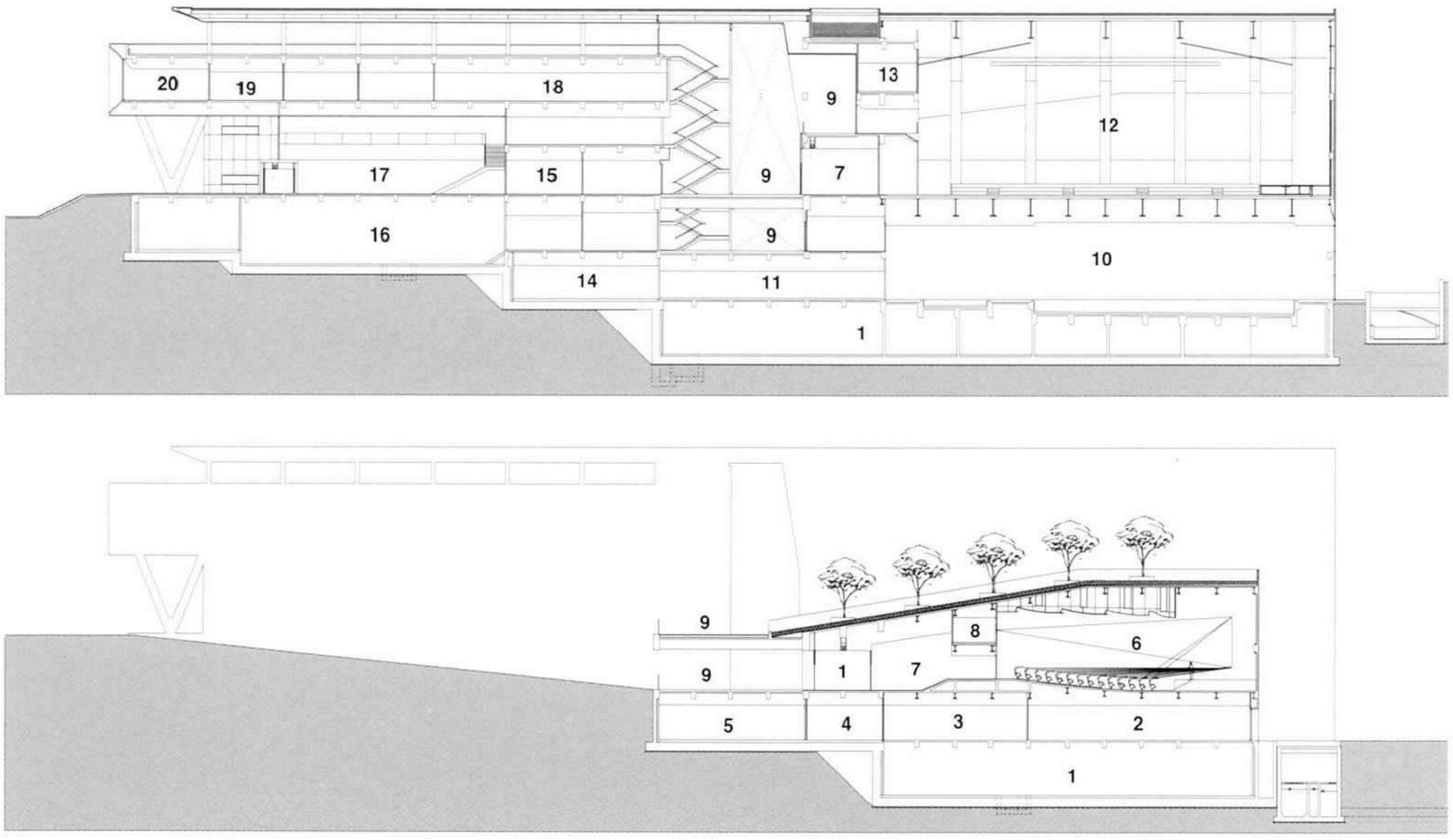
1_ 밸리 II
2_ 동측 전경
3_ 남동측 전경

4, 5, 6_ 옥상정원 1,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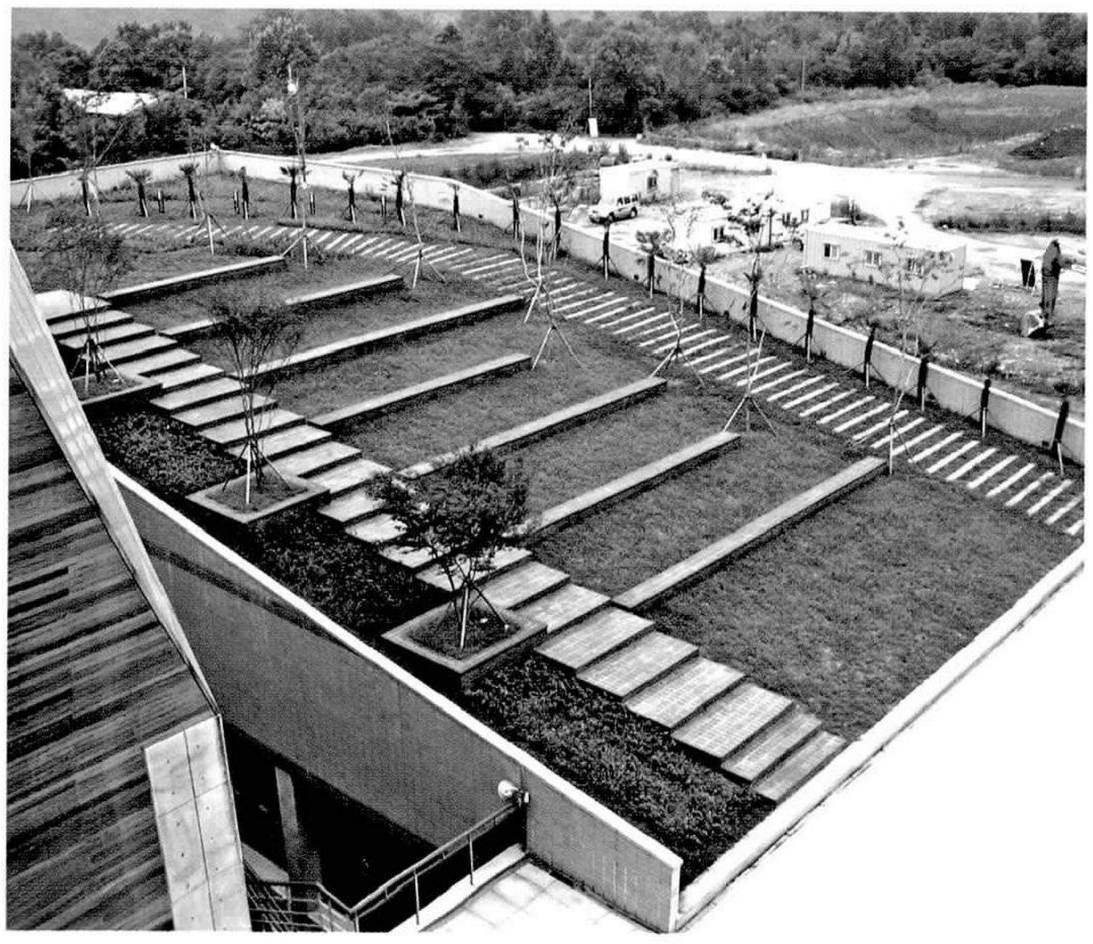




01_ 주차장
02_ 체력단련실
03_ 골프연습장
04_ 홀
05_ 에어로빅룸
06_ 다목적공연장
07_ 로비
08_ 영사실
09_ 데크
10_ 수영장
11_ 부대시설
12_ 체육관
13_ 조정실
14_ 대기홀
15_ 장애인주간보호소
16_ 기계실
17_ 홀및 전시실
18_ 공부방/PC방
19_ 강좌실
20_ 휴게실

단면도









박준영 / 정회원, 건축사사무소 주가인
by Park, Jun-young , KI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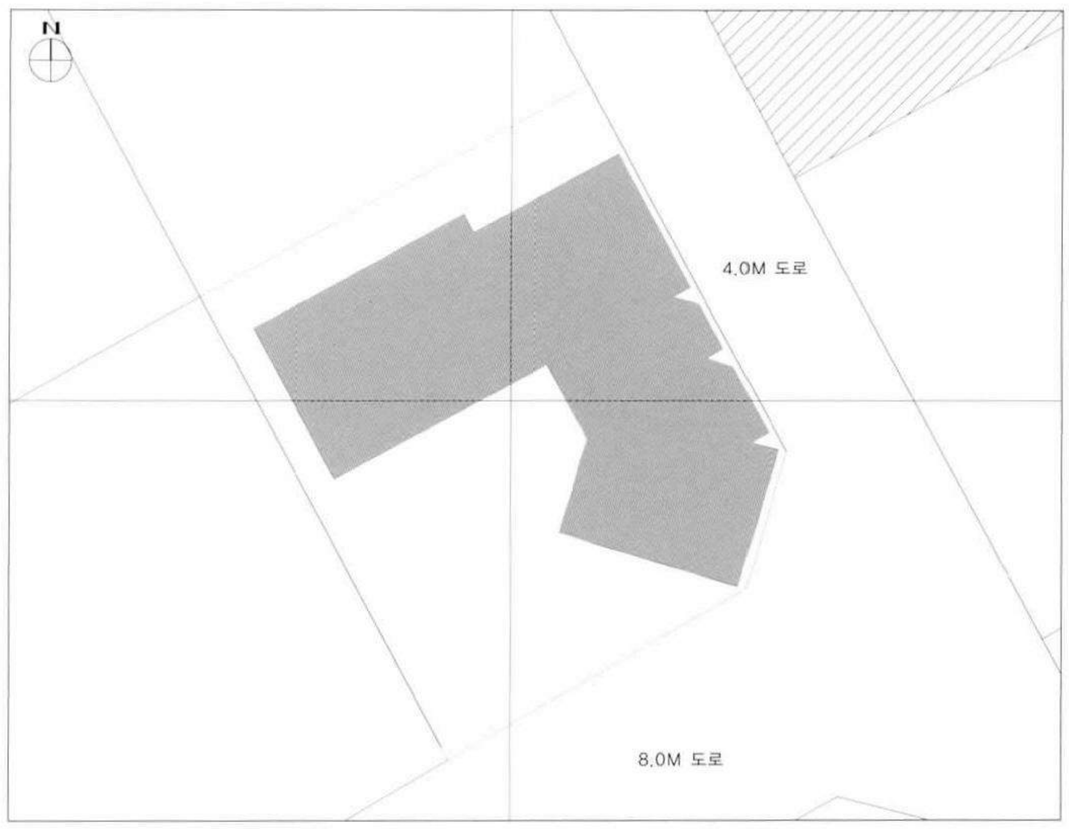
약력

- 1999년 건축사사무소 주가인(住家人) 설립
- 주요작품 : M.J 빌딩, 퍼즐하우스, 2006 강남구 아름다운 건축상, 초우제, 팬텀사옥

인회헌(仁會軒)
Inhoehe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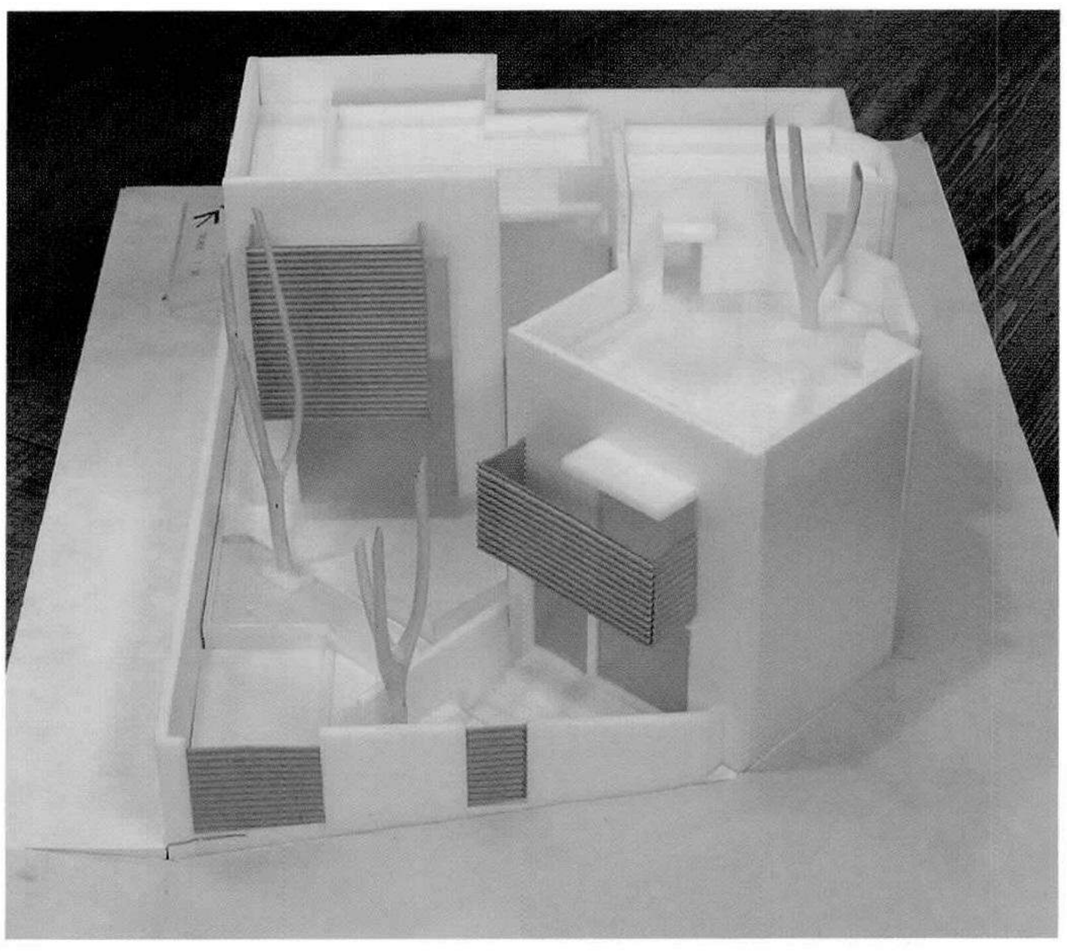
works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
지역지구	제1종 전용주거지역,최고고도지구
주요용도	단독주택
대지면적	266.0㎡
건축면적	129.44㎡
연 면 적	327.10㎡
건 폐 율	48.66%
용 적 률	86.92%
규 모	지하 1층 , 지상 2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내부마감	석고보드위 비닐페인트, 고급벽지
외부마감	송판무늬 노출콘크리트
구조설계	(주)MCS 구조
설비설계	(주)대왕엔지니어링
전기설계	(주)대왕엔지니어링
설계담당	심관흥, 방현기, 민병호



Location Gaehwa-dong, Gangseo-gu, Seoul, Korea
Site area 266.0㎡
Bldg area 129.44㎡
Gross floor area 327.10㎡
Bldg coverage ratio 48.66%
Gross floor ratio 86.92%
Structure R.C
Bldg. Scale B1, F2



1_ 스터디 모형 2_ 남측 외부 전경



집집마다의 풍성한 감나무, 개량기와의 낮은지붕과 마당 한 켠의 수돗가와 장독대.

멀지않는 과거속 기억들이 70년대 개발정책의 산물인 획일적 주거형태에도 불구하고 정겨움으로 다가오는 주변환경을 배경으로, 조금은 철 지난듯 하지만 우리네들의 영원한 숙제인 선조들의 건축공간과 기법들을 떠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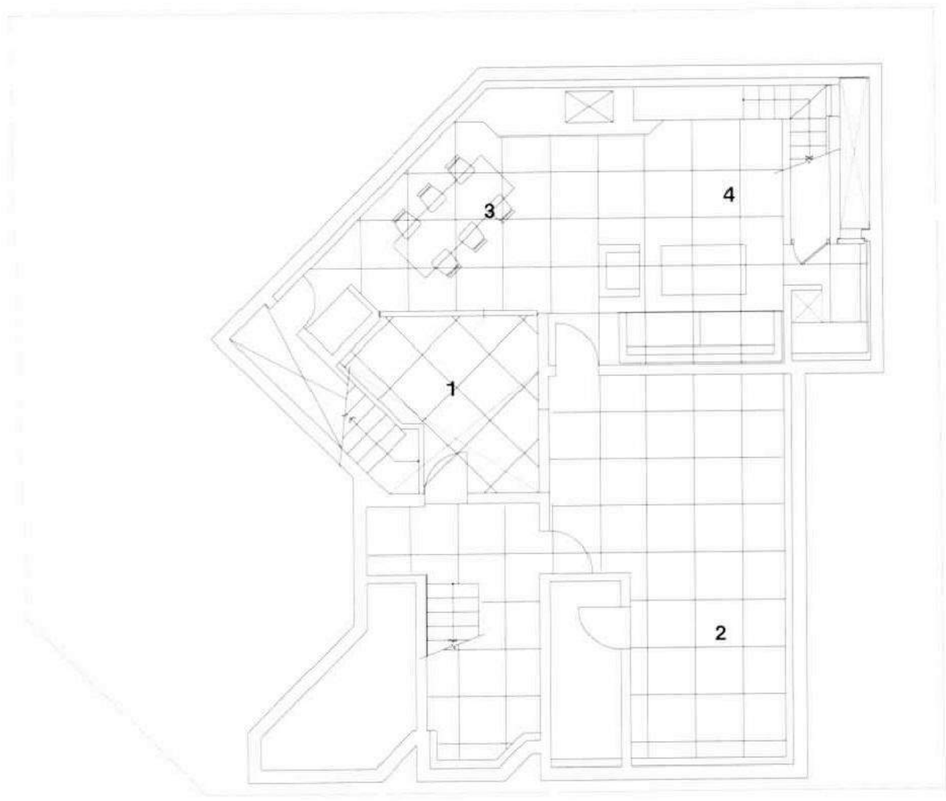
익살과 재치를 빼고서도 충분히 매력적인 공간배치의 수평적요소를 수직적으로 쌓아보기로 한다.

진입마당을 둘로 나눠 크기와 깊이가 다른 2개의 마당(사랑마당, 안마당)을 만들고, 두세번 꺽인 내부동선으로 공간에 대한 호기심을 실내로 끌어들여 거실끝에서 또다른 시각에서의 외부공간(안마당,뒷마당)을 바라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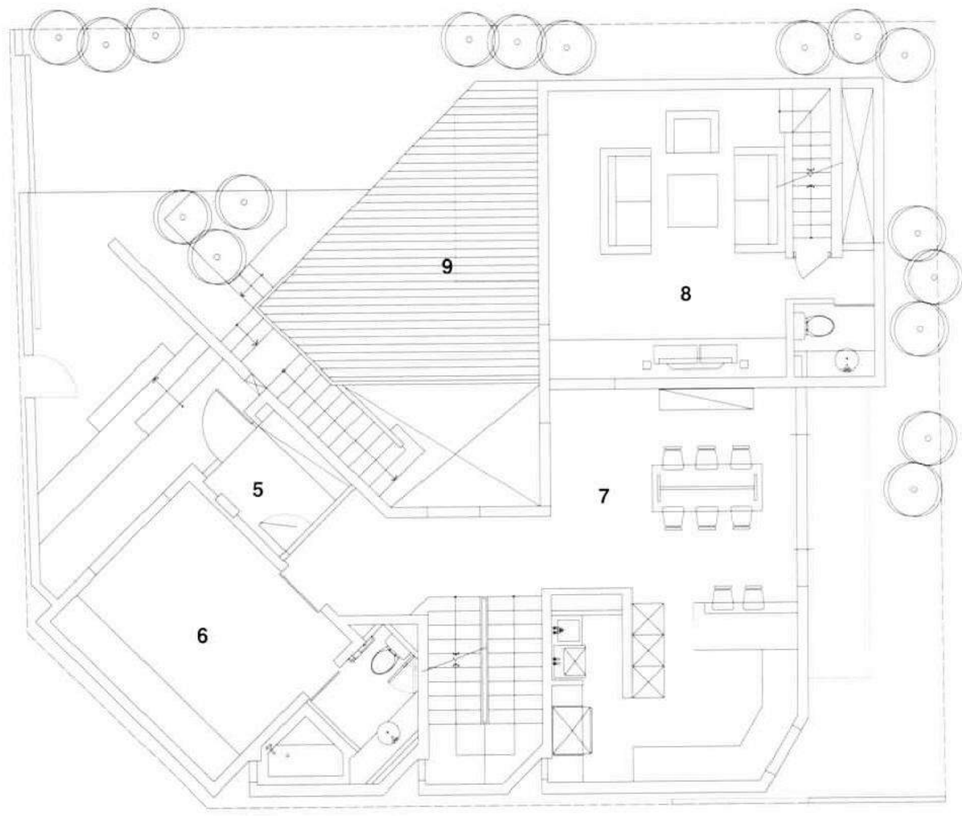
주동선과 분리독립된 샛동선을 1층(사랑채)과 2층(안채)을 최단거리로 연결하고 다시 지하(별채)까지 연결하여 주인의 지름동선을 확보한다.

평면에서의 레벨변화로 위계를 드러내고 각실의 독립발코니로 외부와의 완충공간을 만든다. 뒷산을 끌어안은 옥상(후정)에서는 노모를 모신 한가족의 단란하고 평온한 여가를 머릿속에 그려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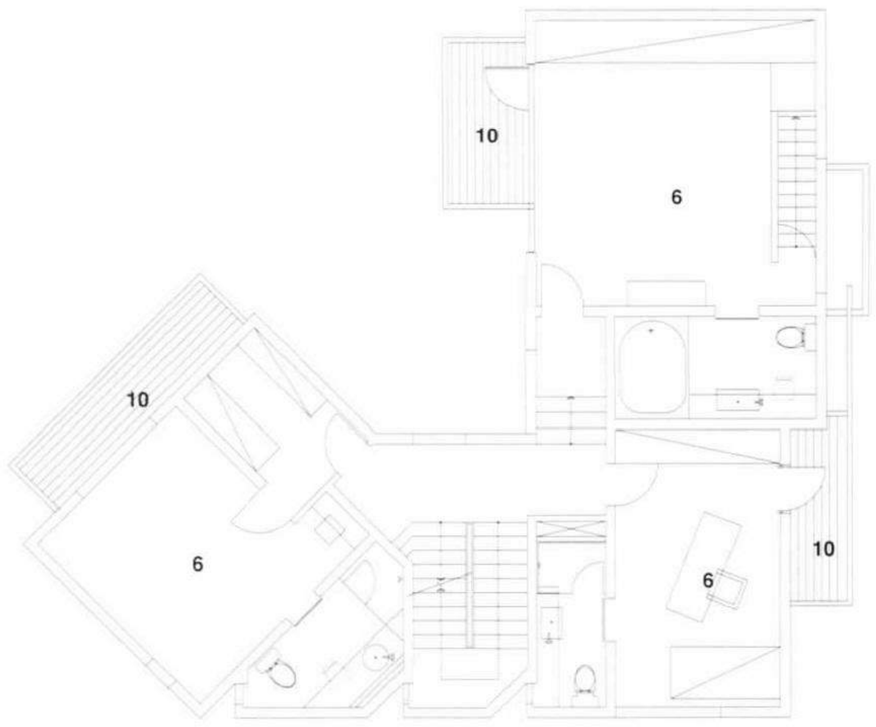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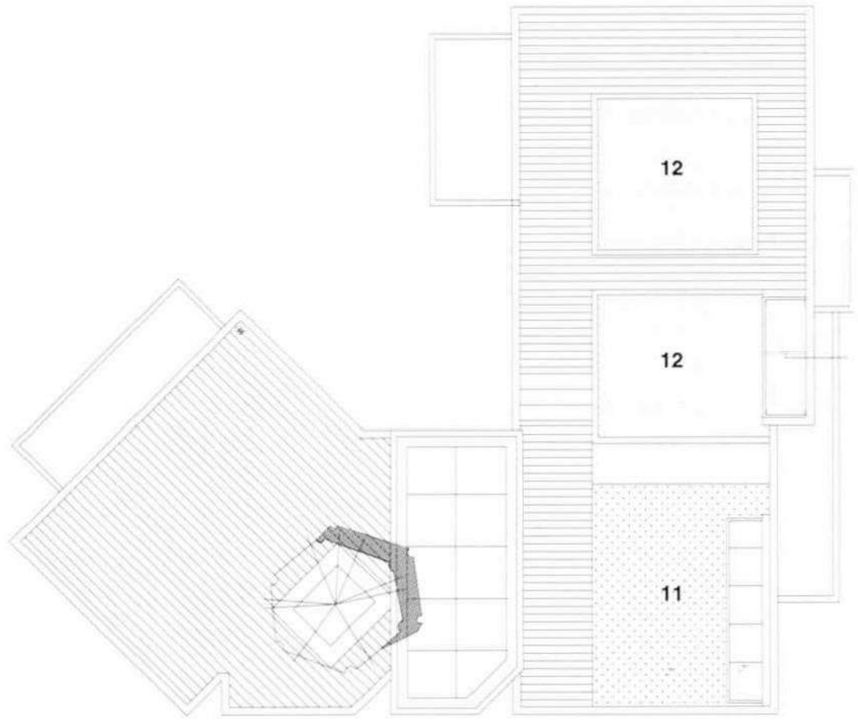


1층 평면도

01_ 선큰
02_ 운동실
03_ 작업실
04_ 가족실
05_ 현관
06_ 침실
07_ 식당
08_ 거실
09_ 데크
10_ 발코니
11_ 잔디
12_ 텃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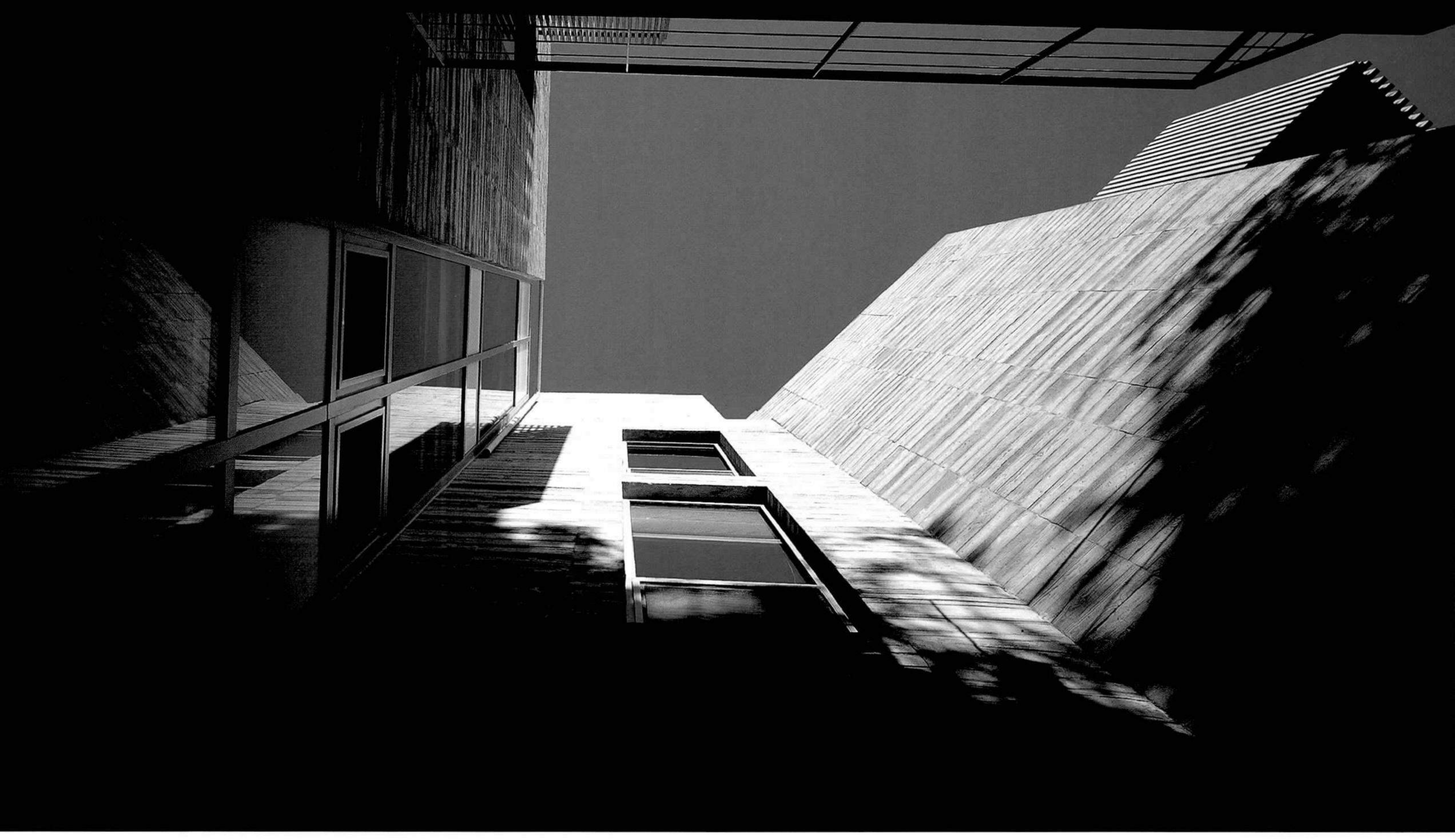


2층 평면도



지붕층 평면도

1_ 안마당/사랑마당
2_ 지하 선큰에서 하늘을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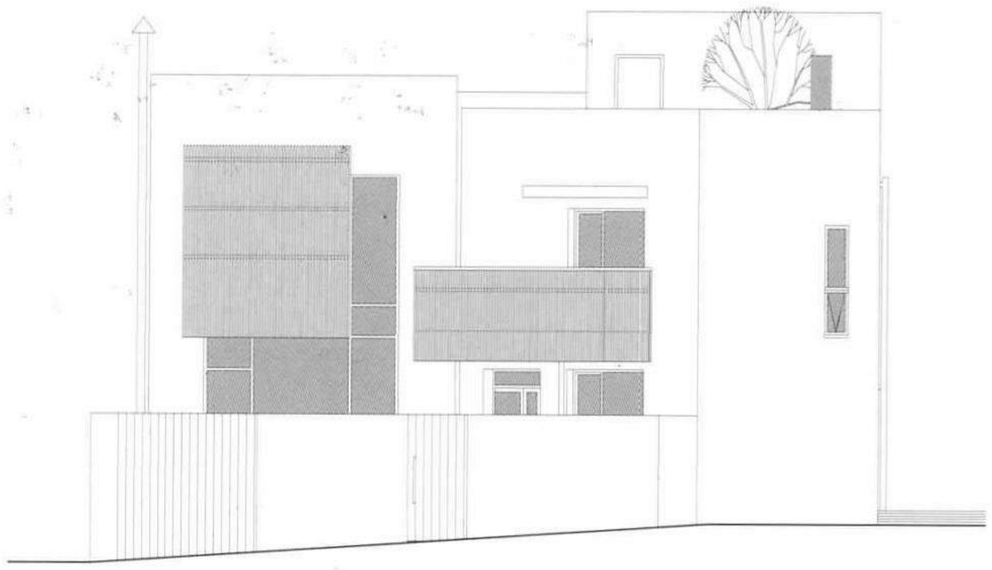


1_ 주진입 사랑마당
2_ 주진입 대문(야경)
3_ 안마당에서 거실을 보다
4_ 주차 진입로
5_ 주진입 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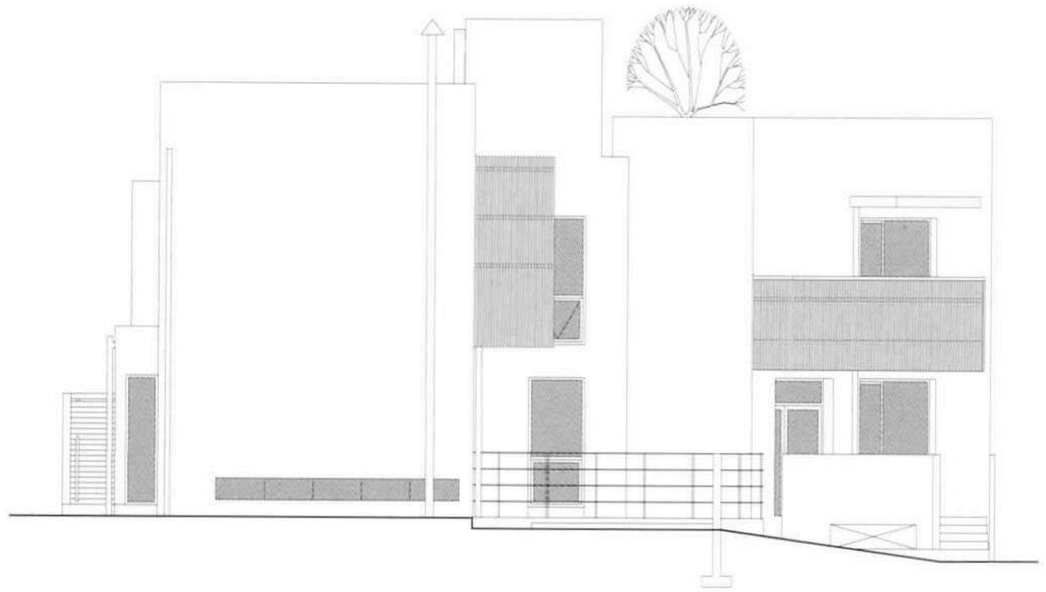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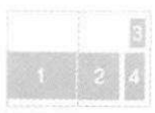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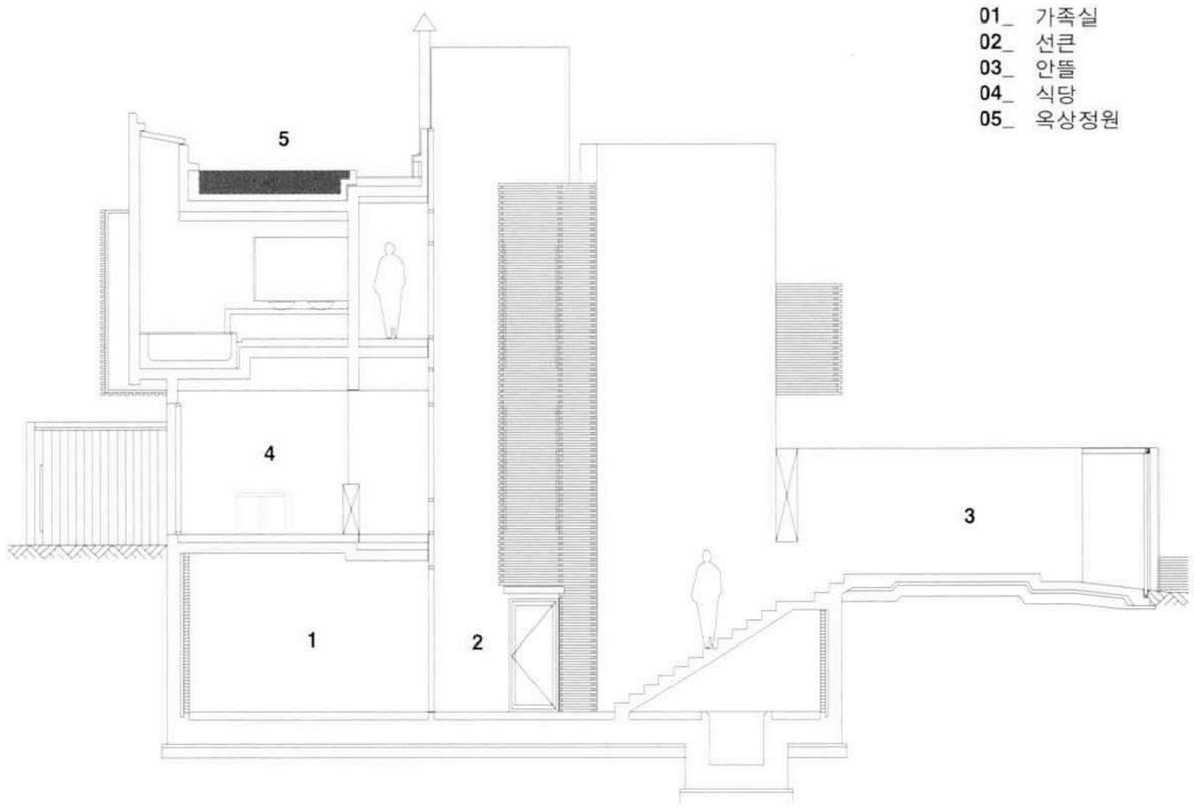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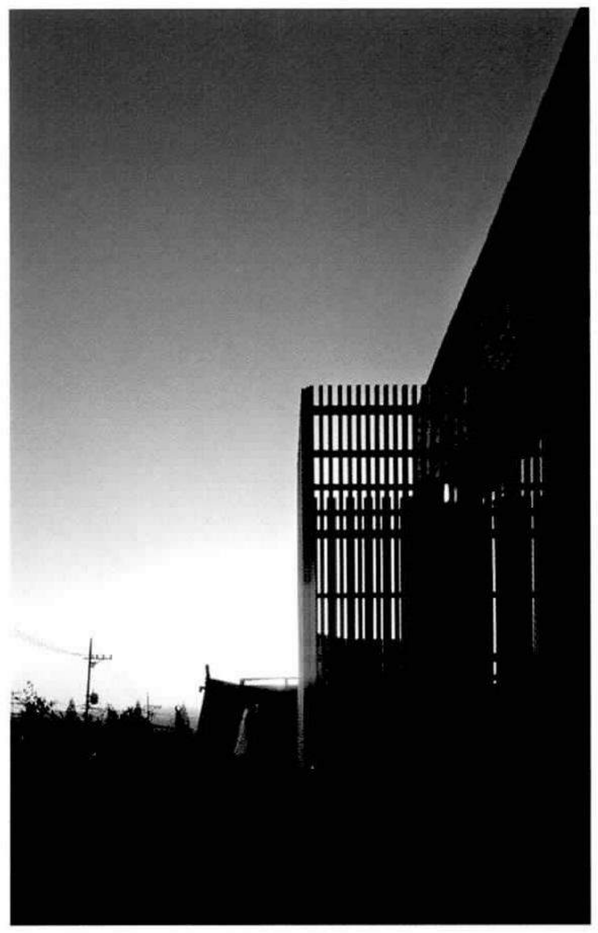
1_ 옥상에서 내려다 본 안마당
2_ 안방에서 보이는 외부 전경
3_ 안방 발코니
4_ 사랑마당 진입로





01_ 가족실
02_ 선큰
03_ 안뜰
04_ 식당
05_ 옥상정원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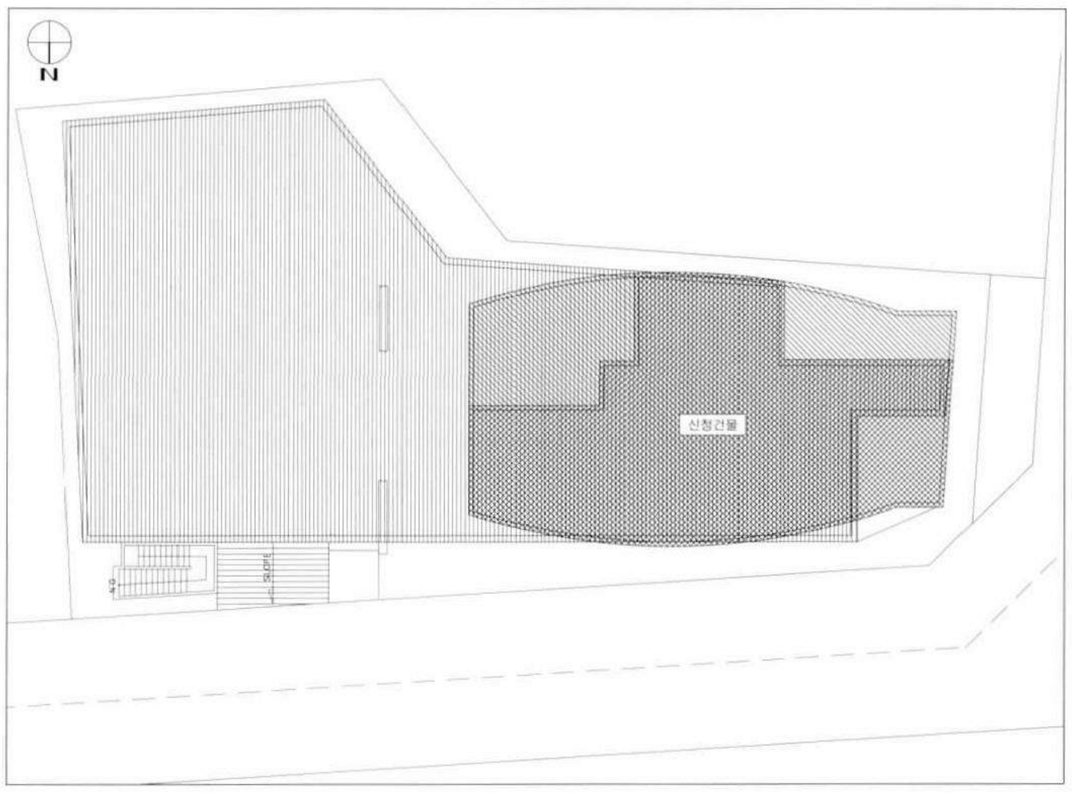
임대흥 / 정회원, (주)대흥 건축사사무소
by Lim, Dae-heung , KIRA

약력
- 경희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 주택전문 Goddom 대표
- 현 경기도건축사회 이사

아름다운 교회
Beautiful Chu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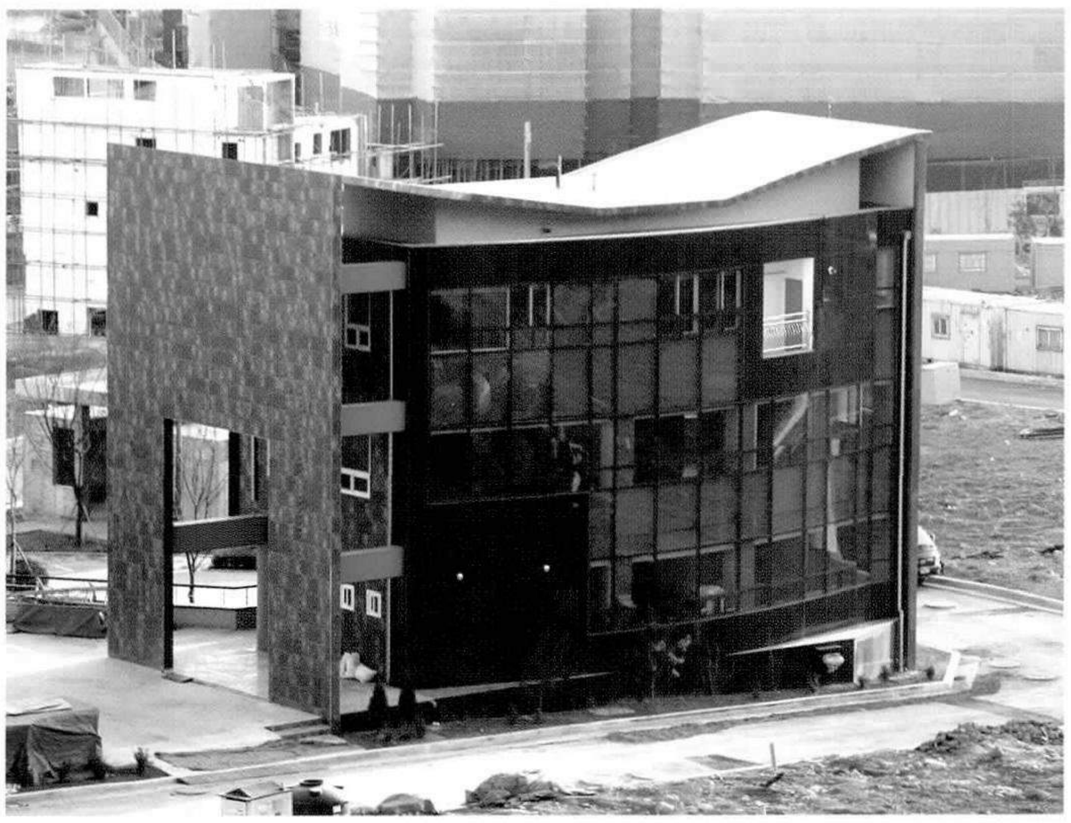
works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고양시 일산2택지개발지구 단독1구역 62획지
지역지구	주거지역
주요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단독주택
대지면적	478.3㎡
건축면적	171.73㎡
연 면 적	690.44㎡
건 폐 율	35.90%
용 적 률	81.74%
규 모	지하 1층, 지상 1~2층, 지상 3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내부마감	실크벽지, 도기질타일
외부마감	T10 포세린타일(페트라 시리즈)
설비설계	한길ENG 김대석
전기설계	성지ENG 김진환
시 공 자	남양건설(주) 오석환
설계담당	성승민, 박희철



Location	Ilsan-dong, Goyang-si, Gyeonggi-do, Korea
Site area	478.3㎡
Bldg area	171.73㎡
Gross floor area	690.44㎡
Bldg coverage ratio	35.90%
Gross floor ratio	81.74%
Structure	R.C
Bldg. Scale	B1, F3

1_ 동측 외부 전경 2_ 남서측에서 바라본 전경



사진 | 이상수

기능적인 면에서 지하층에는 예배당으로 계획하고 1, 2층에 주택 겸 교육관을 겸용하여 사용토록 배려하였다. 3층에는 목사님 사택과 선교사님 같은 외부의 손님이 기거할 수 있는 guest room을 계획하였다.

지하예배당은 200석 규모의 작은 공간이지만 주출입구와 부출입구를 분리하여 화재피난에 대비토록 하였고 회중석과 성가대 그리고 유아실이 유기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였다.

대지가 부정형의 형상을 하고 있고, 남향에는 공원이 북쪽에는 도로와 면하게 되어있다. 북쪽의 도로는 완만히 경사가 되어있고, 끝나는 지점에 주차장과 진입통로로 사용토록 하였다.

이 계획안의 주안점은 교회의 상징성을 대변하는 이미지의 창출이었다. 외부공간의 효율적인 활용도 중요한 과제였다. 외부공간에는 주차장뿐 아니라 농구나 배구와 같은 놀이가 가능하도록 배려하였다. 진입공간을 흐름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념화하였는데 13m높이의 커다란 가벽(great wall)의 골격이 세워지고 웅장한 천정을 올려다보며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하였는데 이는 다소 반사적(半私的-semi private)인 성격이 짙다.

사람들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 때 일부의 공간을 느끼며 음미하게 된다. 공간감은 움직이며 피부에 닿고 보행자는 건물이 주는 뉘앙스와 대화하며 공간감을 느끼며 자신의 감흥을 발걸음을 통하여, 망막을 통하여 전개되는 형상을 느낌과 함께 마음속에 저장하게 된다. 이동하는 형체에 대한 시각적 변화와 이의 이미지터치에 대한 감각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이미지스케치는 동적인 모티브의 움직이는 연속필름중의 한순간을 포착하여 형상화한다. 최고의 포인트가 되는 지점은 사각(射角)인데 정면과 측면의 비율이 4/5가 되는 지점이다. 이점이 주요시각점(main view point)이 된다. 조감도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각점(view point)인데, 아래에서 보지 못하는 조형감각을 이끌어낸다. 이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이미지스케치는 단순 명쾌한 '내외피의 분리와 조화를 통한 유입친화적인 형태' 라고 본다.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어 측면에서의 진입은 높은 벽을 통과하는 일례의 행사다. 벽면의 십자가 부조대신 직사각형의 네모난 개방문

(open wall)을 통하여 신자들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고 옷매무새를 가다듬는다. 이때 mass가 주는 강열한 영적인 음성을 듣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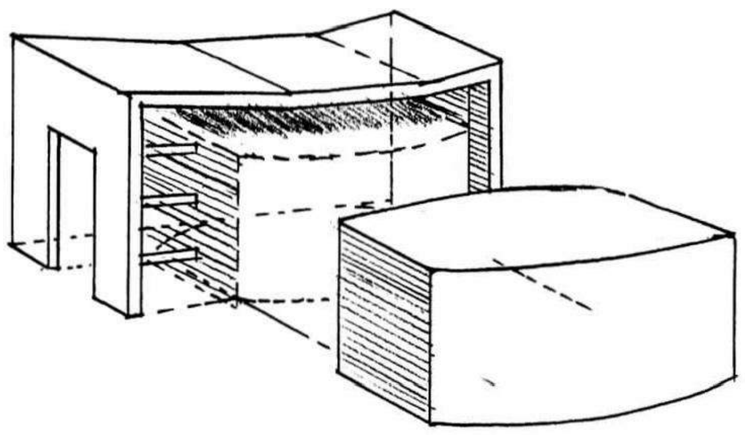
건물의 전체적인 형태가 주는 메시지는 '겉' 과 '속' 의 두 개념이다.

겉은 M자형의 틀을 말하며, 속은 볼록한 유리커튼월의 mass를 말하는데 기능적인 분화는 물론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영적(靈的)이며, 내용적인 표현이라고 보아야할 것이다. 건물 좌우 상부의 양 옆으로 치켜 올라간 '치켜 올림' 은 본 부지의 특성에 맞는 개성적인 표현이었다. 속 알맹이(속mass)의 배부름형상은 풍요의 상징이고 보호받을 대상이라고 보면 겉껍데기(겉 mass)는 보호하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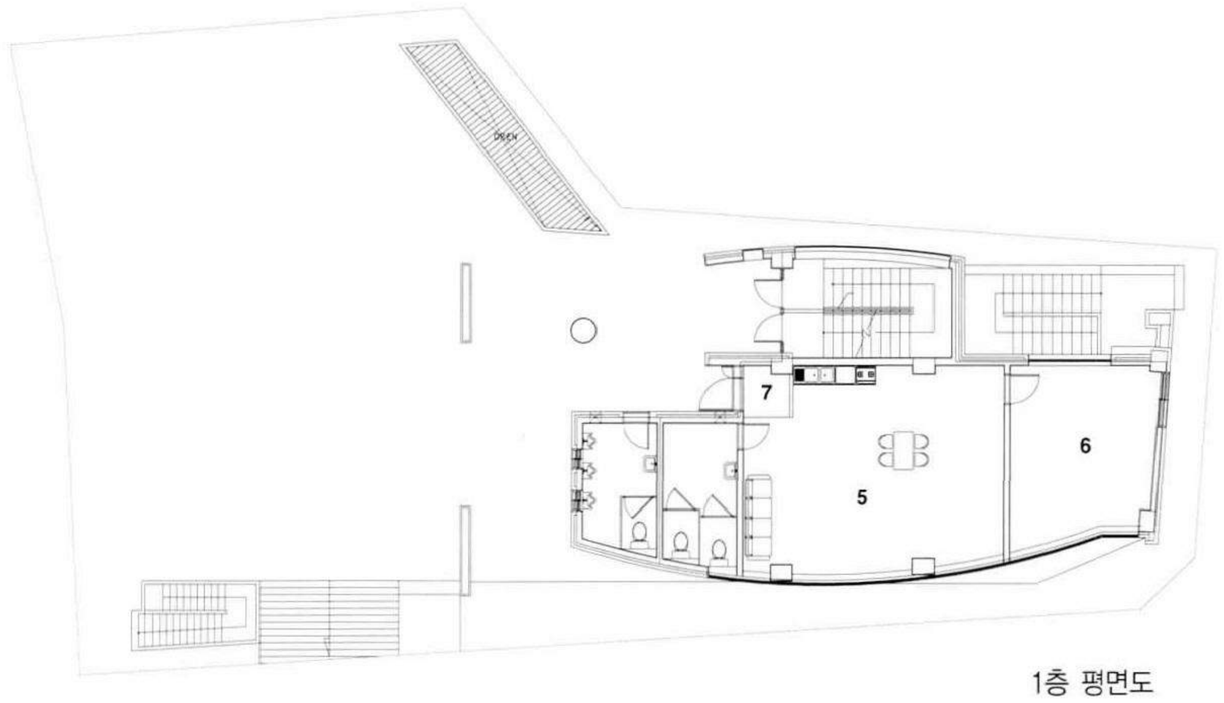
속을 보호하기 위해 겉은 적의 날카로운 칼날을 방어하듯이 방어적이고 공격적인 골격구조를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에는 신앙적인 개념이 내포되어있다. '목자인 예수님의 품에 안기어 웅크리고 있는 보호받는 양의 모습' 이라고나 할까?

어찌되었든 간에 두 기능은 건물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속에서 항상 존재하는 것 같다. 속을 보호하기 위한 겉의 처절한 투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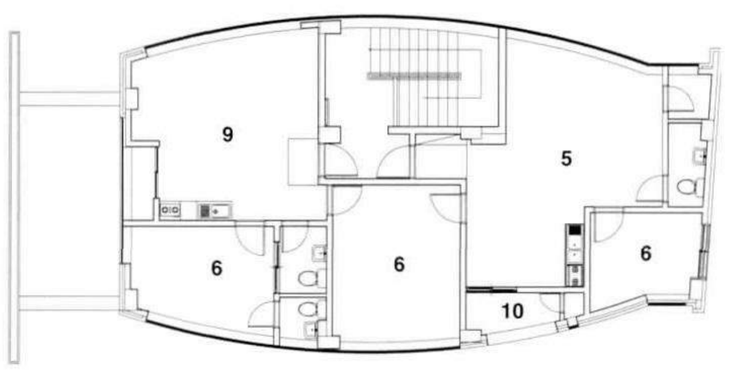
이 프로잭트가 주는 유익은 작은 부지의 소교회로서 기능적인 면을 충족할 뿐 아니라 '겉' 과 '속' 이라는 두 기능의 어울림의 메시지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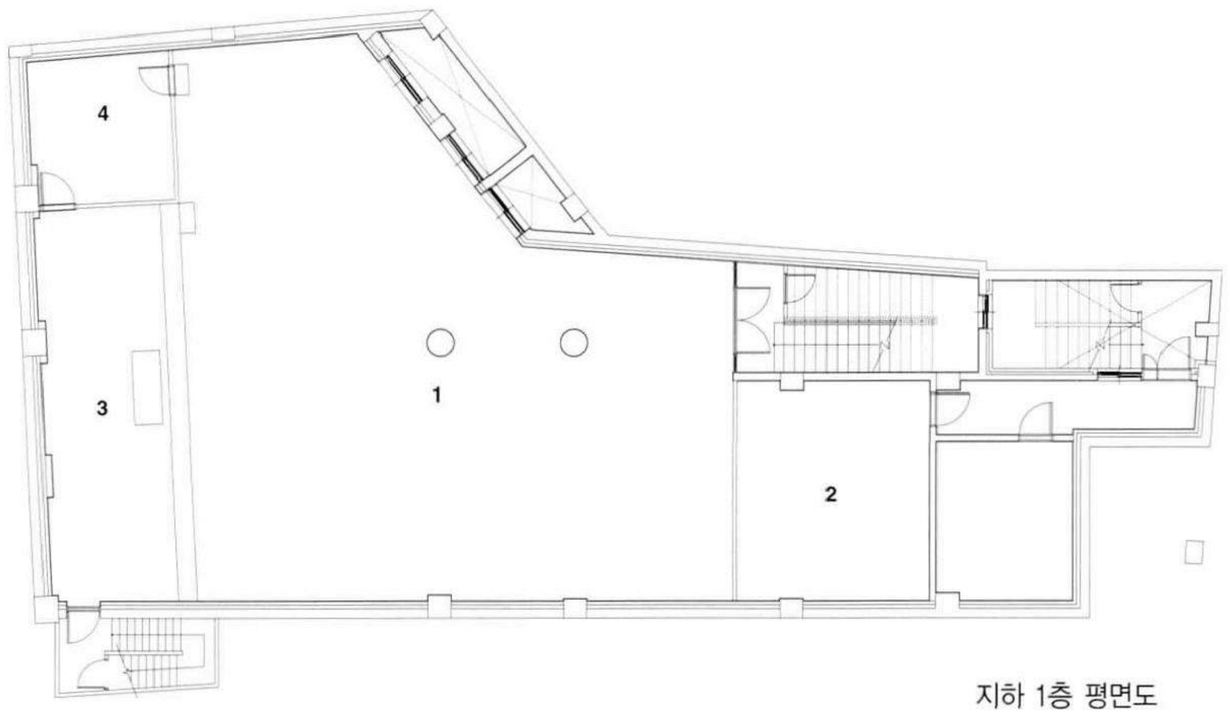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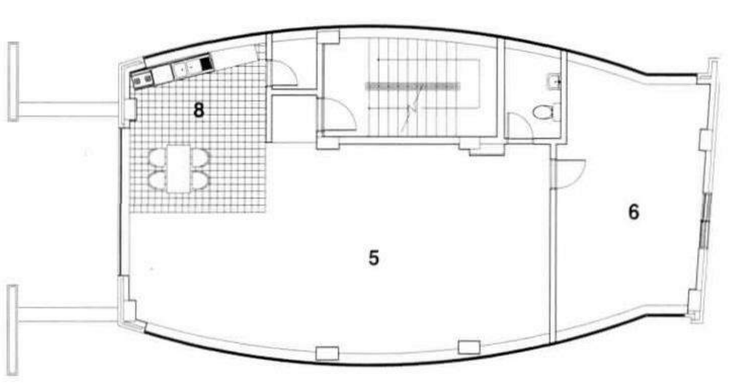


3층 평면도

01_ 예배실
02_ 유아실
03_ 강대상
04_ 준비실
05_ 거실
06_ 방
07_ 현관
08_ 주방
09_ 응접실
10_ 발코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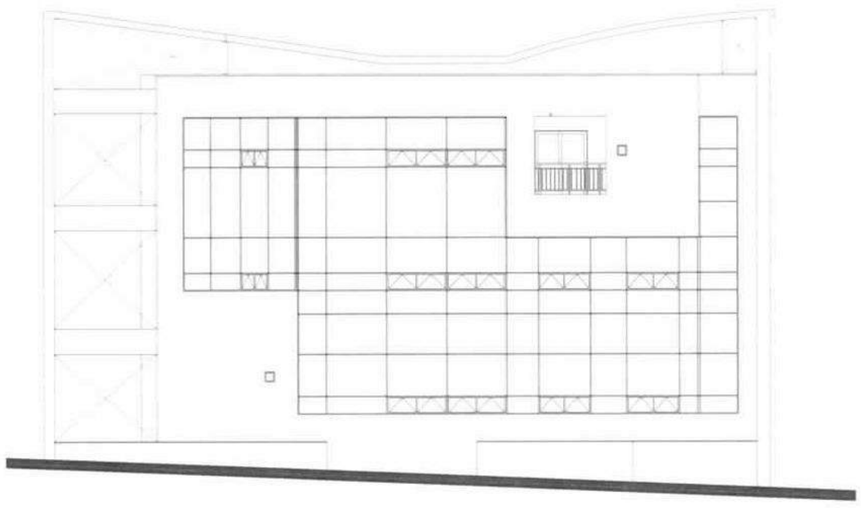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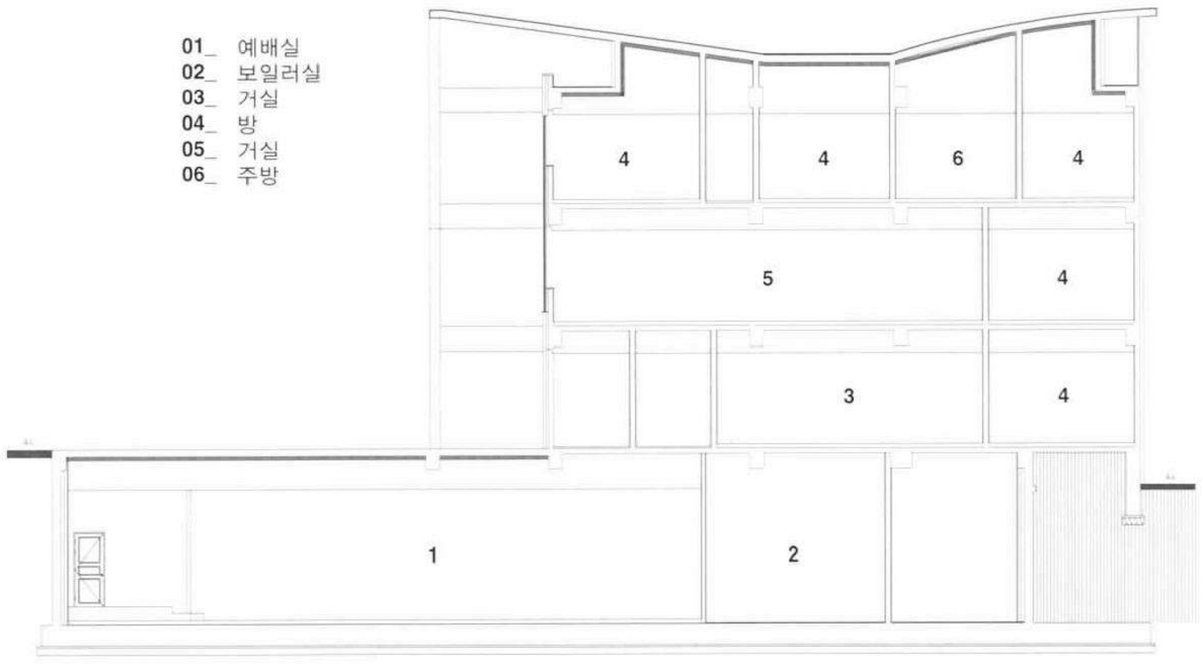


2층 평면도

0 1 5m



정면도



횡단면도

1_ 겉+속 mass의 결합
2_ 조감도
3_ 남측 공원에서 바라본 건물 우측 코너의 야경
4_ 주계단실 내부
5_ 3층 사택 내부 전경







design note



오혁근 / 정회원, (주)건축사사무소 PROBE
by Oh, Hyeok-geun, KIRA

약력
-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동대학 공학대학원 건축학과
- 대림대학 겸임 교수



백민석 / 정회원,㈜건축사사무소 시그에이
by Baek,Min-seok, KI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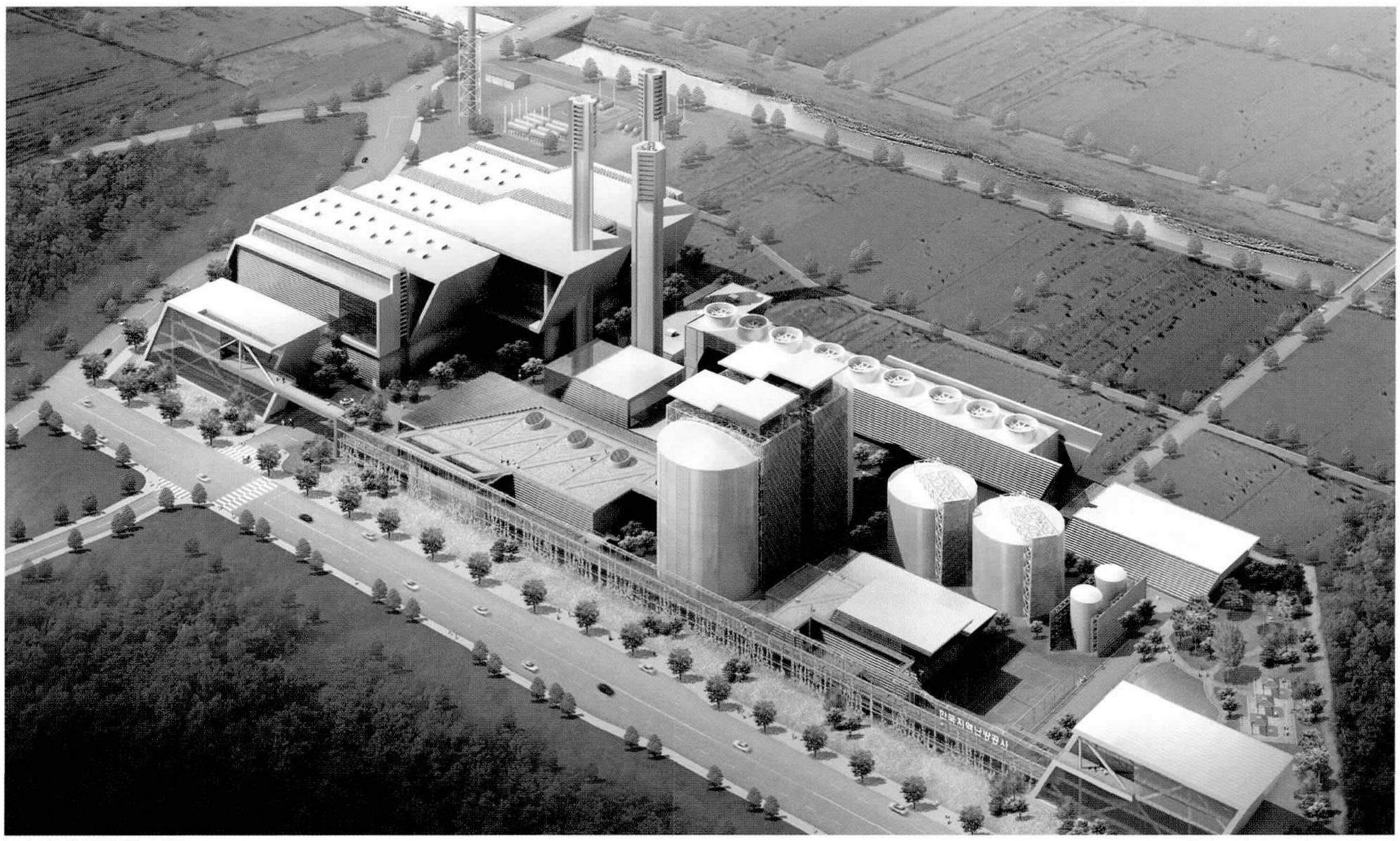
약력
-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동대학 대학원 건축학과 및 건축공학 박사과정 수료
-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국립한경대학교 건축학부 겸임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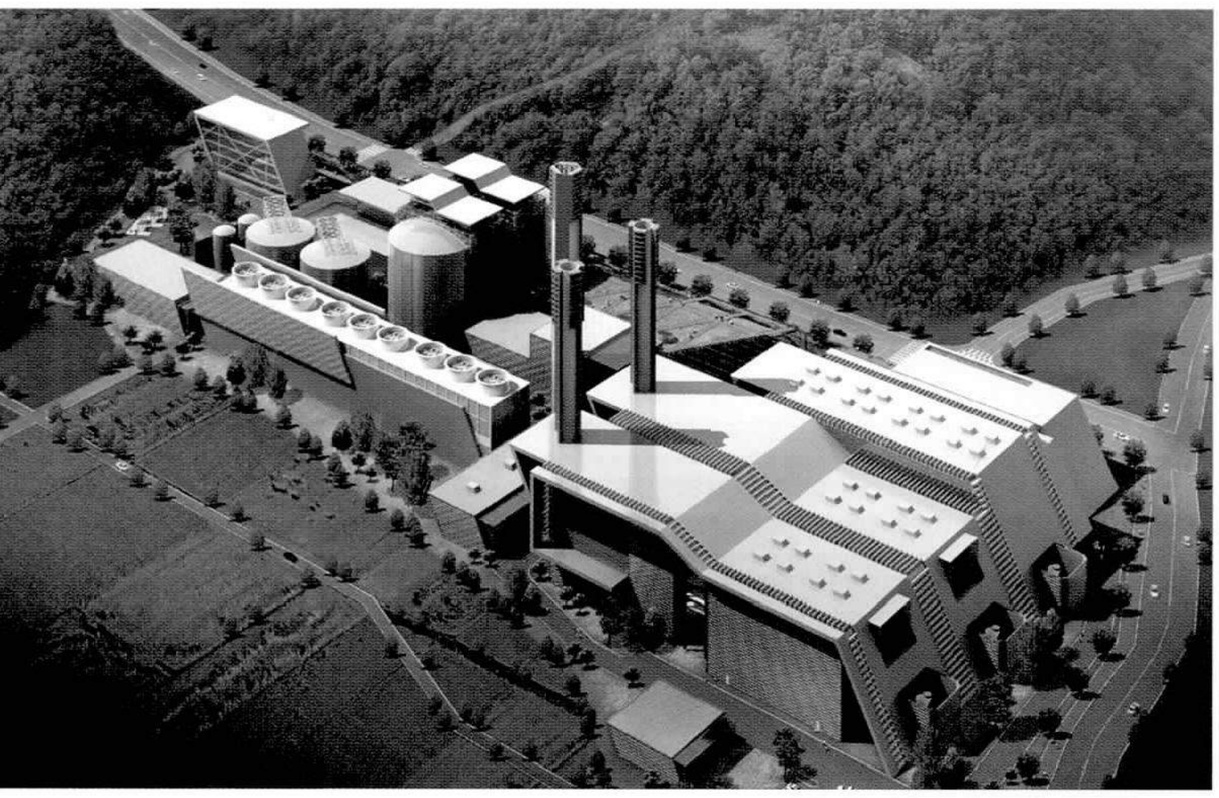
파주 열병합발전소 건축물 외관디자인 계획안

Paju Cogeneration Plant Exterior Design

플랜트의 경우 일반건축물과는 다르게 해당 설비와 공정 등에 의하여 대부분의 건축계획적 요소가 제한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시설의 위치나 대부분의 소요 개실들의 위치 또한 그 기능에 우선하여 배치된다고 볼 수 있으며, 시설관리자를 위한 사무실이나 부대시설 정도의 범주에서 건축사가 계획 및 설계를 주관할 수 있다. 물론 설비와 공정 설계를 담당하는 측과의 협의를 통해 대지여건과 예산 상의 가능범위에서 디자인을 제안하는 경우도 간혹있지만 일반적으로 열병합발전소나 환경플랜트의 경우 일반공장과는 달리 해당 대지위치와 면적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새로운 제안이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소위 'NIMBY(Not in my backyard)' 시설로 치부되는 열병합발전소의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난방공사에서는 천편일률적이고 공장으로서의 이미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기존 스타일에서 탈피, 열병합발전소의 기능과 더불어 지역 주민들에게도 환영 받을 수 있고, 기존의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는 디자인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런 필요성에 의하여 당시 설계가 진행되던 파주시 교하지구에 건설하는 열병합발전소의를 대상으로 첫번째 외관디자인 설계경기(관리동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부분들의 경우 배치 및 평면은 기 결정되어 변경을 불허함)를 진행하였다. 본 계획안은 지명현상 형식으로 진행된 파주시 열병합발전소 건축물 외관디자인 설계경기 출품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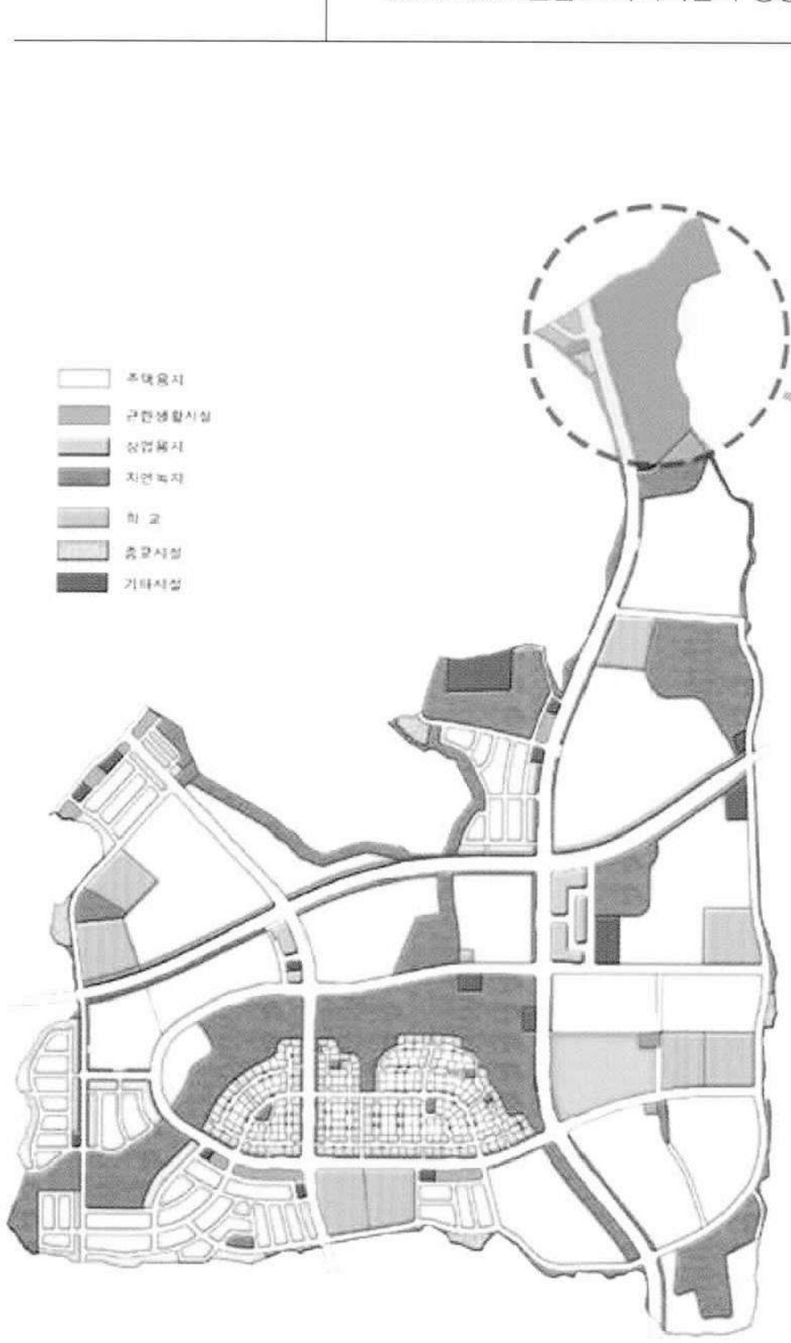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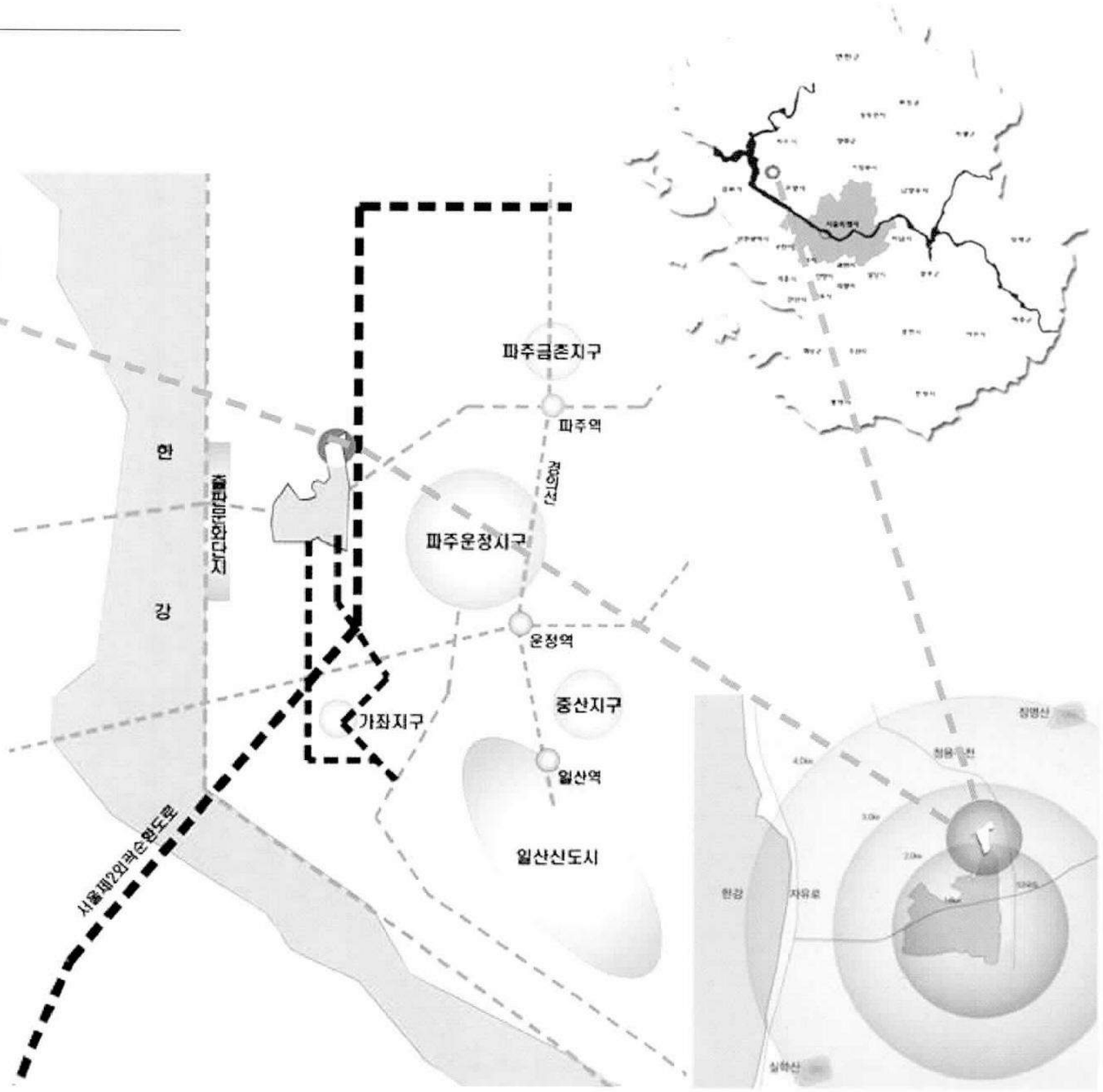


가능성	· 유기적 죠닝으로 통합적 입면구성 · CORRIDOR도입 및 설비동상부 만남의 공간형성 · 직원 및 견학자의 합리적 동선계획 · 전망대 신설로 인한 홍보 효율성 증대
경제성	· 재료의 모듈화로 합리성 추구 · 내구성있는 재료선택으로 유지/관리비용절감 · CORRIDOR벽면의 담장역할로 담장시공불필요
상징성	· 파주시의 랜드마크 이미지 창출 · 환경친화 및 미래지향적 이미지 · 다양한 접근성과 개방성 확보 · 걷고 싶은 거리 조성으로 지역명소 활성화
가변성	· CORRIDOR벽면조경을 통한 계절변화에 따른 환경친화적 입면계획 · CORRIDOR신설로 다목적실의 형성

입지현황 및 분석

–위치:파주교하택지개발지구내
(파주시 교하면 다율리 324-1 답 일원)
–교통체계:계획대지 남측은 30m도로로서 현재는 인근 공동주택의 주 진입도로로 사용되며, 북측은 시군도1번 8m도로연접
–공동주택의 선시공/발전소 후시공 여건으로 민원발생의 원인 내재
–문발지방공단, 파주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통일동산이 지구 인근에 위치
–통일한국의 중심도시인 파주시의 21세기 으뜸 주거단지





디자인 컨셉

• 친환경디자인

–산업시설이라는 선입견 탈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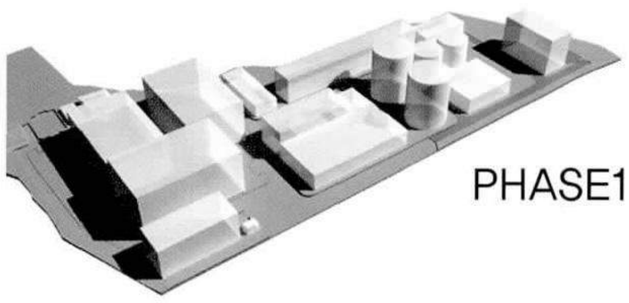
–열린공기업 이미지와 청정에너지를 포함한 생티입면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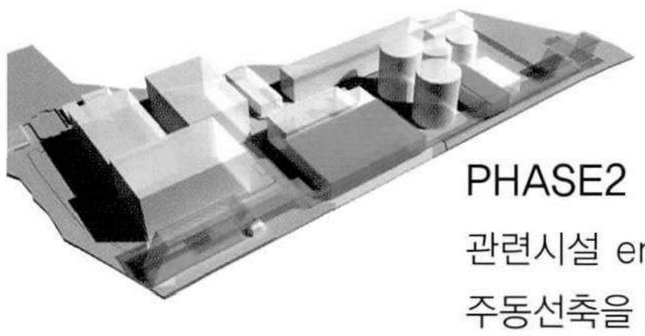
• Plant는 Plant 다워야 한다

–Plant의 기능 유자우선

–기능이 고려된 외관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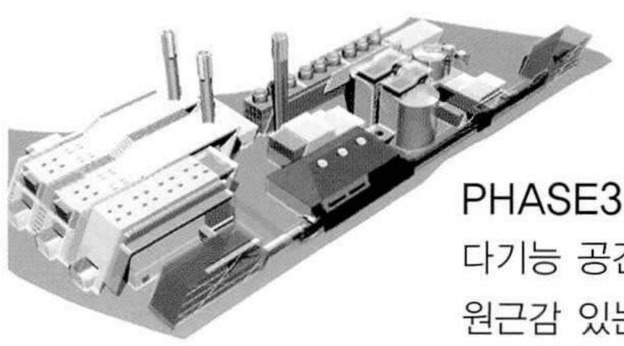
PHASE1



PHASE2

관련시설 enveloaing

주동선축을 중심으로 network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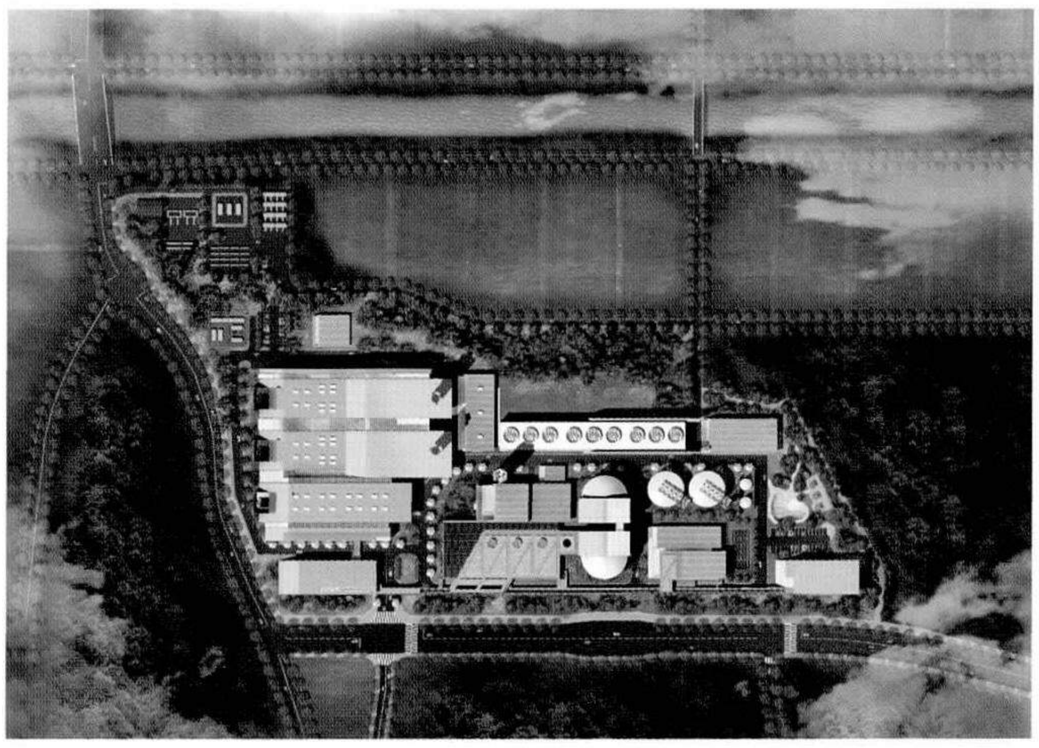


PHASE3

다기능 공간형성

원근감 있는 조형적 형태구성

통일성 있는 입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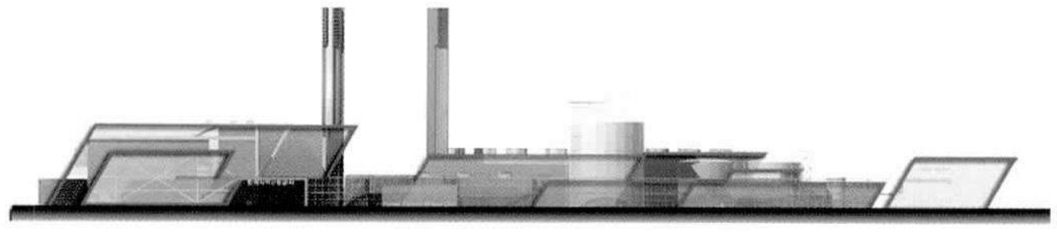


종합배치 계획안

• 통일성 유지

–융사 Dattern사용을 통하여 통일성 추구

–Master Plan을 고려한 건물 디자인



거대구조물의 분절을 통한 시각적 부담감 해소(단순형태의 제고)

보자기 이미지

–기존시설을 포용

–각 설비등을 에워싸는 표피의 개념

혼성 Hybr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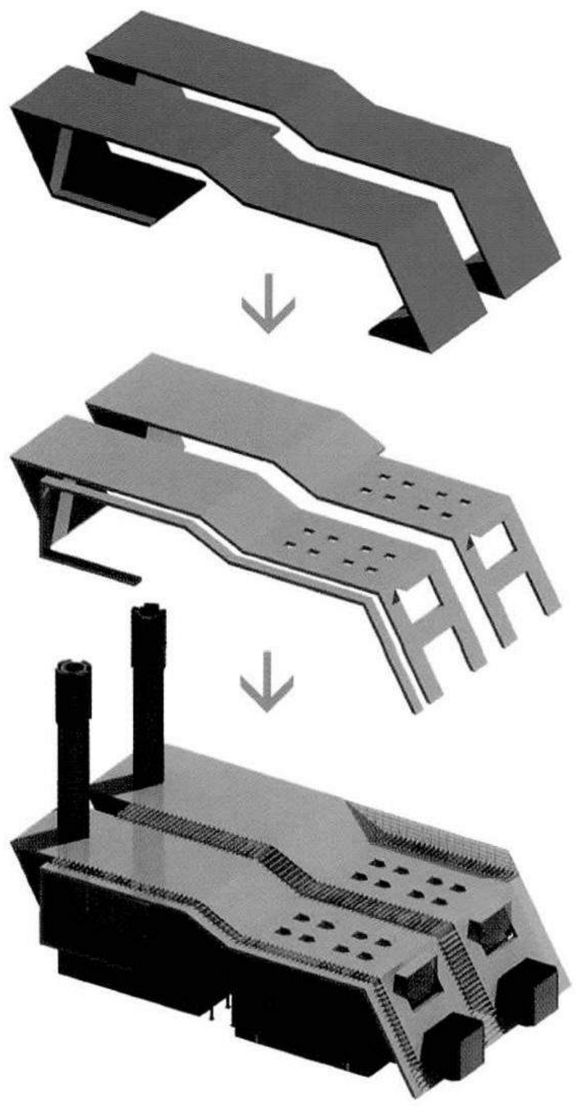
–기계설비의 특성을 감안 (형태적 변형+개별성 충족)

–터빈등의 단순배치가 아닌 상호보완

분절과 중첩

–매스의 분절을 통한 시각적 부담감 해소

–작은 덩어리가 모여 한 덩어리로 결집



접근성과 개방성

–전면도로에 투시형 생태담장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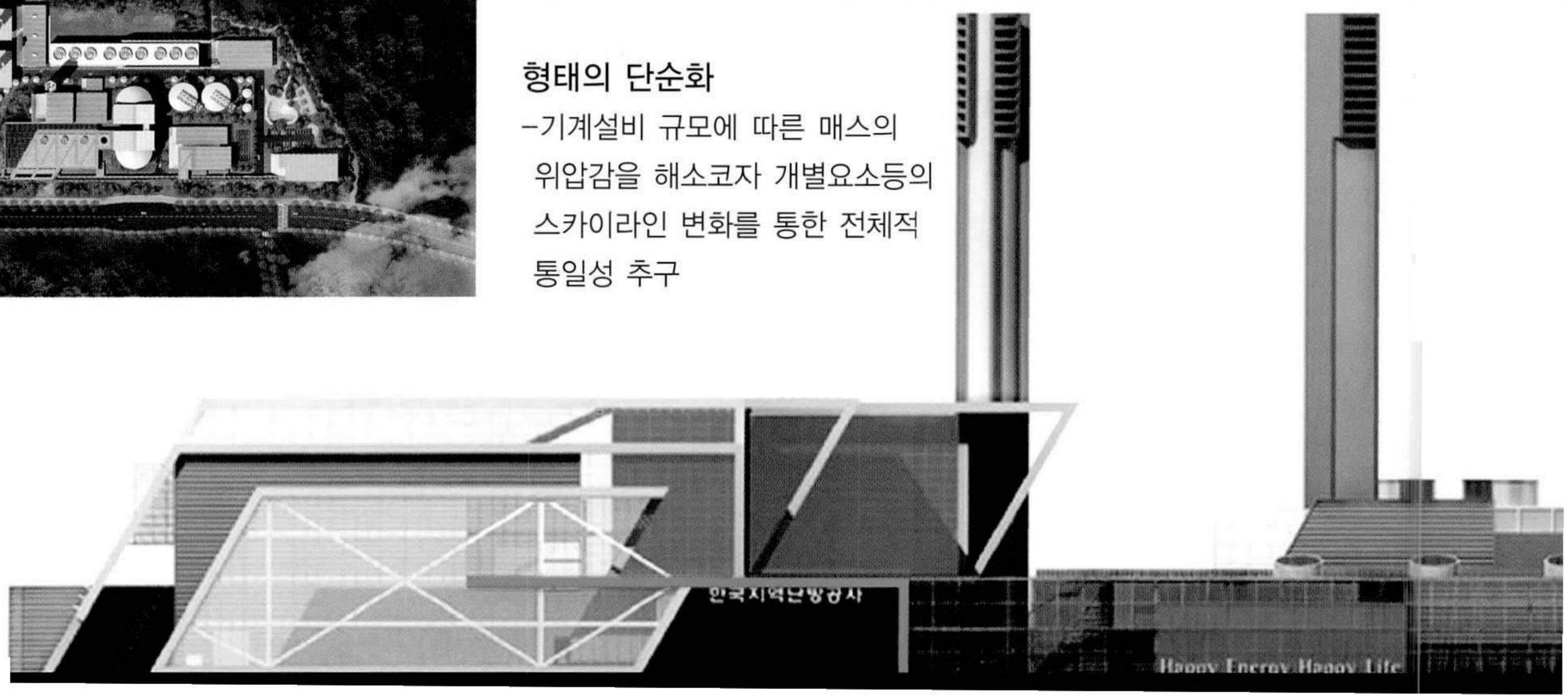
–진입마당으로의 접근용이

지역환경에 적응

–주변지역의 주거단지와 유사이미지 구현

형태의 단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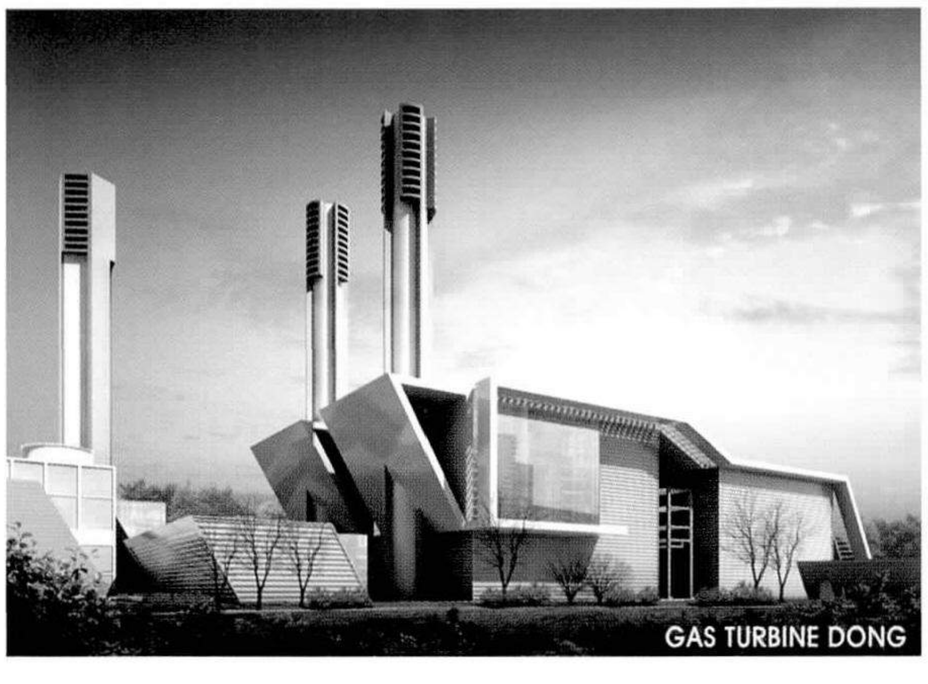
–기계설비 규모에 따른 매스의 위압감을 해소코자 개별요소등의 스카이라인 변화를 통한 전체적 통일성 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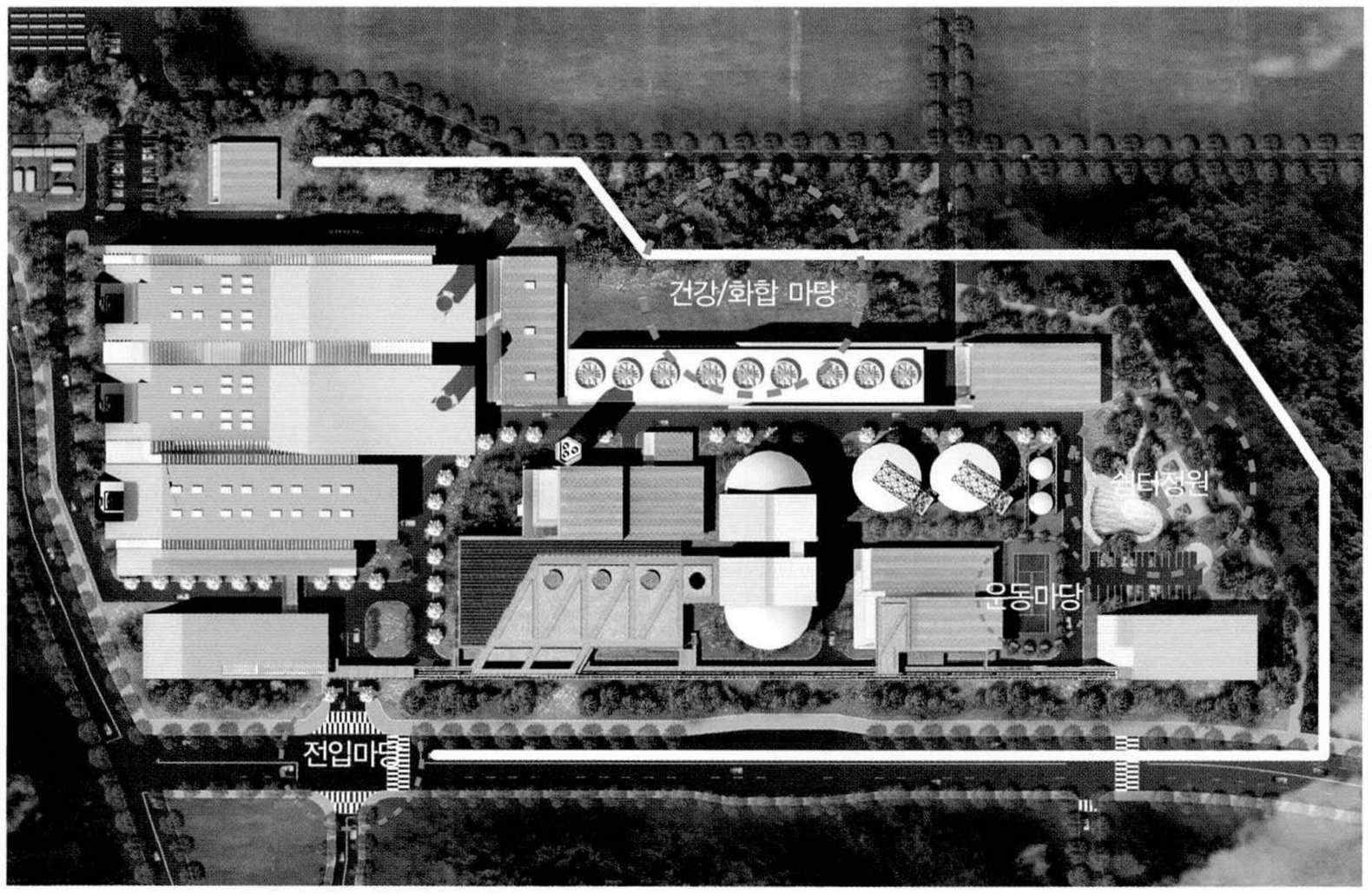
외부 공간계획


ROOF GARDEN


MAIN ENTERANCE


GAS TURBINE DONG


CORRID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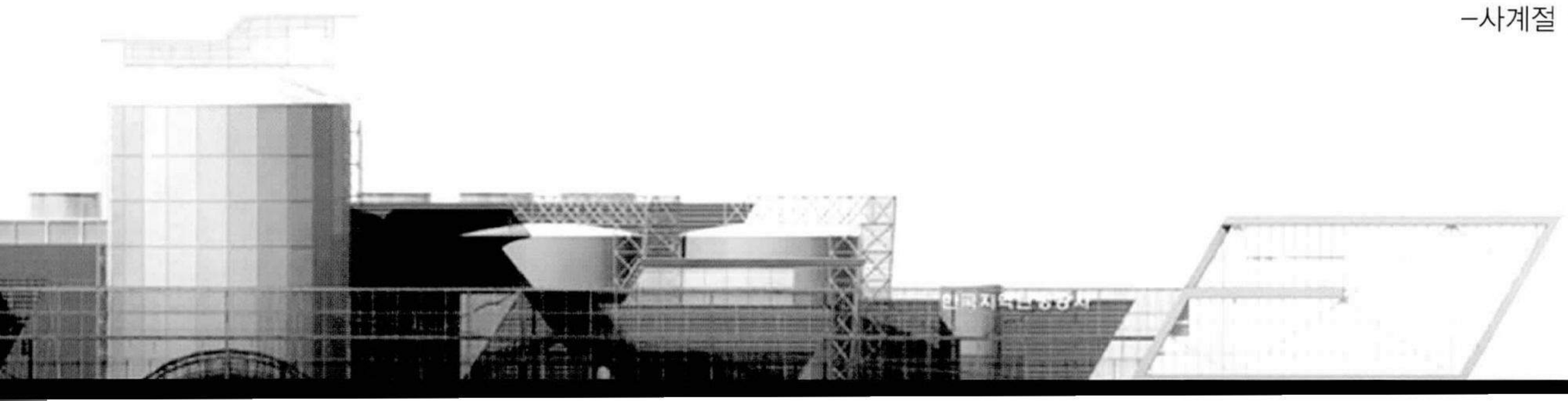


진입마당
–High-Tech한 이미지 연출
–견학자를 위한 편리한 매개공간

건강/화합 마당
–관리자를 위한 체육시설
–직원간의 친목도모

걷고싶은거리
–지역주민의 인지성/장소성 확보
–외부와의 소통적역할 담당
–관리자 및 견학자를 위한 다양한 산책코스 제공
–갤러리를 확보로 체험공간 제공

쉼터 정원
–환경 생태적 자연친화공간
–직원 및 건학자를 위한 쉼터
–조형적 시설물 배치(벤치, 파고라 등)
–사계절 꽃과 녹음의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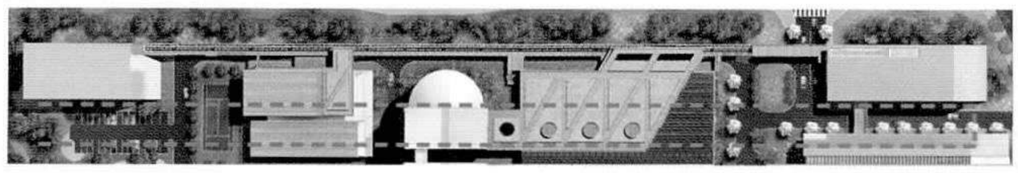
CORRIDOR 공간구성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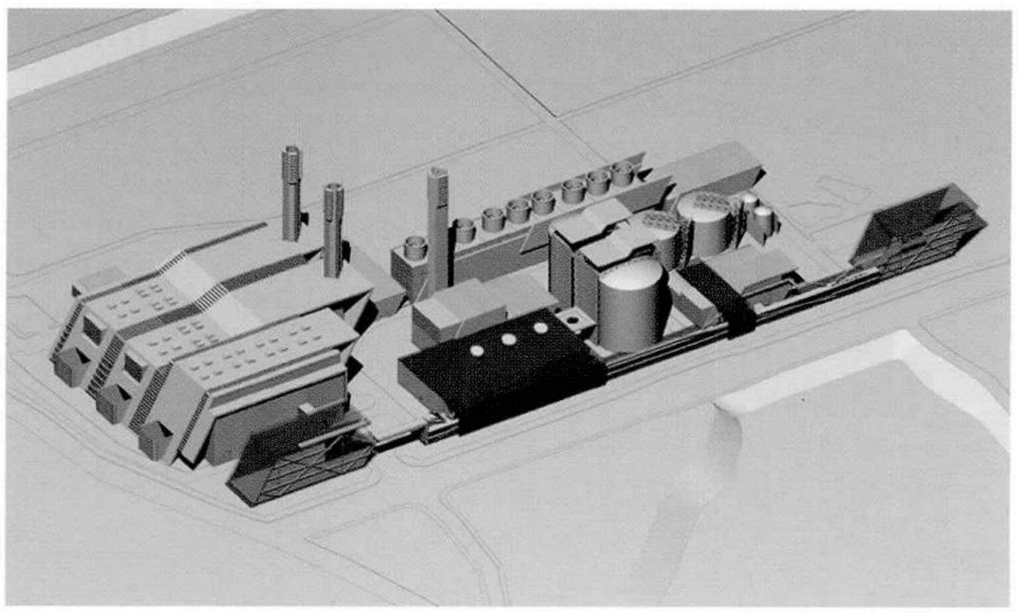
- **평면계획 – 시설에 대한 특성화 가치부여**

–다양한 코스를 연출하여 견학자로 하여금 발전소의 이미지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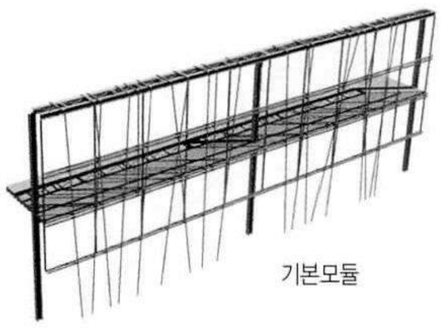
–갤러리홀의 체험으로 난방공사의 공익성에 대한 미래가치인식

–외부와 내부를 연결하는 CORRIDOR조성으로난방공사의 변화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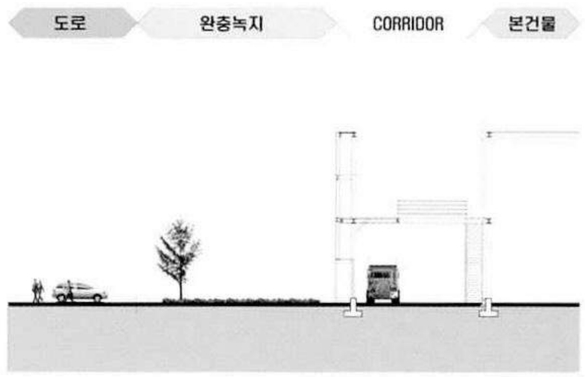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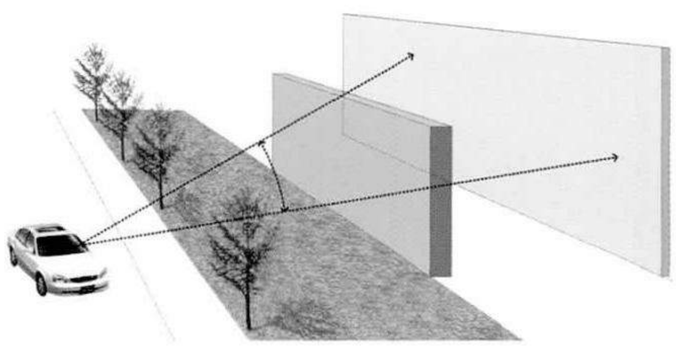
단면계획–모듈개념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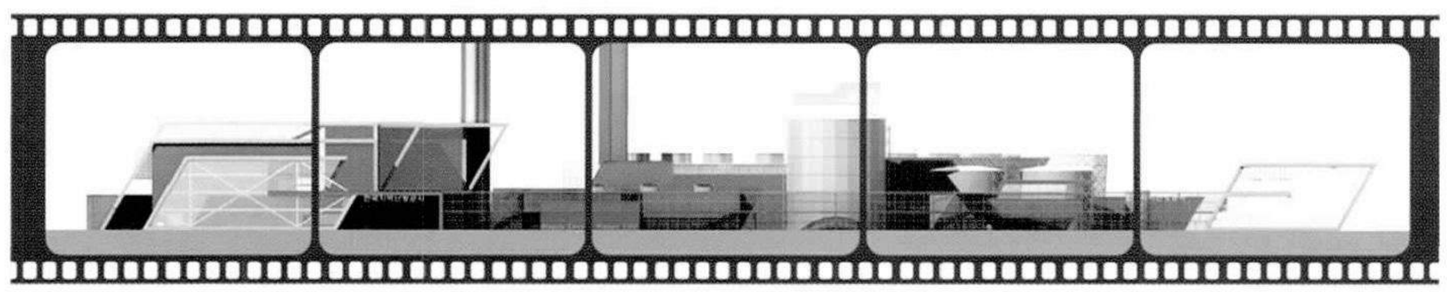
기본모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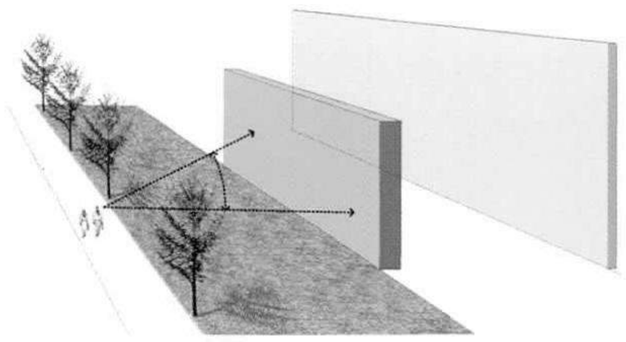
입면계획 – SEQU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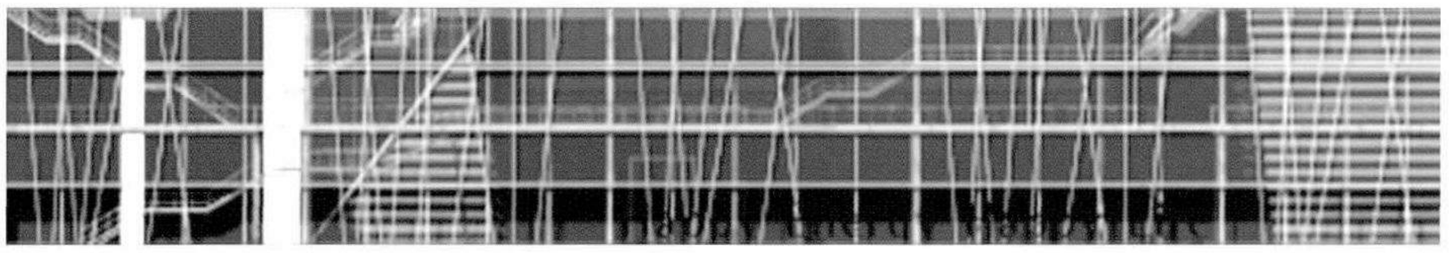
차량



파노라마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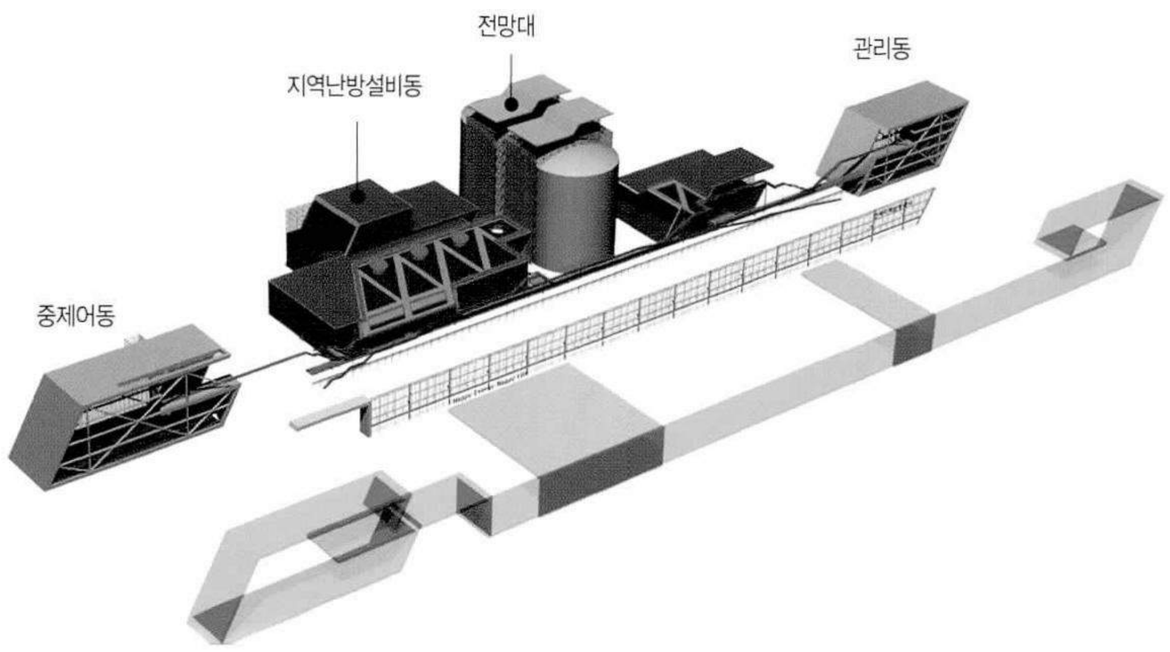


보행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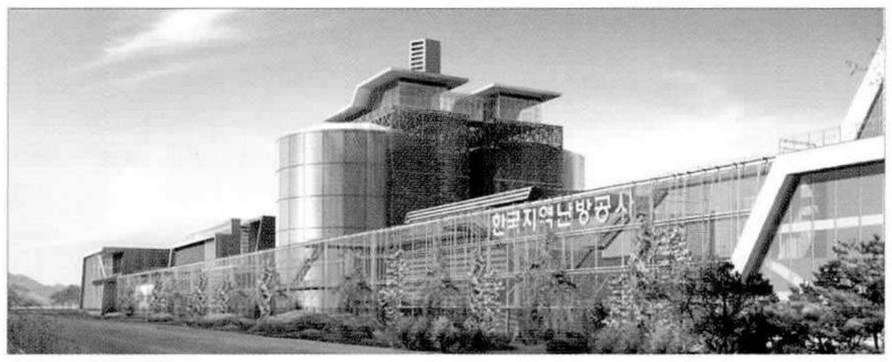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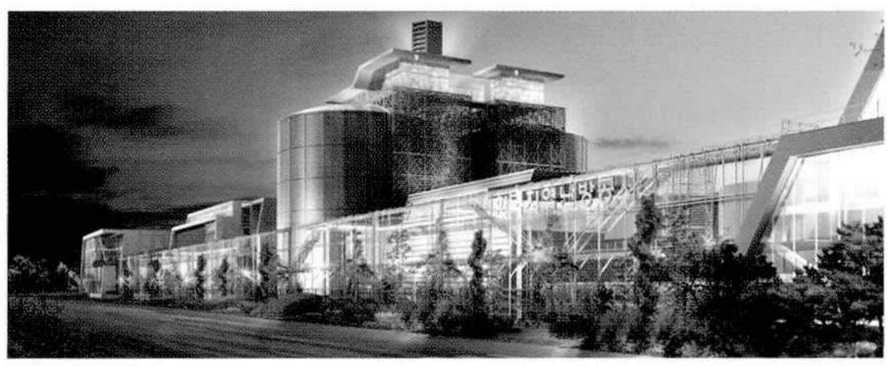
픽쳐 프레임 전경

CORRIDOR 견학 동선



시간대별(주/야간) CORRIDOR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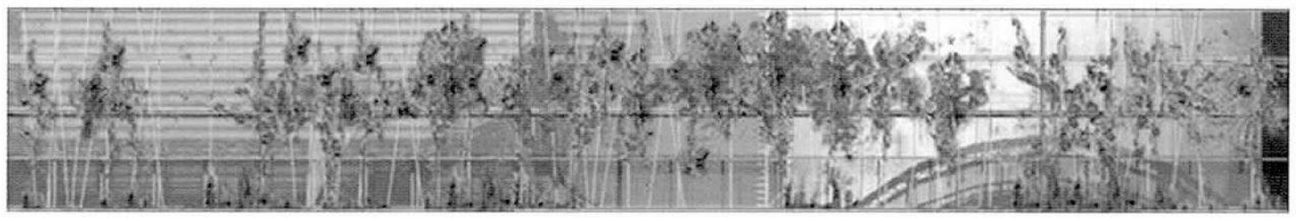


CORRIDOR GALLERY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연혁 및 자료 전시
-옥상정원과 CORRIDOR 연결 매개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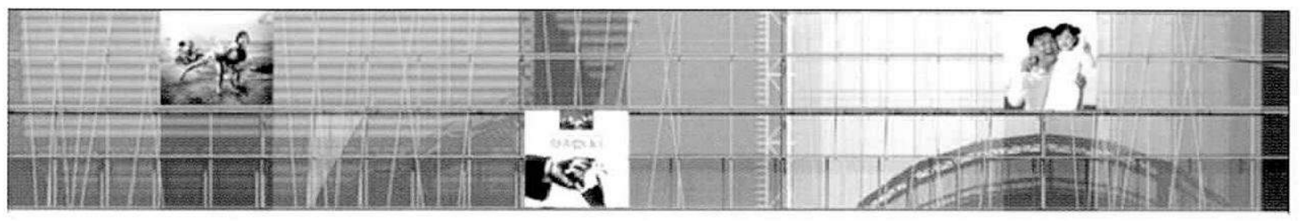
CORRIDOR TURNING OF THE SEASON



봄/여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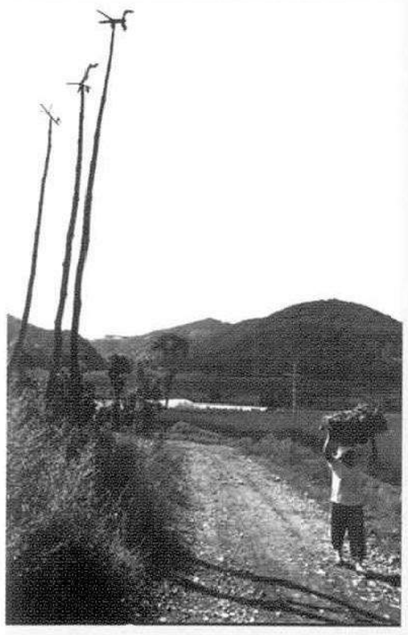


가을/겨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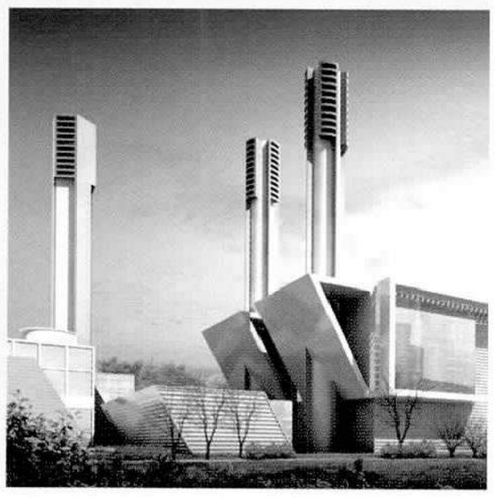
홍보 SIGN

연돌(STACK)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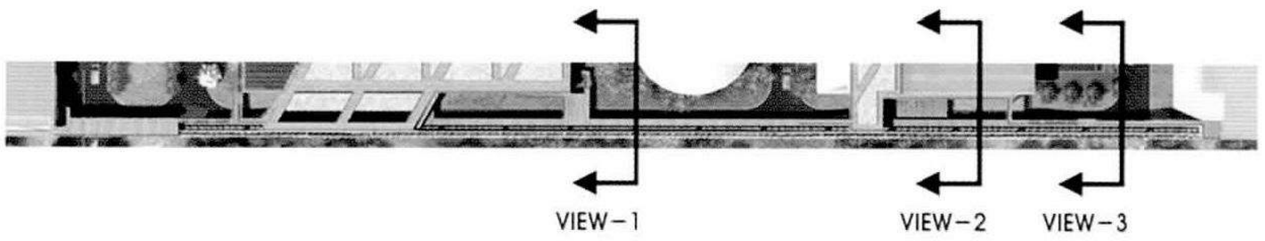


솟대
-하늘과 땅을 연결
-풍요로움과
수확을 담당하는
마을의 지킴이

계획안
-랜드마크적 개념으로서 파주시의 상징물화
-발전소의 '지킴이'로서 "솟대" 이미지를 차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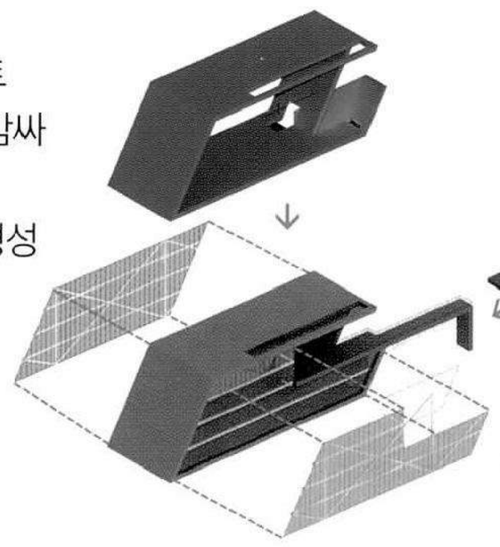


CORRIDOR SEQU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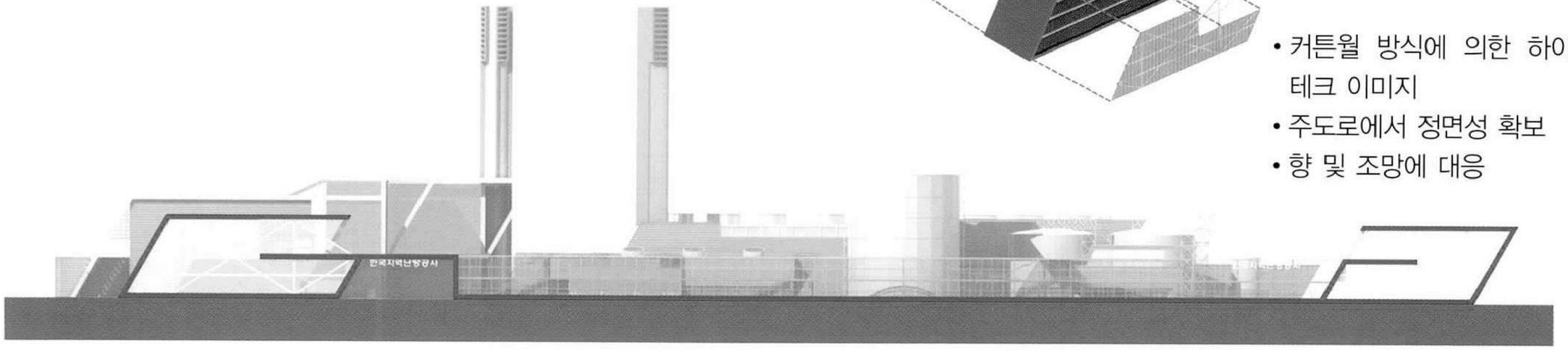




제어동
- 정면에서 시각적 포인트
- 투명한 유리를 띠로 감싸는 디자인
- 전체단지의 가로축을 형성



- 커튼월 방식에 의한 하이테크 이미지
- 주도로에서 정면성 확보
- 향 및 조망에 대응



김관중정회원 · 송주경정회원
(주.삼우 종합건축사사무소)
+ (주)시아플랜 건축사사무소
+ (주)해안 종합건축사사무소
+ (주)혜원까치 종합건축사사무소
+ (주)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 S.O.M + Gensler

용산 국제업무지구 PF사업
Yongsan International Business District

● 건축개요

	단지전체	단지내 용산드림타워
대지위치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1번지 일대 및 이촌동 일대	
지역지구	중심,일반상업/준주거, 일반주거	중심상업지역
주요용도	주거/업무/상업/숙박시설	업무/숙박시설
대지면적	566,800㎡	46,900㎡
연 면 적	3,155,787㎡	565,800㎡
용 적 률	608%	750% (중심상업지역)
조경설계	CA조경, DRA조경	
교통설계	교우ENG	
구조설계	정림구조	
설비설계	삼우설비	

설계담당 삼 우 _김동기, 윤문용, 이형일, 권순우, 김병성, 임선경, 이동호, 최성원, 김기호, 남궁인, 김동현, 강승규, 김용석, 김시영, 선우영진, 김애림
시아플랜 _김주원, 고희남, 이상민, 정재욱, 지경애
해 안 _안성호, 진병주, 장기혁, 임종훈, 오욱연
혜원까치 _조영선, 김동원, 정두석
디 에 이 _김남희, 조상호, 박창현

해외설계사 S .O .M _Mustafa K. Abadan, Anthony T. Vacchione, Chris Cooper, T.J. Gottesdiener, Nicholas Holt
Gensler _Marshal Strabala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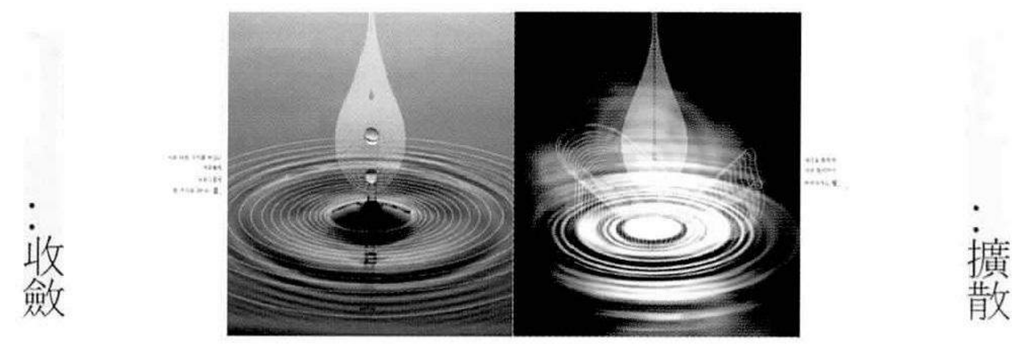
마스터플랜 계획의 주안점

마스터플랜은 단지 전체를 하나의 super-block으로 계획하여 단지순환도로와 지하통과도로 등을 활용한, 쾌적한 보행환경을 가진 단지로 구성하였다. 서울시 르네상스 계획과 연계하여 한강을 단지 내로 끌어들여 적극적인 수공간 계획을 하였으며 한강변에 문화시설을 집중배치하였다.

또한 국제페리터미널에서 용산역사까지 이어지는 입체보행 녹지데크를 도입하여, 단지가 철로에 의해 분절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주변의 녹지시설(용산 가족공원)과 연계한 Green Network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단지의 중심에 랜드마크타워를 비롯한 업무시설을 배치하고 단지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각각의 영역을 나누고 시설을 배치하였다.

드림타워 설계 Concept

용산 드림타워의 Concept Image는 새롭게 탄생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상징적인 Icon으로 낮에는 상징적인 물방울의 형태를, 밤에는 열정적인 불꽃의 형태를 모티브로 하여, 전체적으로는 물(한강)과 빛(첨단)의 도시 서울의 랜드마크로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Concept Image

드림타워 계획 특징

용산 드림타워의 전체적인 외관 형태는 우리나라 전통건축에서 보여지는 배흘림기둥의 간결성과 시각적인 안정성을 모티브로 하였으며, 이러한 형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구조적인 완결성을 찾고자 하는 노력 또한 수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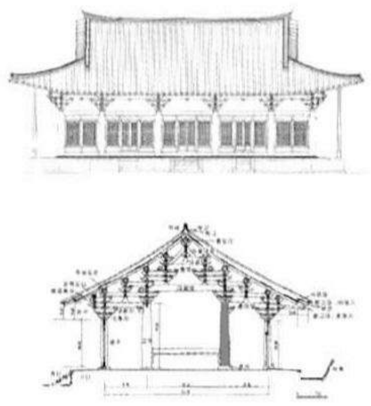
초고층 건축물에 있어 끊임없이 제기되는 구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의 하나로 ESO(Evolutionary Structural Optimization) 구조해법을 통해 원통형 구조체를 상부가 점점 좁아지는 원추형 형태로 재가공 하여 Vortex Shedding Force를 최소화하여 풍압에 대해 보다 완벽한 구조체로서 맞설 수 있는 디자인 형태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고층 오피스의 경우 공사비가 많이 들고 사용이 불편하여 임대 및 분양이 어려우므로 상층부는 최소한의 면적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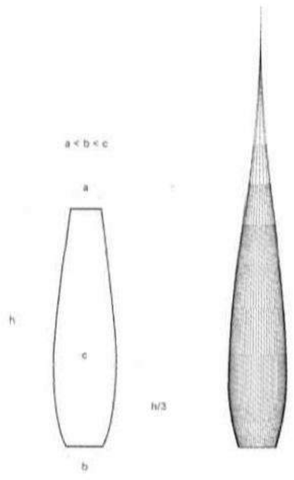

LOUIS VUITTON
DOLCE & GABBA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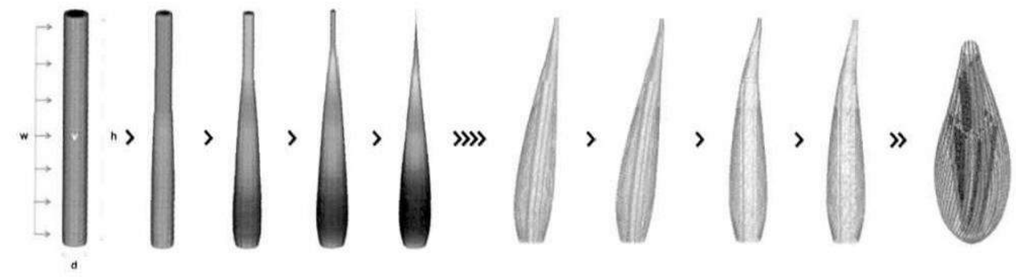


ARCHITECTURAL TRAD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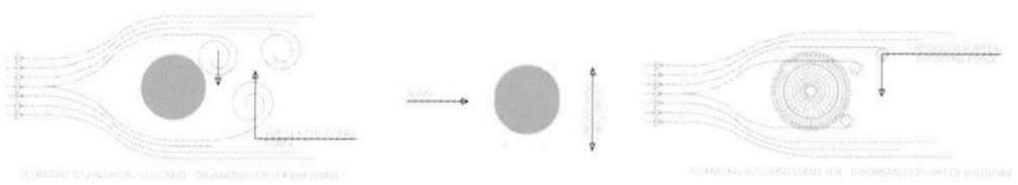


전통건축 배흘림기둥





ESO 구조시스템



Vortex Shedding Force

로 호텔 또는 부티크 오피스로 계획하였다.

드림타워에 계획되어진 전망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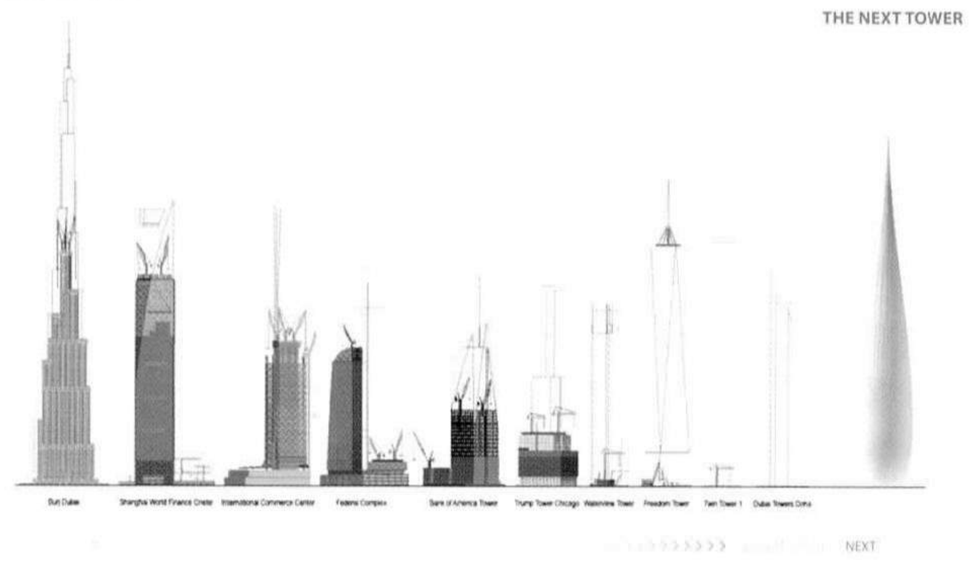
서울시는 기후 변동이 심하고 안개가 많은 지역이다. 따라서 다른 타워들처럼 전망대를 최상부층에만 설치해서는 1년중 며칠되지 않는 최상의 기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전망대로서의 기능을 할 수 가 없다. 드림타워는 기후에 따른, 그리고 높이에 따른 전망을 효율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전망대를 25층, 47층, 73층, 129층으로 분산 배치 시켜 실질적으로 전망이 가능한 거리를 효율적으로 조망하도록 높이별로 분산 배치했다.

4개소로 분산배치된 전망공간의 관광루트는 국제관광객의 방문시 한곳에 집중적으로 몰리지 않도록 이용 및 이동의 효율성까지 고려되었다.

- 129층 전망대 : 478m – 서울 전역 및 개성까지 조망권 가능
- 73층 전망대 : 293m – 서울 전역 조망
- 47층 전망대 : 189m – 한강 인근에 대한 조망
- 25층 전망대 : 99m – 단지내 조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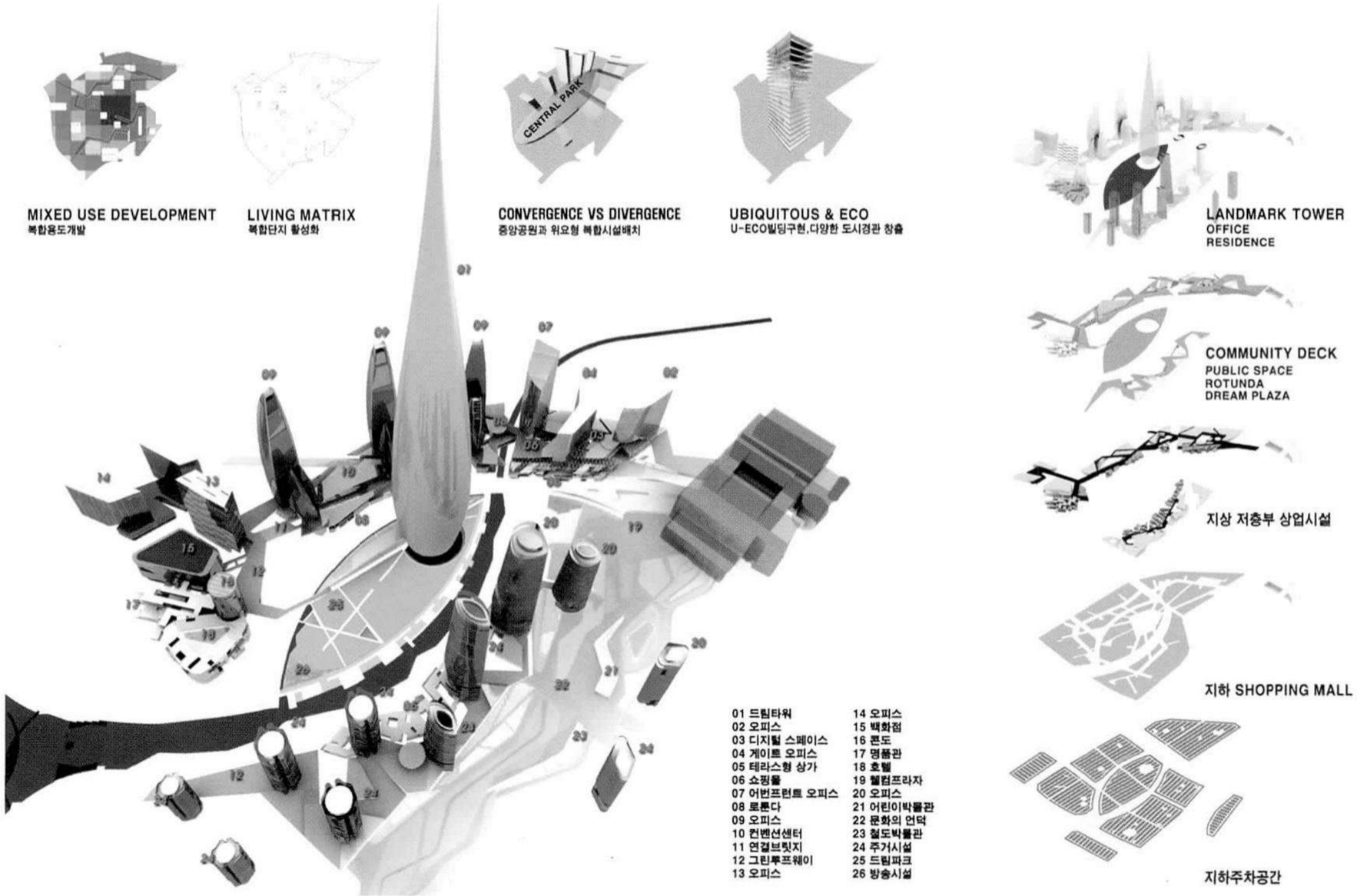
종합적으로 용산 드림타워는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는 초고층 건축의 흐름을 뛰어넘는 순수하고 원초적인 형태로 미래의 새로운 초고층 건축의 트렌드가 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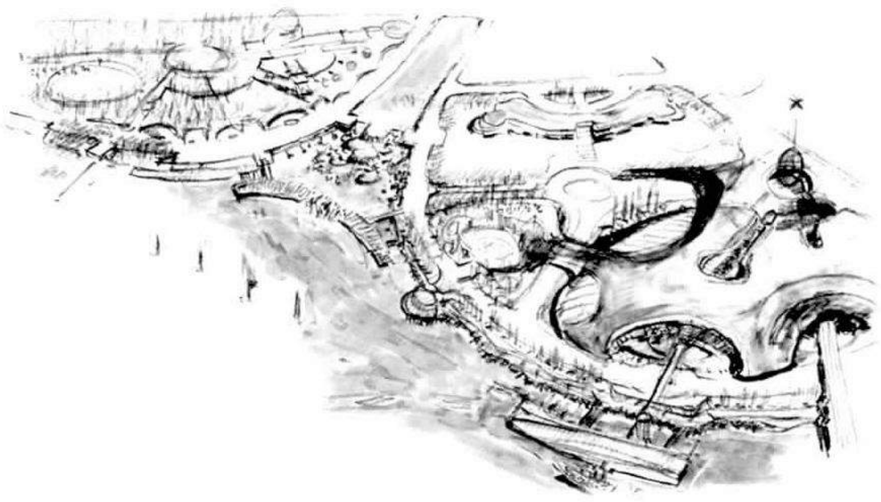
21st CENTURY LANDM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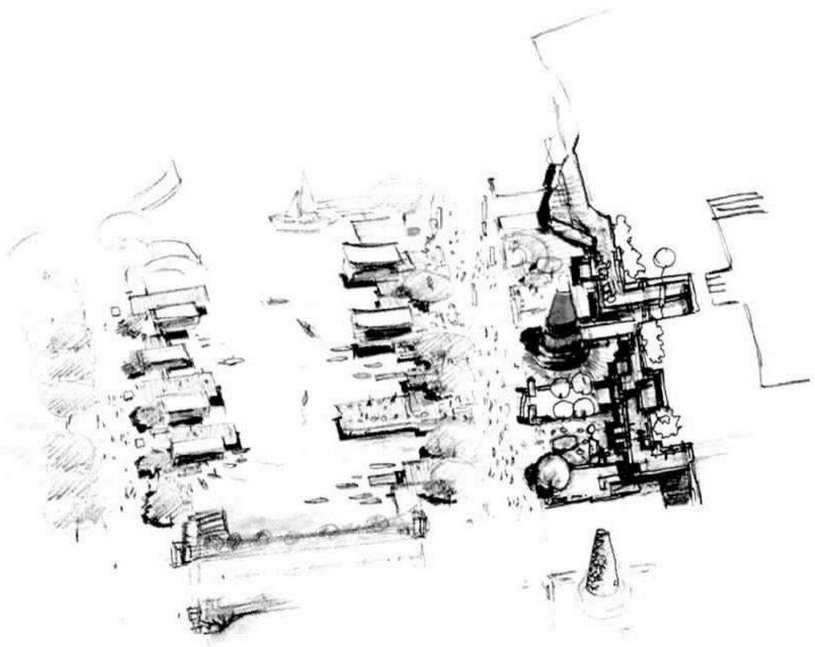


High-rise Building Design Trend

건축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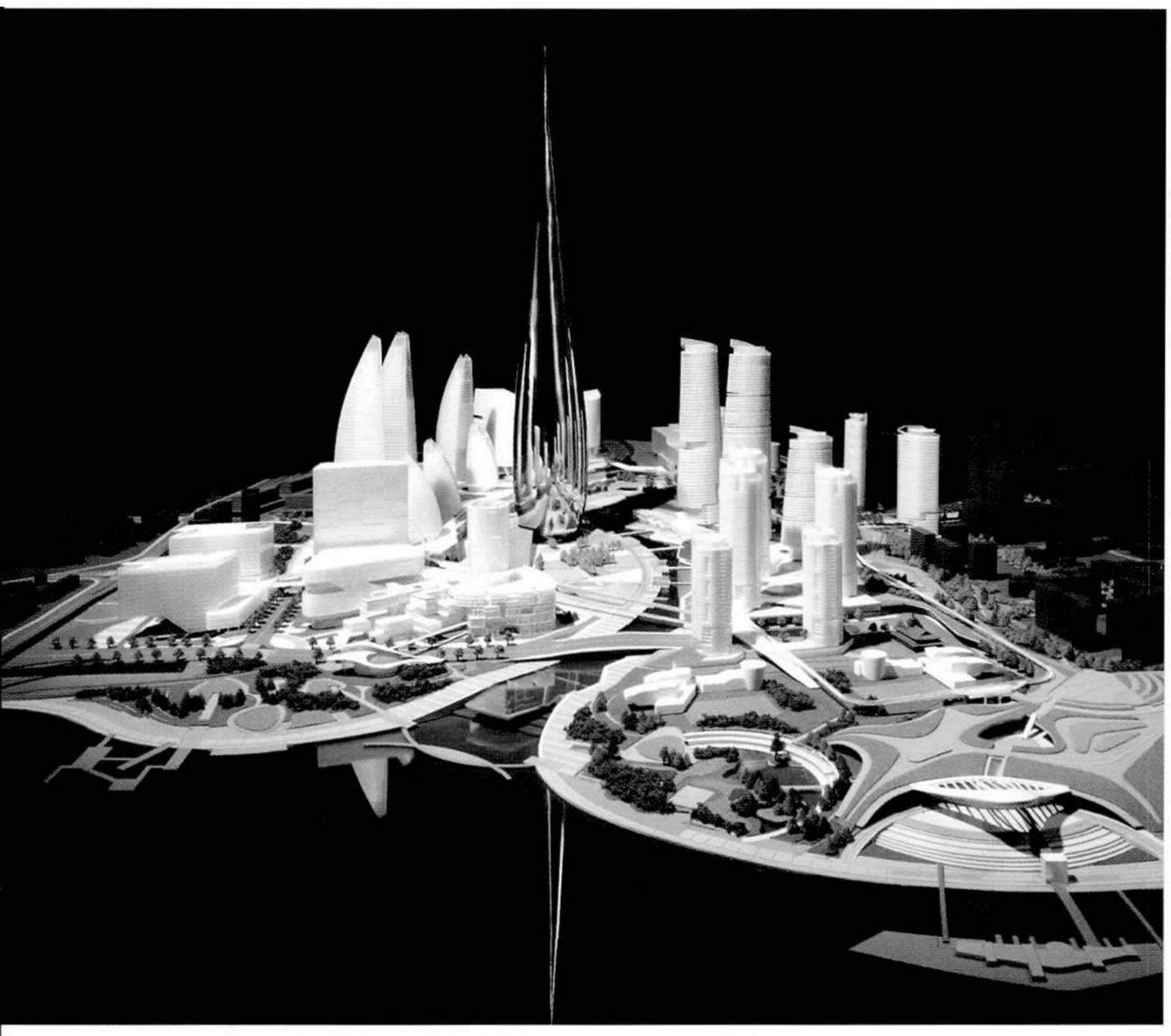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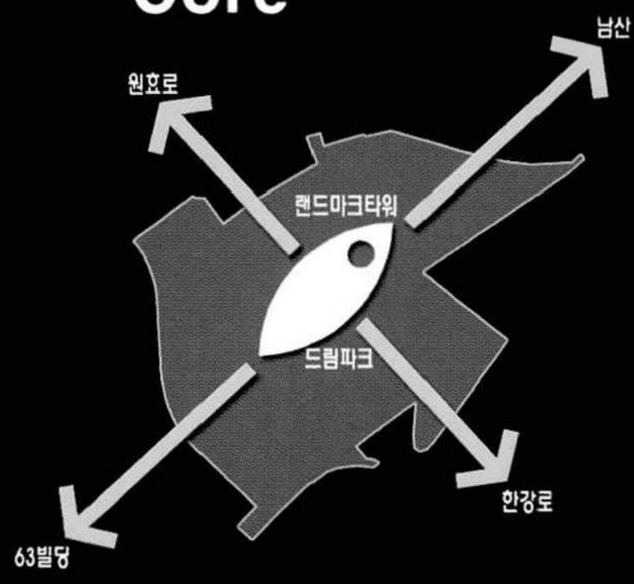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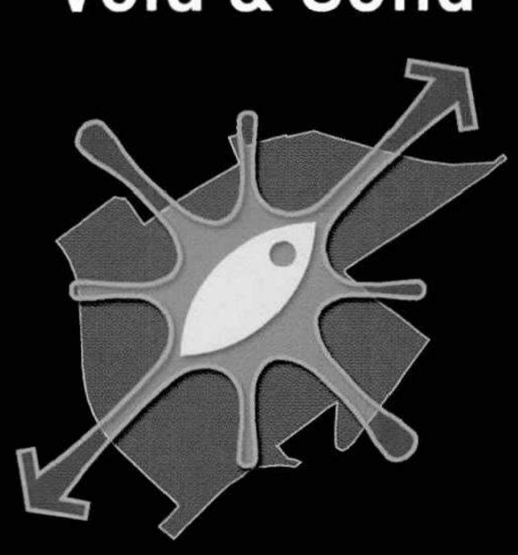


C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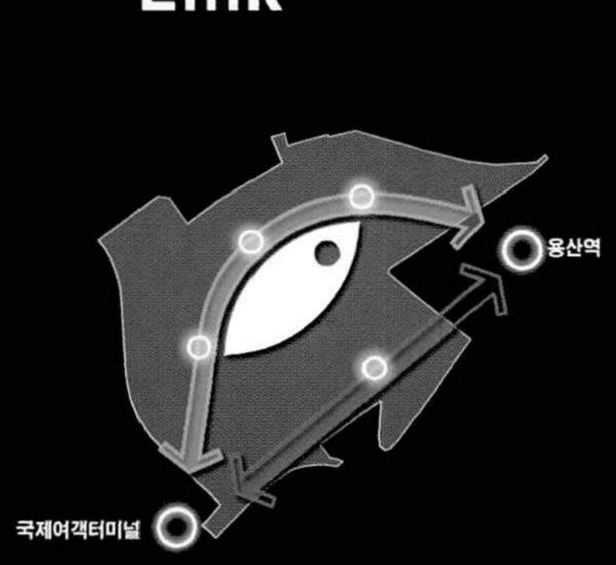
-도시중심축에 수직 수평적
상징성 부여

Void & Sol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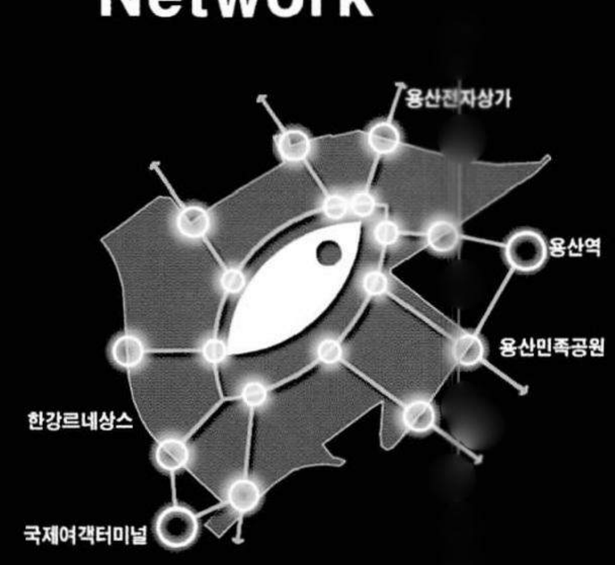
-집중과 분산을 통한
토지의 효율적 활용

Li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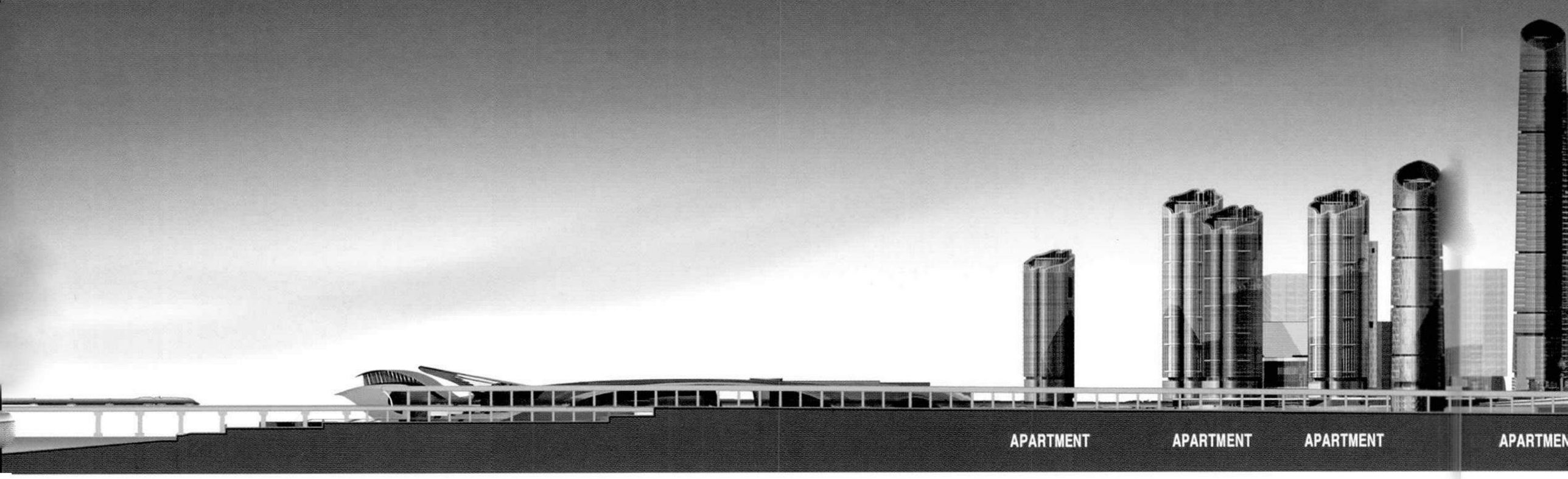
-집객시설간의 유기적 연결로
단지의 활성화 유도

Net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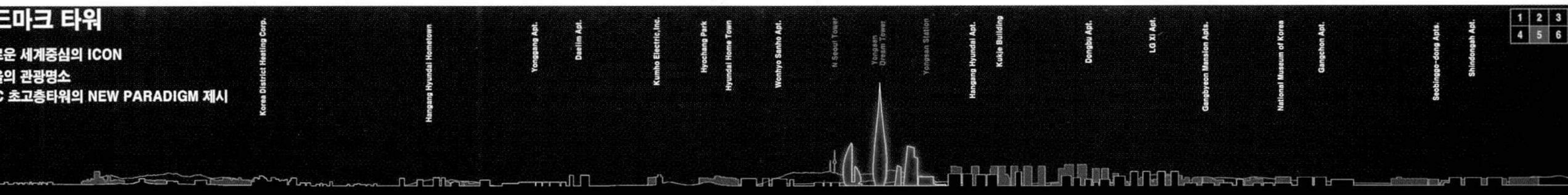
-주변여건을 고려한 토지이용 및
시설배치계획 수립

교통계획



드마크 타워

운 세계중심의 ICON
육의 관광명소
C 초고층타워의 NEW PARADIGM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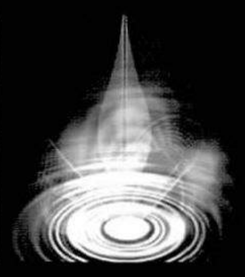


1 2 3
4 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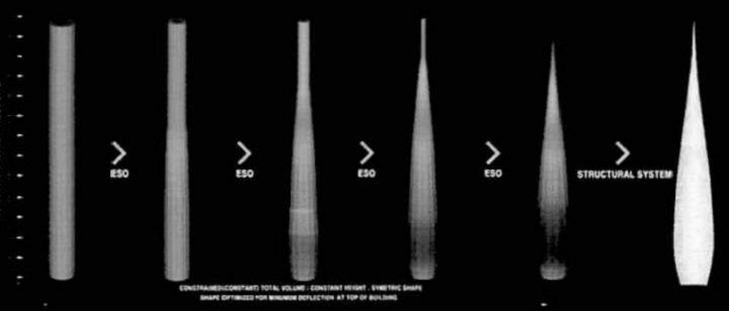
c New Icon

지에 새로운 생명(도시의 탄생)을
트게 하는 물방울
4시간,365일 활력과 열정넘치는
시를 상징하는 불꽃
(한강)과 빛(첨단,IT)의 도시
을을 상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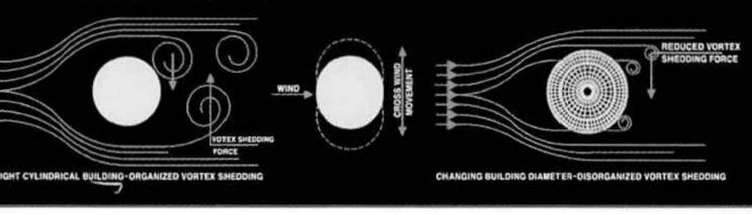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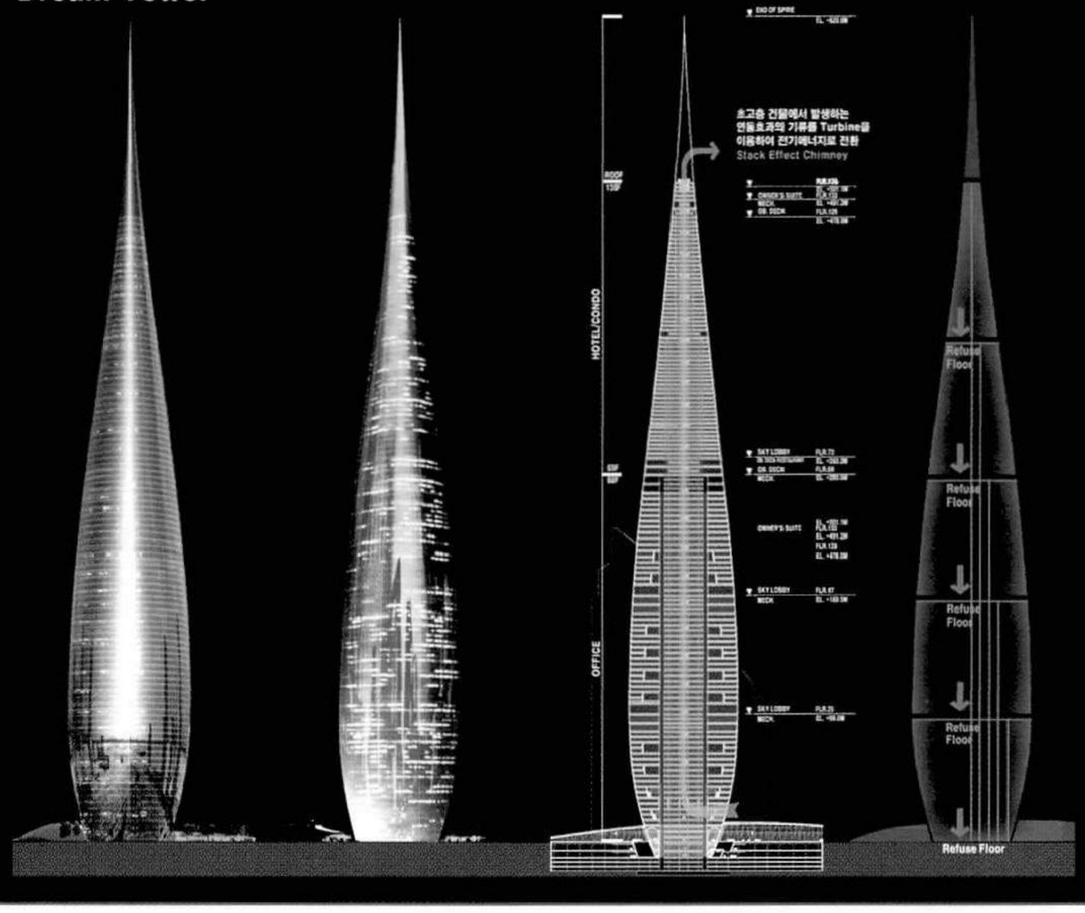
ructure System



rtex Shedding 을 최소화 하는 구조계획



Dream Tower



Typical Floor Plan & View

Restaurant Mezzanine Floor Plan



Observation Deck & Sky Lounge



Typical Office Floor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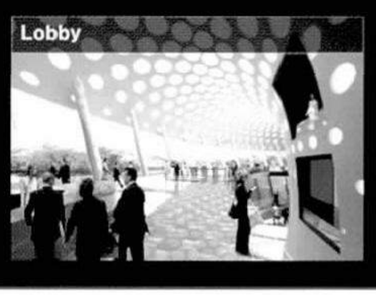
Skip Floor Office



Lobby Floor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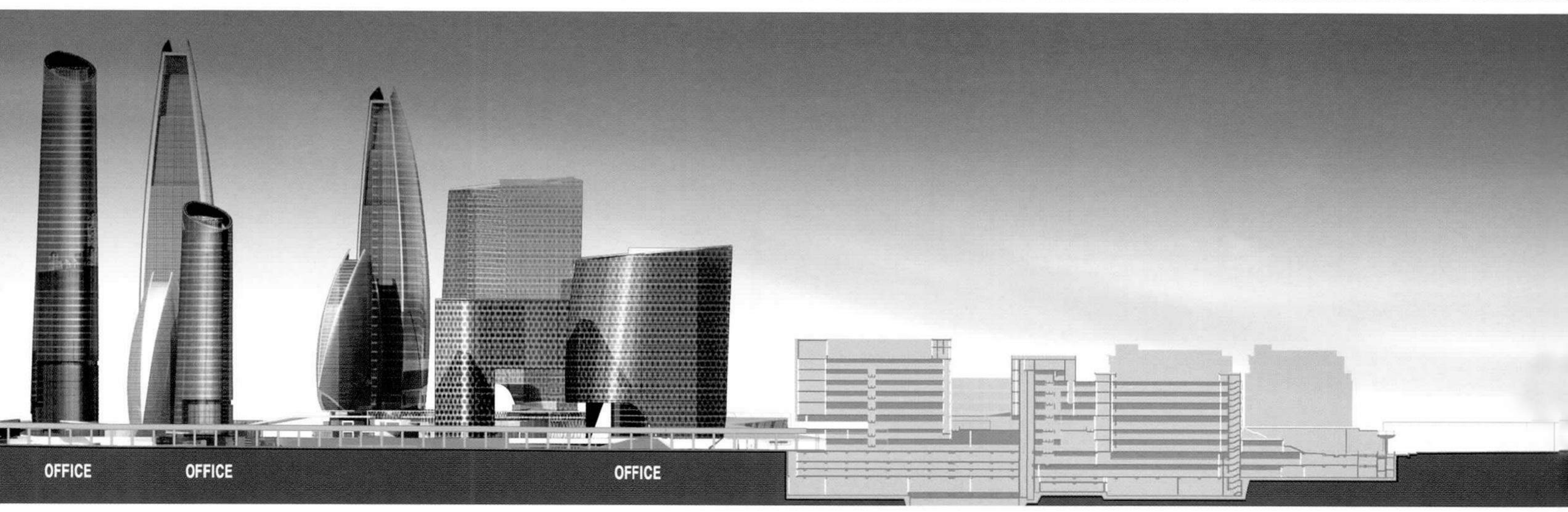
Lobby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청사

Gwangju District Court Mokpo Branch Court

당선작 / 조형준 정회원
(주. 준원건축사사무소)
+ 김원기 · 정순근 정회원
(건축사사무소 노드)

대지위치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1201번지
지역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공공용지
주 용 도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대지면적	27,358.80㎡
건축면적	3,659.96㎡
연 면 적	12,232.00㎡
건 폐 율	13.38%
용 적 률	38.81%
규 모	지하 1층, 지상 5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발 주 처	법원행정처
설계담당	변형준, 최원종, 정대용, 박성환, 이상철

법원행정처에서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청사 건립계획에 의해 우수한 설계안을 선정하기 위한 설계경기를 실시하였다. 목포지원은 기존시설의 구청사가 있으나 노후화 및 협소한 반면, 목포시는 날로 확장, 발전하고 국제적 해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도시발전의 추세이므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와 현대적 시설을 갖춘 법원청사 신축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청사는 주변의 자연환경과 순응되는 배치 및 효율적 업무흐름을 위한 기능성의 추구, 경쾌한 외관 등을 지향하여 친근감 있는 법원이 되도록 계획하였다. 즉 법원은 단순히 업무만을 보기위해 가는 곳이 아니라 공원과 같이 느끼고 자연스러우며 쾌적한 부지내 환경이 되게 하는, 다시 말해 편안하고 온화한, 친근감 있는 이미지를 부여하여, 그리고 그 내에서 원하는 업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호 이해와 양보, 화해의 사고가 어우러질 수 있는 장소가 되게 하였다. 이에 주요 설계안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자연환경과의 조화

대지는 부주산의 북측배경과 부흥산, 오룡산이 좌우측으로 둘러싸임, 남측으로펼쳐진 지평, 영산호, 바다로 이어짐은 자연과 함께하는, 풍수적 조건을 갖춘 최적의 환경이다. 여기에 법원청사를 신축계획 하는데 따른 부지의 이용에 있어서는 전면이 넓게 트인 시야이므로 개방된 넓은 마당으로, 후면은 산과 바로 접해 있어 자연경관을 적극 유입하게 하는 모임형식의 후정으로서 계획하였다.

건물의 층수, 높이 계획에 있어서도 펼쳐진 넓은 대지이므로 고층화가 아닌, 대지에 안정되고 넓게, 균형된 분포로서의 형태를 추구하였다. 또한 배경산과 좌,우측 산이 낮게 바로 접해 있으므로 자연경관이 청사에 최대한 가려지지 않고 조망될 수 있도록 대지 주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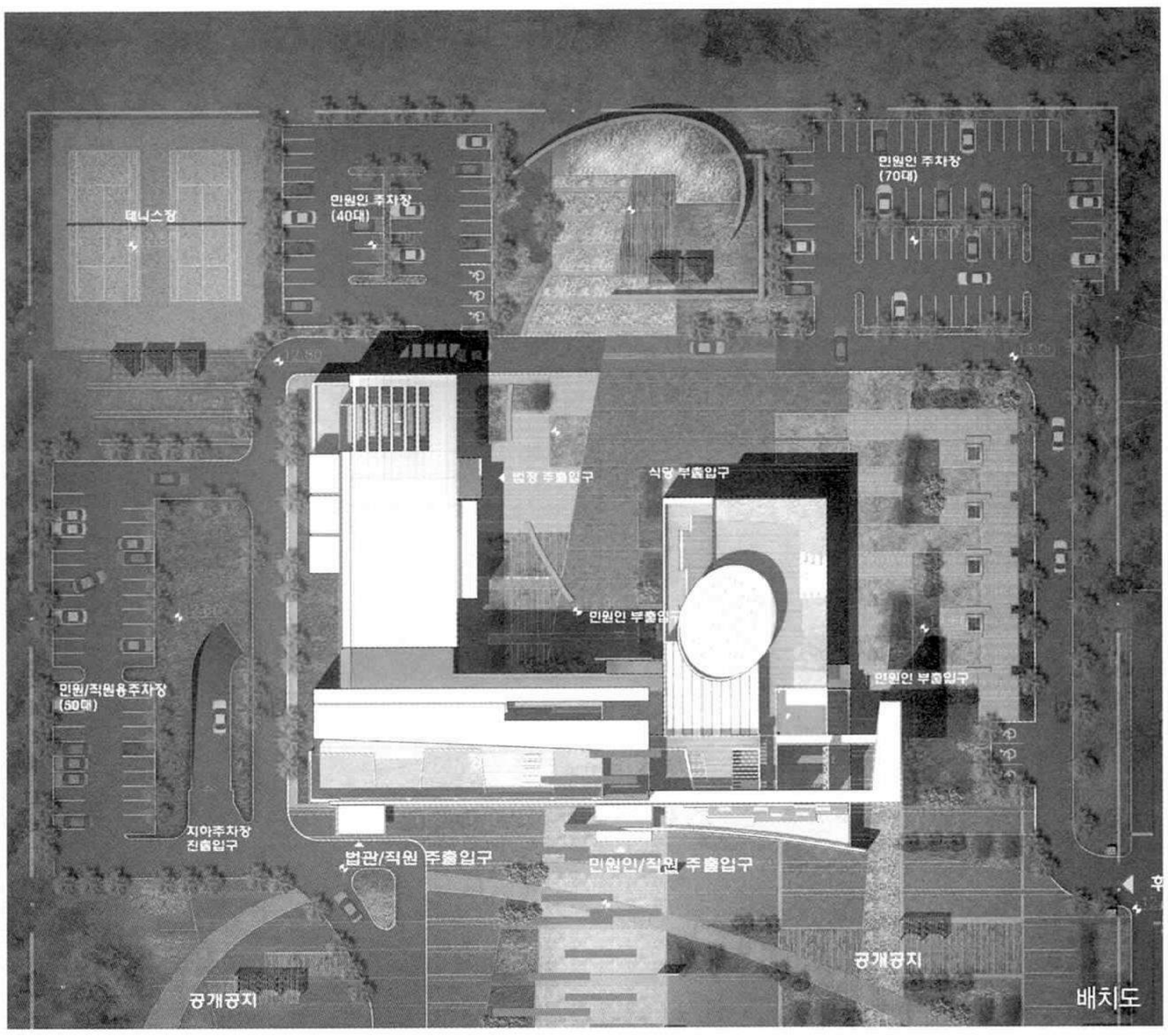
환경에 적합한 높이형태를 감안하였다.

기능성 제고 및 친근감 있는 법원

민원, 법정, 청사업무영역이 명확히 구분되게 하고 동선을 분리함으로써 민원인이 업무장소를 쉽게 찾고 단순, 명료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업무진행의 효율성을 기하여 편안 법원의 이미지를 추구하였다.

법정은 집약화배치 및 코어를 별도로 하여 집중적 이용에 편리성과 동선의 단순화를 시도하였으며, 민원에 관계되는 일반과는 저층에 배치 및 재판업무연구의 법관실은 상층부에 두어 민원인의 편의와 법원업무진행이 능률적일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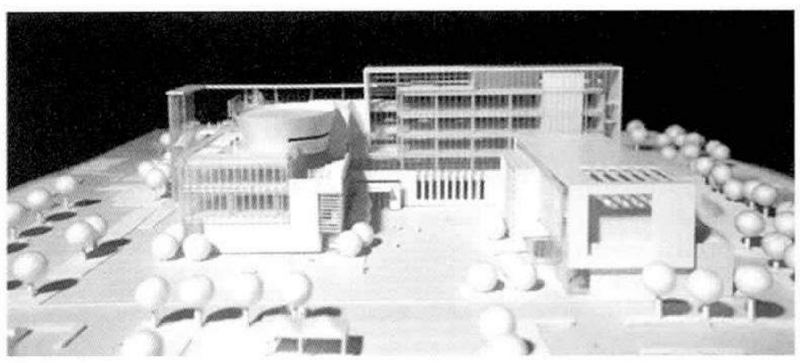
외관형태는 분할과 매스의 들고 남, 재료의 패턴, Void와 Solid 등 입면의 다양성을 통해 법원의 경직된 이미지를 탈피하여 친근감을 부여 및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입면구성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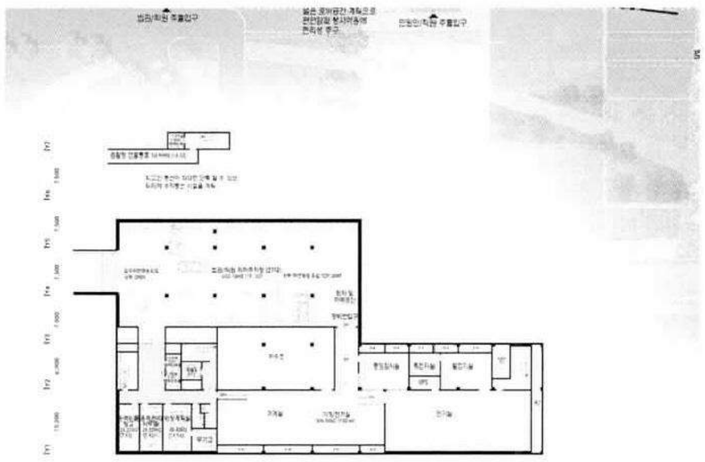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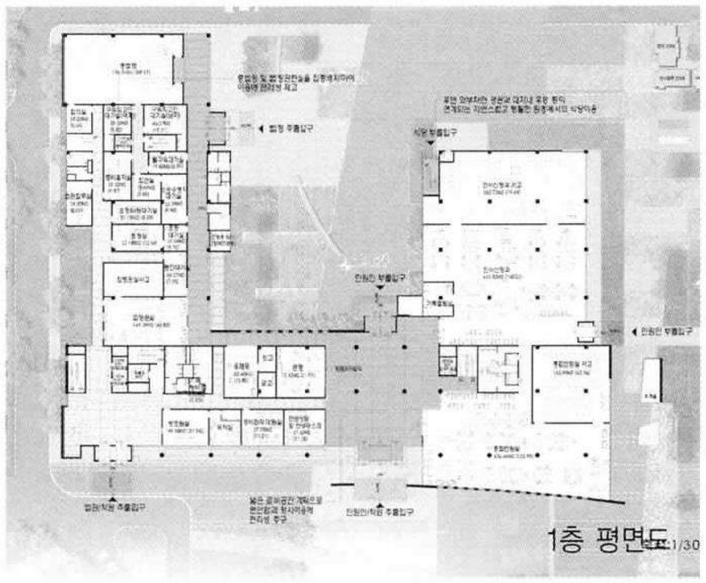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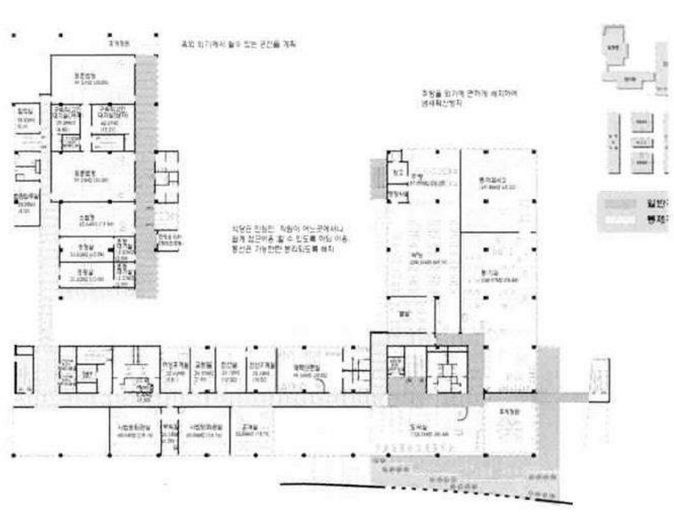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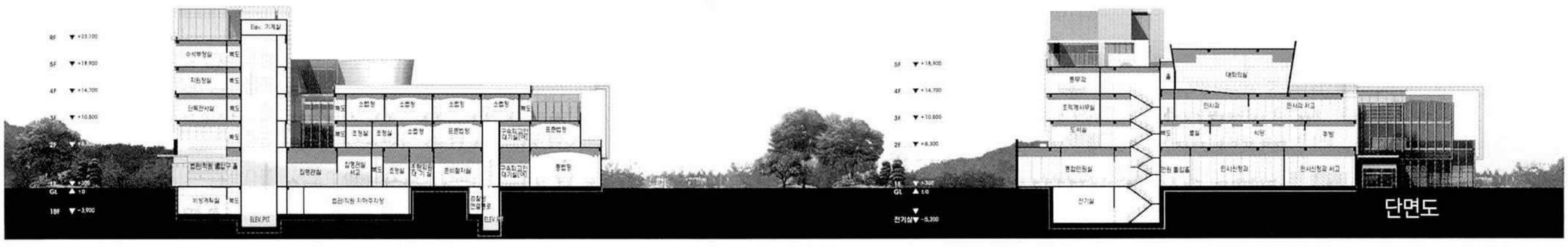

지하1층 평면도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


단면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청사
Gwangju District Court Mokpo Branch Court

우수작 / 김동주 · 전영성 정회원 · 김동수
(주.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1201번지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주요용도 법원 청사
대지면적 27,358.80 ㎡
건축면적 3,603.94 ㎡
연 면 적 12,247.17 ㎡
건 폐 율 13.17 %
용 적 률 37.17 %
규 모 지하 1층, 지상 7층
설계담당 김대영, 임주섭, 유재만, 이장우, 송인수, 석진국, 손승환

법원만큼 복잡한 기능이 어우러지는 건축물도 많지 않을 것이다. 복잡한 기능과 동선이 교차되고 분리되는 관계속에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최근 들어서 법원건축의 성격은 법관, 직원, 민원인으로 대변되는 사용자 중에서도 특히 민원인을 중심으로 공간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번 계획에서도 그러한 시대성이 반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지나치게 수용하여 전통적 법원의 장점마저도 사라져 버리는 것은 경계하였다.

법원건축으로서 나름대로의 위계를 유지하면서도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생각한 것이 '비켜서기' 다. 즉 곧고 강직한 법원 고유의 이미지는 일견 유지되어야 할 부분으로 판단, 단지 민원인 공간을 중심으로 한켠 옆으로 비켜서 주는 형태로 구성하였다.

'비켜서기'

위계가 강조된 청사동 중심의 전통적 배치 형태에서 청사동을 측면 배치하여 전통적 법원의 과도한 권위감과 경직된 이미지를 탈피하고, 대지내 보행동선을 중심으로 각각의 고유영역을 설정하여 영역간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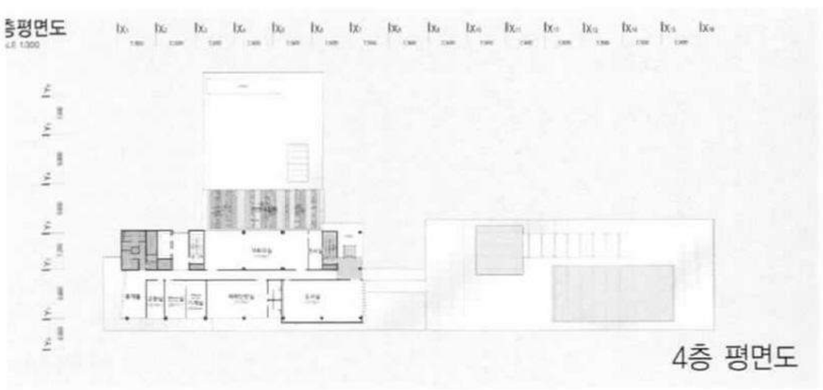
'나아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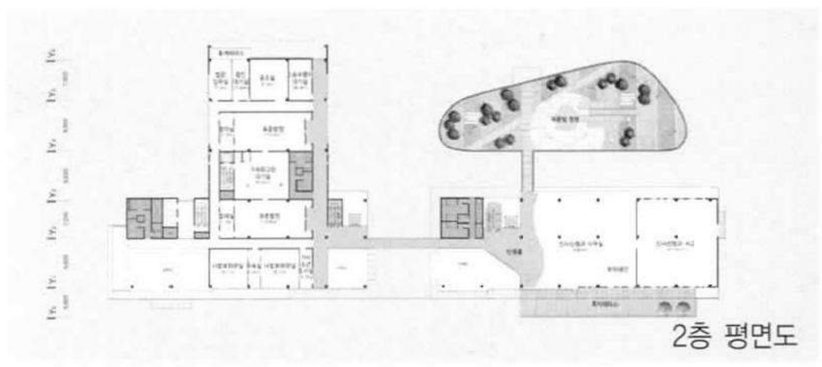
계획부지는 건물규모에 비해 여유로운 상황으로, 대지 전면으로 청사동 및 민원동 배치하였고 특히 민원동은 가로변을 따라 길게 배치하여 보행자의 인지성 및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와 어우러지는 공공 공간으로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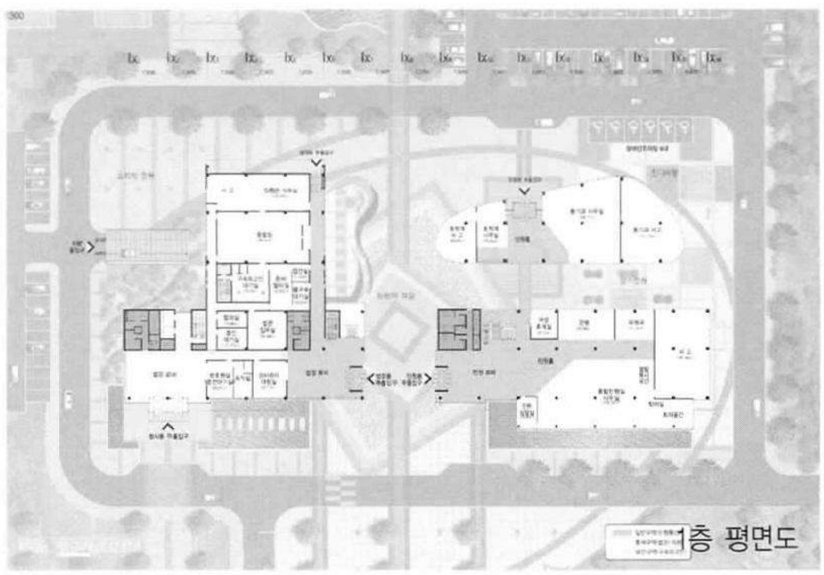
'아우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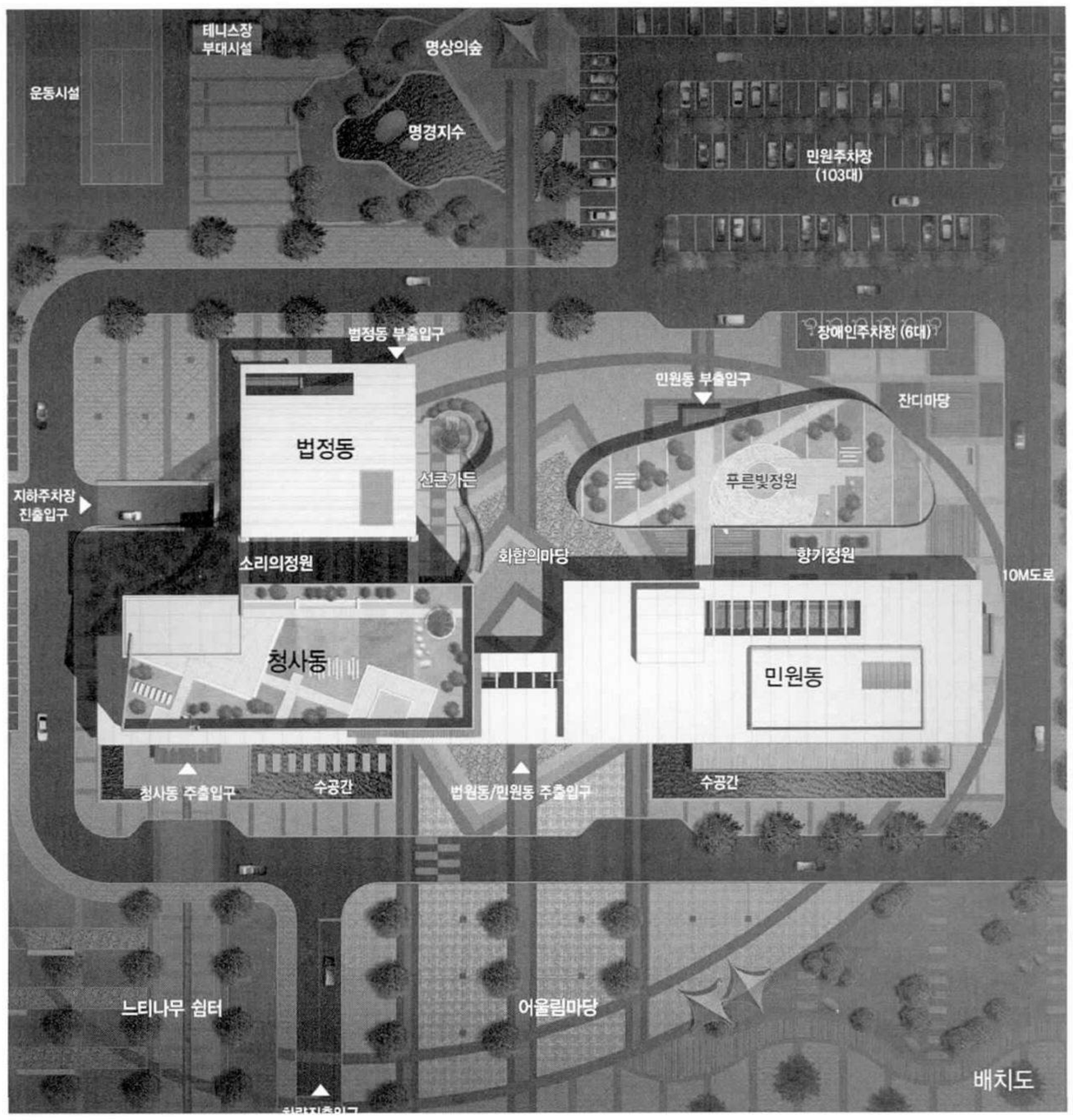
대지 남북으로 부주산과 영산호를 잇는 자연경관축을 대지내 보행중심축으로 설정, 자연경관과 연계된 동선을 구성하고 이를따라 민원동, 청사동, 법정동 등 고유기능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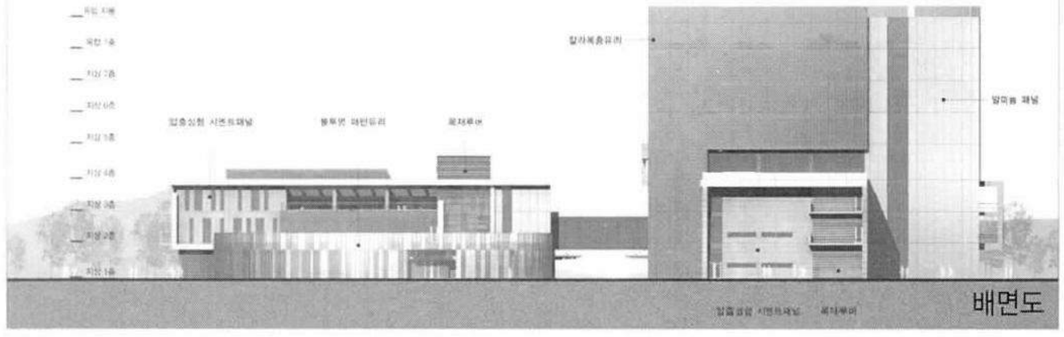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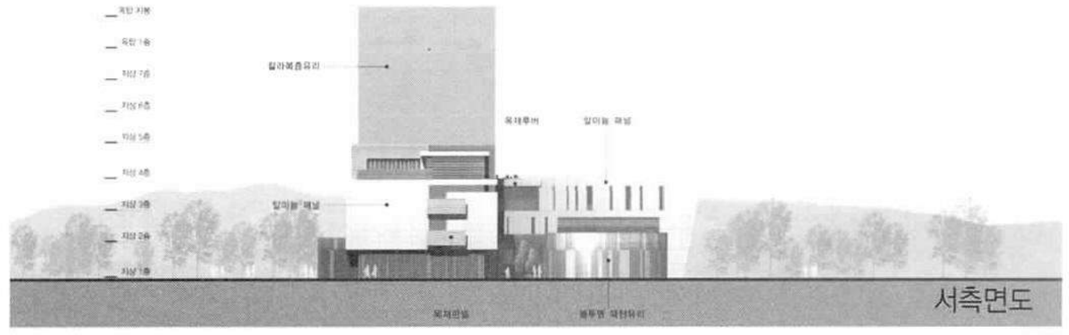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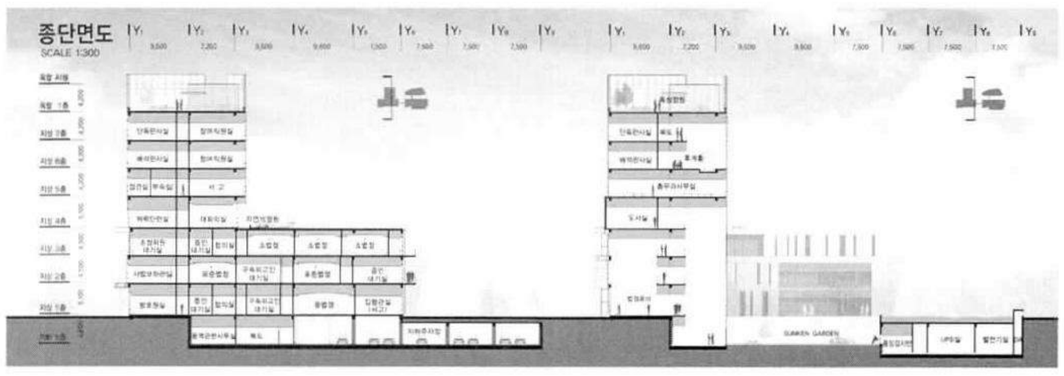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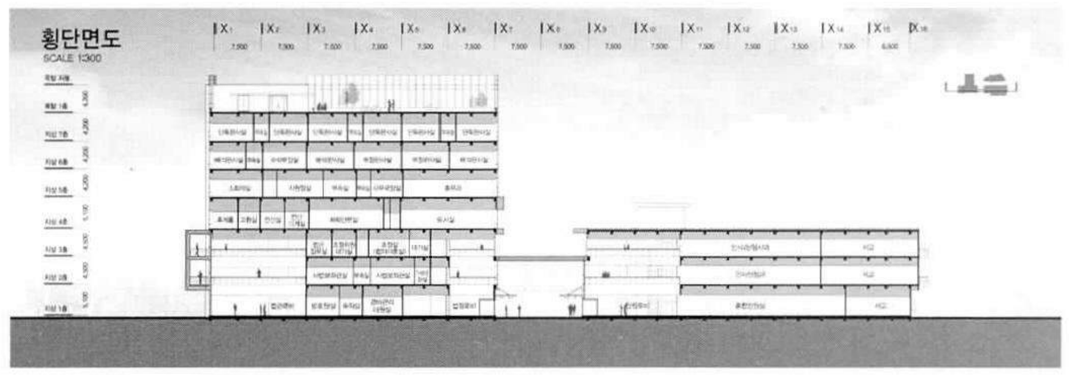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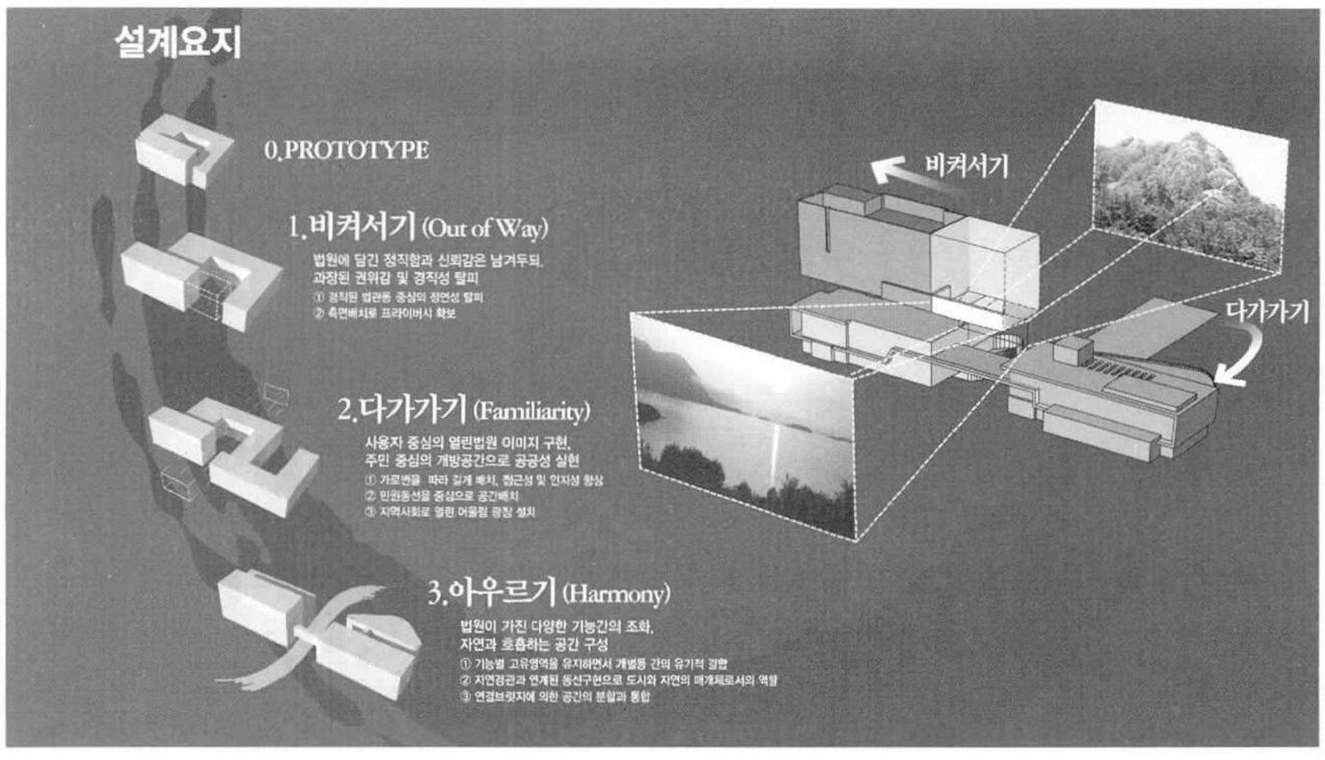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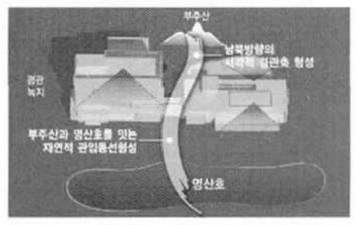






■ 자연으로 열림 (GREEN NETWORK)

- 분절된 매스를 통해 부주산과 영산호를 잇는 경관축 형성
- 진입축을 따라 자연으로 스며드는 공간계획,남악신도시 친환경계획과 연계
- 옥상정원, 휴게테라스, 선큰 가든 등 다양한 녹지공간 조성



■ 도시적 연속성 (URBAN NETWORK)

- 남악신도시의 가로축에 순응하고, 이웃 검찰청 배치를 고려 동서방향으로 주동 배치
- 법원의 정면성과 시각적 인지성을 극대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청사

Gwangju District Court Mokpo Branch Court

가작 / 한현호 정회원
(GNI종합건축사사무소,주)

대지위치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1201번지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주요용도 업무시설(공공청사)
대지면적 27,358.80㎡
건축면적 3,745.539㎡
연 면 적 12,244.803㎡
건 폐 율 13.69%%
용 적 률 36.83%
규 모 지하 1층, 지상 6층
설계담당 지승선, 윤일수, 김영환, 이송희, 최선희, 엄영진, 김대숙, 김신, 이형민, 박정준, 진건욱

concept

이 계획안은 옥암신도시에 들어서는 목포시의 법원으로 바다를 향하고 산을 등에 업은 자연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여 법원청사 내에 빛과 자연을 담아 기존의 법원과 차별화되는 편안한 곳으로서 하나의 장소성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주변 환경과의 조화로운 배치를 이루었고, 친환경재료의 적용 및 유기적인 내 · 외부 공간구성으로 쾌적하고 기능적인 법원환경을 만들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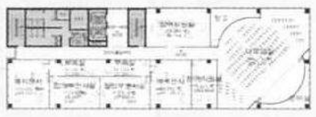
배치개념

-기능상 분리 및 업무의 독린성 확보
-각 기능별로의 최단거리 진입이 용이하고, 직원, 법관, 민원인의 명확한 동선 구분가능
-남향배치로 청사의 채광유리
-식당의별동화를 통한 건물내 환경성 고려
-각 기능별로의 충분한 옥외공간 활용 및 영역성 확보
-진입축에 따른 정면성 확보 및 검찰청과의 대등한 상징성을 부여

평면개념

-로비로부터 아트리움을 통한 수직동선 계획
-대지레벨조건을 이용한 2층에서의 후면진입계획
-법관동, 법정동, 민원동으로 분리하여 기능별 영역성 확보
-법관동선과 민원동선의 명확한 분리
-법정공간을 집약하여 민원인의 편의도모 및 법관 동선의 최단화
-자연으로의 열린시야 확보로 민원 동선의 쾌적성 증대
-판사실의 집중배치를 통한 업무의 연계성 확보 및 통제용이
-법정동, 민원동 상부에 옥상조경 조성하여 쾌적한 휴게공간 제공
-대회의실의 최상층 계획으로 개방감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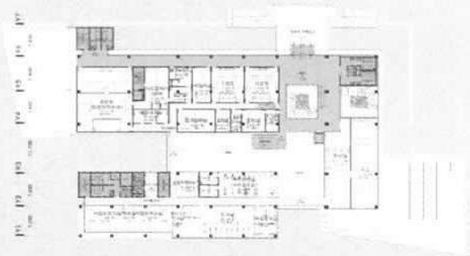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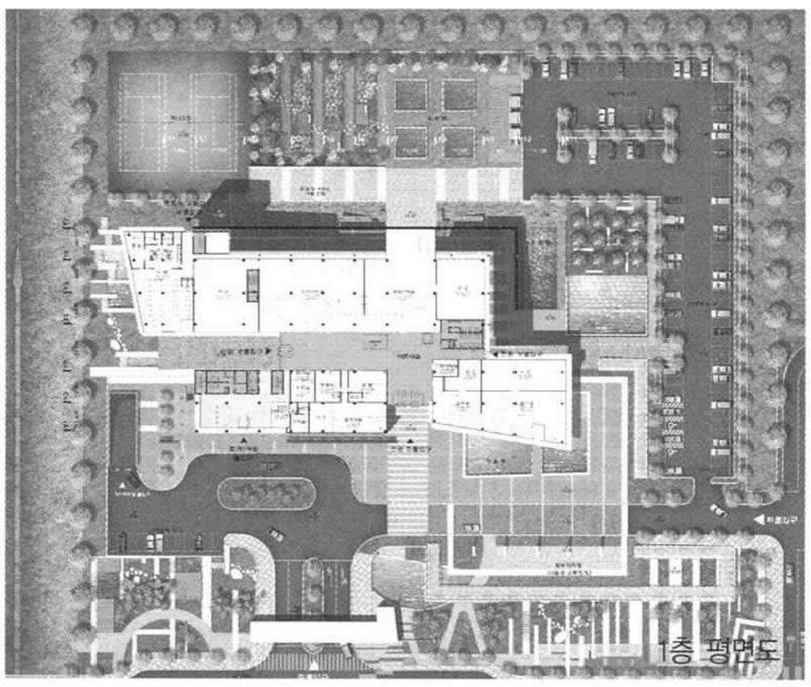
6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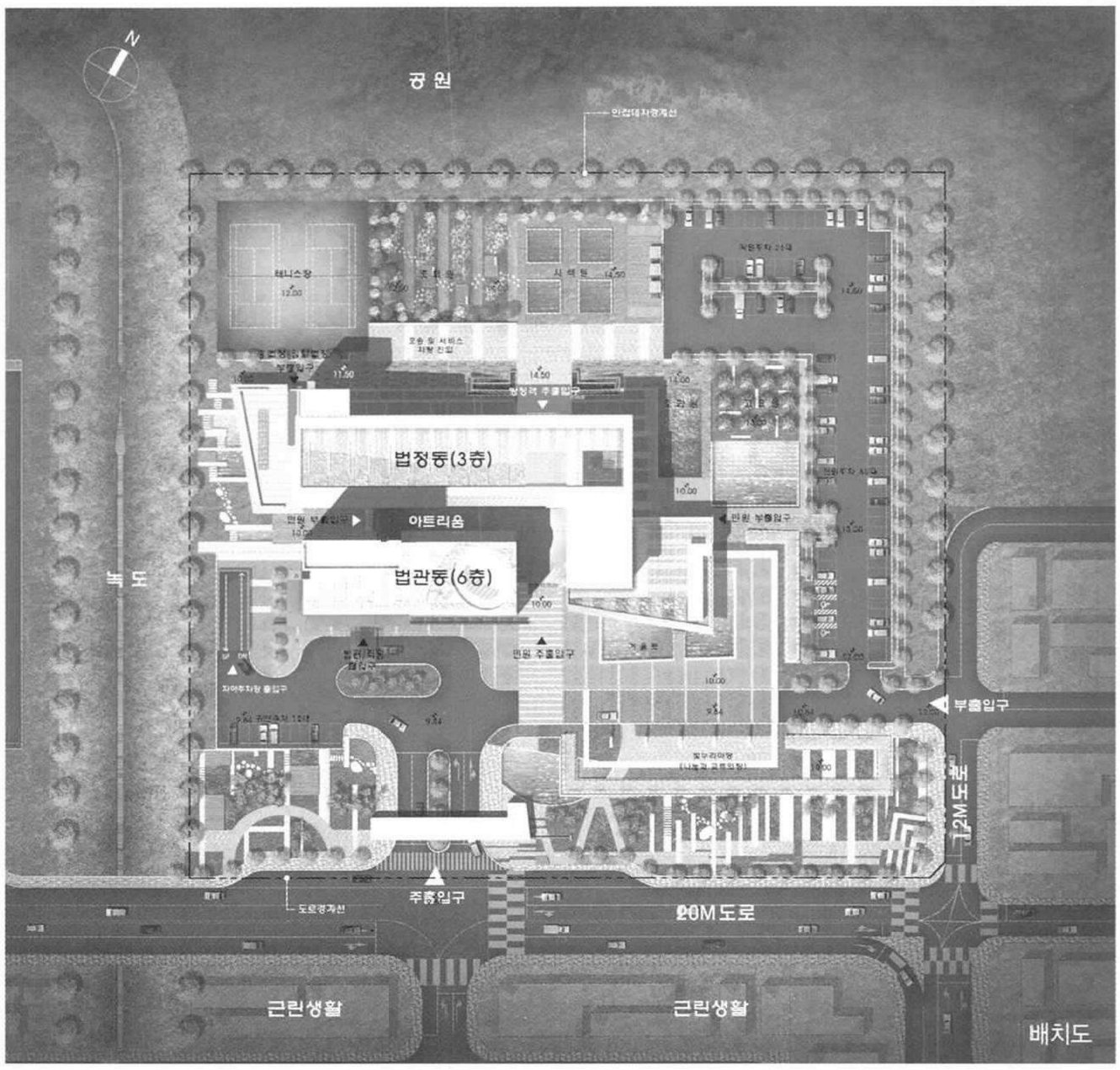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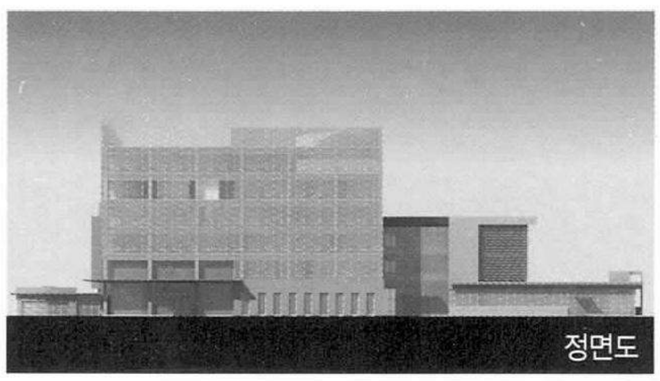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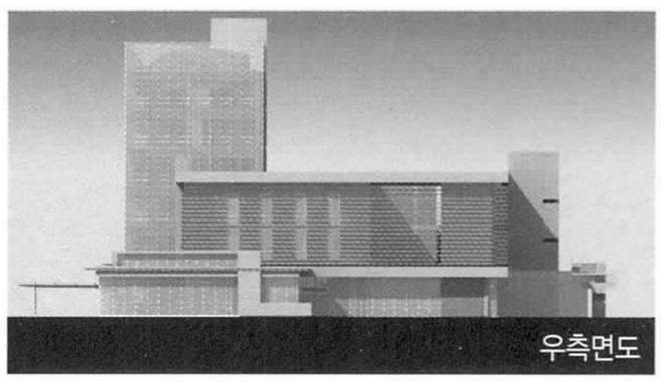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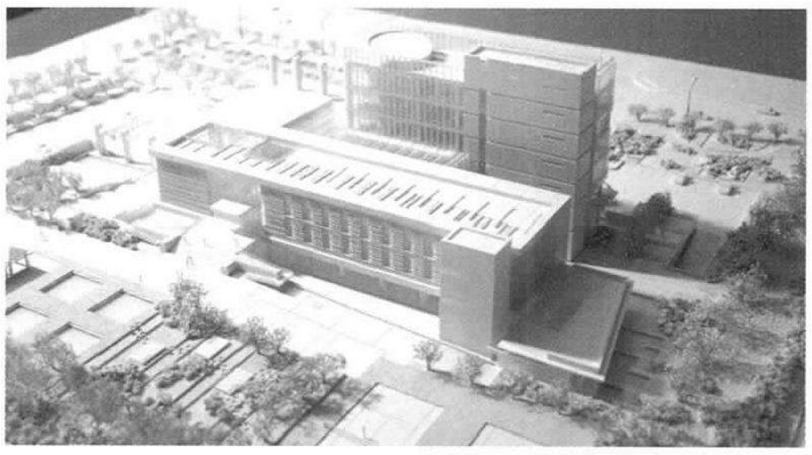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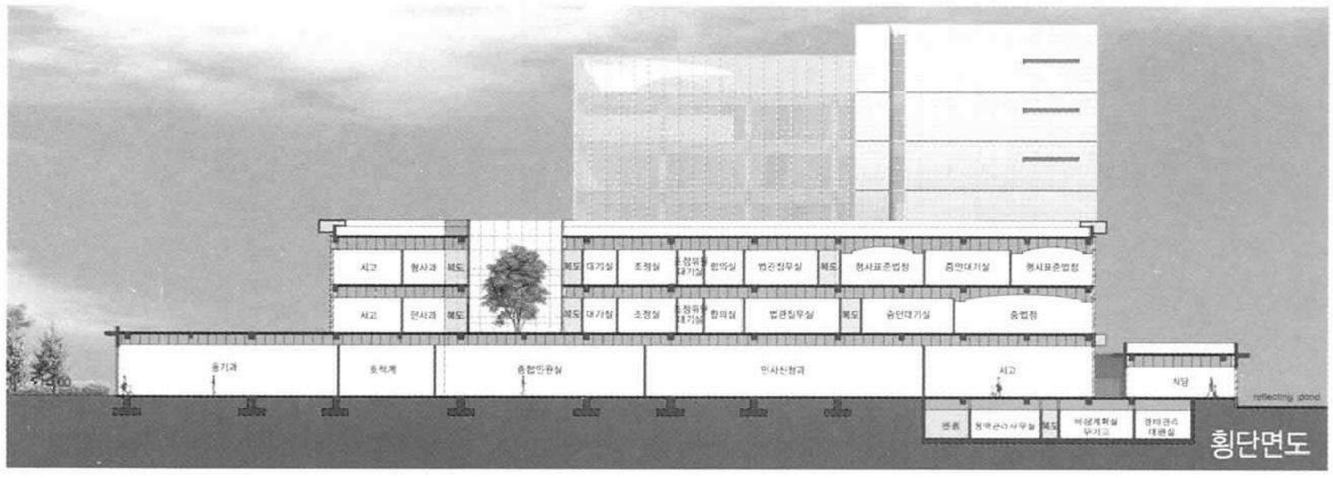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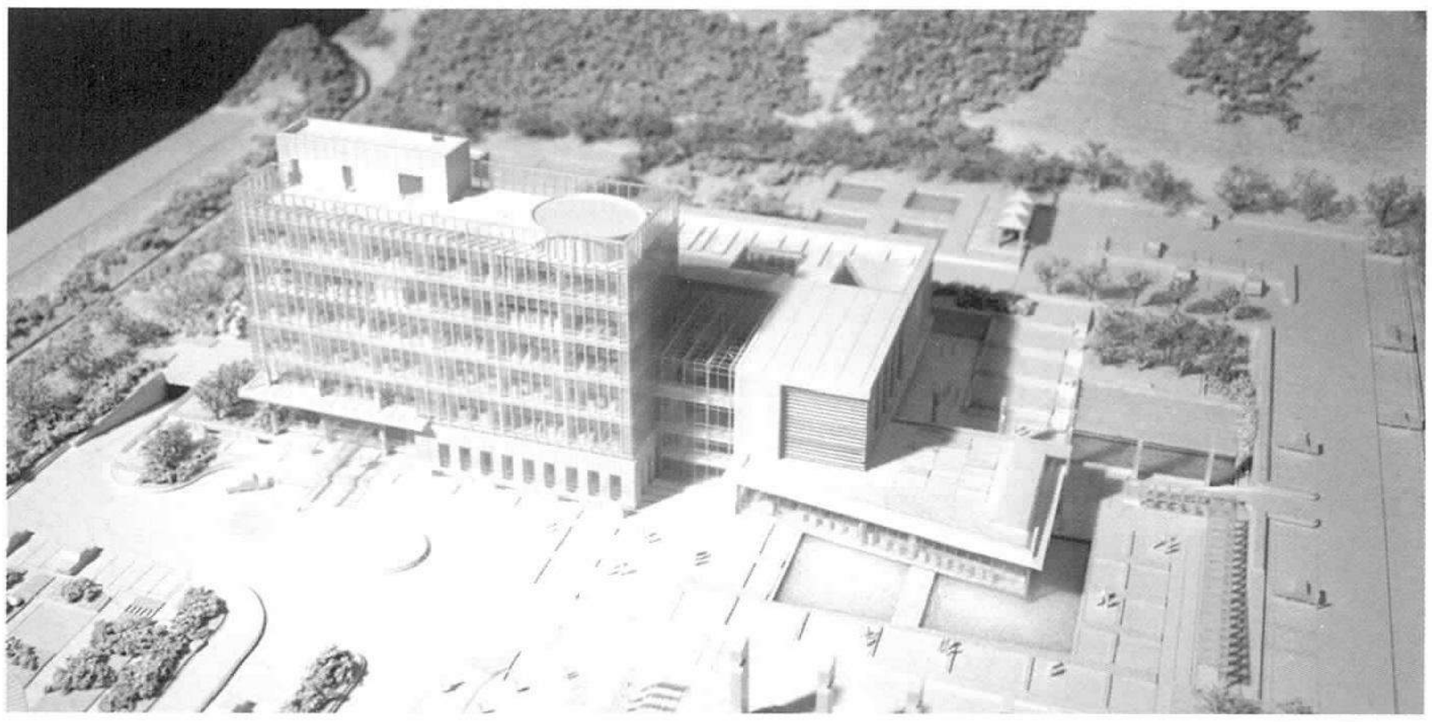
우측면도





횡단면도





연재 SERIAL

설계품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完)

Innovative Paradigm for Quality Improvement of Architectural Design

국내 건축설계분야는 건설산업의 성장과 함께 양적인 팽창을 하였으나 질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국제적인 경쟁력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왜곡된 발주 시스템은 능력있는 건축사의 시장참여를 원척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아직도 많은 설계도서가 하청을 통해 생산되고 있고, 각 분야 간의 느슨한 협업시스템으로 인해 검토되지 않은 설계도서들이 현장에서 설계도면간의 불일치나 비기능적, 비경제적인 설계를 초래함으로서 결과적으로 건설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시공업체 중심으로 고착화 되어있는 국내 건설산업의 특성도 설계나 엔지니어링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국가 건설정책의 초점은 시공분야에 맞추어져 있고, 창조성을 바탕으로 한 고부가가치 산업인 설계나 엔지니어링 분야는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건설산업의 구도가 지속될 경우, 종국에는 설계나 엔지니어링업체가 시공업체에 종속되어 우리나라 설계분야의 전문화 및 설계 경쟁력은 상실되고 말 것이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6년 '건축설계업 발전 종합방안 연구'를 추진하기도 하였다.

필자는 국내 건설 · 건축산업에 대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안하기 보다는 건축설계분야의 문제점 즉, 설계경쟁력 약화, 느슨한 협업시스템 그리고 이에 따른 건축설계품질의 저하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목 차

1. 설계품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2. BIM을 적용한 국외 사례

3. BIM을 적용한 국내 사례

4. BIM기반 설계프로세스의 국내 건축사사무소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5. 도입과 적용을 위한 제안

필자 : 전한종, 현 한양대학교 건축대학 건축학부 부교수

by Jun, Han-jong

전한종 교수는 한양대 학사와 석사 졸업 후, 호주 시드니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한양대학교 건축대학 건축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다.



- BRC(BIM Research Center) 자문교수
- 한국교육시설학회 이사
-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이사
- Virtual Construction 3.4세부 연구과제(삼차원 설계 지침개발에 관한 연구) 공동연구 교수

※)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2006.4) 건축설계업 발전 종합 방안 연구. 대한건축사협회

BIM 도입과 적용을 위한 제안

Proposal for Adoption and Application of BIM

건축사지 2008년 2월호에서 필자는 2008년도에 정부주도 발주공사에 BIM관련 납품이 명시화 될 것이라고 서두에서 예상한 바가 있다[1]. 조달청은 대통령실 경호처의 의뢰를 받아 발주한 경호교육원 턴키공사에 BIM을 적용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납품받을 것이라고 최근 일간건설신문이 소식을 전하고 있다[2]. 이제 건설산업에서 BIM의 도입과 적용은 건축사사무소뿐만 아니라 건설사, 제조사 그리고 건축주 모두에게 현실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BIM을 도입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이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고민해야 하는지는 최대 관심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000년 초반부터 건설사는 파일롯 프로젝트를 통해 BIM의 효과를 검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관련 BIM 전문가들이 양성되었다. 이제는 건설산업 전반에 걸쳐 BIM 전문가들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미 외국에서는 이러한 자들을 BIM Specialist, BIM Champion, BIM Administrator, 4D Specialist, Virtual Design & Construction Manager 등으로 그 역할에 따라 다양하게 불리어지고 있다. 또한 작년 한해 학계에서는 BIM의 의미, 개념, 특성, 적용사례 등에 대한 연구 논문발표와 BIM 관련 세미나 및 국제 심포지엄 등을 통해 BIM이 건설시장에 소개되어졌다. 이제 건설산업 종사자들에게 BIM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며, BIM의 도입과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되어진다.

따라서 이번 마지막 연재는 BIM 도입과 적용을 위해 발주자, 건축사사무소, 건설사와 협력사 등이 BIM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BIM은 혁신기술이다

BIM은 건설사업의 많은 측면들을 변화시킬 혁신적인 기술이다. 즉 BIM은 건물의 품질향상, 신속성, 비용절감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계과정과 시공에 대해 재고려하는 전략적인 방안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세가지 목적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품질향상

건축주를 포함하여 프로젝트에 관여하는 모든 관려자들에게 비용, 에너지 사용, 성능, 삼차원 시각화 등을 건물생애주기 측면에서 초기에 건물에 대한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건물의 품질이 향상되어진다.

신속성

디자인 과정에서 시공과 제조에 대한 지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공장에서의 제조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고, 디자인과 조달계획에 있어 초기에 건물정보를 사용함으로써 신속성을 달성하게 된다.

비용절감

의사결정 및 계획의 자원으로써 BIM모델을 사용함으로써 프로젝트 팀의 협업을 매우 효율적으로 가능하게 하며, 신속한 조달, 건물 자체와 사용자들에게 건물이 어떻게 기능할 것인지에 효과적인 이해에 의해 건축주로 부터의 변경 감소, 감소되는 실수와 불만 요구사항, 유지관리에 실제 건물과 동일한 가상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이해당사자들은 상당한 비용의 절감을 얻게 된다.

위의 세가지 목적들은 긴밀한 협업을 요구하고 있는데, 건축사사무소는 두 가지로 연계된 협업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디자인 협력자들과의 협업연계이다. 이것은 디자인의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구조적, 설비적, 건물의 용도별, 재료 등과 관련된 것이다. 두 번째는 디자인 의도을 실현시키기 위한 무리없는 이동을 위해 시공성 향상에 관련된 초기입력을 제공하는 건설사와 제조업자와의 협업연계이다.

BIM 기술 도입의 성공여부는 프로젝트에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이 건물이 지어지기 위한 전 과정에서 효율적인 협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기술적으로는 연계할 협업의 대상, 협업시기, 협업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한 협업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BIM 매니지먼트라고 한다. 건물은 지어지기 전에 성공적인 BIM 매니지먼트를 통해 시각화, 시뮬레이션, 분석되어 짐으로써 건물의 품질향상, 신속한 조달, 비용절감 등이 달성된다.

1) 전한종 (2008. 2) BIM 기반 설계프로세스의 국내 건축사사무소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건축사지
2) 양충렬 (2008. 3. 12) 공공건축에 BIM 첫 의무 적용, 일간건설신문

BIM지원 방안

발주자에서의 BIM지원

발주자는 건축프로젝트가 시작되는 곳으로써 적용되는 BIM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성공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팀 구성원들의 기술과 경험을 요구한다. 최근 국내에, 건축주인 대통령실 경호처의 혁신적이며 실질적인 의지에 의한 경호연수원 공사에 BIM을 적용한다는 소식은 프로젝트 추진팀 구성원들이 BIM의 장점 및 적용된 사례, BIM 기술의 현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미국 조달청 (GSA) 프로젝트에 BIM 사용에 대한 요구사항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그 요구사항에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다양한 BIM 관련 응용도구(application)에 대한 구체적인 동의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스페이스 프로그램 검증, 시공수준의 공간 계획, 구조계획, 에너지 분석, 환기 분석 및 기타분야의 요구사항이 특정한 BIM 응용도구별로 구체화 되어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건축주와 사용자들에게 품질이 향상된, 신속한 그리고 비용이 절감된 건물을 제공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발주자 조직에서 최고 BIM 책임자 (Chief BIM Officer)는 다음과 같은 지식과 책무가 요구되어 진다.

- BIM 기술에 관한 지식
- BIM에 대한 발주자측의 요구를 지원 하는 방법
- 통합조직안의 프로젝트팀들과 관련되는 각종 계약에 관한 지식
- BIM 모델을 시설관리에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지식
- BIM 지식과 프로젝트 팀을 위한 표준 설정에 관한 책무

건축사사무소에서의 BIM지원

건축사사무소가 BIM을 도입하게 되면, 건축사사무소는 2개의 새로운 직책이 필요하며, 이 직책은 BIM도입의 성공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직책들은 건축사사무소내에서 BIM이의 도입 및 통합화가 성장 할수록 발전한다. 이 직책은 최고 BIM 책임자 (Chief BIM – officer) 와 프로젝트 모델 관리자(Project Model Manager) 이다.

BIM 최고 책임자 : BIM 책임자를 말하며, 기존의 최고정보책임자의 역할의 확장 또는 대치이다. 이 직책은 모든 프로젝트를 위한 일반적인 BIM의 기능적 가능성을 두루 살피고, 건축사사무소 조직 안에서 지역적으로 분산된 사무실들을 연결 하는 역할을 한다. 대형 사무소에는, 각 지역 사무소에는 BIM 최고 책임자의 일반적 지침 하에 일하는 BIM 관리자가 필요하다.

BIM 최고 책임자는 사무소의 내부조직과 외부조직간의 협업을 위한 일반적인 네트웍과 상호운영성을 제공해야하는 책무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책무들은 설계와 자재 제작자(fabricator)들간의 협업을 지원할 것이다. 이러한 협업 지원은 일반적인 내부네트웍(intranet) 서비스, 서버 서비스, 사무실이 도입하는 하드웨어와 플렛폼차원의 IT와 BIM서비스를 포함한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플렛폼 지원 서비스를 포함 할 것이다. BIM 최고 책임자는 디자인 정보의 지원을 위해 회사 전체를 위한 라이브러리의 구축과 지원의 의무가 있다. 이러한 정보는 상업시설 설계정보, 사무소 전체를 위한 정보의 조합, 공간과 사무소의 최고의 작업들과 지적재산을 통합하는 정보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라이브러리의 일부는 조직의 주옥같은 디자인 지식으로 발전하며, 특히 사무소만의 특화된 독특한 빌딩 타입이나, 부재 타입을 의미한다. 조직에 의해서 지원 받는 BIM의 적용은 아마도 모든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단일 셋트 또는 프로젝트의 요구와 타입 그리고 개입된 컨설턴트에 따라 선택되는 다양한 셋트로 한정 될 것이다. 이러한 사항은 중요고객과의 영업노력을 역시 지원하고, 협업적 통합실부 (Integrated Practice)의 요구에 최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객과 팀원 간의 계약 시에 고려되는 법률서비스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프로젝트 모델관리자 : 각각의 프로젝트는 고객과, 컨설턴트, 파트너에 의해 정의되는 고유의 작업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 프로젝트 모델 메니저는 작업프로세스 교환 메카니즘을 계획하고 조절하여야 하고, 전 생명주기를 통한 프로젝트 데이터를 진화 시켜야한다. 이러한 내용들은 BIM 최고 책임자가 구축한 인프라스트럭처를 신뢰해야 하며, 프로젝트의 납품방법과 고객과 프로젝트의 요구사항에 대응하는 프로젝트 독립적인 적용을 요구 할 것이다.

도면문서 기반 안에서 버전 콘트롤을 위한 규약과 관리 문건들이 잘 개발되고 이해되는 동안, BIM에서의 선택사항들은 차이가 있으며 더욱 개방되어 진다. 이러한 사항들은 모든 참여자, BIM 최고 책임자에 의해 구성된 규약의 사용, 프로젝트 모델관리자에 의해 조사되어지는 내용에 의해 관리된다. 여기에는 아마도 단일 마스터 모델 또는 통합된 모델이 사용 되어 질 것이다. 모델이 접근 가능한 이유로, 모델은 하루에도 몇 번씩 만들어 질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모델의 문제가 존재 할 수 있다. 프로젝트 모델은 중요한 기업의 생산물이므로, 테이터의 통합성의 유지는 명확한 관리를 요구 한다. 모델 관리자는 관련자들의 작업과 다른 데이터들을 마스터 혹은 통합된 모델에 통합시키기 위해 모델에 대한 접근 권한 정책을 을 정의해야 한다.

건설사와 협력사에서의 BIM지원

BIM 건설 책임자(BIM Construction Officer): 협력의 차원에서 BIM 건설 책임자의 주된 책무는 BIM 기술과 작업과정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 기준에는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계획, 조정, 간섭 체크, 오류 검토 및 조달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제조업체의 입장에서 이러한 직책은 자재를 위해 필요한 상세한 모델과 디자인 모델간에 효과적인 관계를 설정하는 기술과 작업흐름을 설정하며 또한 자재의 제조를 위해 사용되어지는 기기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을 설정한다.

BIM 프로젝트 관리자(BIM Project Manager): 프로젝트 차원에서 BIM 프로젝트 관리자의 주된 책무는 효율적인 프로젝트팀을 구축하기 위해 협력사와 제조사의 작업흐름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러

한 책무에는 간섭체크, 비용 산출, 조달, 제조 및 계획 등을 위해 통합된 프로젝트 모델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한다. 발주자가 원하는 정밀한 "as-built"모델이 요구되는 프로젝트를 위해 BIM 프로젝트 관리자는 변경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된 프로젝트 모델을 갱신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한 다른 책무로는 as-built 모델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 실무차원에서의 운영과 위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예측되는 BIM의 사용

위에서 서술한 다양한 역할은 각각의 조직 내에서 BIM 사용에 대한 혁신을 선도하게 될 것이다. 건축사사무소와 건설사에서 확장되어질 수 있는 다양한 BIM의 사용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디자인-제조 통합: 건축사의 디자인모델과 실제 건축모델간에 원활한 연계가 이루어진다면 하청업체에 의한 건물의 도면의 재작업과 모델에 대한 재작업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제조업체의 제작에 관한 중대한 지식이 디자인의 초기에 스며들어 있는 경우에 현실화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주된 변경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초기 협업은 통합 실무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계약과 관계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관계성은 협력적이지만 디자인 조직에서 프로젝트 모델 관리자와 건설사 조직에서 BIM 건설 관리자의 협력으로 현실화되어진다.

성능기반 디자인: 건축사들은 계획된 시설들에 대해 건축주의 시설운영에 관한 성능분석과 시뮬레이션에 대한 요구의 증가에 직면할 수 있다. 건축물에 대한 이러한 시뮬레이션과 분석에 의해 건축주는 건물의 운영비용, 시설자체 및 시설의 중요 기능까지 파악하게 된다. 따라서 서비스와 생산물의 개념에서의 시설은 일정한 수준의 서비스 또는 생산품임을 보장해야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들은 발주자, 컨설턴트와 계속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디자인 단계에서 통합되어진다. 이것들은 프로젝트 모델 관리자에 의해 설정되어진 디자인 단계의 작업 흐름과 그 조직의 데이터 교환 능력에 관련된다.

디자인 팀은 비용산출, 환경분석 등을 디자인 단계에서 수행되기를 요구 받고 있다. 이러한 요구들은 각각의 디자인 개발 단계를 위해 현재 작업상에서 요구 되어져 왔다. BIM은 이러한 요구사항을 매주 또는 매일 수행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데 이러한 요구사항을 가능하게 하는 컨설턴트 조직의 구성은 매우 중요하다.

제작 조정 : 만약에 각각의 하청 업자들이 무간섭오류 레이아웃을 만들기 위해 레이아웃을 다른 시스템에서 아무 때나 체크가 가능하다면 의사소통 방식은 바뀌어야 한다. 레이아웃이 현장 밖에서 준비된다면, 관련된 하청업자들은 예를 들어 기계, 화재, 전기 각각은 각자의 작업장에서 MEP 모듈을 만들고 조립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제작자 조정은 모델 조정을 수월 하게 하기 위해 원청자에 의해서 고려가 요구 되어질 것이며, 제작과 물류 조정은 설치를 위해 조정된다.

프로젝트 보관: 모델 정보의 크기와 복잡함이 증가하고 디자인과 생산 전문성이 성장함에 따라 모델 보관에 대한 이슈는 프로젝트 작업흐름에 대한 관리 및 이를 지원하는 데이터 호환의 관점에서 더욱 공통사항이 될 것이다. 서버기술은 단일 회사기반 서버의 성능에서 웹기반 성능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성능을 추진하는 것은 건축사 사무소의 최고 BIM 책임자와 건설사와 제조사의 BIM 건설 책임자의 책무가 될 것이다.

디자인과 자재 발주의 동시수행: 자재의 구매와 준비에서 시간을 절약해야 하는 패스트 트랙 프로젝트에서 자재에 대한 제조가 디자인이 진행되는 동안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매력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디자인 분야의 프로젝트 모델 관리자와 제조분야의 BIM 건설 관리자와의 긴밀한 공동작업을 통해 조정되어 진다.

위에서 서술한 확장될 수 있는 BIM의 사용은 현재 대부분 실행이 가능하지만 건설산업에서 다른 분야간의 새로운 형식의 협업을 요구하고 있다. 건축사, 건설사와 제조사 모두는 실무에서 이러한 새로운 형식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BIM 도입에 따른 이러한 변화는 현재 실행될 준비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몇 년 내에 실행될 것으로 예측한다. 각 분야의 BIM 책임자들은 그들에 의해 개발되어 시험되고 있는 상호호완성의 기준과 성능을 평가하면서 프로젝트 팀을주도해 갈 것이다. 이러한 능력은 계약 준비과정에서 프로젝트를 위한 작업흐름을 계획하고 조정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마무리

작년부터 시작한 5회의 연재를 통해 건축사들에게 BIM을 소개할 수 있었던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2007년도를 BIM 도입기라 하면 금년도는 BIM 적용 및 확산기라 할 수 있다.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건축물들은 우리에게 진보된 설계기술을 요구하고 있다. 건축주는 품질이 보장되고, 신속하며, 비용이 절감되는 건축물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건축사들보다 앞서 BIM에 대한 효용성을 검증하고 있었던 건설사, 발주처 등은 이제 BIM을 적용하려고 한다. 건축은 서비스 산업이며 그 초기단계에 건축사들의 역할이 있다. 건축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만족스럽다면 건축주들은 기꺼이 그들이 주머니를 열 것이다. BIM은 건축사들에게 그러한 환경 및 방법을 제공할 것이다. 건축설계프로세스에서 BIM의 적용은 디자인팀의 긴밀하며 효율적인 협업체계의 구축을 요구하고 있으며, BIM 기술은 건물이 현실화되기 전에 건물을 시각화 (visualization), 시뮬레이션 (simulation), 분석 (analysis)함으로써 건축주에게 이득을 줄 것이다.

산업계 및 학계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BIM기반 건설프로세스의 성공적인 구축을 기원하며 글을 마무리한다.

참고문헌 및 웹사이트

AECbytes, www.aecbytes.com

Eastman, C., Teicholz, P., Sacks, R. & Liston, K., (2008), BIM HANDBOOK, John Wiley & Sons, Inc.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축담론(1)

Discussion on Multifuntional administrative city

우리 건축문화는 아직은 태동기라고 할 수 있다. 그간 건축계에서 논의하였던 건축문화정책을 제도적으로 지원 · 육성 · 진흥하고자 부단한 논의와 문제의 공론화가 있었지만 아직은 걸음마 단계이고 갈 길이 요원한 실정이다.

다행히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시 및 건축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행복도시는 우리가 그간 논의하였던 건축담론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한다. 이에 따라 행복도시의 건축정책 및 디자인을 연재하고자 한다.

목 차

1. 건축에 있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의미

2. 자연이 살아 숨쉬는 환상형 도시

3.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축디자인 정책

4.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축 비전형성 전략

필자 : 홍순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건축국 건축문화팀장
by Hong, Sun-yeon

홍순연 팀장은 연세대학교 대학원(석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박사수료)에서 학업을 하였고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건축문화팀장으로 재직중이다.



-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건축과
-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터장

건축에 있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의미

Meaning of Multifuntional administrative city in Architecture

건축문화의 현실

우리나라 도시 어디를 가나 간판으로 뒤덮인 건축물과 성냥갑 모양의 아파트를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풍경이 우리 도시건축의 현실이고, 우리 모두가 이런 건축물에 익숙해져 무의식적으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러다가 우리 건축이 저급의 건축문화 수준으로 고착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감마저 든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는 건축문화를 형성, 이끌어 나가야 할 책무가 있는 행정기관이나 건축사 등 건축계가 그 동안 자기역할을 등한시 한 것이 그 중 하나일 것이다.



그림1 국내 대도시의 신개발지역



그림2 도시의 간판과 건축물

실제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축물 미관기준」 마련을 위하여 국내 신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1] 결과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의 건축물 미관에 대한 평가결과 일반시민의 74%이상이 보통이상이라고 하여, 이미 현재의 우리 도시건축양식에 익숙해져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시민들은 건축물 미관의 문제점으로 무질서하고 들쑥날쑥하여 통일성이나 연속성이 부족하고 형태가 단조롭고 개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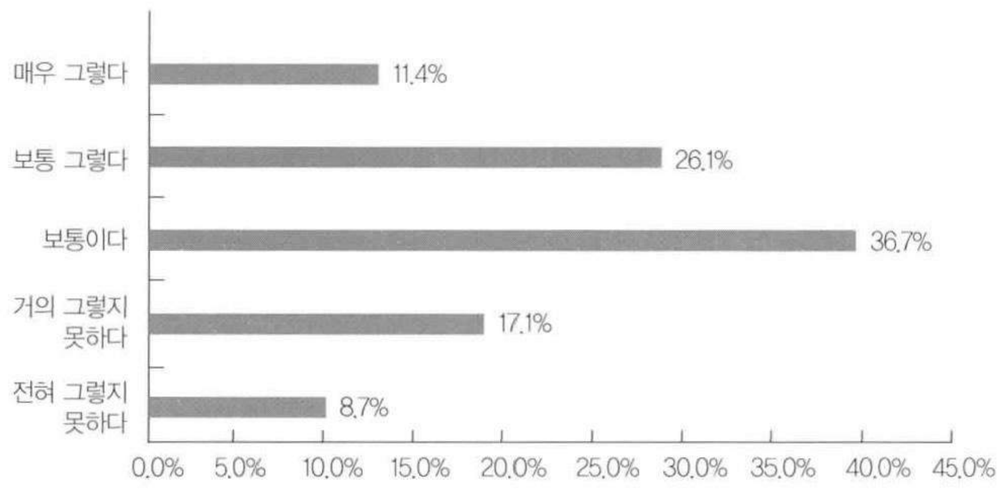


그림 3. 거주하는 도시의 건축물 미관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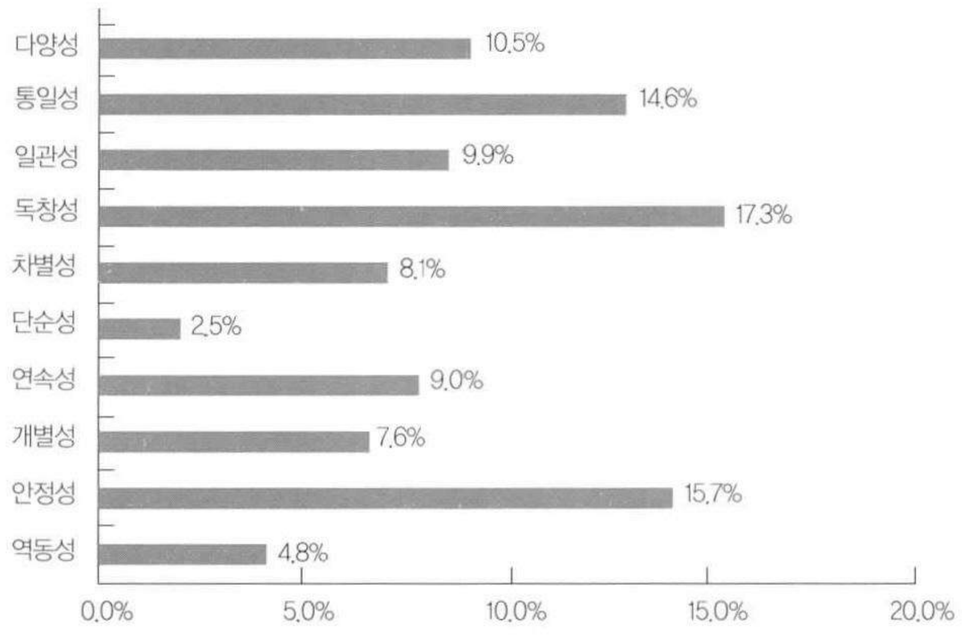


그림 4. 건축미관의 문제점

이에 대한 전문가의 처방은 통일성과 연속성을 강조하면서도 획일화되지 않도록 독창성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대부분 응답하였다. 제도적으로는 경관 가이드라인에 의한 심의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1) 설문조사 대상 : 일반시민(일산, 평촌, 분당), 전문가(도시계획, 건축관련), 기간 : 2007.2.26~2007.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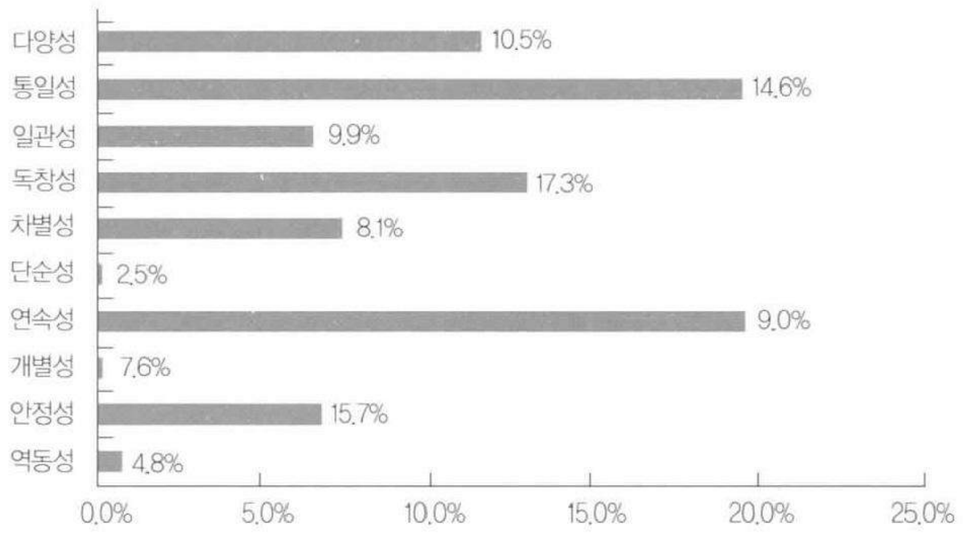


그림 5. 건축물 관리에 있어 필요한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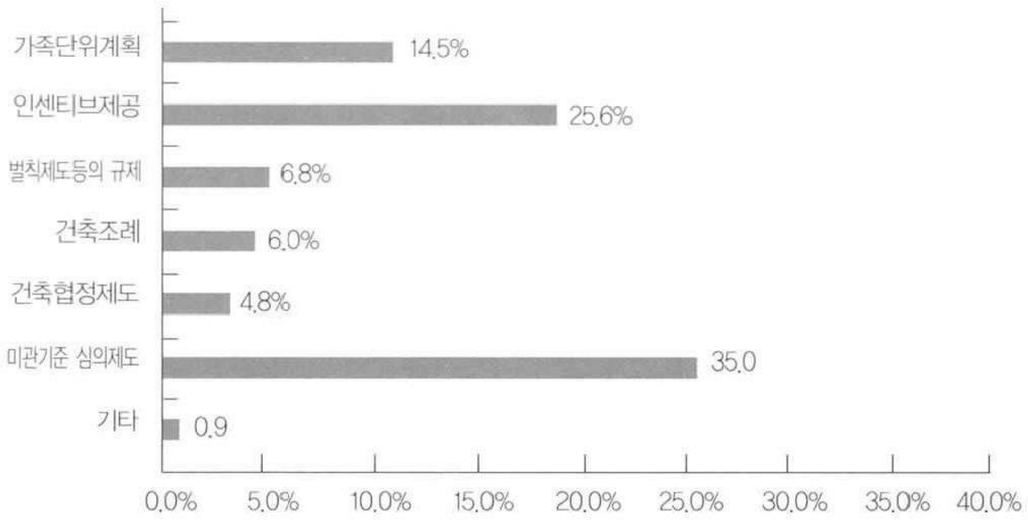


그림 6. 건축물 미관의 제도적 대안

최근 동향

근래에 와서 다행인 것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건축문화정책을 제도적으로 지원 · 육성 · 진흥하고자 관련 행정기관과 학계, 대한건축사협회 등이 부단한 논의와 문제의 공론화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경관법('07.5) 및 건축기본법('07.12)이 제정되고, 건축법의 개정으로 특별건축구역('08.1) 등을 도입 · 시행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도 첫 걸음마 단계이고 갈 길이 요원한 실정이다.

이처럼 우리 건축문화는 아직은 태동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건축문화 현실을 좀 더 짚어보자. 기존 대도시를 보면 복개된 하천, 슬럼화된 역전과 그 주변, 녹지공간 하나 없이 빽빽하게 들어선 빌딩들, 간혹 이들 사이에 파편처럼 박혀있는 고도의 흔적들, 그리고 기존 도심은 고밀이라기보다는 과밀의 양상이 뚜렷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새로 조성한 신도시는 어떠한가? 거대하고 권위적인 공공용의 청사, 성냥갑 모양의 고층아파트 군집, 대형할인매장, 붉은 벽돌의 사각상자 같은 학교 등이 압도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 건축문화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전개는 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반면에 우리와 달리 오랜 시간을 통해 건축문화가 성숙한 단계인 서유럽 국가들을 자동차로 여행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다른 나라에 접어든 경우도 생긴다. 설령 국경표시를 보지 못했더라도 주택의 모습을 보면 다른 국가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된다. 창이 좁고 세로로 길쭉한 집들이 나타나면 네덜란드에 진입했다는 의미고, 산등성이에 주황색계열의 지붕이 많이 보이기 시작하면 흰색벽에 목조주택이 많은 오스트리아에서 이탈리아로 접어들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다른 주택모습이 곧 유럽의 국경이다. 국가별 개성만 있는 것이 아니다. 프랑스 파리의 색깔 이미지가 잿빛이라면 인상파 화가 세잔느의 고향인 엑상 프로방스는 노란계열로 채색돼 있고, 마티스를 배출한 니스는 붉은 계열로 물결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경제성장을 우선한 도시관리 및 건축정책에 대한 반성과 함께 친환경에 대한 관심과 의식이 높아지면서 디자인 코리아 프로젝트, 도시 재창조 프로젝트,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등 다각적인 도시공간 만들기 시책이 구상 · 시행되고,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등 한편으로 고무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행복도시의 의미

우리 행복도시는 2030년 완공과 함께 인구 50만을 목표로 하는 미래지향적인 도시이다. 지금까지 신도시는 토지이용계획을 한 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였다면 행복도시에서는 건축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을 동시에 수립한 입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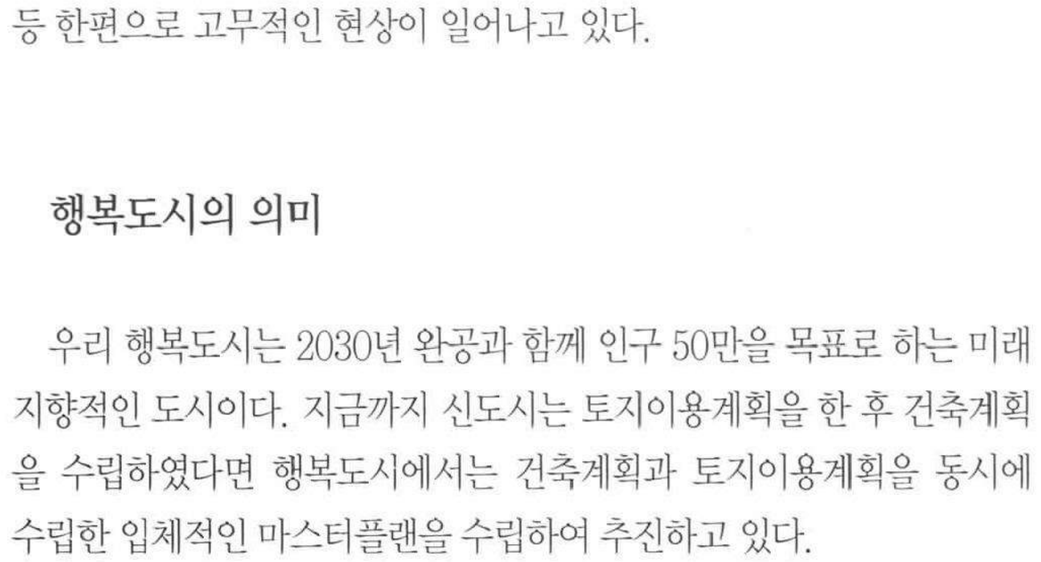


그림 7. 중앙행정기관 생활권 마스터플랜



그림 8. 첫마을 생활권 마스터플랜

그리고 도시기반시설, 도시구조물, 가로시설물, 조경 등 도시공간과 경관을 결정하는 다양한 계획요소를 종합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통합디자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 총괄기획가 자문 : 도시차원의 조화와 일관성을 유지하는 한편 창의력이 제한되지 않도록 도시설계 전반적인 사항을 자문
- 공공시설물 분과위원회 : 가로시설물(가로등, 보도, 도로, 벤치, 휴지통 등)의 조화로운 설치를 위하여 조정하고 자문하는 위원회
-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설정 : 기초-지역-도시 생활권의 위계로 구성하여 특화되면서 통일된 개발계획 수립
- 시범생활권 등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구성수준이 다른 도시보다 상세한 수준으로 작성

△ 총론

△ 용지별 시행지침 : 단독주택용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공동주택용지, 상업업무용지, 공공시설용지, 교육시설용지, 기타시설용지

△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 : 건축물 미관, 옥외광고물, 건축물 색채 및 재료, 공원 · 녹지 · 수변계획, 도시구조물 계획, 야간경관 계획, 공공시설물 계획, 가로 및 수목 계획

△ 환경부문 시행지침 : 생태환경도시조성계획, 안전한 도시(CEPTED) 조성계획, 장벽없는 도시(Barrier Free)조성계획, U-City 조성계획, 폐기물 관로 및 수송시스템 조성계획

△ 특별계획시행지침

또한 지금까지 경관 7대과제, 지구단위계획, 통합이미지 형성방안, 좋은 건축물 지정계획 등 건축물과 관련한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 경관 7대 과제 : 건축물 미관기준,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도시환경 색채가이드 라인, 야간조명계획, 도시구조물 미관기준, 공원 · 녹지 · 수변 경관기준, 공공시설물 설치기준 등 도시차원의 경관과제를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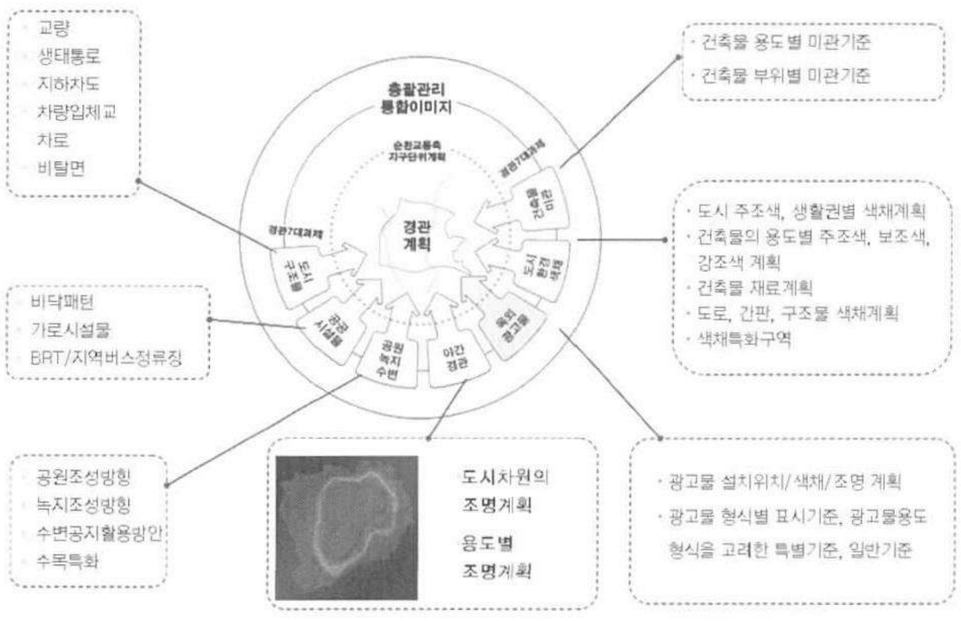


그림 9 도시경관 7대과제의 개념

- 도시통합이미지 형성방안 : 도시의 통합이미지로 설정한 「자연이 함께 살아 숨쉬는 환상형 도시」로 설정하고 전략을 제시
- 좋은 건축물 지정제도 운영계획 : 디자인 등이 우수한 건축물이 되도록 설계수준 향상 방안에 대하여 지표를 제시하고 정책운영 방안을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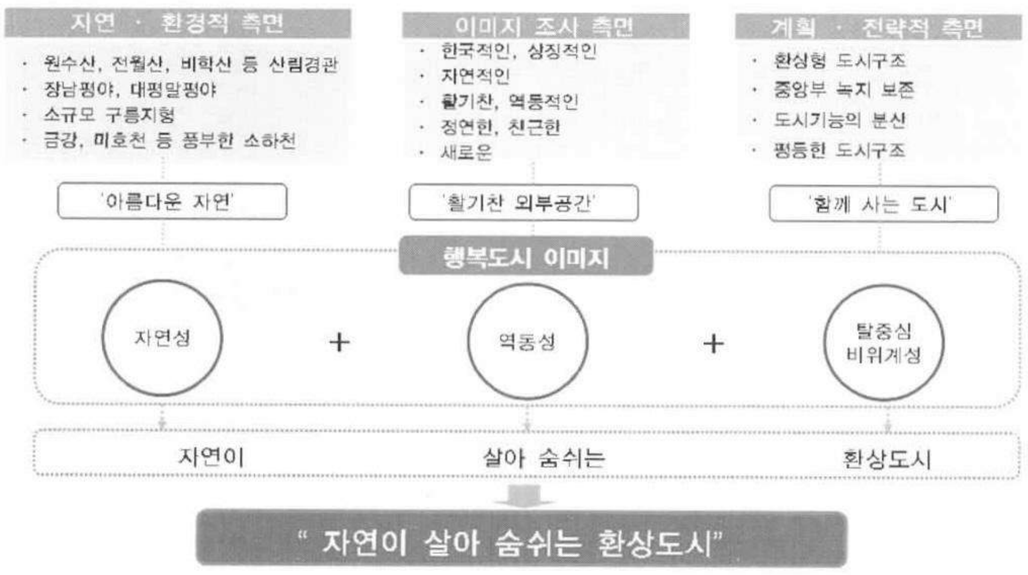


그림 10. 행복도시의 도시이미지 형성과정

- 건축경연사업 계획 : 명품과 같은 작품으로 가치있는 건축물이 건설되도록 국내외 창의적인 건축가를 대상으로 설계경기를 통해 행복도시 주요지역에 다양한 유형의 우수건축물을 집중하여 제시하게 하는 건축실험의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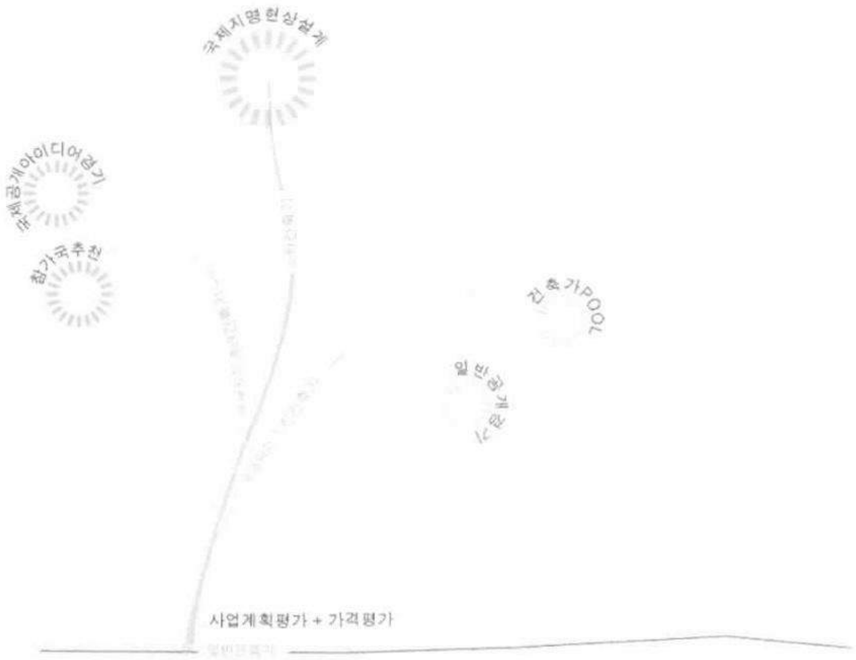


그림 11. 건축경연사업의 개념

- 도시건축박물관 건립 : 행복도시 조성과정은 물론 국내외 건축유산, 회합, 교육 등을 하여 도시 건축의 메카로서 역할을 하는 박물관 건립을 추진
- 한옥건축사업 : 전통의 계승 유지 및 발전적 진화를 위한 건축정책 수립

이 밖에도 생태환경 도시계획, 범죄로부터 안전한 건축, 무장애 건축(Barrier Free), 친환경 생태단지, CO2 제로도시 등 다양한 정책 등이 마련되어 행복도시는 다양한 건축문화를 선도적으로 실현할 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하면 행복도시는 그간 건축계에서 논의하였던 건축문화를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한다. 이러한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건축문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할 때이다.

일제강점기 근대도시의 도시공간구조와 변화특성에 대하여(上)

-1910~30년대 충남예산의 도시공간변화를 중심으로

Urban Spatial Structure of Modern City and the Changing Characteristics under the Japanese Rule

- Focused on Yesan, South Chungcheung Province in Korea



김득수 / 미전 · 삼대 종합건축사사무소
by Kim, Deuk-soo, KIRA

약력
-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공과대학원 건축공학석사
- 1992년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 1999년 서울건축사회 부회장 회장직무 대행
- 1989년 서울시장 예산문예회관 충청남도 서부지역 면허시험장 외 다수

예산은 조선후기부터 농상업 물류의 거점도시였으며, 일제강점이후 1920년까지는 시가지가 구획정리된 것외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1920년대 철도가 부설되고 철도역을 연결시키는 도로가 개설되면서, 신시가지와 구시가지가 하나의 유기적인 선형도시구조를 형성하면서 발전하였다. 또한, 신시가지와 구시가지를 연결하는 주도로를 따라 주재소, 헌병대, 군청, 은행, 일본인학교 등 식민지 지배를 위해 필요한 공공시설들에 의해서 정치적 공간을 만들어내었다. 게다가, 물류중심도시로서 자본이 축적되고 인구가 유입되면서, 시민을 위한 소비 · 생산공간으로서 본정(통)사거리에서 예산천 부근까지 상설시장과 상업점포들이 확대 재생산되었다. 이들을 중심으로 한국인 거주지와 일본인 거주지를 양분시키면서 주거지와 시가지가 점차 예산천 너머로 확산되었다. 결국, 일제강점기 예산의 도시풍경은 근대 시민사회의 시대적 요구가 반영된 자율적 공간과 일본인에 의해 형성된 정치적 타율적 공간이 대응되면서 발생되는 모순들을 극복하면서 근대도시로 성장했다고 볼 수 있다. 더군다나, 일제강점기 지방 소도시였던 예산이 근대도시로 성장 적응 발전되어가는 과정과 도시공간구조의 특성은 우리나라 도시발달사 연구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실례로서 향후 이와 유사한 지방 소도시를 연구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도움주신 분〉
- 한동수/한양대학교 부교수, 공학박사
- 김영재/펜실베니아 대학교, 박사과정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8~19세기 산업혁명 이후, 자본 중심의 산업사회로 전환되고 더불어 모든 소비재의 생산이 도시로 집중하게 됨에 따라 도시는 노동력이 재생산되고 자본과 사물이 대응하는 공간으로 재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근대적 도시공간은 자본과 인구의 집적을 통해서 원료와 에너지의 공급지이자 생산지로서, 그리고, 상품유통의 교통로이자 노동력을 재생산하고 자본축적을 위한 장소가 되었다[1]. 그러나, 도시 내부에 인구집중과 수많은 생산과 소비수단들이 자율적으로 구축되었음에도 이윤을 추구할 수 없는 공공시설, 즉, 학교, 병원, 토지, 도로, 주택, 공원, 시장, 녹지, 공장, 철도, 전기, 상하수도 등과 같은 집합적으로 소비되는 공공재와 서비스들(집합적 소비재, collective consumption)을 등한시 하게 된다. 이러한 자본주의 사회의 내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궁극적인 방법으로서 국가(정부) 주도하에 생활수단들이 일상의 공간 속에 편입되었던 것이다[2]. 이는 도시공간이 사회와 격리된 자율적인 실체가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역사 및 시대적 층위와 대응하면서 변화되고 적응되었음을 의미한다[3]. 이러한 입장에서 일제강점기 한국의 근대적 도시공간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역사적 인프라를 수용하면서 식민지라는 정치상황과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경제구조체계에 대응하면서 변증법적 과정 속에서 역동적으로 변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식민지 도시공간에서의 한국인은 기존에 갖고 있던 인프라를 발전시키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 새로운 시설을 건설하였으며, 식민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에 일본식민정부는 기존의 전통적인 도시구조를 해체하고 개항지(항만도시)를 중심으로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행정, 상업, 산업도시 등을 건설했으며 이곳에 근대적 도시문법을 적용하고자 했다. 다시 말하면, 개발의 주체와 시간 및 공간의 성격에 따라 타율과 자율이 공존하는 이중적 도시구조를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인 지배자들의 입장에서 식민지 도시들은 근대적 공공시설(집합적 소비재)을 시민을 위한 서비스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식민지에서 이윤을 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건설되었음은 틀림없다. 예산의 경우, 자본의 주체로서 정치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철도와 도로, 구획정리와 같은 인프라가 우선적으로 수행되었으며, 2단계로 도시경영에 필요한 공공시설(행정관청, 우체국, 주재소, 철도역사, 은행, 조합, 창고, 공장 등)과 일본인을 위한 편의시설(학교, 병원, 상점, 신사 등)이 도시 중심공간에 집합적 소비 및 생산공간으로서 점유되었다. 상대적으로 자본이 빈약했던 한국인들은 그들이 필요한 공공시설(교육, 의료, 문화, 금융)에 투자했다. 그러나 도로나 철도부설입지 등과 같은 일련의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었다.

본 연구는 예산이 근대도시로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식민시기 한국의 근대도시모습을 이해하고자 한다. 먼저, 물리적 정치사회적 근대도시화 과정을 순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근대적 상업도시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한 조선후기에서 1910년 이전의 1기와 서구도시계획방식을 통해 근대식민지의 정치경제적 공간이 구축되기 시작한 1910-1930년까지의 2기, 한국인에 의한 자율적 공간이 성립되는 1930년대 이후의 3기로 국한하였다[4]. 또한, 시기에 따라서 상업네트워크 시기별 변화특성과 대응되면서 전통적인 공간으로부터 필지형태변화(구획정리), 근대시설물의 입지(학교, 관공서, 은행, 상설점포 등), 철도 및 도로 등의 새로운 근대적 구축물들이 도시공간의 성격을 결정하는데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공간의 성격에 대해서 지배자의 타율적인 정치경제적 공간과 피지배자의 자율적 사회적 일상적 공간이라는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한국근대도시공간의 특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일제강점기 지방 소도시였던 예산이 근대도시로 성장 적응 발전되어 가는 과정을 통한 도시공간구조의 특성은 한국도시발달사 연구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실례로서 향후 이와 유사한 지방 소도시를 연구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과정은 크게 문헌조사와 현장답사를 통한 기초자료의 조사, 이를 바탕으로 한 예산의 도시공간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

1) 成田龍一 (2003) 近代都市間の文化經驗, 岩波書店, p.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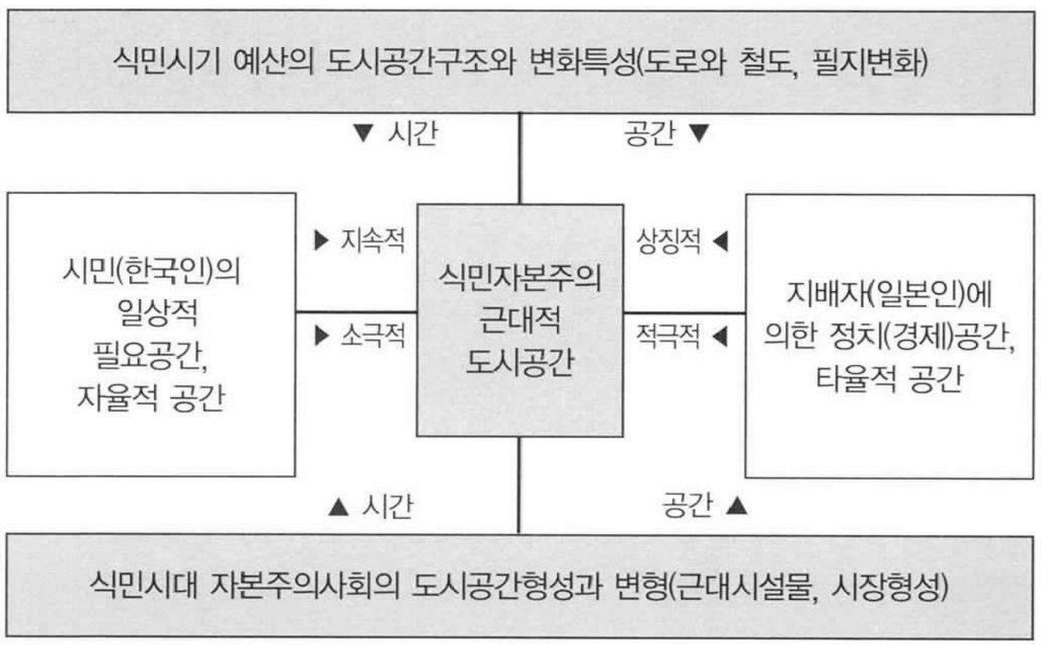
2) Henry Lefebvre (1974) The Survival of Capitalism, London: Allison & Busby. p.21.

3) Manuel Castells (1977) The Urban Question, A Marxist Approach, trans: Alan Sheridan, London: Edward Arnold. 실제로 사물과 공간을 완전히 분리시키고 공간 그 자체의 현상에 대해서 일정한 법칙을 파악하고자 했던 실증주의적 도시공간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되었으며, 카스텔과 하비, 르페브르의 주장과 같이 반실증주의적이기는 하나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사물(공간 혹은 장소)간의 대응과 경험 등을 가지고 도시공간을 이해하고자 했던 현상학과는 다른 방식이다. Neil Smith (1981) Degeneracy in Theory and Practice: spatial interactionism and radical eclecticism, In Progress in Human Geography, pp.111-118. Ronald John Johnston · Edward Arnold (1986) Philosophy and Human Geography: An Introduction to Contemporary Approaches. 김영재 · 한동수외 2인 (2001) 해방 이후, 서울과 평양의 도심공간구조와 그 특성에 관한 비교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Vol.17, no.10, pp.31-43.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의 책들을 참고할 것.

4) 이러한 구분은 시기별 도시공간에서 발생된 일련의 사건들을 가지고 구분한 것이나 명확하지는 않다. 참고로 나리타 류이치는 일본의 근대도시변화의 시기를 3기로 구분하였다. 새로운 도시 네트워크의 형성. 새로운 타입의 도시출현과 인구이동과 전환을 전제로 제 1 기는 1860년대부터 1900년 전후, 근대도시모델이 형성되어 새로운 도시시스템이 발생하는 시기이며, 제2기는 1935년 전후, 그것이 드러나는 단계이며, 제3기는 제도화되는 단계로 패전에서 1950년 전후까지로 규정했다. 成田龍一 (2003) 近代都市間の文化經驗, 岩波書店, pp.4-8.

문헌조사에서는 예산이라고 하는 도시공간변화를 비교하기 위한 근거자료로서 지리지에 중점을 두었다. 조선후기의 도시상황을 알 수 있는 서울대 규장각소장 해동지도(1776), 조선후기 지방지도 충청도편(1872), 대동여지도(1861) 등을 수집하여 조선후기 예산의 도시구조를 추정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에서 제작 발행된 1/50,000 지형도, 조선총독부에서 측량한 행정자치부 정부기록 보존소 소장 지적원도(1911), 조선총독부에서 제작한 수원국립지리원 소장 도시계획지도(1927), 1930년대 이후의 상황을 알 수 있는 1945년에 발행된 지적원도 등을 참조하여 도시구조의 변화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같은 자료에 대한 정보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예산과 관련된 시가지, 건축물들의 사진자료와 신문, 잡지의 기사자료, 역사서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 분석하였다. 또한 일제강점기 예산에서 장기간 거주한 경험이 있는 생존인물들(이기봉, 이항복 등)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한편, 이들이 소장한 개인자료를 확보하여 보다 정확한 예산의 도시공간구조의 변화모습을 추적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자료들을 가지고 지방 소도시 예산의 시기별 도시공간변화특성과 시대적 요구와 정치적 상황이 서로 대응하면서 형성된 자율적인 공간과 타율적 공간에 대한 논의를 통해 식민자본주의시대 한국근대도시공간의 모습을 이해하고 재해석하고자 한다. 즉, 식민자본시대에 근대도시로 전환되면서 발생되는 갈등과 그것에 대한 극복이 어떠한 방식으로 도시공간에 투영되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분석의 기본적인 틀은 〈표 1〉과 같다.

〈표 1〉 도시의 공간구조분석틀 설정



2. 일제강점기 이전 예산의 지정학적 지위

2.1 예산의 입지형태와 행정체계

도시는 고을(邑)과 마을(村)에 최초로 살기 시작한 선조들에 의해서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 속성과 자연환경적 특성에 따라 입지가 결정되었다[5]. 예산의 경우, 향천사(香泉寺) 뒷산(광덕산)으로부터 뻗어나온 금오산(金烏山)이 주산(主山)이 되어 북쪽을 받치고 동서남북의 산이 위요(圍繞)하여 내부를 에워싼 분지형태이다. 하천은 동쪽에 있는 향천사에서 흘러나오는 내수(內水)가 외곽(外廓)을 흐르는 외수(外水)인 무한천(無限川)에 합류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계는 서울의 경우와 매우 유사하다(〈그림 1〉 참조).

현재 사용되고 있는 근대적 행정단위인 시직제 및 읍면제의 뿌리[6]는 조선후기 갑오경장이후에 1895년 전국 팔도제를 폐지하고 23부로 개편되면서 명칭을 군으로 통일하고 조선시대 행정체계인 부(府), 대도호부(大都護府), 목(牧), 군(郡), 현(縣) 체계를 개편한데서 기인한



1. 해동지도(1724~1776) 2. 조선후기지방지도(충청도편, 1872) 3. 시가지 지형도 4. 예산시가지 중심지형도

〈그림 1〉 예산의 입지형태(시기별 비교)
(예산현 해동지도 1724~1776년, 서울대학교 규장각; 조선후기지방지도 1872년, 서울대학교 규장각; 최신조선대지도 명치44년 2월 28일, 1911년 국립중앙도서관.)

5) 풍수가 흥성했던 중국 북부지방이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산보다 물을 중시했던데 반해 한국풍수는 산을 중요시여기며, 중국이 인공건조물의 영향을 과대평가하는데 반해 한국은 오히려 자연의 형세를 더욱 비중있게 생각한다거나 형국론의 소응(所應)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즉, 최창조외 4인 (1993) 풍수 – 그 삶의 지리 생명의 지리, 서울: 푸른나무, p.231.

6) 都市를 지칭하는 명칭으로 "市"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광복후 1946년의 일이다.

다. 이 시기에 충청도는 홍주부와 공주부, 충주부 등 3부[7]로 나뉘어졌으며, 예산은 현에서 군으로 승격하게 된다[8]. 그러나, 1896년에 23부제가 폐지되고 현재와 같은 13도제가 새로 만들어지는데 이후 예산군면으로 개칭되어 1914년까지 이어졌다[9].

2.2 도로망과 상업 네트워크

고려시대의 도로는 역로(驛路, 驛館)가 대표적인 육상교통이자 통신방식이었다. 고려의 역제(驛制)는 22역도(驛道)로 구분되며, 총 525역이란 방대한 역로조직(驛路組織)을 갖추고 있었다[10]. 그러나, 고려시대의 역로는 전반적으로 모든 도로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내포지방의 지방소도시간에 장시를 통한 상업교류망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11]. 예산의 경우도 충청주도를 연결하는 34개소 안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북쪽으로는 개성, 서울, 수원 등을 연결하고 서쪽으로는 해미, 남쪽으로는 부여, 서산, 전주 등을 연결하고 있었다[12]. 또한, 조선시대의 도로는 초기에는 패쇄적이고 방어적인 형태였다. 임진왜란(壬辰倭亂)이후 교통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도로가 개설되기 시작한다. 예산의 경우, 1710년에 윤두서(尹斗緖, 1668-1715)에 의해 제작된 동국여지도(東國輿地圖)를 보면, 대흥, 예산, 당진을 통해서 내포지역에서 해안지역으로 수로나 도로를 통해서 연결되고 있는 교통체계를 볼 수 있다. 예산은 내포지방과 해안지방을 연결하는 수륙결절점이 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대한제국말, 장지연(張志淵, 1864-1920)에 의해서 발행된 대한신지지(大韓新地志附 地圖, 1908)를 보면, 신례원(예산)은 동쪽과 북쪽으로는 한양과 평택을 연결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태안, 당진과 홍성, 남쪽으로 청양, 전주로 이어지는 새로운 도로망이 개설된 것을 볼 수 있다. 이 도로는 대한제국말기에 건설된 한성중심으로 건설된 8개의 도로 중에 하나로, 예산과 한성간의 거리는 기존의 수로를 통하지 않고, 340리(134km)로 비교적 현재의 도로와 유사한 경로로 건설되었다[13](〈그림 2〉 참조). 이러한 상업네트워크는 자연지형을 따라 발달된 도로망를 통해서 지방소도시와 복잡하게 연결되고 있었다. 고려시대에서부터 생산물과 지방특산물의 집합지의 역할을 했던 향시와 도시들의 정기시장 등을 기반으로 도시상인들이 출현함으로서 지방도시의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기능을 하였다. 이러한 상업발전은 전업상인들이 출현하는 계기가 되었다[14]. 전업상인들의 출현과 지방시장의 발달에 맞춰 나타난 것이 보부상이다. 보부상은 지방도시를 거점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예산보부상들은 집결지였던 목바리 주막거리를 중심으로 예덕상무사라고 하는 보부상조직이 설립되어 있었다[15](〈그림 3〉 참조). 이들이 항만도시와 내포지방을 연결하면서 개척된 상업네트워크는 식민시기 근대적 상업공간을 성립시키는 발판이 되었다.

청일전쟁이 발발하자 인천에 일본군이 주둔하면서 중국인들은 자

7) 홍주부는 홍주군, 결성군, 덕산군, 한산군, 서천군, 비인군, 남포군, 보령군, 임천군, 홍산군, 서산군, 해미군, 당진군, 면천군, 태안군, 대흥군, 청양군, 예산군, 신창군, 온양군, 아산군, 정산군 등으로 구분되었으며, 공주부의 경우 공주군, 연기군, 은진군, 연산군, 석성군, 부여군, 노성군, 옥천군, 문의군, 회덕군, 진잠군, 평택군, 보은군, 회인군, 영동군, 청산군, 황간군, 청주군, 전의군, 목천군, 천안군, 직산군, 안성군, 진위군, 양성군, 진산군, 금산군으로 구분되었다. 그리고 충주부는 충주군, 음성군, 연풍군, 괴산군, 제천군, 청풍군, 영춘군, 단양군, 진천군, 청안군, 여주군, 용인군, 죽산군, 음죽군, 이천군, 양지군, 원주군, 정선군, 평창군, 영월군로 구분되었다.

8) 이는 조선시대 지방도시는 수도 서울을 제외하고는 군현의 소재지는 소읍으로 최소한 2,000인에서 5,000인의 집단취락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바, 이 시기동안에 주변의 현들에 비해서 인구가 급속도로 성장했다는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9) 1914년 일본인들에 의해 군면의 대대적인 통폐합이 있었다. 면의 통폐합은 약4리 사방호수800호를 최저 기준으로 하여 여기에 미달하는 "면"을 합병 · 조정하였다. 忠淸南道長官 內務部長官 1913년(大正2) 面廢合關スル件 朝鮮總督府記錄(行政自治部 政府記錄保存所). p.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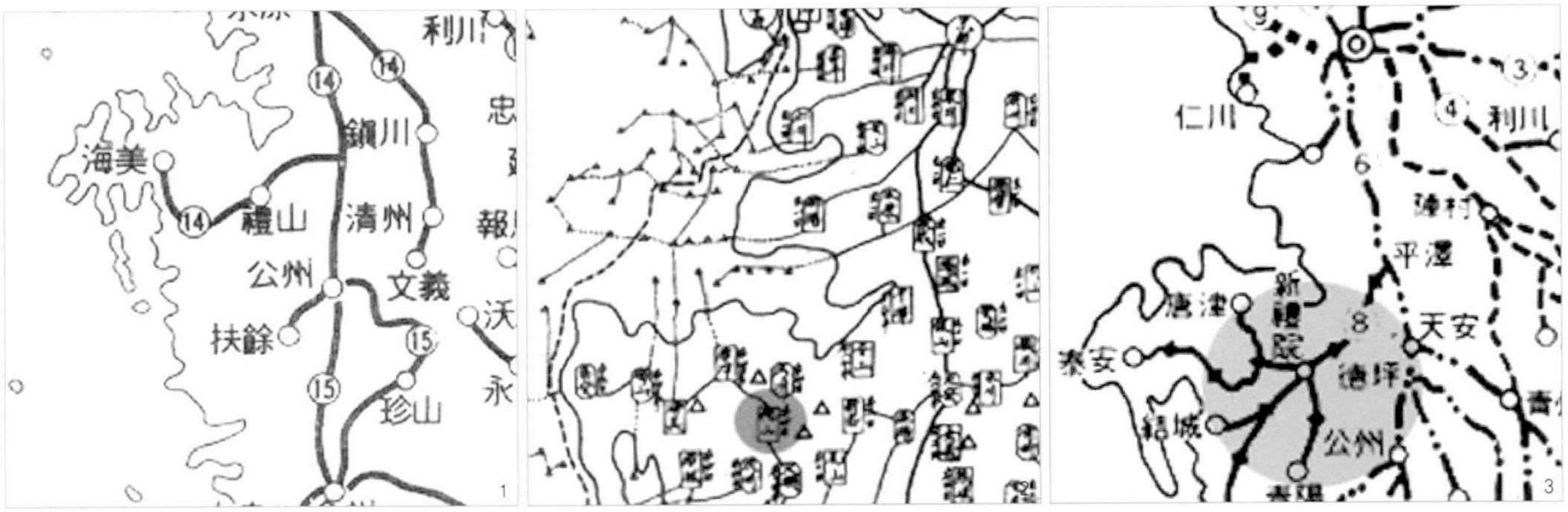
10) 역로를 포함한 우역제도(郵驛制度)는 몽고인들이 만든 cham-chi(站赤) 즉 통신제도이다. 그러나, 실제로 삼국시대에는 신라 소지왕(炤知王) 9년(AD 488)에 우역(郵驛)을 세우고 관로(官路)를 닦았다는 기록이 있으며, 이미 7세기 이전부터 전국적인 교통 통신체계가 수립되어 있었다.

11) 戊午重房奏: "以大將軍張博仁金淑分典左右橋路凡道傍屋宅欄垣雖尺寸苟侵官路皆令復舊, 무오일에 중방(重房)에서 말하기를 "대장군 장박인(長博仁)과 김숙(金淑)으로 하여금 좌우편 교로(橋路)를 나누어서(分典) 도로가에 있는 가옥, 울타리, 담장(屋宅, 欄垣)들이 다만 한 자 한 치라도 관로(官路)를 침범한 것을 모두 원상대로 복구하도록 명령했다"고 하였다. 高麗史(19卷-世家19-明宗1-08-18-1178). 이 글에서 보면 비록 관로임에도 사람이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가옥이나 울타리(담장)등으로 무질서하게 점유되어 있었으며 기능을 갖추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즉, 국가가 관리하지 않은 다른 도로들은 관리상태가 더욱 심각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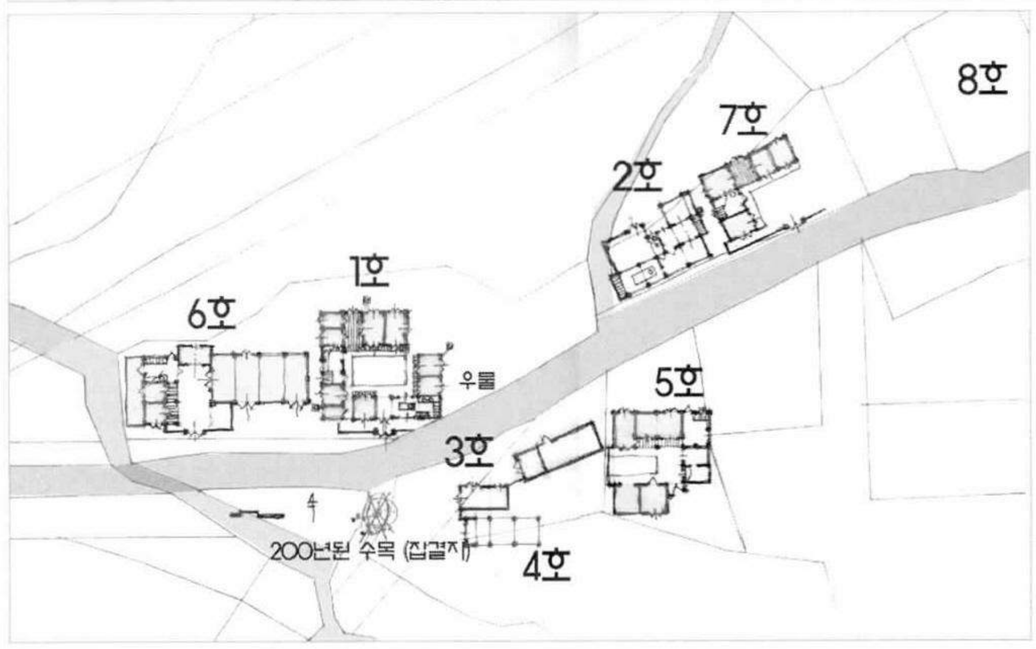
12) 高麗史(82卷-志36-兵2-站驛-014) 참조; 고려사 참역조에 따르면, 충청주도는 34개소를 관할하고 있었으며, 그 안에는 예산도 포함되어 있었다. 忠淸州道掌三十四. 同和長足菁好[水州]嘉川[陽城]栗峯雙樹猪山長池[淸州]長楊堆粮[鎭州]燕山驛金沙[燕岐]蒲谷[全義]成歡[稷山]新恩[天安]金蹄[豊歲]長世[牙州]昌德[新昌]理興[溫水]日興[禮山]廣庭日新[公州]坦平[公州]銀山[扶餘]維鳩[新豊]榆楊[定山]汲泉[伊山]洪州驛光世[大興]金井[靑陽]得熊[余美]夢熊[貞海]靈榆[嘉林]非熊[鴻山], 高麗史82卷-志36-兵2-站驛-014

13) 유성원의『輿地誌』, 신경준의『道路考』,이중환의『擇里志』, 박제가의『北學議』, 김정호의 『東國輿地圖』 등에서 치도(治道)에 대한 관심을 볼 수 있다. 유성원(1622-1673)은 도로와 교량은 왕정에 필수라고 전제하고, 도로등급을 9등급으로 나누어 도로건설을 역설했으며, 신경준(1712-1981)의 『道路考』는 어로(御路)와 한성부터 전국에 이르는 六大路, 팔도 각읍에서 四界에 이르는 거리, 四沿路, 大中小의 驛路, 擺撥路, 步撥路, 烽路, 海路, 潮汐 전국 장시의 개시일 등이 기록되어 있다.

14) 이들은 공동체적인 상인단체를 형성하여 시장과 시장 간을 순환하는 행상이었다. 행상 중에는 각지의 특산물을 휴대하여 원거리를 행상하거나 소지역내의 각 호를 개별 방문하는 부상(負商)들도 있었다. 부상들은 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어류와 제기, 목기 기타 농가의 잉여농산물을 판매하였으며, 남자와 부녀자들이 이에 종사하였다. 남자는 물품을 지게에 짊고 다니면서, 여자는 머리에 이고 다니면서 판매하였다. 류원동 (1967) 우리나라의 도시형성과정: 고대-고려시대 시장형성사, 도시문제, 제2권, 제8호, pp.21-33.



〈그림 2〉 시대별 도로 체계의 변화
1. 역로(고려, 1200년경) 2. 東國輿地圖(1700년대) 3. 大韓新地志埤(1908)



〈그림 3〉 덕산 목바리주막거리(필자실측)

신들의 거점을 예산으로 이전하였다. 따라서, 인천과 군산에 수송될 농산물의 집산지로서 청국인들이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점이 되었다[16]. 1893년 삽교천과 무한천이 합류하는 선장포구에서 예산천(무한천상류)에 이미 청상(중국인)들이 들어와 있었으며, 당시 충청감영이 있던 공주와 강경, 예산에 청상들이 20-30명씩 왕래를 하였다[17]. 엄청난 자금력을 기반으로 한 외국상인(일본인, 중국인)들의 등장은 장시를 기반으로 한 기존 상권에 대해 주요거점 도시에 상설점포을 개설함으로서 한국상인들이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반면에 소규모장시들을 통합시켜서 주요 상업거점에 대규모 정기장시나 상설시장으로 성장하게 되며, 이들 거점들은 자본과 인구가 집적되면서 근대적 도시공간으로 변화를 도모하게 되었다[18].

3. 일제강점기 예산의 근대도시로의 시기별 변화특성

3.1 1910~30년대 도시공간의 변화

3.1.1. 행정체계의 변화와 인구증가

예산은 1700년대까지만 해도 덕산, 대흥보다도 낮은 현의 위치에 있었으나 1895년에 군으로 승격, 1896년에 군면으로 개칭되었으며, 1914년(大正 3년)에 예산군면(禮山郡面), 덕산군면(德山郡面), 대흥군면(大興郡面) 등이 모두 예산군면으로 통폐합되었다[19](〈그림 4〉 참조). 이를 계기로 전업상인들 중심으로 상권(시장)이 형성되면서 사람들이 점차 유입되기 시작했다. 그 상인들 가운데에는 서울과 인천의 객주들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덕산과 대흥의 부호들이 예산으로 이주하기도 했다[20]. 하지만, 토지조사령[21]을 발표한 이후 임시토지조

15) 현재 목바리주막 주변거리에는 과거의 모습은 아니지만 방앗간, 주막, 주점, 떡집, 꽈배기집, 놋쇠퉁정집, 양조장 등이 다소 허물어지고 초가지붕이 함석지붕 등이 바뀌긴 했지만, 원형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16) 한국인뿐만 아니라 중국인상인과 일인상인의 활동거점이었음을 『충남산업지』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禮山은 本道에서 沿岸에 이르는 交通上의 最要樞地로서 불과 4리 떨어져 있는 곳에 牙山港의 要港 仙掌을 끼고 있다. 예산은 경성과 인천방면으로 物資 仲繼市場으로서 奧地에는 公州와 靑陽을 잇는 상업상의 중심지로 韓國人 巨商과 중국인 상인, 일본인 거주자가 많은데 이곳의 在留中國人은 日淸戰役 逃避者가 많이 잔류하여 금일에 이르렀던 것으로 중국인의 商業街는 建忍해서 나날이 그 세력이 신장하여 예산거주 중국인 중에는 수십만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자가 적지 않았다." 이항복, 內浦文化情報(季刊), 예산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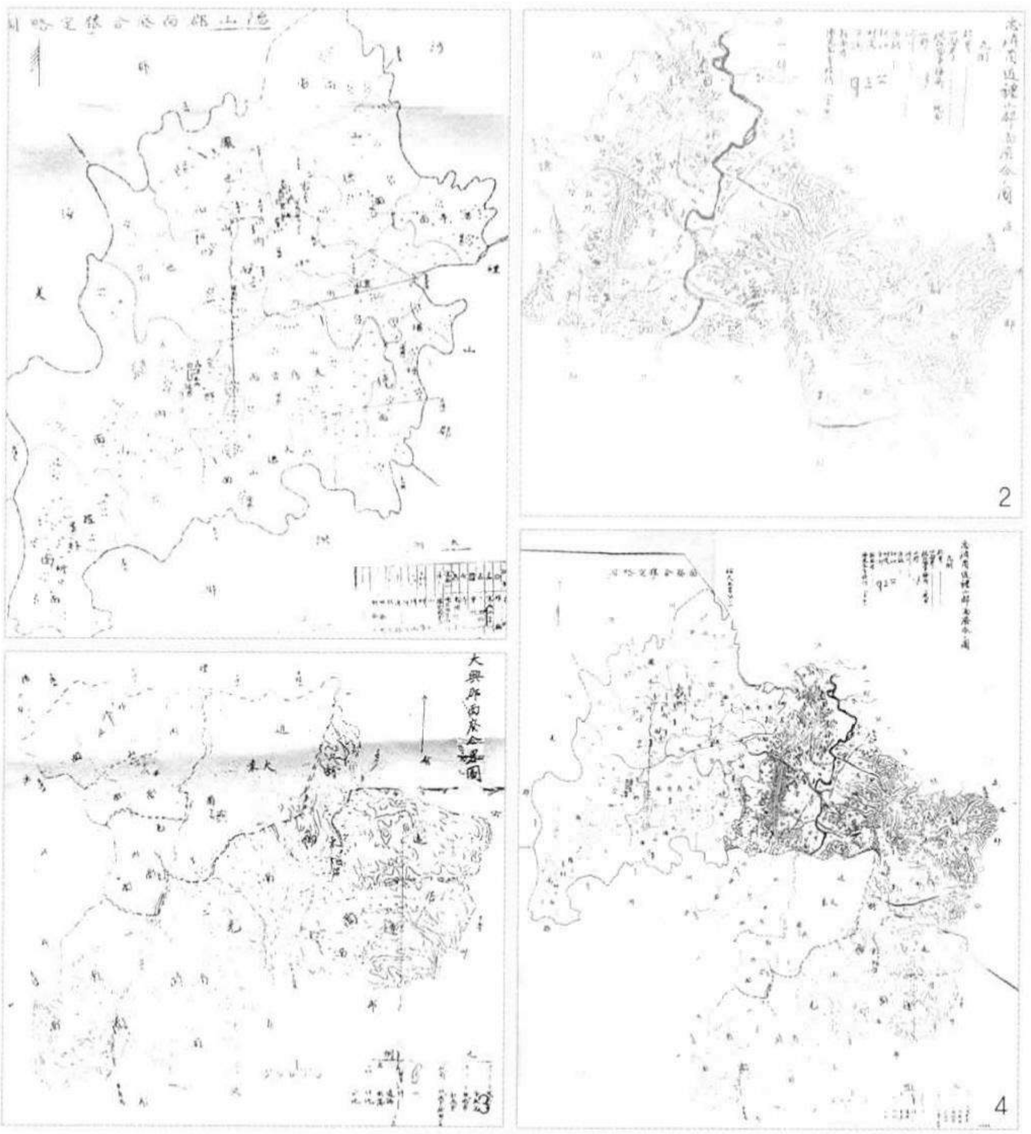
17) 청국상인의 내지행상은 (중략) 상업지라고 할 만한 지역에는 반드시 청상이 거주하여 상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가 없으며, 여하한 벽지의 촌읍이라도 돌아오는 장날에 청상이 오지 않는 곳이 없었다. (중략) 주로 金巾류,각종 서양포목류, 청국산 緞疋, 잡화류 등이며, 곡물매출도 원활하여 구만포 같은 곳은 많은 자금을 투하하여 매입한다고 한다. 通商彙報 (1889:明治 26,10.21) 京畿道及忠淸道地方狀況竝二農況視察報告, 在京城領事館報告.

18) 곽호제 (2004) 충청남도 내포지역 지역엘리트의 재편과 근대화 (2) ; 조선후기~일제시대 내포지역 시장의 형성과 변화, 역사문화학회,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7권, 제2호, pp.101-147.

19) 일제시대 충청남도의 행정조직을 보면, 내부부, 재무부, 경무부를 두고 내부부 밑에 지방회계, 산업, 농업, 학무의 5과, 재무부는 이재, 세무의 2과, 경무부에는 경무, 고등경찰, 보안, 위생의 4과로 구분됐다. 그리고, 예산군에는 군청을 설치하고 군수를 두었으며, 주재소를 두어 치안을 감시했다. 또한 예산군면에는 면사무소가 설치되었고, 처음에는 헌병대, 뒤에 주재소라하여 경찰관이 주재하였다.

20) 예산군지 (1987) p.662; 예산군지 하권 (2001) p.793.

21) 일제가 1910~18년에 걸쳐 2,040여 만 엔의 경비를 투입, 토지소유권 · 토지가격 · 지형지모(地形地貌)를 조사하여 토지제도와 지세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식민통치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 사업, 신용하 (1982) 조선토지조사사업, 서울: 지식산업사.



〈그림 4〉 예산군면폐합 총독부 1914년 지방행정 면폐합에 관한 보고 1-35철(충청도)

1. 덕산군면 2. 예산군면 3. 대흥군면 4. 면폐합후(예산군면)

사국을 두어 한국인들의 토지를 강점하여 대부분이 소작농으로 전락하였으며, 많은 광산들이 일본인의 손으로 넘어갔다[22]. 1914년 인구는 81,458명 중에 일본인이 465명, 중국인이 220여명이었다[23]. 1920년에는 80,793명(14,835세대) 중에 일본인이 408명(124세대), 중국인이 213명(42세대)이었다. 인구가 줄어든 점으로 보아 경남철도부설 이전까지는 상업거점으로서 매력도가 낮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31년 총인구는 12월말 현재 10,353명으로 1930년 99,454명에 비해서 899명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35년말 인구는 한국인이 107,253명(17,824세대), 일본인이 769명(204세대), 외국인(중국인포함)이 162명(52세대)으로 총 108,184명(18,080세대)이었다. 이 가운데 예산면의 경우, 1931년에는 14,101명(한국인:13,520명, 일본인:471명, 중국인:110명)이었으며 1935년에는 15,888명(한국인:15,202명, 일본인:585명, 중국인:101명)이었다. 이들 통계로부터 1920년에서 1931년 사이에 예산군면의 인구가 약 2만7천명(약 3,200세대)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931년과 35년사이에는 예산면에만 17,000여명이 증가했다. 1920년에서 1931년간 다른 지방도시들과 비교해보면, 공주는 20,541에서 22,201세대, 대전 15,454에서 20,702세대, 서산 23,005에서 26,671세대, 홍성 13,546에서 15,659세대, 천안 15,349에서 17,037세대, 아산 12,945에서 1,4765세대로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보인 대전(4,500세대 증가)을 제외하고 2,000-2,500세대 정도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24]. 또한, 대전의 경우에 1932년 충남도청을 공주에서 이전될 만큼 대도시로 성장하고 있었다는 점과 공주를 제외하고 모든 도시들이 철도가 통과했었다는 점에서 예산의 인구증가는 예산이 농업과 상업의 거점도시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음을 시사한다.

3.1.2. 근대적 시설과 시가지 형성

군면 통폐합(1914)과 경남철도 개통(1922)과 더불어 내륙도시와 해안도시를 연결해주는 상업의 중심거점이 되었다. 따라서, 중국인 및 일본인들의 유입과 더불어 본정(통)사거리를 중심으로 상업점포들이 대거 들어서며, 대부분 목조 일식건축물인 일 · 이층 상업점포들(町屋, 마찌야)이었다. 반면 한인들의 점포는 대부분이 일층한옥이었다. 주로 인접건물과 간격을 비우지 않은 히라이리(平入)식 점포들로서 대로에 인접해 있었으며,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취하고 있었다[25]. 초기 식민시기에는 1911년에 본정(통) 사거리를 개축하고 호서은행(1913)과 예산공립학교(1913)를 설립된 것 외에는 경관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26]. 이 건물들은 일본인들의 통치목적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일본인들 또한 대한제국시기에 사용되었던 기존의 건물들을 사용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1922년 철도부설을 전후로 해서 일본인들은 기존 조선의 관청시설들을 철거하고, 도시경영과 한국인들의 통치에 필요한 군청(1923), 주재소(1923), 헌병대 등이 덕산-예산역과 공주를 연결하는 1급도로를 따라서 본정통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건설되었다. 그리고 그 주변을 따라 관사건물들과 우편소(1924), 은행(1922), 세무서(군청내에서 1934년 주재소 옆으로 이전), 법원출장소(1931)가 중심공간을 점유했다. 정치적 공간뿐 만아니라, 교육공간이 중심공간에 편입되었다. 1922년에 공립농림학교(1911년 충청남도공립학교, 1927년 예산농업공립학교, 1946년 예산농업고등학교로 각각 개칭)와 1927년에는 금오공립학교가 주재소를 사이에 두고 설립되었으며, 예산공립보통학교가 군청과 헌병대 옆으로 1923년 이전하였다. 이들 주변에 충남자동차운수영업소(1930), 남성합동전기회사(1929), 예산성당(1935), 제일(감리)교회(1927) 등이 그 주변을 차지하였다. 또한 1930년대 이후에 황민화정책의 일환으로 일본신사가 금오산중턱(현 예산문예회관)과 공립보통학교 안에 세워졌다. 한편, 기능적인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예산역사(1922)주변에는 물자수송과 관리를 위한 농협창고

22) 새천년맞이 특별기획: 예산의 100년, 돌아보는 10대뉴스 (무한정보신문 1999.10.21).

23) 동아일보 (1926. 02.09).

24) 朝鮮後記 都市(邑)의 人口, 戶口總數 :太祖 4年(1395)-正祖 13年(1789) 戶口總數, 서울大學校出版部, 1971년; 충청남도 大正 9년(1920) 국적별 군별현황, 忠南産業誌, 田中市之助, 大田: 大田實業協會, 1921년(大正10); 충청남도 1931년(昭和6) 총인구현황, 忠淸南道發展史, 大田: 湖南日報社, 1932년(昭和7); 매일신보 (1932.03.08).

25) 쿄토의 마치나미(町并)와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었다. 藤井惠介 (1995) 玉井哲雄, 建築の歷史, 中央空輪社. pp.256-268.

26) 매일신보 (1911. 10. 20).

(1925), 곡물검사소(1928), 전매국(1930) 등과 제사공장(1927)과 같은 산업관련시설들이 집중되어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요세무네즈쿠리(寄棟造:우진각지붕), 이리모야네즈쿠리(入母屋造:팔작지붕), 기리즈마야네즈쿠리(切妻造: 맞배지붕)와 같은 일본식지붕양식과 주로 영국식민지 양식인 튜더(Tudor)풍의 지붕파사드, 죠지안(Georgian Revival)풍에서 볼 수 있는 돌출된 삼각형 박공을 가진 입구장식과 적절하게 절충된 조적식 건축물들이었다[27]. 호서은행과 예산금융조합은 세제션(Sessesion)풍 및 조지안풍(르네상스)의 둥근 장식창과 원형박공을 가진 돌출된 출입구와 건물표면에 양각된 일본 전통문양들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특히 예산금융조합은 우진각지붕 위에 납작한 지붕을 따라 난간이 둘러싸여 있다. 이러한 양식은 조지안풍 건물에서 나타나는 지붕장식이다. 또한, 곡물검사예산출장소의 파사드와 박공벽의 목조프레임은 혼무네즈쿠리(本棟造)와 유사했으며, 전매국 예산출장소, 주재소, 지방법원 예산출장소 등은 기리즈마야네풍의 지붕과 삼각형 박공을 가진 돌출된 출입구가 있었다. 이들은 다른 지방도시에 지어진 일반적인 관공서형식과 다를 것이 없었다(<표 2> 참조).

3.1.3. 철도 및 도로 개설

철도가 부설되기 전에는 예산은 인천과 경성에 가는 해로의 출발점인 선장(仙掌)이란 요항(要港)을 끼고 있는 농산물의 일대 집산지였다. 또한, 농산지에서 생산된 미곡(米穀)을 모아 선장(仙掌)을 거쳐 인천과 경성(서울), 그리고 군산에 운반되는 미곡수송 및 거래의 중간지점이었으며, 도산매상인들의 집결지였다. 목화(穆花)와 저마(苧麻)의 재배를 장려하고 외국수입에 저항할 정도의 수준을 갖춘 상인들이 모였다. 이러한 경제, 사회적 배경 하에 미곡중심의 농산물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포지방의 지주들은 화폐경제에 일찍부터 눈을 뜨게 되었으며, 호서은행과 충남상업주식회사, 충남제사주식회사[28]가 설립될 수 있는 경제적 기반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다[29]. 게다가, 사설철도인 경남철도[30]가 1922-1923년을 전후로 예산 구시가지의 외곽부분을 통과하고[31], 예산 구시가지와 예산역 사이에 동서를 가로지르는 기존의 도로를 확장, 개통하면서 시가지가 서쪽방향으로 확산되는 동시에 도시변화의 분기점이 되었다[32](<그림 5> 참조). 그 결과 오늘날과 같은 선형축이 만들어졌으며 그동안 주로 쌀을 인천으로 이동시켜온 선장포구는 철도를 통해 쌀을 군산으로 실어 나르게 됨에 따라 점차 쇠퇴하게 된다. 따라서, 기차역이 개설된 예산과 삽교, 신례원에 개설된 정기장시와 상설시장 등이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33](<표 3> 참조).



<그림 5> 철도부설 이전(1911)과 이후(1927)의 新市街地 및 철도와 舊市街地 비교

1. 1911년 지적도(행정자치부정부기록보존소) 2. 1927년(昭和2) 지적도(조선총독부, 수원국립지리원)

27) 죠지안풍의 조적조건축은 1872년 토쿄 긴자연와가(銀座煉瓦街)에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발생한다. 고용외국인 토마스 월터스(Thomas James Walters)가 설계한 917동의 18세기말 영국 죠지안풍의 조적식건축물들이 가로를 따라 건축되었다. 이들은 국가의 도시로서 상징적 역할을 위해 구상된 것이었다. 成田龍一 (2003) 近代都市間の文化經驗, 岩波書店, pp.5-6.

28) 충남상업주식회사는 1915년(大正4) 12월에 설립하여 자본금 15만원으로 미곡무역 및 운송을 영업하였으며, 충남제사주식회사는 현재취재역 사장 성휘규, 업무취재역 김세호, 백중현, 강두영씨 외 15인의 발기로 ...공장을 건축하였다. 巡廻探訪에서 (동아일보, 1926.09.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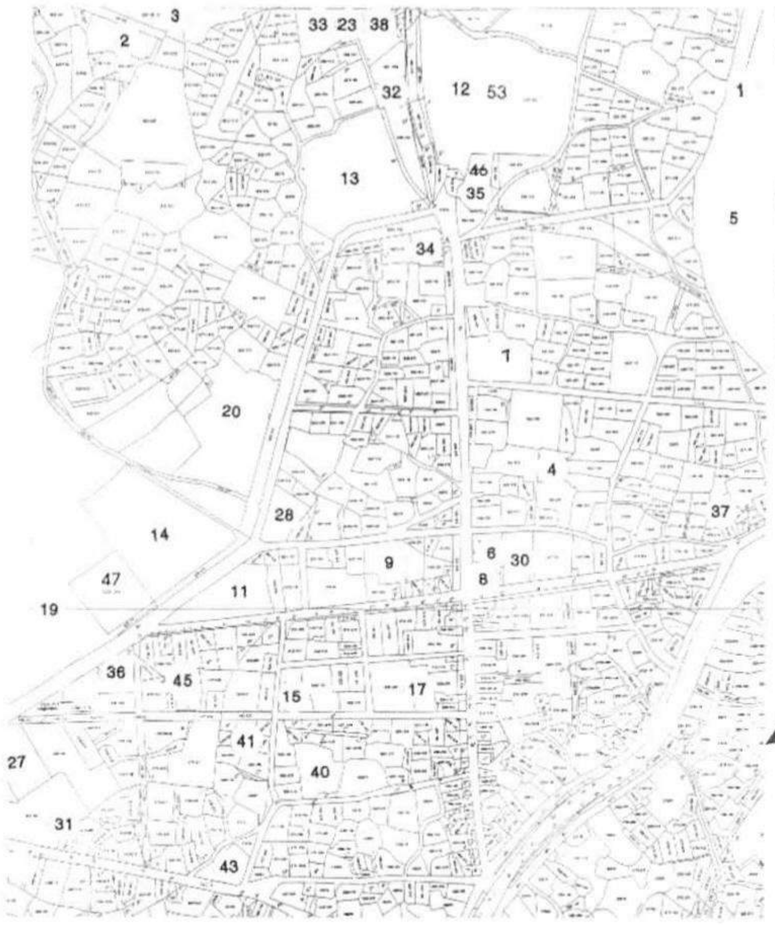
29) 지방도시가 아닌 농촌고을에 세워진 호서은행의 경영자와 설적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은행사에서도 인구가 1만명이 될까 말까하는 농촌에 세워진 극히 드문 사례이다. 고승제 (1970) 韓國金融史研究, 서울: 一潮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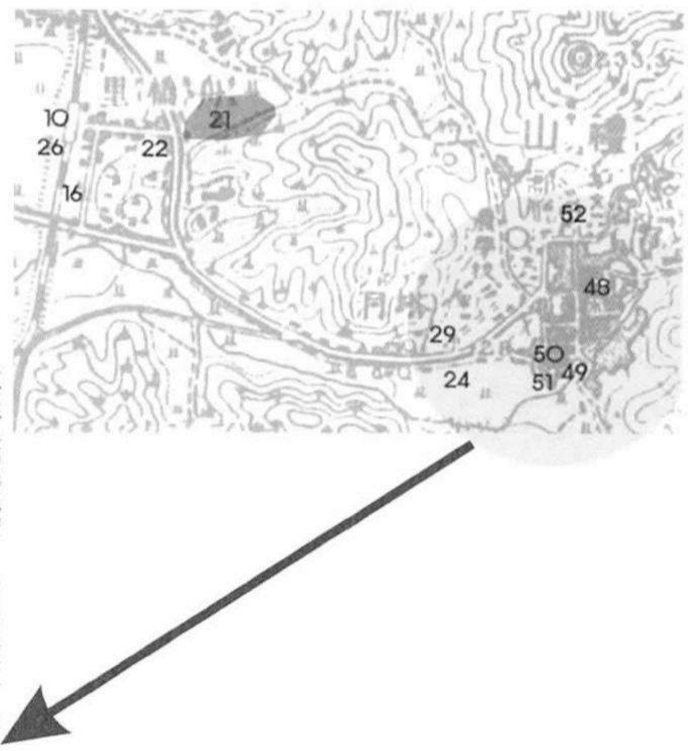
30) 조선경남철도주식회사는 국철 경부선 天安驛을 거점으로 하여 忠淸南道 西部해안가로 남하하여 全羅北道 群山에 이르는 구간과 천안에서 북상하여 安城에 이르는 延長 98.7마일인 철도부설을 신청하여 1919년 9월 30일 허가를 얻었다. 한국철도100년사 (1999) 서울: 철도청.

31) 京南鐵道 開通과 禮山의 장래 (매일신보 1922.07.02(대정11년)). "禮山은 (중략) 교통의 불편으로 인하여 發展을 지의하지 못하였음을 훗날 유감으로 생각하였던 바, 경남철도가 개통되었음에 종하야 예산은 新禮山이 될지며 예산의 장래는 실로 수송할 것을 기대함에(중략) 장래의 군이요, 禮山은 차 鐵道로 인하여 비로소 개발의 자서를 도약함에 족할지오, 鐵道에 의하여 位北은 천안으로 경부선과 이어지고 南은 금강유장곡에 의하여 群山과 연계하여, 이천선과 연결하게 됨으로서, 大平野, 인접한 禮山의 장래는 실로 내구하여 결할 계기 충분하도다" 하였으며, 신시가지와 연결되는 가로망이 형성되어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됨을 알 수 있다.

32) 禮山郡은(중략) 사업진행에 여러 가지로 방해가 되어 이러한 일에 진력하는 인사들은 도리어 저항의 원망을 받고 예산의 전도를 탄식할 지경에 이르렀는데(중략). 이 기사에서 도로건설에 따른 경제적 이권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인한 발전이 자신들에게는 손해가 되지 않을가하는 의구심 등으로 인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동아일보 1922.06.14).

〈표 2〉 건축물의 위치와 사진(1930년대까지)





1.최원백씨고택(1880)
2.이태규씨고택(1890)
3.사직동한옥(1900)
4.주창현씨고택(1910)
5.예산공립학교설립지(1913)
6.호서은행설립건물(1913)
7.대동병원(1920)
8.동화루(중국식당,1920)
9.순천내과병원(1922)
10.예산역과 급수탑(1922)
11.호서은행본점(1922)
12.예산공립보통학교(1923)
13.예산군청(1923)
14.주재소(1923)
15.예산우편소(1924)
16.예산역농협창고(1925)
17.해동안과의원(1926)
18.회춘당한약방(1926)
19.예산농림학교(1922)
20.예산금오공립학교(1927)
21.충남제사공장(1927)
22.곡물검사출장소(1928)
23.예산신명유치원(1928)
24.남성합동전기회사(1929)
25.전주전매국출장소(1930)
26.예산역쌀적치장1925)
27.예산양조주식회사(1931)
28.예산여관(1931)
29.오리동성당(1935)
30.예산극장(1936)
31.예산읍사무소(1940)
34.공주법원출장소(1931)
35.예산금융조합(1931)
36.충남자동차운수(1931)
47.세무서(1934)
48.구시장(1926이전)
49.신시장(1926개설)
50.구우시장(1926이전)
51.신우시장(1926이후)
52.금오산일본신사
53.일본신사(보통학교내)
◎ 연도를 모르는 건물
32.객사
33.성공회
37.일본절(영령분양소)
38.예산보통학교 관사
39.중국인학교
40.김두환씨 고택
41.조일여관(도구낭아)
42.요리점(다이고구야)
43.부인병원(구와하라)
44.약국(우에노)
45.제일교회
46.헌병대(옛동헌)



5. 예산공립학교설립지(1913)



6. 호서은행설립건물(1913)



7. 대동병원(1920)



8. 동화루(중국식당,19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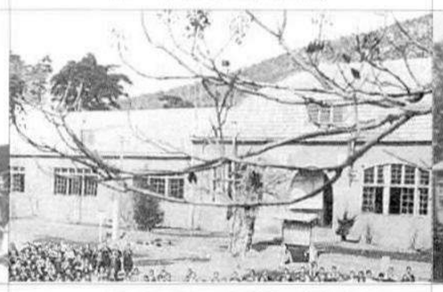
9. 순천내과병원(1922)



10. 예산역 급수탑(1922)



11. 호서은행본점(1922)



12.예산공립보통학교(1923)



13. 예산군청(1923)



14. 예산주재소(1923)



15. 예산우편소(1924)



16. 예산역 농업창고(1925)



19. 공립농림학교(1922)



20. 금오공립학교(1927)



21. 충남제사공장(1927)



22. 곡물검사예산출장소(1928)



23. 신명유치원(1928)



24. 남성합동전기회사(19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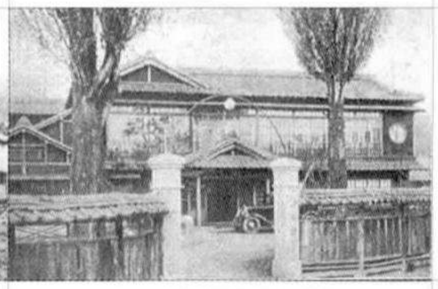
25. 전매국예산출장소(1930)



26. 예산역 쌀적치장(1925)



27. 예산양조주식회사(1931)



28. 예산여관(1931)



29. 오리동성당(1935)



30.예산극장(1936)



34. 지방법원 예산출장소(19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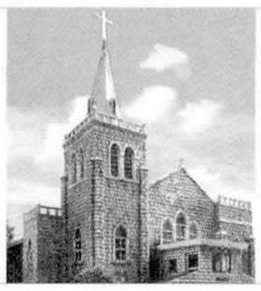
35. 예산금융조합(19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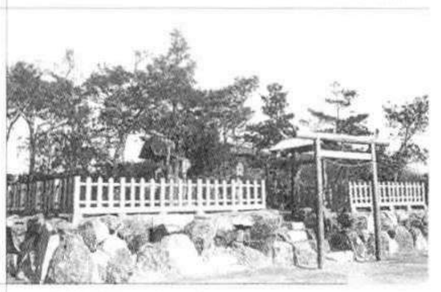
36. 충남운수영업소(1931)



38. 공립보통학교 관사



45. 제일교회(1927)



53.일본신사(공립보통학교내)

제42회 정기총회

우리협회는 지난 2월 27일 서울 서초동 소재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제42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재적 대의원 446명 중 349명의 성원을 보인 가운데, 정관개정의 건을 비롯한 임원선출의 건 등 총 8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이중 7개 안건이 처리됐고 8호의 안인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건' 은 정족수 미달로 처리되지 못하고 유회됐다.

오전 10시 15분 한명수 의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이번 총회는 성원보고, 국민의례, 백민석 이사의 건축사헌장 낭독에 이어 한명수 대한건축사협회장의 개회사, 건설교통부 장관의 치사 및 아시아건축사협의회 회장, 한국건축가협회장, 대한건축학회장의 순으로 축사가 진행됐으며, 총회를 축하하기 위해 방문한 후지모토 마사야 일본건축사연합회 부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또한, 협회와 건축사의 발전을 위해 공헌한 회원에 대한 공로패 및 직원에 대한 표창패를 수여했으며, 2008년도 대한건축사협회 장학생으로 선발된 5명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했다.

본 회의에 들어가서 제41회 정기총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승인한 후 추대회원에 대한 추대보고, 주요업무보고, 감사보고를 마치고 부의안건 상정에 들어가 1호의안부터 8호의안까지 일괄 상정한 다음 중식을 위해 정회에 들어갔다.

중식 후 14시부터 속개된 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 순으로 심의되어 제1호의 안인 정관개정의 건에 대해서는 제41조 단서조항 삭제와 부칙의 문안을 일부 수정키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 승인 됐다. 제2호의안인 임원선출에 있어서는 이철호 선거관리위원장의 주재로 단일 후보로 등록한 장기종 대의원(주.세종 종합건축사사무소)이 감사로 선출됐으며, 이사 8인에 대하여는 현 회장이 전임회장들과 협의하여 선출하는 것으로 승인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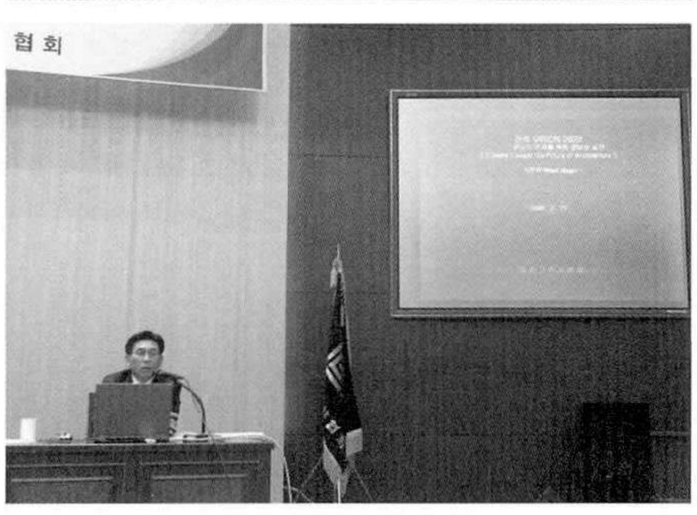
이어 제3호의안인 공제규정 개정의 건 및 제4호의안 공제사업 준비자금 차입의 건, 제5호의안 (가칭)건축도시환경디자인연구원 설립의 건, 제6호의안 (가칭)한국건축문화재단 설립의 건, 제7호의안 2007년도 결산의 건이 원안대로 승인됐다.

제8호의안인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건에 있어서는 일부 대의원들이 회비인상에 반대하며, 수정안을 제시, 표결로 처리하려 했으나, 회의에 참석하였던 일부 대의원들이 회의장을 떠나 결국 정족수 미달로









처리되지 못하고 유회됐다.
제42회 정기총회 주요 부의안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호의안 : 정관 개정의 건
  –정관 제41조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현행대로 하고, 부칙 제2조는 이사회에서 문안을 조정키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승인함.
- 제2호의안 : 임원 선출의 건
  –감사(1인) : 장기종 회원
  –이사(8인) : 회장이 고문들과 협의하여 선임하도록 위임함.
- 제3호의안 : 공제규정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4호의안 : 공제사업 준비자금 차입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5호의안 : (가칭)한국건축도시환경디자인 연구원 설립의 건제
  – 원안대로 승인함.
- 제6호의안 : (가칭)한국건축문화재단 설립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7호의안 : 2007년도 결산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8호의안 :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건
  – 정족수 부족으로 처리되지 못함.

제1회 임시총회 개최

우리협회는 지난 3월 13일 서울 서초동 소재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2008년도 제1회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시총회는 지난 2월 27일 개최된 제42회 정기총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처리되지 못했던 제8호의안인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건' 을 처리하기 위해 개최됐다.
재적 대의원 441명 중 328명의 성원을 보인 가운데, 제1호의안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건' 이 상정되어 표결에 붙인 원안대로 승되었으며 다만, 금번 임시총회 소요경비는 일반회계 총회비와 예비비 과목을 조정하여 시행원안대로 승인됐다.
제1회 임시총회 주요 부의안건 내용은 다음





과 같다.

- 제1호의안 :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다만, 금번 임시총회 소요경비는 일반회계 총회비와 예비비 과목을 조정하여 시행

〈신임이사〉



권 백 순(權白淳)
생년월일 : 47년생
출신교 : 대전공업고등전문학교 건축과(5년)
사무소명 : 권백순 건축사사무소



김 한 진(金漢珍)
생년월일 : 49년생
출신교 : 탐라대학교 건축공학과, 제주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
사무소명 : 김한진 건축사사무소



도무찬(都武燦)
생년월일 : 47년생
출신교 : 영남대학교 건축공학과
사무소명 : 신도시 건축사사무소



백민석(白旻錫)
생년월일 : 68년생
출신교 :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및 동대학 대학원 건축학과, 동대학 대학원 건축공학과 박사과정 수료
사무소명 : (주)건축사사무소 시그에이



이 영 호(李永昊)
생년월일 : 45년생
출신교 :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건국대 대학원 건축공학과
사무소명 : (주)새롬 종합건축사사무소



이 창 율(李昌律)
생년월일 : 49년생
출신교 : 조선대학교 건축공학과, 조선대학교 대학원 환경설계학과
사무소명 : (주)지에이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장 양 순(張亮淳)
생년월일 : 46년생
출신교 : 홍익대학교 건축과, 동대학 대학원 건축과
사무소명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창건축



조 충 기(趙忠基)
생년월일 : 59년생
출신교 :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홍익대학교 대학원 건축설계
사무소명 : 건축사사무소 간향

〈신임감사〉



장 기 종(張奇鐘)

생년월일 : 52년생

출신교 : 전주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사무소명 : (주)세종 종합건축사사무소

이사회

■ 제2회 이사회

2008년도 제2회 이사회가 지난 2월 14일 오후 2시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부의안건으로 정관 개정의 건, 2007년도 수지결산의 건,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의 건, 공제사업 준비자금 차입의 건, (가칭)한국건축도시환경디자인연구원 설립의 건, (가칭)한국건축문화재단 설립의 건, 제42회 정기총회 의제결정의 건, 회원 제명자 미납회비 결손 처분의 건, 추대회원 추대의 건, 공로회원 및 직원 표창의 건, 2008 건설의 날 포상후보자 추천의 건과 협의사항으로 회관 지분의 건, 감사 요청사항의 건이 논의됐다.
주요 의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정관 개정의 건
  -정관개정(안)중 제8조를 수정하여 제42회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함.
- 제2호의안 : 2007년도 수지결산의 건
  -원안대로 제42회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함.
- 제3호의안 :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의 건
  -예산(안)을 조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제42회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함.
- 제4호의안 : 공제사업 준비자금 차입의 건
  -원안대로 제42회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함.
- 제5호의안 : (가칭)한국건축도시환경디자인연구원 설립의 건
  -원안대로 제42회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함.
- 제6호의안 : (가칭)한국건축문화재단 설립의 건
  -장학회운영위원회에서 합의될 경우 원안대로 제42회 정기총회에 상정키로 하되, 사업의 범위에 '건축문화 보전 및 관리사업' 을 추가하기로 함.
- 제7호의안 : 제42회 정기총회 의제결정의 건
  -제42회 정기총회 의제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되, 제6호의안에 대해서는 장학회운영위원회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삭제하기로 함.
  ▷제1호의안 : 정관 개정의 건
  ▷제2호의안 : 임원 선출의 건
  ▷제3호의안 : 공제규정 개정의 건
  ▷제4호의안 : 공제사업 준비자금 차입의 건
  ▷제5호의안 : (가칭)한국건축도시환경디자인연구원 설립의 건
  ▷제6호의안 : (가칭)한국건축문화재단 설립의 건
  ▷제8호의안 :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건
- 제8호의안 : 회비미납 대의원 권리정지의 건
  -원안대로 승인하되, 다시 한 번 회비납부를 적극 권유하기로 함.
- 제9호의안 : 회원 제명자 미납회비 결손 처분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
- 제10호의안 : 추대회원 추대의 건
  -원안대로 제42회 정기총회에 보고하기로 함.
- 제11호의안 : 공로회원 및 직원 표창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
- 제12호의안 : 2008 건설의 날 포상후보자 추천의 건
  -회장단에서 결정하도록 위임함.

▲협의사항

- 제1호 : 회관 지분의 건
  -본협회와 서울건축사회가 원만하게 합의될 수 있도록 회관 지분관련 소위원회에서 합의문서가 작성되면 추후 이사회에서 재 논의하기로 함.
- 제2호 : 감사 요청사항의 건
  - '서울건축사회의 신고업무 무료설계' 와 '서울시의 측량의무화 제도 시행' 에 관한 사항은 서울건축사회에서 적의 처리하도록 함.

■ 제1회 임시이사회

2008년도 제1회 임시이사회가 지난 3월 3일 오후 2시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부의안건으로 2008년도 제1회 임시총회 개최의 건, 정관개정(안) 부칙의 건, 2008년도 3월분 임시예산의 건과 협의사항으로 시도건축사회 총회 참석에 관한 건이 논의됐다.
주요 의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2008년도 제1회 임시총회 개최의 건
  -2008년도 제1회 임시총회 일시 및 장소, 부의안건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기로 함.
  ▷일 시 : 2008년도 3월 13일 11시
  ▷장 소 : 본협회 회관 1층 대강당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건
- 제2호의안 : 정관개정(안) 부칙의 건
  -건축사회의 명칭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승인함.
- 제3호의안 : 2008년도 3월분 임시예산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

▲협의사항

- 제1호 : 시도건축사회 총회 참석에 관한 건
  -시 · 도건축사회 총회 참석계획(안)대로 담당임원이 적극 동참하기로 함.

■ 제2회 임원 및 시 · 도건축사회회장 합동회의

제2회 임원 및 시 · 도건축사회회장 합동회의가 지난 2월 26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42회 정기총회 개최에 관한 건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제42회 정기총회 개최에 관한 건
  –제42회 정기총회가 원만히 개최될 수 있도록 임원 및 시도건축사회 회장 모두가 적극 협력하기로 함.

■ 제3회 임원 및 시 · 도건축사회회장 합동회의

제3회 임원 및 시 · 도건축사회회장 합동회의가 지난 3월 13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2008년도 제1회 임시총회 개최에 관한 건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2008년도 제1회 임시총회 개최에 관한 건
  –2008년도 제1회 임시총회가 원만히 개최될 수 있도록 임원 및 시도건축사회 회장 모두가 적극 협력하기로 함.

위원회 개최 현황

■ 제2회 교류협력위원회

제2회 교류협력위원회 회의가 지난 2월 15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건축사교육연구협의회 발족사업에 관한 건, 2008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최종합격자관련 홍보사업에 관한 건, 예비건축사(5년제 대학생 등) 교류활성화 방안에 관한 건, 전문자격 단체와의 상호교류사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건, 외국건축사면허소지자 교류사업 계획에 관한 건과 기타사항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건축사교육연구협의회 발족사업에 관한 건
  –발족을 위한 세미나 개최에 대하여 준비위원회(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협회행사와 연결하여 개최키로 협의함.
• 제2호 : 2008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최종합격자관련 홍보사업에 관한 건
  –최종합격자에 대한 홍보는 아래와 같이 협의함.
• 제3호 : 예비건축사(5년제 대학생 등) 교류활성화 방안에 관한 건
  –대상자 범위는 우선 5년제 대학생 중 5학년(졸업반)과 현재 건축사사무소 건축사보로 범위를 한정하고 활성화 단계에 이르면 범위를 확대키로 협의함.
  –교류행사 내용을 협의함.
• 제4호 : 전문자격 단체와의 상호교류사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건
  –전문자격단체와 공식적인 상호교류를 위하여 단체별 교류 실무진 모임을 확인하고 공식적인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협의함.
  –협회에서 발간하는 건축사지 또는 건축문화신문에 별도의 지면을 할애하여 법률상식, 세무상식 및 생활건강 상식 등을 협조받아 게재키로 협의함.
  –전문가 단체에 대한 연합회를 구성을 추진키로 협의함.(의사, 세무사, 변호사 등)
• 제5호 : 외국건축사면허소지자 교류사업 계획에 관한 건
  –협회 회원 중 외국건축사면허소지자를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회원 개개인에게 외국면허소지현황을 파악키로 하고, 기타 세부내용은 차기회의 시 협의키로 함.

■ 제1회 교육 · 시험위원회

제1회 교육 · 시험위원회 회의가 지난 2월 18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건축사 계속교육관련 토론회 계획(안)에 관한 건, 2008년도 상반기 건축사 연수교육 계획에 관한 건, 2008년도 하반기 건축사 연수교육 계획에 관한 건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건축사 계속교육관련 토론회 계획(안)에 관한 건
  –건축사 계속교육관련 토론회를 총회 이후에 개최하기로 하되, 정관개정(안) 결과에 따라 심포지엄, 워크샵 형식으로 개최하는 것도 고려하기로 함.
  –회원자격유지를 위한 최소교육이수 시간에 대한 교육 · 시험위원회의 의견은 12시간/년으로 정함.
• 제2호 : 2008년도 상반기 건축사 연수교육 계획에 관한 건
  –가능하면 전국순회 연수교육을 실시하기로 하되, 연수교육 등록비는 2만원으로 하는 것을 건의하기로 함.
• 제3호 : 2008년도 하반기 건축사 연수교육 계획에 관한 건
  –정관 및 건축사법 개정 경과에 따라 변수가 너무 많으므로 추후 재 논의하기로 함

■ 제2회 정책위원회

제2회 정책위원회 회의가 지난 2월 18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회원운영제도 도입에 관한 건, "건축기본법"을 토대로 한 신규 건축사업에 관한 건, (가칭) '건축설계분야의 자격기준' 에 관한 건, 공공성을 중시하는 민간시장을 위한 사업에 관한 건과 기타사항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회원운영제도 도입에 관한 건
  –AIA 정관을 벤치마킹한 정관 개정 등을 논의 함
• 제2호 : "건축기본법"을 토대로 한 신규 건축사업에 관한 건
  –건축시장 만들기 · 고용환경 개선 및 안정화 방안 마련 등을 논의 함
• 제3호 : (가칭) '건축설계분야의 자격기준' 에 관한 건
  –디자인 건축사/ 프로젝트 건축사의 법적 지위 부여
• 제4호 : 공공성을 중시하는 민간시장을 위한 사업에 관한 건
  –공공성 강조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제도 활용방안 연구
  –개방직 공무원 제도 및 공공건축사 제도 도입
• 제5호 : 기타사항

-건설기술자 제도 변경에 따른 경력신고 및 승급교육이수에 대한 사항에 대한 협회차원의 대책 마련 시급
-현행 실적 관리제도 개선

■ 제3회 정책위원회

제3회 정책위원회 회의가 지난 3월 5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회원운영제도 도입에 관한 건, "건축기본법"을 토대로 한 신규 건축사업에 관한 건, (가칭) '건축설계분야의 자격기준' 에 관한 건과 기타사항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회원운영제도 도입에 관한 건
  -정책위원회에서 회원운영제도에 관하여 언급하였던 내용을 보고서 형식으로 정리하여 정책제안서를 제출할 것.
- 제2호 : "건축기본법"을 토대로 한 신규 건축사업에 관한 건
  -(가칭) 지역 공간 개발 연구회 발족 등을 논의 함.
- 제3호 : (가칭) '건축설계분야의 자격기준' 에 관한 건
  -디자인 건축사/프로젝트 건축사의 법적 지위 부여
- 제4호 : 기타사항
  -건축허가도면 간소화 방안에 대한 사항

■ 제2회 법제위원회

제2회 법제위원회 회의가 지난 2월 19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건축감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및 "설계대가 관련 연구"에 관한 건,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 표준계약서 개정(안)에 관한 건, 법제도 및 회원지원 사업보고서에 관한 건과 기타사항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건축감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및 "설계대가 관련 연구' 에 관한 건
  -건축감리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및 '설계대가 관련 연구' 에 대해 논의 함.
- 제2호 : 건축물의 설계 ·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개정(안)에 관한 건
  -시도건축사회의 의견수렴한 결과를 일부 반영하여 수정 · 보완하기로 함.
- 제3호 : 법제도 및 회원지원 사업보고서에 관한 건
  -차기 법제위원회의 연계성과 타 위원회의 귀감이 되기 위하여 지난 1년동안 법제위원회의 추진활동현황을 정리하여 협회장에게 제출하기로 함.
- 제4호 : 기타의 건

■ 제2회 법제소위원회(감리제도)

제2회 법제소위원회(감리제도) 회의가 지난 3월 17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장조사검사 · 확인업무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관한 건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현장조사검사 · 확인업무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관한 건
  -감리제도와 현장조사검사 · 확인업무제도의 명확한 정의 · 정립
  -현장조사검사 · 확인업무는 사후 조사가 아닌 사전 조사가 되어야 함

■ 비상대책위원회 기획분과 회의(2차)

비상대책위원회 기획분과 회의(2차) 회의가 지난 2월 20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행정연구원 최종 연구보고서 대응방안에 관한 건, 총회 예상 답변자료에 관한 건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한국행정연구원 최종 연구보고서 대응방안에 관한 건
  -한국행정연구원 최종 연구보고서 대응방안에 관한 건에 대해 논의 함.
- 제2호 : 총회 예상 답변자료에 관한 건
  -첨부한 회의자료 감사보고서 중 2007년 수시감사 내용을 참고하여 비대위원장이 2008년 총회에서 질문을 받을 시에 답변하기로 함.

■ 제2회 정보소위원회

제2회 정보소위원회 회의가 지난 2월 22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논의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회의결과
- Intro의 시나리오 컨셉은 자연속에 건물과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문화가 반영되고, KIRA문구를 강조 할 수 있게 수정해야 한다고 의견 제시함
- I:Main화면은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됐으나, 색상은 다소 수정이 필요하다고 의견 제시 함
- II:Intro 컨셉 작업 완료후 정보소위원회 다시 개최하기로 함

■ 제3회 정보소위원회

제3회 정보소위원회 회의가 지난 3월 13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논의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회의결과
- Intro는 업체가 제시한 시안 중 첫번째 시안을 근간으로 하여 시나리오 및 디자인은 수정 보안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판단됨.(류춘수 부회장의 의견을 듣거나 가능하면 스케치를 부탁했으면 함)
- Main화면은 전반적으로 잘 정리가 됐으나 Detail한 부분들은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Sub화면은 업체가 제시한 시안 중 첫번째 시안을 근간으로 하여 Detail한 부분들은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I:Intro는 업체로부터 수정 보안된 시안을 받아 다음 4회 정보소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함.

■ 제13차 아시아건축사대회 제2회 조직위원회

제13차 아시아건축사대회 제2회 조직위원회 회의가 지난 2월 26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2008 아시아건축사대회 조직위원회 운영규정에 관한 건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2008 아시아건축사대회 조직위원회 운영규정에 관한 건
  -아시아건축사대회 조직위원회 운영규정을 집행위원회에서 작성하기로 함.
  -의사결정, 회계, 본부 협조사항, 보고자료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담도록 하며, ACA-13 기구표를 포함하여 작성키로 함.
  -향후 아시아건축사대회 개최와 관련된 업무는 신설되는 조직위원회 운영규정에 맞추어 추진하기로 함.

■ 제2회 국제위원회

제2회 국제위원회 회의가 지난 2월 28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회의결과
- 몽골건축사협회 대표단을 4월말 초청하기로 하고, 희망하는 시 · 도 건축사회에서 초청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함.
- 제13차 아시아건축사대회와 관련하여 연사 초청, 학생잼보리에 관한 협의
- 미국건축사협회(AIA) 총회 참가인원 및 참가자에 과한 협의

■ 제2회 여성건축사위원회

제2회 여성건축사위원회 회의가 지난 3월 6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2008년 여성건축사대회 개최 계획에 관한 건고 기타사항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2008년 여성건축사대회 개최 계획에 관한 건
  -개최일정 : 2008. 5. 23(금) ~ 2008. 5. 24(토)
  -개최장소 : 서울

■ 제6회 건축단체통합혁신위원회

제6회 건축단체통합혁신위원회 회의가 지난 3월 6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회의결과
- 정관제정분과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위원은 각 단체에서 2인씩 아래와 같이 6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추후 협의하여 선임키로 함. 또한, 필요시 법률전문가의 참석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위원 - 백민석, 조충기, 곽재환, 조익수, 김용미, 이충기
- 정관제정방향은 기존 각 단체의 정관 또는 조직의 기존 틀을 벗어나 새로운 관점에서 기존에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추진된 정관제정(안)을 바탕으로 삼아 논의키로 함.
- 건축단체 통합 추진일정 등에 관한 사항
- 기본추진일정
  - 3월 31일 이전 정관제정(안) 초안 마련
  - 4월 23일 이전 정관제정(안) 협의안 마련
  - 4월 30일 이전 각 단체 이사회에서 정관제정(안) 의결
  - 5월 30일 이전 각 단체 임시총회 및 발기인 대회 개최
  - 6월 30일 이전 창립총회 개최

■ 제7회 건축단체통합혁신위원회

제7회 건축단체통합혁신위원회 회의가 지난 3월 13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회의결과
- 정관개정 핵심 사항중 회원 및 조직에 관해서는 각 단체 간사외에 위원 1~2명정도가 다음주 회의전에 만나 몇가지 협의안을 작성키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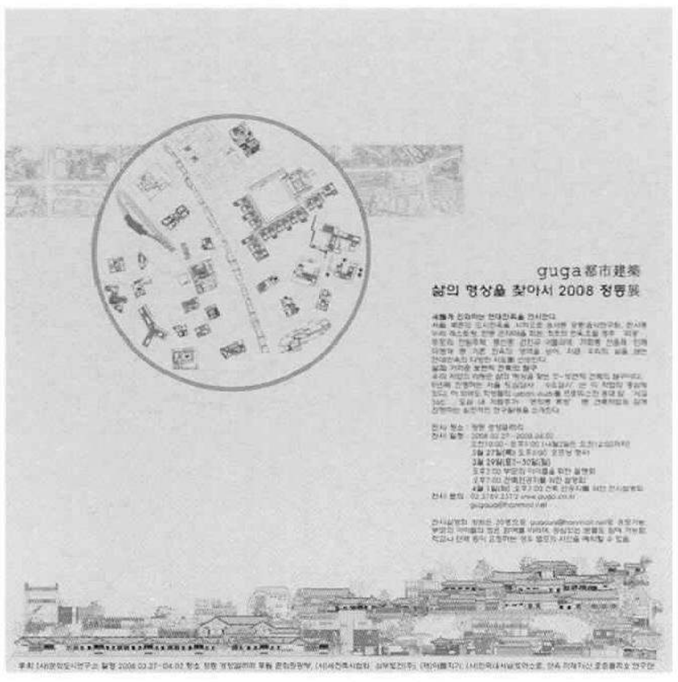
후지모토 마사야 일본건축사회연합회 부회장, 제42회 정기총회 참석





후지모토 마사야(Fujimoto, Masaya) 일본건축사회연합회 부회장이 대한건축사협회의 제42차 정기총회 개최를 축하하기 위해, 지난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한국을 방문했다.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이 어려워진 미야모토 타다나가 회장을 대신하여 방한한 후지모토 부회장은 정기총회 축사를 통해 양 단체의 유구한 교류협력사에 대한 감회를 밝히고, 지난해 11월에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있었던 제11회 한중일건축사협의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방한 첫날, 류춘수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이 주최한 환영만찬에서는 양국 건축사제도의 비교하며 대안을 모색하는 진지한 토론이 늦게까지 이어졌으며, 이튿날 정기총회 참석을 마친 후 한옥마을과 종로타워 등 서울의 과거와 현재를 보여주는 건축물들을 관람하는 것으로 짧은 방한일정을 마무리 했다.
한편, 후지모토 부회장은 다가오는 5월에 일본건축사회연합회의 새 회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조정구 회원 '삶의 형상을 찾아서 2008 정동展' 개최



조정구 회원(도시 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축사)이 정동경향갤러리에서 오는 3월 27일부터 4월 2일까지 '삶의 형상을 찾아서 2008 정동展' 을 개최한다.

국내 최초로 한옥 호텔을 설계하여 2007 대한민국 목조건축대전 대상을 수상한 바 있는 조정구 회원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새롭게 진화하는 다양한 현대한옥의 작업사례를 통한 한옥설계의 가치와 중요성 전달' 하고 '한옥의 구조와 조형을 쉽게 느낄 수 있는 모형 중심의 전시로 사람들의 이해와 관심유도' 하고자 한옥을 중심으로 그 동안의 작업을 전시한다. 서울 북촌일대의 도시한옥들과 경주 한옥호텔 라궁, 궁중음식연구원, 두포리 전원주택, 미명재 등이 소개되어, 새롭게 진화하는 현대한옥의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며 '우리 삶과 가까운 보편적인 건축의 탐구' 라는 주제로 진행해온 여러 프로젝트들도 소개한다.

· 문의 : 구가 건축사사무소
02-3789-3372, www.guga.co.kr

임정의 사진전 '르 꼬르뷔지에를 보다'

임정의 작가의 사진전 '르 꼬르뷔지에를 보다' 가 오는 3월 7일부터 4월 13일까지 파주 헤이리마을 갤러리 소소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는 임작가가 2007년 9월 발간한



사진집「 르 꼬르뷔지에를 보다」의 연장선상에서 개최되며, 사진집에 수록된 작품을 중심으로 전시된다.

특히, 지형과 잘 어우러져 건축된 전시장의 공간을 통해 다각적인 모습이 보여진다.

부대행사로 3월 28일 '르 꼬르뷔지에가 건축에 남긴 다섯 가지 문제들' 이라는 주제로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정진국 교수의 세미나가 개최될 예정이다.

· 문의 : 청암건축사진연구소,
02-444-7088

KCC , 2008 경향하우징페어 전시회 참여 성료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KCC는 '2008 경향하우징페어 전시회' 에 참여해 '글로벌 초일류 정밀 화학기업' 으로 도약하는 역동적인 기업 이미지를 전달하며 성황리에 전시회를 마쳤다.

KCC는 전시회에서 총 102개 부스의 면적에 제품군을 크게 창호, 유리, 건자재, 내외장재, 도료, 실리콘, 유통상품 등 7가지로 나누고 제품별로 차별화된 컨셉을 설정해 KCC가 생산하는 다양한 제품군을 각각의 이미지에 맞게 큐브 형태의 컬러풀한 조합으로 표현했고, 첨단 그래픽 이미지의 영상, 각종 제품 시연,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단순히 제품을 '보여주는' 전시가 아닌, 전시 관람객이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오감 체험의 전시로 승화시켰다.

KCC, 고품격 욕실 자재 통합 브랜드 'INVITE LU' 전시장 오픈



KCC가 서울 서초구 본사 지하 전시장 내에 고품격 욕실 자재 통합 브랜드 'INVITE LU(이하 인바이트 루)' 쇼룸을 오픈했다.

'인바이트 루' 전시장은 KCC의 기술력과 디자인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다. 전체적으로 와인과 화이트 색상을 통해 고급스러움을 표현했고, 내부 중앙에 자연스러운 시냇물을 연출하여 친환경적인 분위기를 구현해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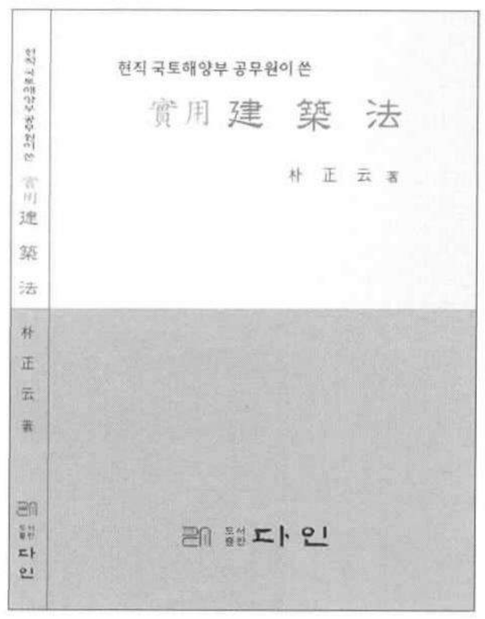
또한, 이번 전시장은 3가지 주제를 통해 욕실 공간에 대한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고급스러운 네오클래식, 간결한 모던 스타일, 자연스러운 내추럴 스타일 등의 각 테마룸들은 감각적인 디자인과 편리함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전시되었다.

KCC는 지난 9월 고품격 욕실 자재 브랜드를 통합한 '인바이트 루' 를 런칭하고, 욕실 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KCC 측은 "인테리어 트랜드와 시장 상황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만큼 최소 1년 단위로 전시장을 업그레이드하여 고품격 욕실 자재 문화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문의 : KCC 홍보팀, 02-3480-5367

신간안내

현직 국토해양부 공무원이 쓴 실용 건축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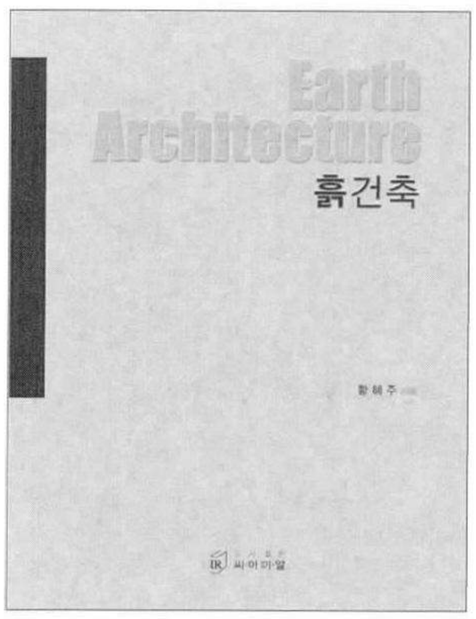
박정운 저 / 384p / 도서출판 다인

이 책은 저자가 건축법 제 · 개정과 해석업무를 담당하면서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함을 실감하고, 건축정책권자 및 허가권자로서 근무한 경험과 국토해양부와 법제처의 유권해석사례 및 대법원판례 등을 참조한 종합적인 시각에서 건축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결과물을 엮어낸 것이다.

저자는 행정법이론과 건축실무의 융합, 건축정책권자와 허가권자의 영역을 허물고, 더 나아가 건축과 관련한 업무에서 발생되는 이분법적 사고를 벗어버리고 통합적인 해석을 담고자 노력했다.

· 문의 : 도서출판 다인, 02-2266-5005

흙건축



황혜주 저 / 265p / 도서출판 씨 · 아이 · 알

21세기의 건축활동은 자연환경과 조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재료를 사용하고, 에너지 절약 재료를 개발하며, 건설폐자재를 재생하고, 다시 쓰기 편한 재료를 쓰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런 시대적 흐름을 생각할 때, 흙은 바람직한 건설재료의 대안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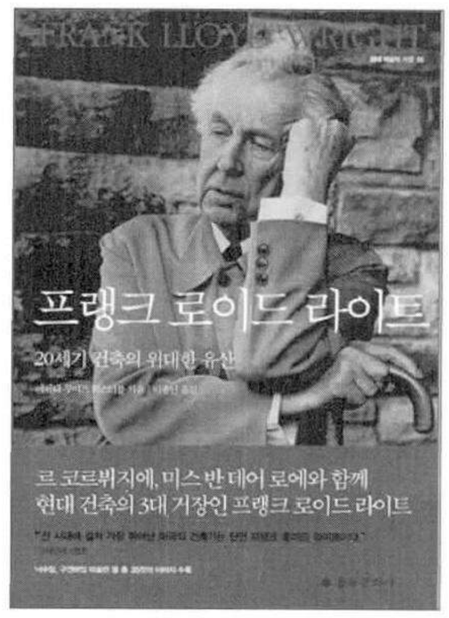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앞서 언급한 이러한 흙건축의 기본정신과 본질은 물론, 흙건축의 역사, 흙건축에 대한 특성을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흙의 성질, 흙 이용, 흙 시험 등을? 다양한 실험 결과들과 함께 소개하고 흙건축과 관련된 다양한 공법들을 소개한다.

또한 부록으로 흙건축과 관련된 다양한 화보들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에는 아직 흙건축과 관련된 마땅한 참고서나 지침서가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 책은 흙건축 기술들과 관련된 그간의 여러 궁금증을 풀어주는 단초가 될 것이다.

· 문의 : 도서출판 씨 · 아이 · 알,
02-2275-8603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20세기 건축의 위대한 유산



에이다 루이즈 헉스터블 저, 이종인 역 /
303p / 을유문화사

이 책은 을유문화사의 '현대 예술의 거장' 시리즈 중 16권으로, 시리즈 최초로 건축사를 다루고 있으며,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르 코르뷔지에, 미스 반 데어 로에와 함께 현대 건축의 3대 거장이라 일컬어지는 인물을 이야기하는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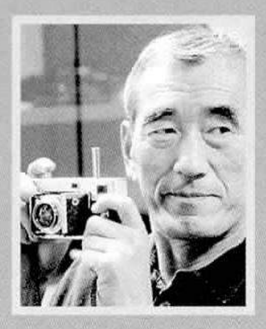
이 책의 저자인 '에이다 루이즈 헉스터블' 은 1970년 퓰리처상을 수상한 바 있는 미국의 영향력 있는 건축비평가로서 이 책에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건축과 삶 양 측면을 균형감 있게 다루고 있다. 모더니즘과 미니멀리즘을 특징으로 현대 건축의 태동을 알리던 당시의 건축계와는 달리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다소 장식적이고 소박한 건축을 선보였는데, 그럼에도 그가 현대 건축의 3대 거장으로 손꼽히는 이유는 우선 70년의 긴 건축 인생 동안 400점이 넘는 다량의 작품을 건축했다는 점이다.

책은 그의 삶의 이야기와 더불어 도판이 총 35컷 수록되고 그 중 라이트의 대표작인 마틴 주택, 로비 저택, 낙수장, 구겐하임 미술관은 한 면 혹은 양면을 가득 채워 사진을 실어 읽는 맛과 보는 맛을 살리고 있다.

· 문의 : 을유문화사, 02-733-8152

알기쉬운 건축사진 촬영법

Easy Camera Technique for Architecture



임정의 / 사진가
by Lim, Chung-eui

약력
- 청암건축사진연구소 대표
- 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건축물은 각각의 용도에 따라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으로 구성되지만 그 공간 전체의 흐름을 실제 눈으로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그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지붕이나 벽, 마루, 천장 등을 통해서 그러한 건축공간으로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

사진은 이러한 가시적인 구조물들을 이용해서 추상적인 공간을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건축을 보고 이해하는 능력은 사진의 기술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이다.

건축사진의 주제들은 주택과 같은 주거공간에서부터 현대적인 고층빌딩과 전통적인 고건축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건축물들이 있다.

건축물들을 촬영하고자 할 때 기술적인 테크닉과 그 피사체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몇 가지 기본적인 접근 방법이 있다.

촬영 전에 체크해야 할 몇 가지 사항

외부 디테일, 질감, 양감, 볼륨 등은 어느 건축물에나 비슷하게 적용되는 사항들이다.

건축물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투시도나 조감도, 그리고 모형들이 만들어지는데 이를 통해 건축물이 준공되었을 때 보여지는 느낌이나 촬영을 위한 위치, 각도 등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

건축물은 평면이 아닌 입체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사면이 다 보여질 수 없기 때문에 사진이라는 매체를 가지고 표현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건축사진에서 건물의 전후 좌우 면을 촬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건물을 테마로 할 경우, 한 장의 사진을 통해 모든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이때 조감적인 촬영이 요구된다. 주변에 높은 산이나 건물이 없는 평지라면 그 작업은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촬영에 앞서 주변상황들을 점검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건물 외부의 형태는 좋은 날씨에 좋은 빛과 그림자만 있으면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다. 그러나 내부공간은 설계자에 따라 조명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점 또한 촬영 전에







1. 일몰후의 남대문 야경사진으로 지금은 불에 타서 그 흔적을 사진으로 나마 볼수 있다
2. 건축사진 촬영에서 건물의 왜곡되는 현상을 바로 잡아주는 렌즈인 28미리 라이카 피시
3. 포스코센터 실내 로비사진으로 건물의 왜곡되는 현상을 바로 잡아 주는 피시렌즈의 효과

체크해야 한다. 사진은 빛이 있으므로 찍히지만 실내 공간의 빛은 자연광선의 좋은 여건보다는 인공조명, 즉 형광등이나 텅스텐용 조명기구들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 촬영할 건축물의 특성은 설계자와의 대화를 통해 알 수 있지만 사전조사로 촬영에 필요한 적절한 필름을 선택할수 있게 하는 하나의 준비과정이 된다. 건축사진에서 상황에 맞는 올바른 필름의 선택과 사용은 그 어떤 점검사항보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디지털 카메라의 발달로 필름이 필요없는 세상이 되었다. 환경 오염문제가 발생되는 현상,인화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것도 중요한 일이 되었고 촬영하면 곧바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과정들은 너무도 좋은 세상이 된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디지털 카메라의 장점중에 하나인 인테리어 촬영에서 인공조명인 형광등이나 백열등 하에서의 색 보정도 쉽게 해결하는 문제들은 디지털 카메라의 특징중에 하나이다.

투시도나 조감도같은 평면적인 그림들은 인위적인 조명으로 촬영하면 쉽게 해결된다. 그러나 계획단계의 스터디 모형이나 완성된 모형들은 재료의 색상이나 질감에 따라 배경처리에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스터디 과정의 모형인 경우 대부분 스티로폴이나 우드락같은 재료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얀 색상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배경이 되는 하늘이나 주변의 모습들은 가급적 검은 색상의 배경으로 처리, 촬영하는 것이 좋다. 이것은 배경에 따라 건축물들을 더욱 돋보이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건축모형을 촬영할 때 빛의 방향을 잘 파악하는 것도 배경처리 못지 않게 중요하다.

완공되었을 때를 생각하여 실내에서 촬영한다면 건축모형의 동남방향이나 남서방향에서 광선이 비춰지도록 광원을 배치해야 한다.

건물은 움직일 수 없는 부동의 형태지만 모형은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건물에 비해 조명의 적절한 배치 하에서 쉽게 촬영이 가능하다.

살아 숨쉬는 건축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 힘있는 사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 건축을 잘 알아야 함을 의미한다.

건축은 환경성과 지역성에 근거를 두고 존재하는 만큼 여러 형태들의 표현에서 사진이 갖고 있는 위치는 매우 중요한 일로 변하고 있다. 그만큼 전달 매체로서의 사진의 이용은 더 많은 작품들을 만들기 위한 포석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장조사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사진의 기록과 표현은 바로 건축가의 얼굴이나 다름없다.

건축사진을 찍기 위한 기본 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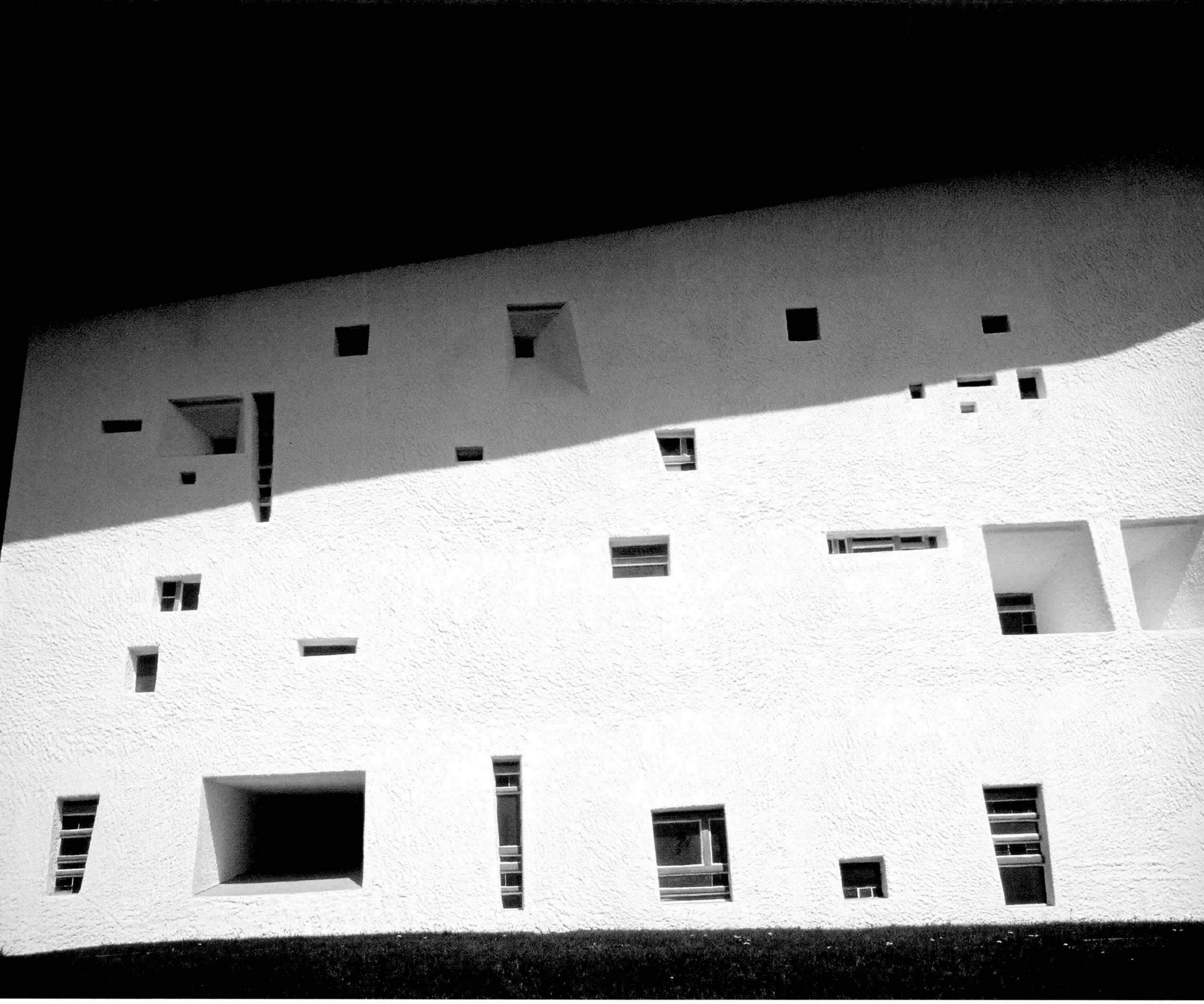
카메라 기재

카메라의 종류는 크게 소형, 중형, 대형 등 세가지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것은 소형 카메라지만 6X6, 6X7, 6X9cm사이즈의 중형카메라에서부터 4X5인치 원판 컷트 필름을 사용하는 대형카메라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는 다양하다. 건축물에서 요구되는 질감이나 디테일 등의 세부묘사를 위해서는 중형 카메라 이상의 카메라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소형카메라로 찍을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단지 디테일이나 질감 표현에서 대형 카메라보다 다소 불리하다는 것이다.

건축사진의 대상들은 대부분 움직일 수 없는 부동의 물체들이고 현장을 직접 찾아가야 하는 일이므로 휴대하기 쉬운 소형카메라를 선호하게 된다. 또한 공장이나 아파트 단지 같은 건물들을 찍기 위한 대형, 혹은 특수 카메라인 파노라마 카메라가 사용되는데, 일반 아마추어들이 사용하기에는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렌즈의 선택

렌즈는 사람의 눈과 같은 화각을 갖고 있는 표준렌즈에서부터 넓게 포착할수 있는 광각 렌즈 그리고 망원 렌즈 등으로 구분된다. 최근에는 줌(zoom)렌즈의 개발로 광각(wide)렌즈에서부터 표준, 망원렌즈의 기능까지 하나의 렌즈 안에 내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나 건축에서 요구되는 특징적인 부분들을 제대로 소화해 내기에는 다소 역부족이다. 왜냐하면 현대화된 고층건물에서부터 여러 분야의 건축물들을 찍기 위해서는 특수 카메라 렌즈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렌즈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건축물을 찍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왜곡을 방지해주는 PC렌즈(Perspective Control)인 24mm, 28mm정도의 렌즈를 구비하는 것이 건축사진과 가장 밀접한 렌즈라고 보아야 할



르 코르뷔제의 롱샹성당으로 외부의 벽면 디테일

것이다.

건축잡지나 건축작품집에 소개되는 건축물들이 실제 모습보다 사진이 더 멋있는 경우가 많은 것은 주로 사용되는 와이드렌즈의 효과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필터의 이용

건축사진에서 외부촬영은 일광, 즉 태양광선에 의존하여 촬영하므로 어느 정도 쉽게 촬영할 수 있지만 실내와 같은 내부공간은 형광등이나 백열등 같은 여러 종류의 광원에 대한 공부와 이에 따른 적절한 필터의 이용이 필요하다. 가끔 인테리어 전문지에 실린 사진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붉은 색을 띠거나 연녹색으로 보여지는 사진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백열등이나 형광등이 있는 광선에서 촬영한 것으로 필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결과다.

실내광원이 형광들일 경우 일반적으로 FL 필터인 색 보정용 필터를 사용해야 하며, 백열등이 주 광원일 경우에는 80시리즈 필터인 80A, 80B, 80C와 같은 보정용 필터를 사용해야 본래 공간의 분위기를 표현할 수 있다. 필터는 실내뿐 아니라 야외촬영에서도 효과적인 결과를 연출할 수 있다. 한 예로, 현대 건축물들의 하이테크한 건축재료들의 빛 반사는 PL필터를 이용하면 제거할 수 있고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해준다. 이외에도 UV필터와 1A,스카이라이트 필터의 경우는 렌즈를 보호해 주면서 하늘 부분을 더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해준다.

필름의 선택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필름은 자연광, 즉 태양광선 하에서 이용되는 것이다. 건축사진에서는 외부의 촬영과 내부 인테리어의 촬영으로 구분되어 이에 따른 필름의 적절한 선택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건축사진은 움직이지 않는 부동의 물체들이므로 필름의 선택에서 가급적 감도가 낮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건축사진에서 요구하는 디테일이나 질감표현에도 효과적이다.

건축사사무소 등록현황

(사 : 사무소수, 회 : 회원수)

2008년 1월말

구분 / 건축사회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용역사무소		합계		비율(%)	
	1인		2인		3인이상		소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소계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합계	5,166	5,166	133	266	16	50	5,315	5,482	1,597	1,597	275	550	72	216	22	88	34	234	2,000	2,685		7	7,315	8,174	100.0%	100.0%
서울	1,090	1,090	34	68	8	25	1,132	1,183	898	898	174	348	44	132	13	52	21	143	1,150	1,573		6	2,282	2,750	31.3%	33.9%
부산	479	479	18	36	2	6	499	521	93	93	18	36	3	9	2	8	3	19	119	165			618	686	8.5%	7.9%
대구	414	414	24	48	5	16	443	478	63	63	19	38	7	21	0	0	2	11	91	133			534	611	7.5%	7.7%
인천	244	244	2	4	0	0	246	248	51	51	8	16	0	0	0	0	0	0	59	67			305	315	4.0%	3.8%
광주	210	210	1	2	0	0	211	212	38	38	6	12	1	3	2	8	3	20	50	81			261	293	3.6%	3.7%
대전	212	212	15	30	0	0	227	242	30	30	8	16	4	12	0	0	2	20	44	78			271	320	3.5%	3.7%
울산	169	169	8	16	0	0	177	185	17	17	3	6	1	3	0	0	0	0	21	26			198	211	2.7%	2.6%
경기	681	681	3	6	1	3	685	690	223	223	19	38	3	9	1	4	1	5	247	279			932	969	13.0%	12.2%
강원	168	168	2	4	0	0	170	172	22	22	2	4	0	0	0	0	1	5	25	31			195	203	2.6%	2.6%
충북	182	182	5	10	0	0	187	192	29	29	4	8	2	6	1	4	1	11	37	58			224	250	2.9%	3.0%
충남	190	190	3	6	0	0	193	196	37	37	4	8	2	6	2	8	0	0	45	59			238	255	3.0%	3.1%
전북	201	201	4	8	0	0	205	209	26	26	1	2	2	6	1	4	0	0	30	38			235	247	3.2%	3.0%
전남	146	146	0	0	0	0	146	146	10	10	1	2	0	0	0	0	0	0	10	11			157	158	2.2%	1.9%
경북	321	321	6	12	0	0	327	333	30	30	2	4	1	3	0	0	0	0	33	37		1	360	370	5.0%	4.6%
경남	357	357	8	16	0	0	365	373	23	23	6	12	1	3	0	0	0	0	30	38			395	411	5.5%	5.0%
제주	102	102	0	0	0	0	102	102	7	7	0	0	1	3	0	0	0	0	8	10			110	112	1.5%	1.3%

건축사회별 회원현황

구분 / 건축사회	회원				준회원
	건축사	2급	계	비율	
합계	8,167	10	8,177	100.0%	23
서울	2,756	3	2,759	33.9%	10
부산	686	1	687	7.9%	9
대구	611	0	611	7.7%	0
인천	315	0	315	3.8%	0
광주	293	0	293	3.7%	0
대전	320	1	321	3.7%	0
울산	211	0	211	2.6%	0
경기	969	2	971	12.2%	2
강원	203	0	203	2.6%	0
충북	250	0	250	3.0%	0
충남	255	3	258	3.1%	0
전북	247	0	247	3.0%	0
전남	158	0	158	1.9%	0
경북	370	0	370	4.6%	1
경남	411	0	411	5.0%	1
제주	112	0	112	1.3%	0

사무소형태별 회원현황

구분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전입미처리	합계	비고
회원수	5,482	2,685	89	8,256	
비율	66.40%	32.52%	1.08%	100%	
사무소수	5,315	2,000	-	7,315	
비율	72.66%	27.34%	-	100%	

Architectural Reco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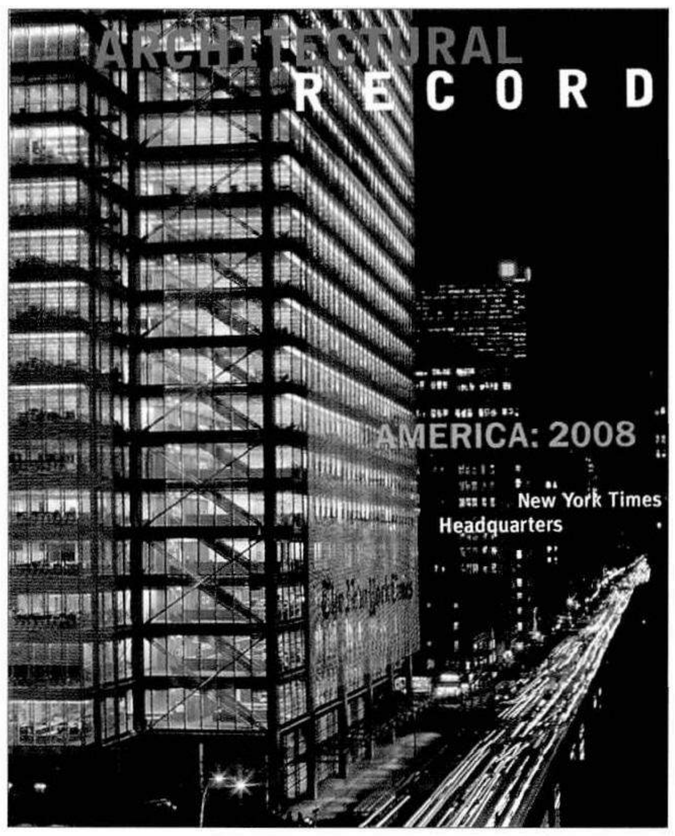
a+u

新建築

최현아 /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겸임교수

약력
연세대학교 주생활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디자인정보시스템 전공 석사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사

Architectural Record



2008년 3월호의 프로젝트 섹션에서는 먼저 '현재의 미국 건축' 이라는 제목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사가 설계를 한다하더라도 그 건물이 들어설 지역의 소규모 건축사사무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6명의 비평가가 각각의 거주지에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 간략히 비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Renzo Piano Building Workshop의 The New York Times Building, ASAI Architecture의 Liberty Memorial/National World War I Museum, John Ronan Architects의 The Gery Comer Youth Center 등 7개의 프로젝트를 다루고 있다.
건축 유형별 연구 섹션에서는 책을 본다는 의미보다는 커뮤니티 센터로 그 역할이 변해가고 있는 공공도서관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의 Hercules Public Library, 뉴욕 시의 Mulberry Street Branch, 그리고 아리조나 주의 Cesar Chavez Library를 그 예로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조명 섹션에서는 싱가포르 국립 박물관의 조명 디자인에 대해 심도있게 다루고 있어 매우 흥미롭다.

■ Books

• Inventing American Modernism: Joseph Hudnut, Walter Gropius, and the Bauhaus Legacy at Harvard, by Jill pearlman: University of Virginia Press, 2007

: 이 책에서 Pearlman은 미국 근대 건축에 있어서 드라마같이 일어난 권력이동 등 다양한 사건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특히 미국 근대 건축에 지대한 공을 세웠으나 잘 알려지지 않은 Joseph Hudnut에 대해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다. Hudnut은 1935년 미국 하버드의 학장이 되면서 미국 건축계획의 학제를 바꾸어 놓는다. 그는 협업의 중요성을 미리 깨닫고 건축, 조경설계, 그리고 도시 계획과를 모두 합병하여 현재 미국 하버드 대학의 GSD(the Graduate School of Design)로 만든 장본인이다.

• From a Cause to a Style, by Nathan Glazer: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7

: 사회학자 Nathan Glazer는 이 책에서 근대 건축이 끼친 중대한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지난 15년에 걸쳐 쓰여 진 12개의 에세이들의 공통된 전제는 근대운동이 무시해 온 사회학 이론 속에 내재된 그 근원에 대한 것이다. 이 책의 부제인 'Modernist Architecture's Encounter with the American City'에서의 미국 도시란 뉴욕을 의미하며 그는 뉴욕의 동쪽 할렘에서의 전후 주거와 복잡하고 인구밀도가 높은 장소에 대한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의 위험성에 대해 깊은 이해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 Finland: Modern Arcitectrures in History, by Roger Connah: Reaktion

Books, 2006

: 핀란드가 적은 인구와 국제사회에서의 미미한 정치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국제 건축 분야에서의 그 입지가 굳건한 것은 Alvar Aalto라는 유명한 디자이너 때문이다. 이 책의 저자 Connah는 건축 역사가들이 가장 난감하게 여기는 도전을 한다. 그는 이 책에서 국가의 문화적, 정치적 흐름이 건축적 창의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 어떤 기여을 하게 되는 지를 설명하고 있다. 특히 그는 Alvar Aalto를 다시 재조명하기 보다는 잘 알려지지 않은 12명의 핀란드 건축사를 소개한다. 그는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건축에서의 잠재력이 20세기 선구자들에 의해 시작되고 정의되지 않은 나라는 없으며 각 나라가 직면한 비전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건축을 정제하고 적응하고 흡수하지 않는 나라는 더욱 없다.

■ Project

The New York Times Building, New York City / Renzo Piano Building Workshop and FXFOW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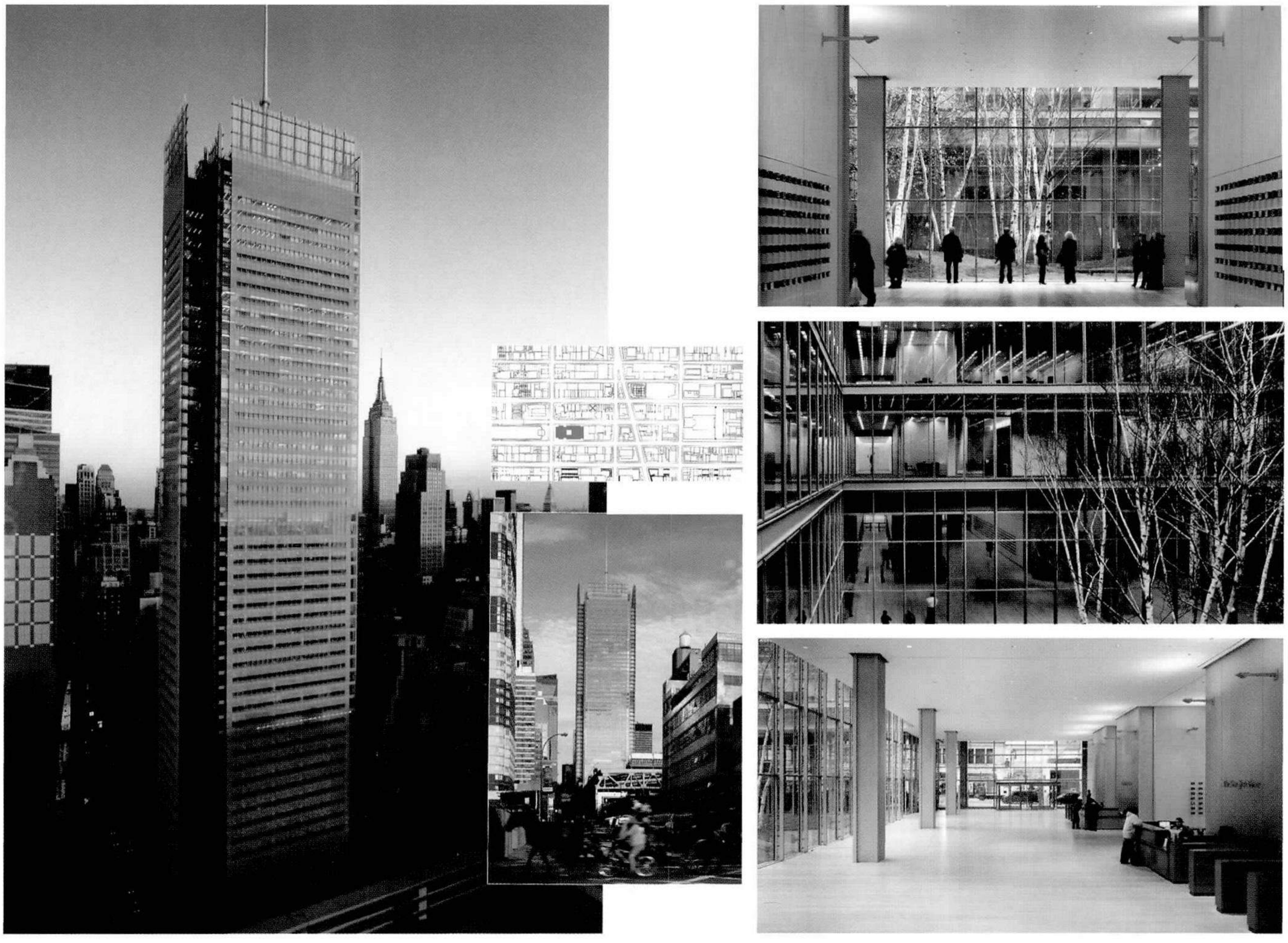
Renzo Piano Building Workshop과 FXFOWLE는 Manhattan의 지평선에 New York Times Building 이라는 조용히 빛을 내는 건물을 출현시킨다.

Renzo Piano의 이 건물은 비평가로부터 칭찬을 듣지는 못하는 건물이다. 뉴욕의 다른 건물과 다를 바 없으며 오히려 뉴욕시의 건축적으로 다양한 컨텍스트에 비해서도 오히려 고루하며 건축사적으로도 매력적이지 못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크라이슬러 빌딩이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리고 록펠러 센터까지도 이 건물들이 지어졌을 당시인 1930년 대 에 는 Lewis Mumford와 Douglas Haskell과 같은 비평가들에게 조야하다고 멸시를 당했었다는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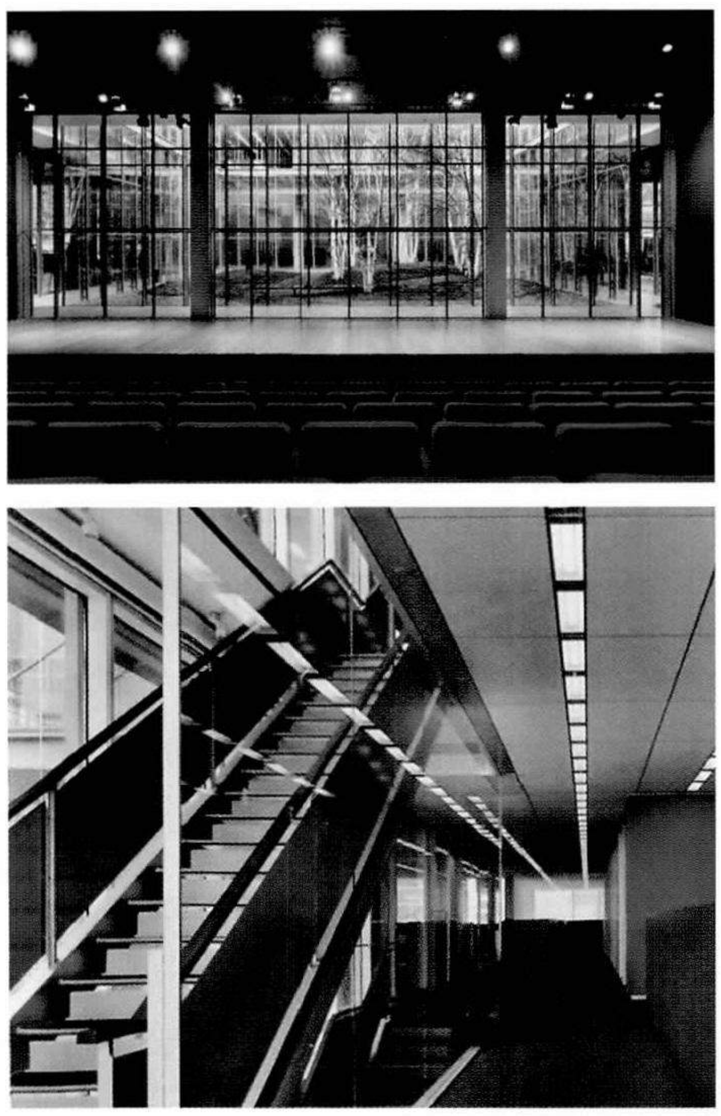
Renzo Piano는 정교하며 시적인 건물을 원했으며 '건물은 무리하게 비틀어야한다는 건축적인 생각에 반대한다' 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빛, 투명성. 그리고 공간 속을 다니는 사람들이 생동감 같은 것을 만들어 낸다고 주장한다. 그는 뉴욕에 건물을 지어본 경험이 없으므로 뉴욕시에 타임 스퀘어 빌딩을 디자인한 건축사사무소인 FXFOWLE가 그와 함께 작업할 것을 요청했다. 이 건물은 기존의 타임즈 빌딩이 있는 43번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으나 건축적으로는 상이한 모습을 하고 있다.

이 건물의 로비는 아티스트 Ben Rubin과 Mark Hansen의 'Movable Type'이라는 작품에 의해 공간이 분할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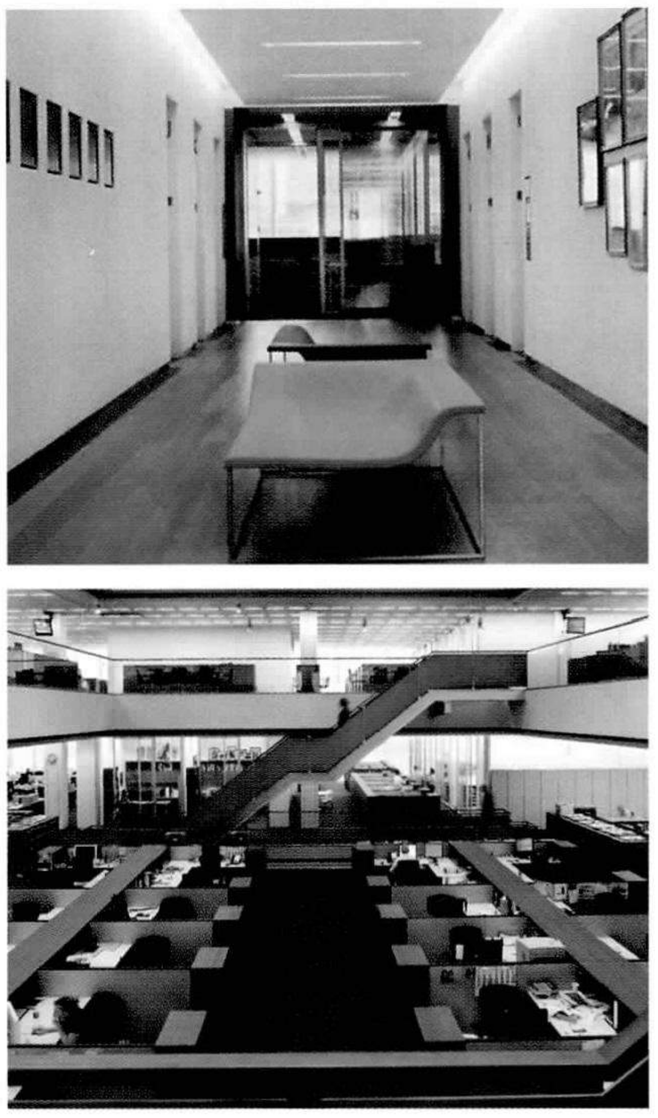
• The New York Times Building, New York City



• The New York Times Building, New York City







안뜰은 빌딩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공간에 빛을 비추어 주고 아래 4개 층에 방위를 알려 준다. 하얀색 자작나무가 인상적인 이 중정은 H. M. White Site Architects 에 의해 디자인되었으며 이 정원은 The Times Center 오디토리엄에서 바라 볼 수 있다. 로비에서는 투명한 유리와 흰색의 오크로 된 나무바닥, 그리고 노출된 강철 기둥이 경쾌한 느낌을 준다.

저층의 건물은 세 개층의 뉴스룸이 붉은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천장은 채광창으로 되어 있다. 각 층은 엘리베이터로 가는 지름길로서 두 개의 상호연결된 계단으로 되어 있다. Gensler사는 천정에 5X5 피트의 그리드와 조명 모듈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커튼월 멀리언과 나란히 정렬이 된다. 개인업무공간의 파티션은 모두 체리나무로 된 합판으로 되어 있으며 22개 층의 모든 로비는 색감이 있는 가구가 배치되어 있다.

14,15층의 두 개 층으로 된 까페테리아는 건물의 서쪽에 면해있어 도시의 멋진 풍경을 바라볼 수 있도록 되어있다. 까페테리아의 실내는 Piano에 의해 디자인되었으며 가구는 Arne Jacobsen의 가구를 사용하였다.

Liberty Memorial/National World War I Museum, Missouri
ASAI Architecture

ASAI Architecture의 새로운 National World War I Museum과 훌륭하게 재건된 자유 기념탑이 모든 전쟁의 종식을 위한 전쟁에 대해 근엄하게 이야기한다.

Missouri 주 Kansas City의 1차 세계대전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세워졌던 기념비는 당시에도 완전히 현실화 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그 상징성이 주는 무게감과 그에 비해 전시할 만한 것들이 미비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기에 세월이 흐름에 따라 완성시키려는 열망마저 사라져 갔다. 1990년대 중반까지 이 건물은 매우 심하게 파손되어 위험성이 커져가 결국은 담을 둘러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자 시민들은 이 건물의 재건축에 투자하기 위해 스스로 세금을 내기로 하고 National World War I Museum을 짓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노력들이 시작되었다. ASAI Architecture는 이 재건축 설계경기에서 당선되었고 먼저 기존의 기념비 아래에 새로운 박물관을 재건하기 위해 노화된 콘크리트 프레임으로부터 작업을 시작했다.

ASAI Architecture는 탑의 꼭대기에서 솟아오르는 불꽃과 수증기는 포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꽃의 모양을 형상화하였다. 정북방향에서 11도 정도 기울어진 사이트는 휴전이 성립된 그 날에 경의를 표하기 위함이다. 또한 기념탑이 있는 데크를 향해 있는 기존 가로수 길의 위로 향한 경사를 그 아래 공간으로부터 분할되어진 새로운 박물관으로 갈 수 있도록 반대로 뒤집어 놓았다.

방문객들은 반짝반짝 빛나는 연못을 지나 완만하게 경사진 인디아나 라임스톤으로 된 벽에 있는 청동으로 된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된다.

박물관으로 가는 사람들은 전쟁에서 전사한 군인들 9,000명을 상징하는 9,000개의 양귀비 꽃밭 위에 놓여 진 유리로 된 다리를 통해서 건너가게 된다. 탑은 천장의 채광창을 통해 볼 수 있으며 또한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는 벽에서는 방문객들이 인터랙티브한 디스플레이 시스템을 통해 그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게 되어 있다.

Ralph Appelbaum Associate의 특별한 전시 디자인은 연대별로 정리하여 보여줌으로써 방문객들로 하여금 이 복잡한 이야기들을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유물을 전시하여 보여주기 보다는 모든 것을 상황에 맞게 적절히 배치했다. 자유 기념탑의

데크 위에 있는 두 개의 파빌리온, 전시관, 기념관은 애정을 기울여 복원하였다. 각 시대별로 중요한 것은 그래픽을 이용한 디스플레이로 설명하고 있다.

The Gary Comer Youth Center, Chicago / John Ronan Architects

John Ronan의 밝고 과감한 Gary Comer Youth Center는 시카고 남쪽의 야심찬 의제를 지원한다.

시카고 중심의 상업지구 주변에 매끈한 오피스 건물과 고급 아파트들이 마치 잡초가 싹을 틔우듯이 들어선 것과는 달리 시카고 남쪽은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는 빈 대지들과 공장, 그리고 허름한 목재 프레임과 벽돌로 된 주택들만 가득하다. 이 황량한 주변 가운데 어울리지 않는 건물이 지어졌다. Land End를 설립한 Gary Comer가 재정 지원한 이 건물은 그가 78세의 나이에 암으로 별세하기 몇 달 전인 2006년 7월에 완공되었다. Comer의 희망사항은 10대의 약물사용과 폭력과 투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28년 된 행렬 퍼레이드 그룹인 South Shore 시범 부대의 300여명을 위한 집을 짓는 것이었다. 그러나 Comer의 건물에 대한 열망이 점차 커짐에 따라 거의 매주 공간 프로그램이 확장되어 결국 이 자선가는 이 건물을 통해 레크리에이션과 교육까지도 지원하게 된다.

Gary Comer Youth Center의 화려한 외관은 주변의 황량한 경관과는 반대로 활기를 띠게 한다. 아래쪽에 있는 현관을 숨기기 위해 툭 튀어나온 유리로 된 전시관을 포함하여 박스 형태를 한 매스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형상은 그 안의 공간이 얼마나 복잡할 것인지 짐작이 가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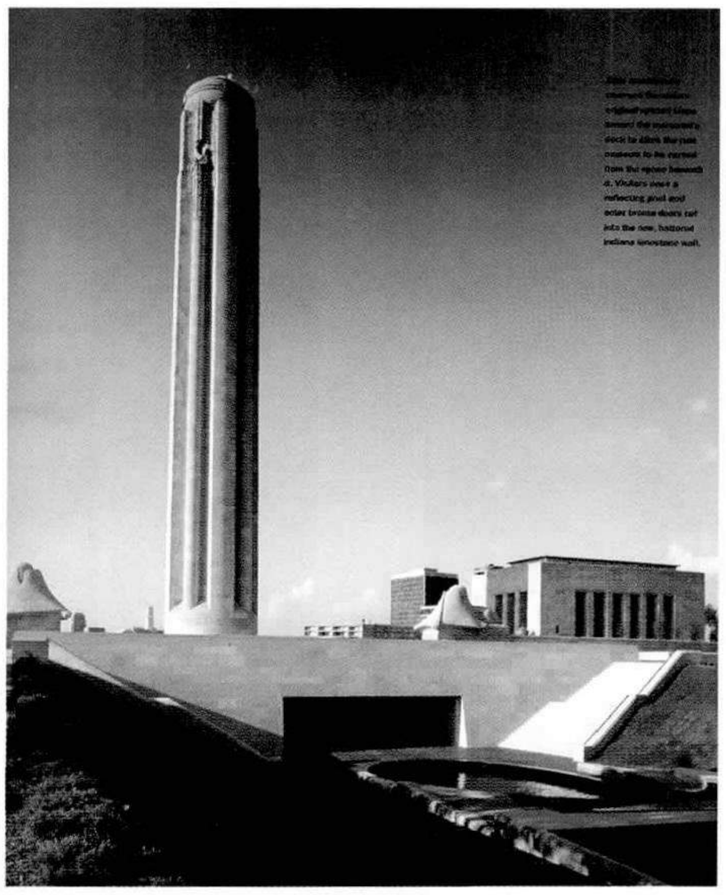
건축주는 먼저 벽돌건물을 원했다. 그러나 건축사는 벽돌은 창문이 별로 없는 건물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대담한 패턴의 패널을 이용하여 구조체를 감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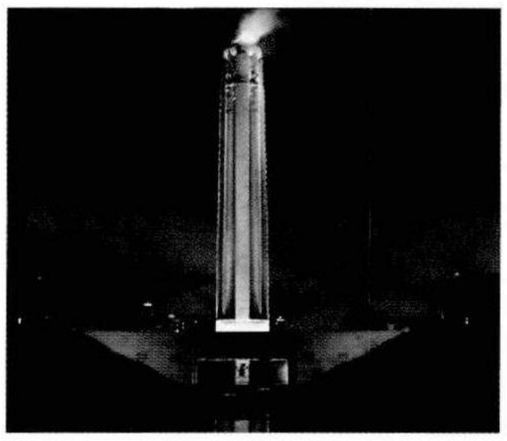
유리로 된 넓은 면은 입구 파사드로부터 돌출된 전시장과 같은 공간 계획 상 중요한 부분을 위해서 디자인 되었다. 건물의 반대쪽은 주차장과 시범 부대의 훈련 실습을 위한 옥외 공간으로 사용된다.

댄스 스튜디오는 깃발과 같은 소품들을 던지거나 회전시킬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높은 천장고를 가지고 있다. 순환형 복도를 포함한 3층의 다양한 공간에서는 어린이들이 채소나 허브들을 기를 수 있게 되어 있는 옥상 정원을 바라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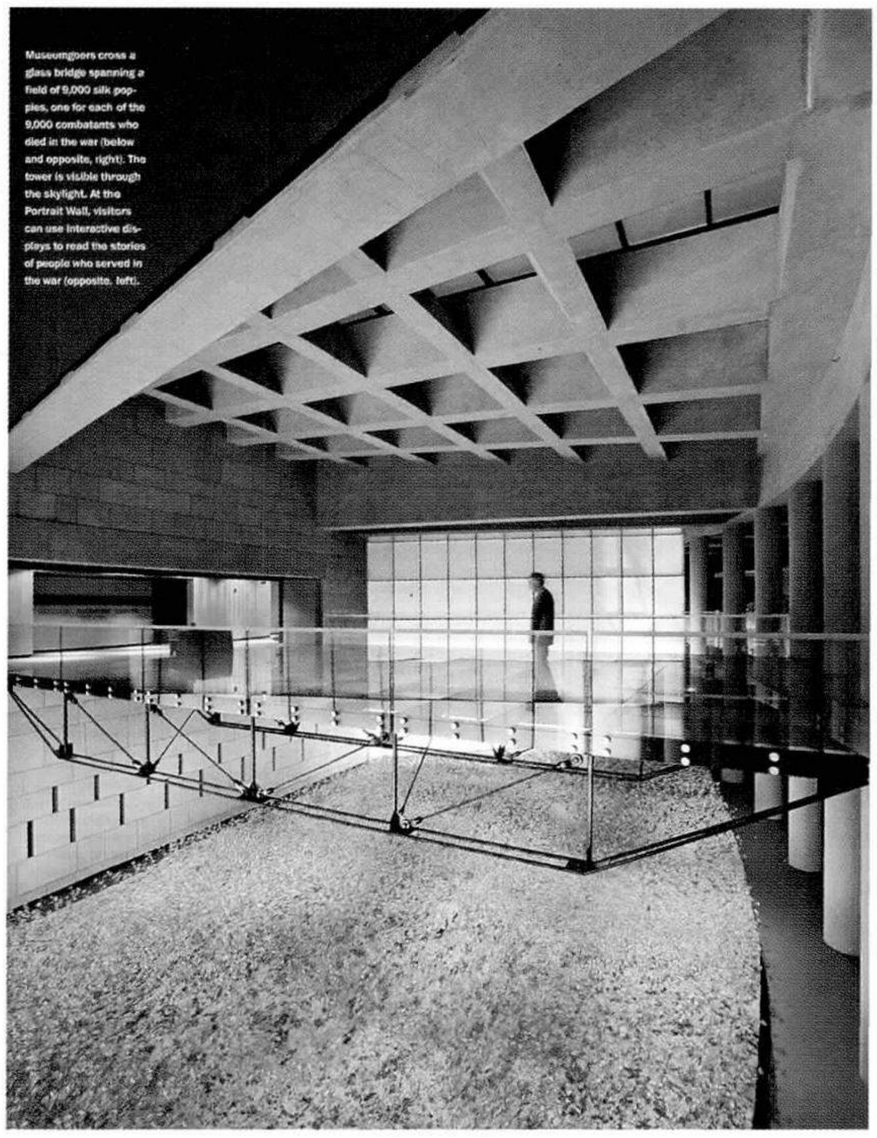
공간들은 모두 융통성 있게 변환이 가능하다. 3층의 전시공간은 방을 분할시키기도 하고 암실로 혹은 프로젝터를 쏠 수 있는 패널로도 사용될 수 있도록 펴고 접음이 가능한 전시패널로 되어 있어 넓은 공간을 작은 강연장으로도 전환시킬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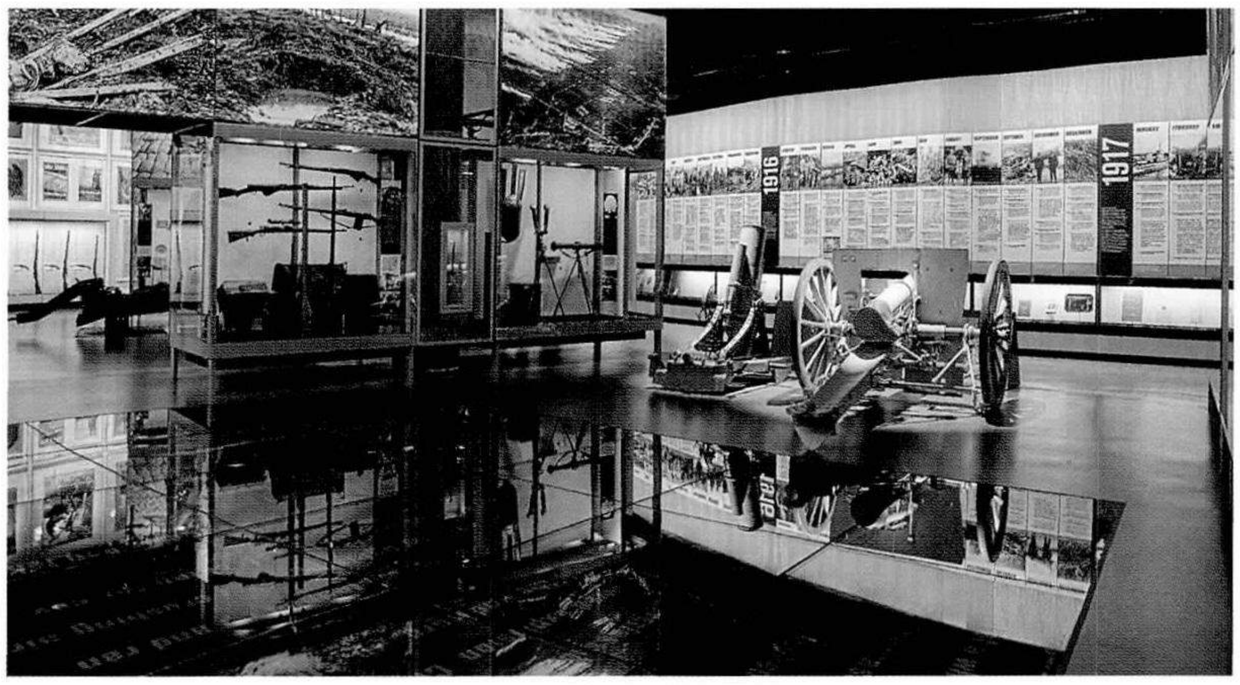
• Liberty Memorial/National World War I Museum, Missour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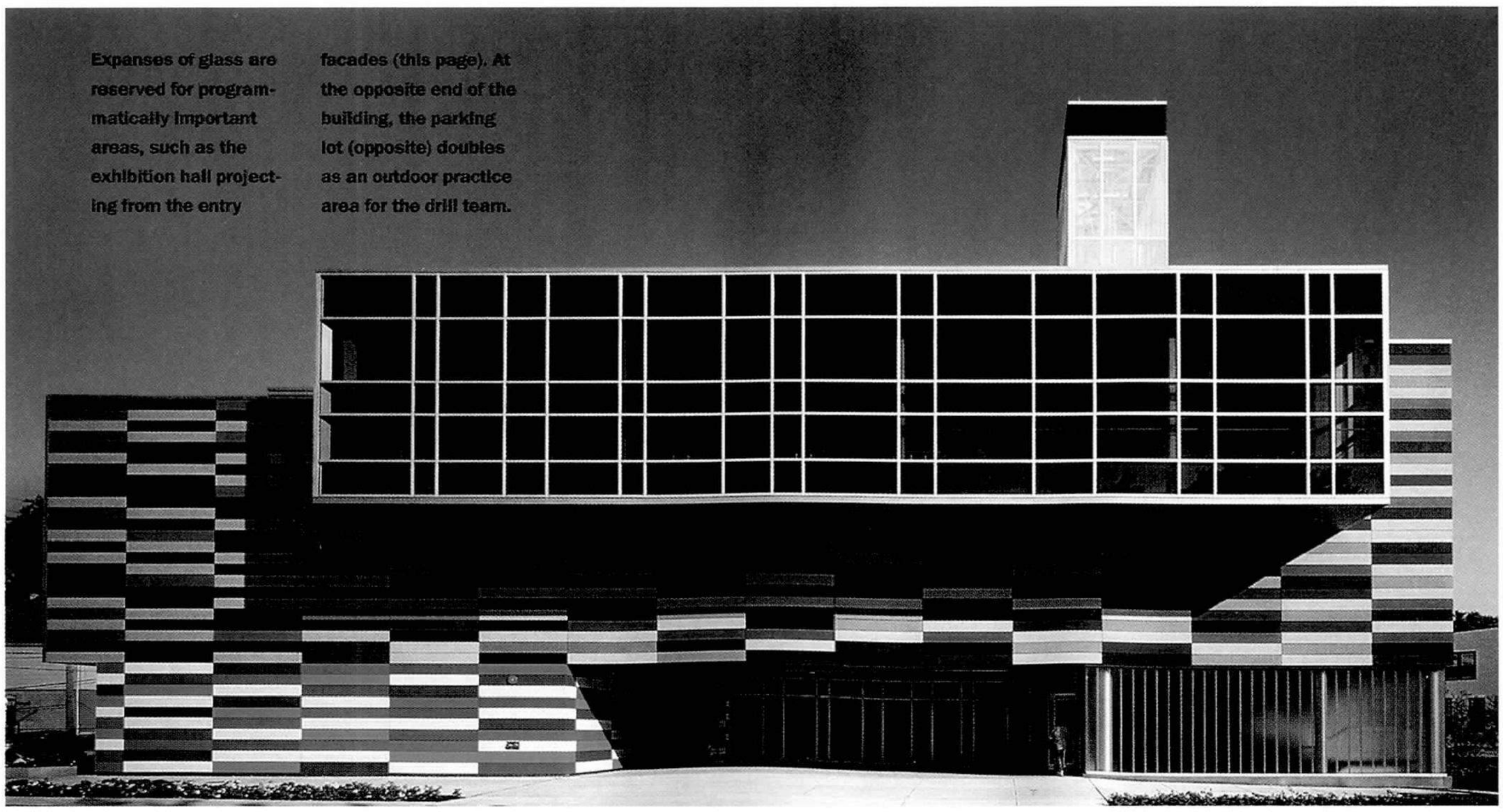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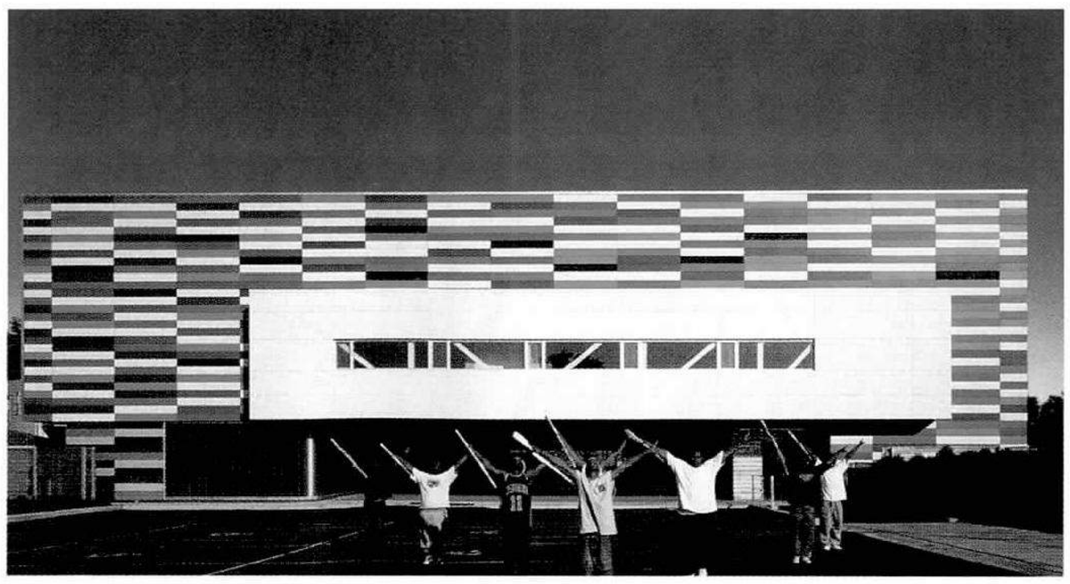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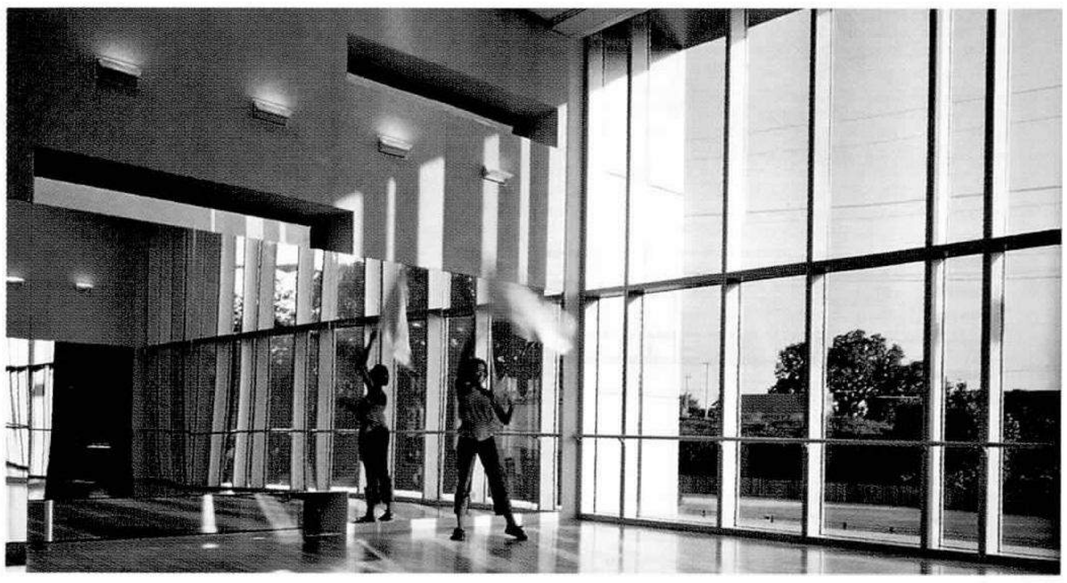


Expanses of glass are reserved for programmatically important areas, such as the exhibition hall projecting from the entry facades (this page). At the opposite end of the building, the parking lot (opposite) doubles as an outdoor practice area for the drill te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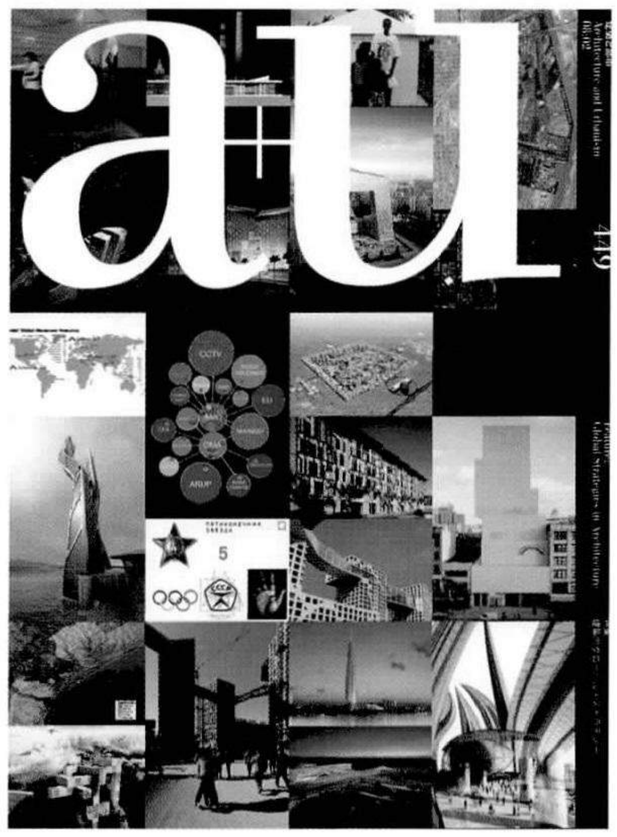








a+u



이번 2008년 2월호 a+u(449호)에서는 '건축의 글로벌 전략' 을 특집으로 다루고 있다. 미야우치 토모히사(宮內智久)는 이 특집을 다루면서 아래와 같이 느낌을 전하고, 전 세계에서 글로벌 전략을 펼치고 있는 대표적인 9개 건축사사무소를 간단히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그 사무소를 대표하는 건축사들과 각각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인터뷰한 내용을 그림과 함께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건축실무에 국경은 없고, 비즈니스 기회는 어느 곳이던 늘려있다. 상해, 뉴델리, 독일, 아부다비 등의 신흥도시에서는 도시화의 규모가 넓어짐에 따라 경제성장도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 도시는 제로부터 건설된다. 건축실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굉장한 신세계에 대한 행보를 맹세하고 프로젝트를 실현시키기 위해, 그곳에 재빠르게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되고 어중간한 것은 없다. 낯선 땅에 발을 들여놓은 이상, 건축사는 일의 방법을 공부하고,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실천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구축해 가게 된다.

한편 뉴욕, 로스앤젤레스, 홍콩, 동경 등 성숙기에 접어든 도시는 서로 21세기 허브도시를 꿈꾸며 어려움을 감내한다. 어느 것이나 다재편, 개조의 손을 더하며, 도시의 개성과 매력에 빛을 더한다. 여기에는 역사, 지역사회, 환경, 행정이라는 기존의 환경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가능한가가 승부가 된다. 한 건축사에게 요구되는 것은 도시라고 하는 이름의 직물을 능숙하게 그 얽인 실을 풀고 다시 짜가는 것이다.

새로움과 옛것. 신흥과 선진이라고 하는 두 갈래의 대립보다도 심각한 리얼리티가 바야흐로 전 세계에 퍼져있다. 거리를 쉽게 극복하게 되고, 차이가 간단히 사라질 정도로 이 세계는 평면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경제자본과 인적자본의 유동화가 진행되는 것과 함께, 이러한 자본은 상업적인 기회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유입된다. 건축실무세계도 많은 사람의 의견이나 행동에 빠지지 않고, 여기에도 다각화, 지리적 확대, 조직 내의 다극화가 점점 더 진행되고 있다. 세계시장에 참가하는 데에는 사람도 조직도 세계와 지역이라는 양쪽의 문제를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건축실무에 요구되는 것은 민첩성과 편재성(ubiquitous), 그리고 네트워크다.

한 건축사에 있어서 '디자인' 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주의 목적을 실현시키는 행위를 나타내는 반면, 특정문화와 환경에 있[illegible] 결집되어지는 문제해결 방법도 의미한[illegible] 축주로부터 요구되는 바램과 조건의 산에 매일 묻혀 지내면서, 건축실무의 현장은 점점 새로운 비즈니스 패러다임을 형성해 간다. 이번 호에 특집으로 다루어진 것은 이러한 과제에 대해 개략적인 각양의 접근을 보여주는 건축실무다. 그들이 어떻게 건축실무를 전개하고, 어떤 방책을 연마하고 있는가를, 그 일선에 있는 전문가들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또 완성까지의 프로세스를 따라가 보면서 소개해 가고 싶다."



박종철 / 정회원,
(주)인터스페이스디자인 건축사사무소
by Park, Jong-chul, KIRA

약력
영남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졸업
현 건축개혁실천을 위한
양심의소리(건양) 대변인
현 대한건축사협회 기획위원회,
건축사법개정T/F팀 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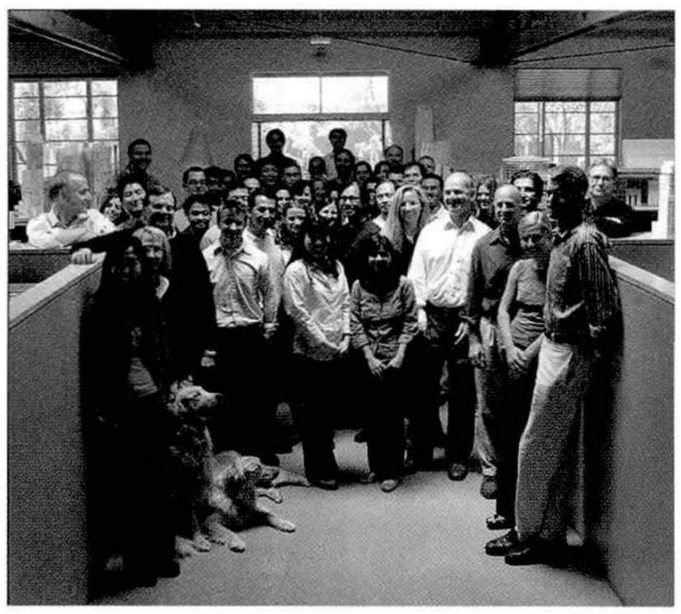
■ GRAFT



GRAFT는 1988년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설립되어, 2001년 독일 베를린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2005년 1월에는 중국 북경에도 3번째 사무소를 오픈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모인 90명의 프로페셔널에 의해 현재, 전 세계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들이 다루어온 작품의 빌딩타입은 호텔, 아트관련시설, 교육관련시설, 상업시설, 주거시설 등 다방면에 걸쳐있다. 활동의 가장 핵심에 건축과 환경구축이라는 분야를 진행하면서, GRAFT는 수련과 창조력을 융합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현실적인 방법론과의 사이에 있는 경계를 넘으려고 노력해 왔다. 이것은 그들의 사무소가 음악부터 케어디자인, 예술전람회, 학술프로젝트, 게다가 독일을 시작으로 에스토니아, 라토비아,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 중국 등 세계각지에서 개최되는 이벤트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본지에서는 4명의 건축사가 '대양에서 번영을 만나다

(Grafting in the Ocean)' 라는 제하에 인터뷰를 하고 있다.

■ Moore, Ruble, Yudell, Architects & Planners (M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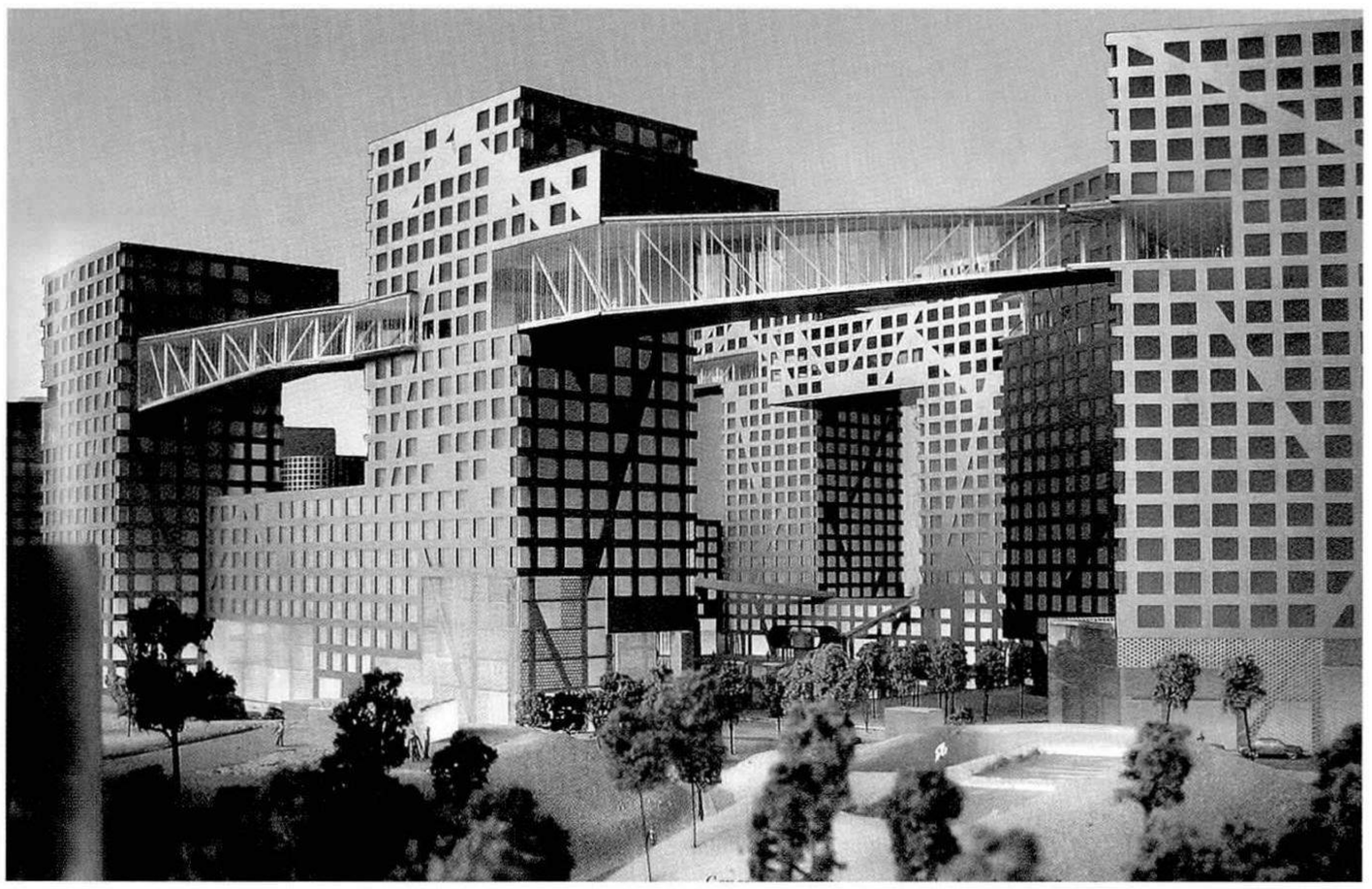


무어, 루블, 유델, 아키텍처 & 플래너스는 6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적인 건축사사무소다.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대학캠퍼스부터 공영의 문화시설, 병원, 상업시설, 주택까지 다양하게 걸쳐있다. 파트너 리드 격인 존 루블, 버즈 유델과 주임건축사인 크리스타 베커, 제인 쳉, 마이클 마틴, 닐 마쯔노, 제임스 마리 오코나, 그리고 마리오 비오리치를 근간으로 다양한 대표작품을 발표하고 많은 상을 수상하고 있다.

이 사무소는 2006년에 미국건축가협회(AIA)로부터 펌 어워드(Firm award)를 수상하고, 존 루블과 버즈 유델은 2007년에 로스앤젤레스 AIA골드 메달을 수상했다. 본지에서는 제인스 마리 오코나, 그리고 닐 마쯔노가 '브리지' 펌('Bridge' Firm)의 구축'에 대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 Steven Holl Architects

스티븐 홀 아키텍처는 1976년 뉴욕에 설립된다. 현재는 뉴욕과 북경에 사무소를 가지고 64명의 스태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무소는 국제적인 평가를 얻고 있는 설계팀으로, 그 우수한 디자인에 대해 건축에 관한 가장 권위 있는 많은 상을 수상한 것 외에 출판물과 전람회 등에서도 자주 소개되고 있다. 스티븐 홀 사무소는 각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하나의 구성개념에 건물의 계획 면과 기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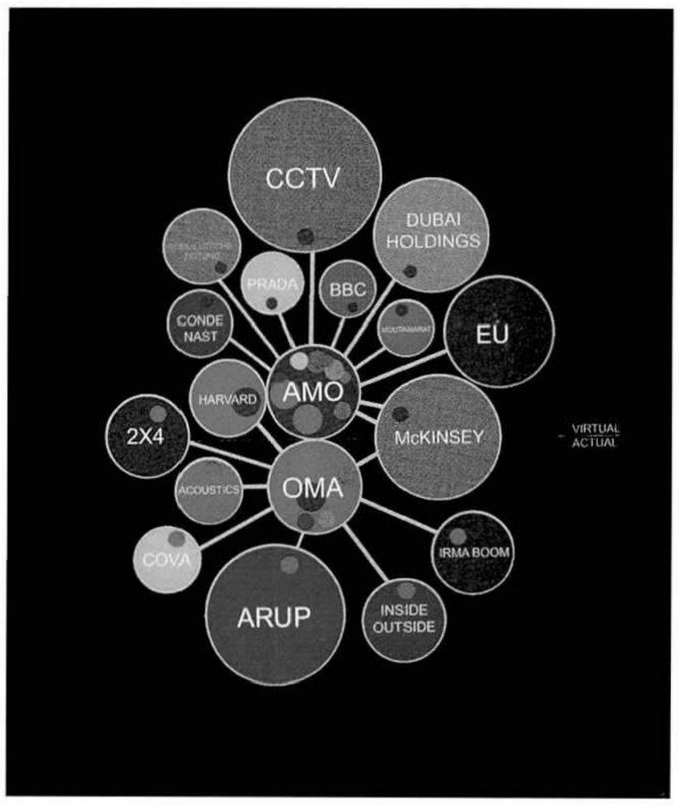
의 요소를 한데 모아가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 가고 있다. 다양한 부지와 기후 속에 한 개의 양식을 밀고나가는 것은 아니고, 또 요구되어진 것에 관계없는 것을 추가하는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과 부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건축아이디어로 이끌어내는 단서로써 착수하고 있다. 스티븐 홀은 파트너 리 후(북경사무소)와 크리스 맥보이(뉴욕 사무소)와 함께 이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본지에서는 리 후, 히데키 히라하라, 마티어스 미하엘 슈러가 '건축사와 엔지니어의 현장'에 대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 Aedas



아에다스는 전체 1,900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사무소로 손꼽히고 있다. 영국, 홍콩 그리고 미국을 거점으로 글로벌한 건축과 건축주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기술력의 향상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제공, 그리고 우수한 디자인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공통의 목표로 하고 있다. 아시아 부분에서는 홍콩을 거점으로 중국과 동남아시아, 더욱이 중국에 이르기까지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활동은 상업, 교육, 주거, 문화, 의약/연구소 등 광범위하게 미치고 있다. 본지에서는 앤드류 브롬베르그가 '설계를 리드하는 것'에 대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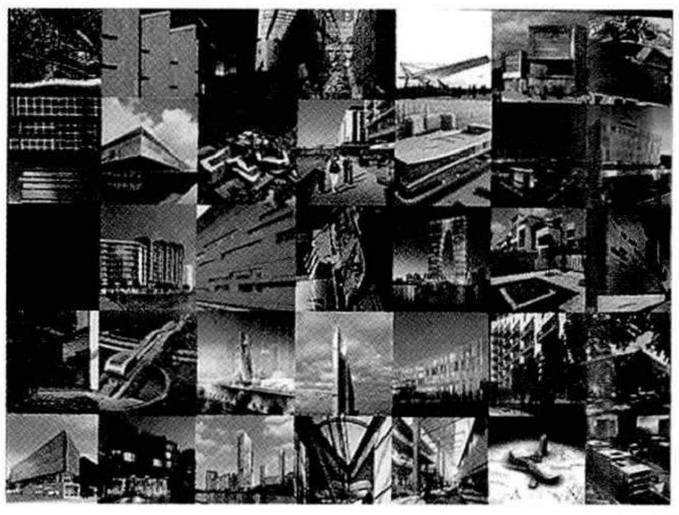
■ OMA / AMO



Office For Metropolitan Architecture (OMA)는 로테르담을 거점으로 현대건축, 도시 그리고 문화를 분석하고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사무소다. 이 사무소는 렘 쿨하스, 올 쉐렌, 엘렌 반론, 레니에 데 그라프, 플로리스 아크메이드 그리고 운영파트너인 빅토르 반 델 치지스 6인의 파트너가 이끌고 있다. OMA의 종래의 건축실무를 상대하는 것이 AMO이고, 로테르담 사무소를 거점으로 하

는 디자인리서치 사무소다. OMA가 건축과 도시계획의 프로젝트를 실현 시키는 것에 전념하는 한편, AMO는 사회학, 공학, 미디어 그리고 정책을 포함한 건축과 도시의 경계를 초월한 분야에 활동하는 연구기관이다. 본지에서는 레니에 데 그라프가 '직업언어' 에 대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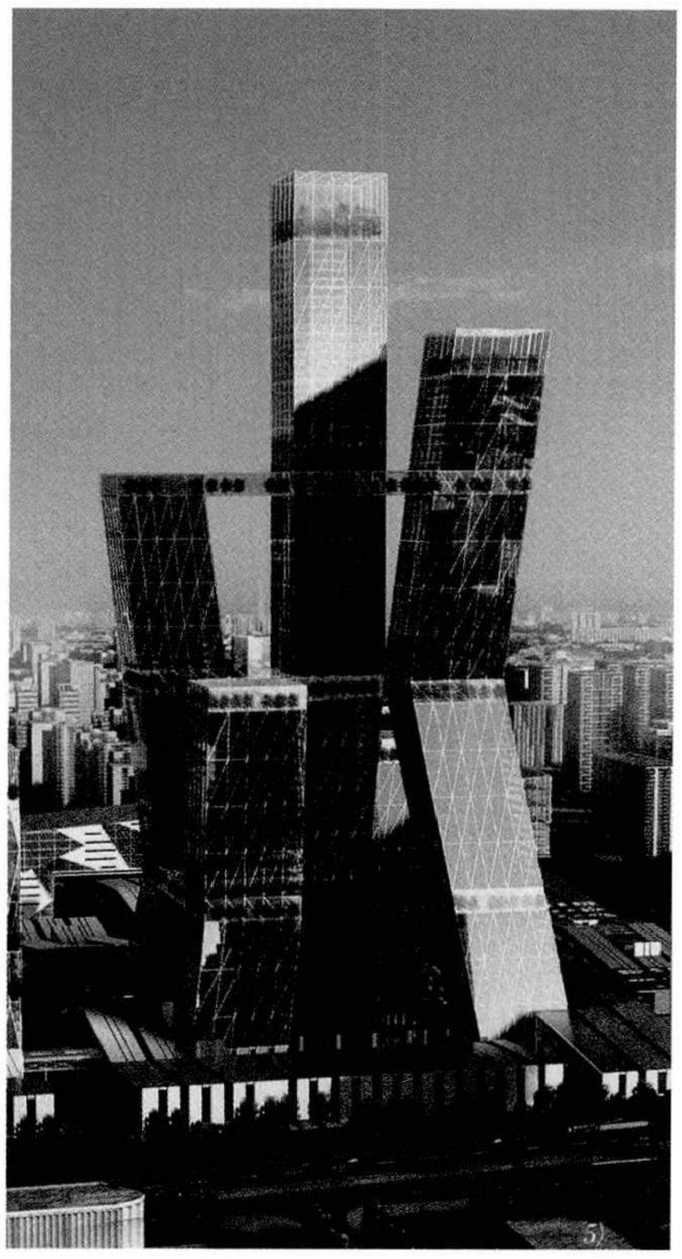
■ RMJM



RMJM사는 세계최대의 건축기업이고, 방콕, 북경, 캠브리지, 두바이, 에든버러, 글라스고우, 홍콩, 런던, 모스크바, 뉴욕, 필라델피아, 프린스턴, 상해, 싱가포르, 바르샤바, 워싱턴을 거점으로 세계 16곳에 국제사무소를 설치하고 직원은 약 1,200명이다. RMJM사는 최근에 세계에서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는 2개의 시장, 인도와 카자흐스탄에서 업무위탁을 받았다. 이것은 델리, 도하, 아부다비에서 사무실 확대를 위한 미래의 기폭제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장에 관한 철저한 지식, 디자이너의 기술, 건축주 중심주의 태도는 세계의 어떠한 장소에서도 건축주의 요구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문맥, 문화, 기후에 대응한 독특하고 혁신적인 건물창출에 공헌하고 있다. 본지에서는 피터 모리슨이 '설계에 대한 세계변동, 비즈니스와 프로패션' 에 대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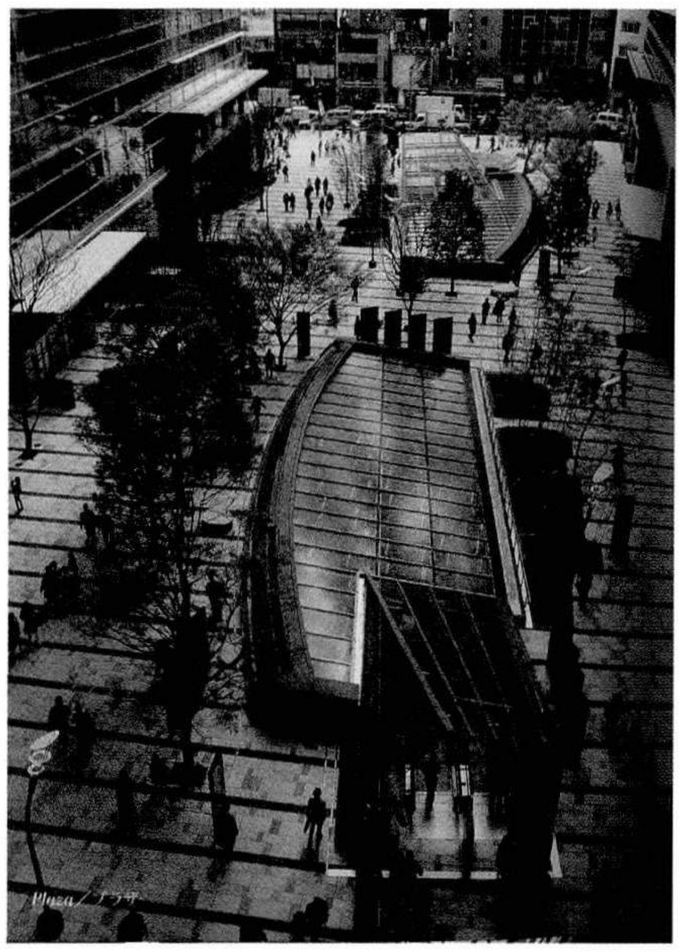
■ 상해현대건축설계(집단)

상해현대건축설계(집단)은 화동(華東)건축설계원과 상(上)건축설계연구원 등 20개 건축설계분야의 전문기업을 포함하는 과학기술계 기업이다. 그룹의 사업범위는 프로젝트건설에 대한 모든 과정의 컨설팅서비스



다. 3,000여명의 스태프에 의한 55년에 걸친 노력이 그룹의 많은 실적을 쌓고 30,000건 이상의 프로젝트설계 및 컨설팅서비스를 다루며, 많은 상을 수상하고 있다. 본지에서는 카오 지아밍이 '발전으로의 전략' 에 대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 EDA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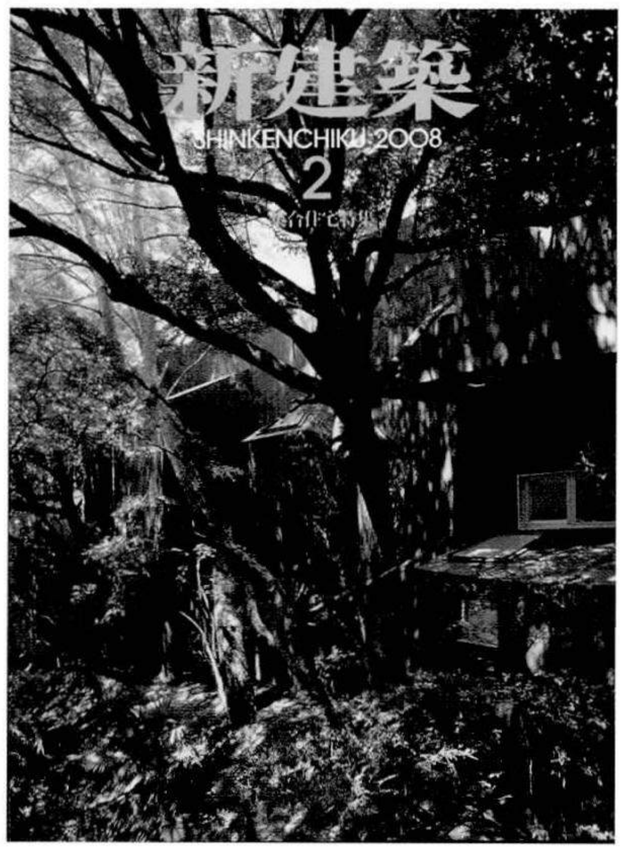
EDAW는 반세기에 걸쳐 조경설계, 도시디자인 그리고 환경계획분야의 길잡이가 되어 있고, 복잡하게 되어가는 부지의 문제에 익숙한 EDAW는, 소재의 적절한 사용과 환경향상 양면을 만족하는 계획과 디자인에 대처하고 있다. EDAW는 환경 매니지먼트의 모든 측면에 주목하고 있다. 계획과 이론, 환경분석, 실지(實地)설계, 그리고 실시에 이르는 모든 것을 일연의 설계행위로 보고하고 있다. 본지에서는 죠 브라운이 '조경을 포함한 컨설팅' 에 대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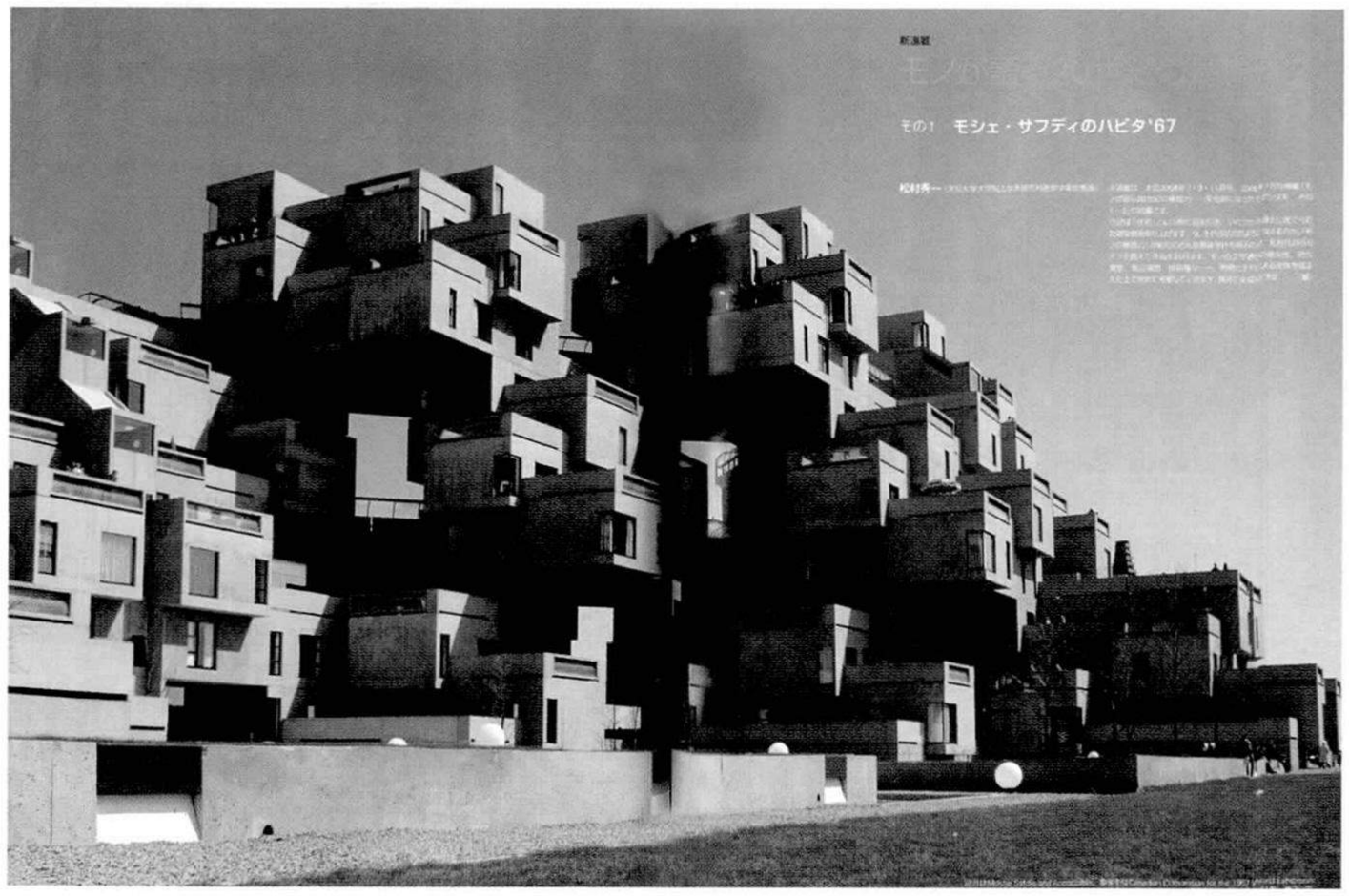
■ Architecture For Humanity (AF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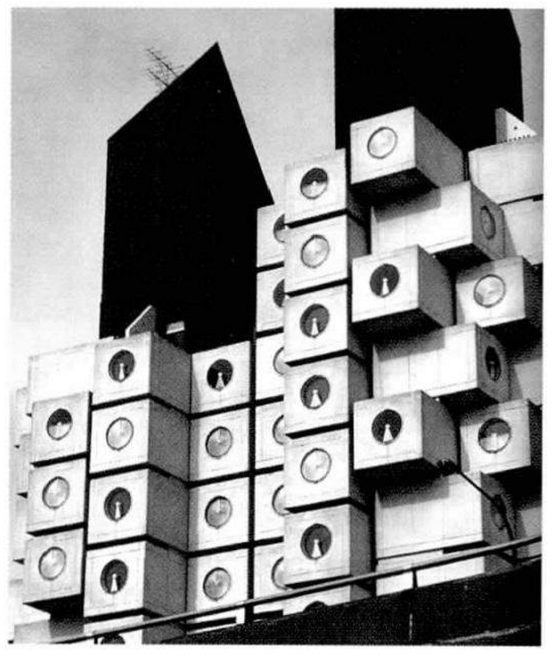


Architecture For Humanity(AFH)는 인도적인 문제에 대해 건축적 해결을 찾고, 또 커뮤니티에 대해 필요에 응하는 디자인을 제공하는 자선조직이다. 1999년 카메론 싱클레어에 의해 설립되었다. AFH는 설계경기와 워크샵, 교육포럼, 커뮤니티조직과의 협동과 기타 활동을 통해서 세계속의 건축사와 디자이너에게 필요에 응하는 커뮤니티지원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AFH는 Open Architecture Network(OAN)을 설립했다. OAN은 전문가의 지원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전문가에 의한 참여형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으로, 피해후의 커뮤니티 재건을 도와주는 것과 함께, 세계속의 커뮤니티파트너로의 무상디자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본지에서는 카메론 싱클레어와 댄 샤인이 '인도(人道)적 디자인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에 대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新建築







이번 2008년 2월호 신건축에서는 도시에 있는 집합주택을 12개의 실제사례와 각각의 해설과 대담, 그리고 특별기사 등에 따른 특집으로 소개하고 있다. 프로젝트를 포함한 13개의 집합주택 배치도를 축척 1/1,500으로 북쪽을 위로하여 구성하고 있다. 각각의 주변 환경은 당연히 다르지만, 이번에는 모두가 도시형 집합주택으로 구성되었다. 각각의 가로에 대응하는 방법과 많은 사람들이 밀도 높은 곳에서 거주하는 생활을 상상하는 것으로, 지금 '도시주거' 의 일면이 보일지도 모르겠다. 연재기사로 '캡슐타워' 디테일을 볼 수 있고, 또 새로운 연재에서 '하비타 '67' 이 재 고찰되어 있다. 둘 다 40년 전에 지어졌다.

